

영웅의 조건

눈앞의 사람은 바로 양과였다. 그는 16 년간이나 소용녀와 다시 만날 날을 학수 고대하며 천하를 주유하면서 의롭고 뜻 있는 일을 행했다. 그는 줄곧 신조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신조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자와 인연이 많아 공손녹악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잃었으며, 정영과 육무쌍도 일생을 상심에 젖어 지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늘 황약사가 만든 그 인피면구를 쓰고 다녀 진면목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지 않았던 것이다.

서산 일굴귀는 야수들의 포위 공격 아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돌연 양과가 왔다는 소리를 듣자 강적 한 명이 더 늘었다고 생각했다.

(틀렸구나. 다 틀렸어. 마지막 한 가닥 살아날 희망도 이젠 끊어져 버렸구나.)

양과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들은 만수산장의 사씨 형제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잠시 손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 보시오.]

사백위가 말했다.

[우리들의 성이 바로 사씨라오. 귀하는 누십니까?]

곧이어 사백위가 계속 말했다.

[아, 졸안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바로 신조협이 아니십니까?]

[그렇소이다. 어서 이 맹수들을 물려 주시오. 조금만 더 봐 둔다면 가짜 귀신도 진짜 귀신이 될까 두렵소이다.]

사백위가 말했다.

[저들이 진짜 귀신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신과 얘기를 나누어야겠소.]

양과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산 일굴귀는 이 몸과 선약이 되어 있는데 맹수들에게 물려 죽게

된다면 난 누구와 얘기를 하지요?]

사백위는 양과의 말투가 점점 무례해지자 흐흐, 냉소를 날리며 도리어 맹수들을 더욱 사납게 공격하도록 몰았다. 양과가 소리쳤다.

[내가 신조협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요?] 사백위가 웃으며 말했다.

[신조협이 어쨌다고? 능력 있으면 스스로 맹수들을 물리쳐 보시지!] 양과가 말했다.

[좋다! 조형, 내려갑시다!]

그는 오른쪽 소매를 펼럭이며 수리와 함께 나무줄기 위에서 사뿐히 내려왔다. 야수들은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신조가 두 날개를 펼쳐 펼럭이자 강렬한 바람이 일었다. 늑대, 이리 등 체구가 작은 야수들은 바람에 밀려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져 버렸고 사자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신조가 날개를 짝 펴 휘두르자 1천 근이나 되는 힘이 일어나 사자와 호랑이가 동시에 나가 떨어졌다. 이어 왼쪽 날개로 금새 표범의 머리통을 후려갈기자 그 금색 표범은 땅에 쪽 뺨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맹수들은 수리의 이 같은 위맹에 놀려 한 마리도 달려들지 못하고 모두 멀리 떨어져서 웅크리고 앉아 우우, 하고 나직이 울부짚었다.

사백위는 화가 치밀어 손을 호랑이 발톱처럼 만들어서 양과의 가슴을 향해 달려들었다. 양과의 오른쪽 어깨가 가볍게 들썩하자 소매가 아래에서 위로 펴, 하며 그의 두 손목 위에 격출되었다. 사백위는 심한 통증을 느껴 그만 <으악>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사숙장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일장을 내뻗었다. 양과는 <훌륭한 무공!>이라고 말하고는 좌장을 뺨어 맞서며 웃으면서 삼성의 장력을 사용했다. 그는 10 여 년 간을 파도 속에서 연공하였기 때문에 장력을 다 사용한다면 인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무나 두꺼운 담장까지도 단 1장이면 박살나게 될 판이었다. 사숙장은 일찌기 이인(異人)에게 무공을 전수받아 내공이 범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몸이 흔들거리기는 했지만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양과가 말했다.

[조심하시오!]

장력을 밀어 젖히며 다시 2 배의 힘을 가했다. 사숙강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꼈다. 순간 양과의 말소리가 들려 왔다.

[아, 이제 보니 당산은 몸이 병들었구만!]

몸에 밀려들었던 바다 같고 산 같던 거대한 힘이 순식간에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사숙강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자 멍하니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서 있었다.

백위.중맹.계강.맹첩 등 사씨의 네 형제는 사숙강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자 그가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화가 치밀어 일제히 양과를 덮쳤다. 양과가 몸을 약간 굽히는 순간 마침 옆에서 맹호한 마리가 숨어들었다. 양과는 손을 뻗어 맹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그것을 방패삼아 사중맹의 은관과 사계강의 동방망이를 막아냈다. 그는 호랑의 네 발로 사백위와 사맹첩의 얼굴과 가슴팍을 마구 할퀴게 했다. 양과는 10 여 년 전 무게가 70 여 근이 나나가는 현철중검을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랑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이 호랑이는 몸집은 칩채만 하고 무게는 백수십 근이나 나갔다. 호랑이는 목덜미를 잡히자 놀람과 분노가 교차되어 주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 으르렁대며 사씨 형제를 할퀴고 물어뜯었다. 백위.맹첩, 두 사람은 평소에는 비록 맹수를 잘 다루었지만 지금은 마구 허둥댔다.

곽양이 곁에서 손뼉을 치며 웃으면서 말했다.

[신조협, 훌륭한 무공이에요. 사형제가 꿈쩍 못하네요!]

양과는 그녀에게 눈길을 돌리며 생각했다.

(이 아가씨는 어느 쪽인가? 꽃표범과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사씨 형제들을 조소하고 있으니.....)

사숙강은 두 차례 토사를 하고 나자 호흡이 편해지는 것이, 내상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았다. 신조협이 사정을 봐 주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만약 무공을 다 발휘한다면 우리 다섯 형제가 다 덤벼들어도 그의 적수가 안 되겠구나.)

보아하니 둘째형과 네째가 병기를 꺼내 들고 양고에게 달려들 틈만 노리고 있었다.

[둘째형, 네째! 어서 손을 멈춰요.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겁이 많은 사중맹은 그 소리를 듣자 내뺐었던 은관을 얼른 회수했다. 그러나 힘이 장사인 대력신 사계강은 안하무인인지라 속으로 생각하길,

(무슨 위험을 알라는 말이야? 우선 내 방망이 맞이나 보고 말씀하시지.....)

그는 두 손으로 방망이를 들어 위잉, 하며 양과의 머리를 내리쳐 갔다. 이 일초는 거상개산으로 불리는데 커다란 코끼리가 긴 코로 물건을 내리치는 자세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의 동방망이는 코끼리의 코의 형상으로, 앞은 가늘고 뒤가 굵으며 약간 굽어있어 양강 가운데도 음유의 힘이 있었다. 이렇게 내리치자 기세는 상당히 맹렬했다.

양과는 피하지도 않고 맹호를 내던져 버리고는 좌장을 뒤집어 이미 코끼리 코 같은 방망이 끝을 거머쥐고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누구 힘이 더 센가 겨루어 볼까?]

사계강이 힘껏 내리쳤지만 상비저는 양과의 머리 위에서 멈춘 뒤 조금도 더 내려가지 않았다. 사숙강이 소리쳤다.

[네째야, 무례하게 굴지 말아라!]

사계강은 동방망이를 거두어 들이려고 힘껏 잡아 당겼다. 그러나 방망이 끝이 양과에게 잡혀 있어 마치 시우쇠에 늘어 붙은 것처럼 꼼짝도 안 했다. 사계강이 잇달아 세 차례 힘을 주어 봤지만 끝내 잡아 빼지 못했다. 양과는 그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 생각했다.

(내가 신공을 보이지 안는다면 이 힘만 믿는 멍청이를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겠군.)

갑자기 왼손을 위로 급히 꺾었다. 이렇게 꺾는 힘은 방망이 중간에 집중되어 그 힘이 교묘하고도 위맹스러웠다. 사계강은 손을 놓지 않으면 위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방망이를 짝 쥐고 있었다. 그 코끼리 코 같은 굵다란 동방망이는 기억자 모양으로 곧 휘어지게 되었다 양과가 <자!>하고 소리치며 밀으로 핵 꺾었다. 동방망이는 다른 쪽에서 굽어지더니 딱, 하고 두 동강이 나 버렸다. 사계강은 두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호구가 찢어져 선혈이 낭자해졌다. 그러나 이 거한은 여전히 방망이 손잡이를 짝 쥔 채 놓지 않고 있었다. 양과는 꺾꺾 웃으며 손을 휘둘러 반 동강이 난 동방망이를 땅에 꽂았다. 순간 방망이가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땅에는 눈이 1척도 채 쌓이지 않았다. 그 부러진 방망이는 3척이나 되는 길이였는데도 그가 꽂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 그의 신공에 모두들 놀랐다. 양과가 주위를 천천히 돌아 보니 사숙강, 사맹첩 등이 맹수들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맹수들은 야성이 발작한데다 또 피를 보았기 때문에 저지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양과는 곽양에게 손가락으로 두 귀를 들어 막으라고 손짓했다. 곽양은 그 이유를 몰랐으나 그가 시키는 대로 귀를 막았다. 양과의 고탐소리가 창공에 길게 울려 퍼졌다. 곽양은 이미 두 귀를 틀어 막았지만 그래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비틀비틀 취한 듯 발걸음이 안정되지 못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친이 전수해 준 현문정종 내공을 수련한 덕에 비록 무공은 알았지만 내공의 기본은 상당히 견실하여 무림계의 보통 고수보다는 위였다. 그래서 양과의 이러한 고탐소리를 듣고 끝내 쓰러지지는 않았다.

양과의 고탐소리에 모두들 안색이 변하고 야수들은紛紛히 쓰러졌다. 이어서 서산의 십귀와 사씨의 형제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10여마리의 코끼리와 사숙강, 그리고 곽양 두 사람만이 간신히 서 있었다. 신조는 고개를 치켜들고 주위를 훑어보며 사뭇 오만한 빛을 띠었다. 양과는 이 병자의 내공이 대단하긴 하지만, 자기가 재차 고탐을 지르

면 이내 그가 쓰러져 극렬한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긴 소매자락을 한차례 흔들며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사람들과 맹수들이 천천히 일어섰다. 늑대, 이리 등 조그만 야수들은 고함소리에 기절해 깨어나지 못했고, 눈발 위에는 여기저기 맹수들이 놀라서 싸 갈긴 똥오줌이 보였다. 맹수들은 사씨 형제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꼬리를 감춘 채 분분히 숲속으로 도망가는데 뒤돌아보는 놈은 한 마리도 없었다.

사씨 형제와 서산 일굴귀가 평생토록 어디서 이러한 위력을 보았으랴! 모두들 멍청히 선 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양과가 말했다.

[사씨 형제는 무례를 용서하시오. 단지 이 몸이 서산 일굴귀와 약속이 있어 쌍방의 손을 멈추게한 것 뿐이오. 이 몸이 일을 다 본 후 당신들이 다시 고하를 논한다면 난 아무 편도 들지 않고 곁에서 가만히 지켜 보겠소.]

하며 고개를 돌려 살신귀에게 말했다.

[어때요? 당신들 한 명 한 명이 나와 차륜전을 벌일까, 아니면 열 명이 한꺼번에 덤빌까?]

살신귀는 비록 몸을 일으켰으나 그의 고함소리에 심하게 흔들린 나머지 아직 정신이 없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장수귀가 앞으로 나와서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는 공손하게 말했다.

[신조대협, 당신의 무공은 우리들과 천지 차이입니다. 서산 일굴귀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덤비겠습니까? 우리들 목숨은 모두 당신이 구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후 어떤 분부라도 내리기만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산서로 물러나라 하신다면 우린 잠시도 어긋거리지 않고 곧바로 떠나겠습니다.]

양과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벌써 의혹이 생겼었다.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물었다.

[당신은 성이 번씨이고 별명은 일웅이 아닙니까?]

이 장수귀는 바로 절정곡주 공손지의 수제자인 번일웅이었다. 그는 양과에게 용서받고 벽지에 은거해 있다가 수 년 후 강호에 다시 바을 들여놓았는데, 자신의 탁월한 무공으로 서산 일굴귀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가 양과를 처음 봤을 때는 양과의 팔이 절단되지 않았었고, 지금은 또 인피면구를 착용하고 있어서 더욱 알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곧바로 굽히며 대답했다.

[소신이 바로 번일웅입니다. 신조대협을 따르겠습니다.]

양과가 갑작스럽게 미소를 띠며 손을 들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 주길 바라오. 서산 경계로 물러날 필요는 없고..... 살신귀 노형! 당신은 네 명의 첩을 내쫓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오.]

살신귀는 <예!>하고 대답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네 명의 첩들이 만약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인이 몽둥이로 그 여자들을 내쫓겠습니다.]

양과는 깜짝 놀라 그날 살신귀의 다섯 처첩들이 땅에 꿇어앉아 그를 위해 빌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녀들이 가기를 원하는데 억지로 머물게 하면 안 된다는 애기지요. 만약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당신은 네 명의 첩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살신귀가 말했다.

[소인이 염치가 없지요. 집안의 큰 여편네와 작은 여편네가 싸움을 해 그만 신조협이 걱정하게 되었군요. 게다가 하마터면 여러 형제 자매의 생명을 해칠 뻔했구요.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감히 헛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소인이 만약 그러려고 해도 큰 형님께서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모두들 그 말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양과는 말했다.

[좋소. 내 볼 일은 이미 끝났으니 당신들 쌍방은 계속 겨루어 보시

오.]

그는 신조와 함께 옆으로 물러나 뒷짐을 진 채 사씨 형제와 서산 십귀의 재결투를 기다렸다.

변일웅이 읊을 하며 나와 사백의에게 말했다.

[서산 십귀가 멋대로 귀장에 뛰어들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은 이만 헤어질까 합니다. 헌데 귀장은 산서에 계속 있을 작정입니까? 아니면 양주로 돌아갈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사백의는 그의 말 중에 복수하러 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듣고는 오기 있게 말했다.

[우리 형제들은 양주에서 당신들이 오기를 기다리겠소. 만약 우리 세째가....., 끝내 치료되지 못한다면 이 원한은 끝날 수가 없겠소. 여러분들이 양주에 올 필요 없이 우리들 사형제가 찾아갈 것이요.]

변일웅이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다.

[사숙강의 병환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사백의는 노기추천하여 어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내 세째 동생.....]

사숙강이 장탄식을 하며 말했다.

[형님, 이 일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서산 일굴귀도 아무생각 없이 실수를 한 것이에요. 나의 운명이 그래서 그런 것이니 쓸데 없이 원한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사백의는 억지로 화를 삭이고 있었다. 그는 변일웅에게 포권의 예를 취하고 말했다.

[청산이 바뀌지 않고 녹수가 계속 흐르는 한,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요.]

그개를 돌려 양과에게 말했다.

[신조대협, 우리 형제들이 앞으로 삼십 년 더 무공을 쌓는다 해도

당신의 적수가 못 됩니다. 당신께 완전히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후로는 감히 당신 앞에 나서지 않겠소. 당신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먼저 피해 가면 되겠지요?]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사형께서는 말투가 너무 정중하십니다.]

사백위가 말했다.

[가자!]

그는 사숙강 곁으로 가서 그의 팔을 부축해 몸을 돌려 걸어갔다.

번일웅은 그의 말 중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황급히 말했다.

[사형제, 잠깐만 걸음을 멈추시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 열 형제가 귀장에 뛰어든 것 외에 무슨 다른 잘못이 있는지요? 만약 정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서산 일굴귀는 머리를 바쳐도 두렵지 않으며 귀형제들에게 절을 해도 부끄럽지 않겠소.]

사백위는 방금 그들이 맹수들의 포위와 공격 속에서도 모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비가 분명한 것을 보자 처연히 말했다.

[당신들이 구미영호를 놀라게 해 달아나게 한 이상 새재의 내상을 치료할 수 없게 되었소. 당신들이 일천 번, 일만 번 절을 한다 한들 무슨소용이 있겠소이까?]

번일웅은 깜짝 놀랐다. 사씨 형제들이 맹수들을 대거 이끌고 그조그만 짐승을 쫓던 일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 조그만 짐승이 무슨 그토록 중대한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살신귀가 말했다.

[그 조그만 여우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음, 사형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한 마리 여우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사계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 그리 대단하냐고? 당신이 만약 그 구미영호를 잡아만 준다면 나 사계강은 당신에게 일백 번 절을 하겠소. 아니 일천 번이라도 내 기꺼이 절을 하겠단 말이오!]

여기까지 말하더니 말투 속에 슬픔이 가득하여 오열을 터뜨리려 했다. 변일웅이 생각했다.

(사씨 형제들의 짐승 다루는 솜씨는 당세에 그들과 비교할 자가 없다. 그들이 이토록 어렵게 여기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자신도 모르게 양과를 한번 쳐다보았다. 곽양이 참지 못하고 꺼어들었다.

[당신들은 설왕설래하지 말고 신조협에게 부탁해 보시지요!]

사중맹은 순간 생각해 보았다.

(이 신조협이 실로 예측하기 어려운 대단한 무공을 지녔지만 그라고 해서 반드시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하여 말하길,

[아가씨가 무얼 아느냐? 대라금선이 속세에 내려오지 않느냐면 누가 그 구미영호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양과는 그가 당당히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곽양이 말했다.

[그 구미영호란 도대체 어떤 희귀한 동물인지 사이숙에게 좀 물어 봐야겠군요.]

사중맹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작년 연말에 세째가 양주에서 싸움을 하였는데, 상대가 갑자기 암계를 써 그만 중상을 입게 되어.....]

곽양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사삼숙의 무공은 대단한데, 누가 그토록 지독한가요? 그에게 상처를 다 입히고요?]

사숙강이 말했다.

[소저는 잘못 알고 있어요. 본인은 사실 반딧불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소저가 그렇게 얘기 한다면 여기 계신 신조협의 조롱거리 밖에 안 돼요.]

곽양이 양과를 힐끗 보고 말했다.

[그분은 달라요. 난 지금 딱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예요.]

사중맹이 말했다.

[세째에게 중상을 입힌 자가 바로 몽고 왕자인데 곽도라고 불리지. 듣자 하니 몽고 제일 호국대사인 금륜법왕의 제자라고 하더구만.]

양과가 서서히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그랬었구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곽양이 양과에게 말했다.

[신조협, 그 몽고 왕자를 한번 혼내 주세요. 그래서 사삼숙의 한을 풀어 주세요!]

사중맹이 말했다.

[이 일로 신조협을 끌어들이 수는 없는 일ियो. 세째의 내상이 완쾌된 뒤 다시 그를 찾아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한다면 또 다시 지지는 않을 것ियो.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연마한 내공이 서로 달라 이 내상을 당한 후 오래도록 치유를 못했다고. 이는 반드시 구미영호의 피를 마셔야만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오.]

곽양과 서산 일굴귀가 일제히 말했다.

[아, 그랬군요.]

사중맹이 말했다.

[그 구미영호는 상당히 희귀한 동물로 대단히 영리한 놈이지. 우리 다섯 형제가 장장 1년여나 찾아나닌 끝에 진남에서 겨우 여우의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이 여우는 호신술이 아주 놀라운데, 여기서 서북쪽으로 삼십여 리 정도에 커다란 늪지대가 있는데.....]

살신귀가 말했다.

[커다란 늪지대라? 혹시 흑룡담이 아닙니까?]

[그렇소. 여러분들은 진남에서 오래 사셨으니 잘 알고 있겠지요. 그 흑룡담은 사방이 모두 진흙 늪지대로 짐승조차 끼리는 곳이지요. 우리들은 상당히 애를 써서 그 늪을 이 숲속까지 유인했었지요.]

살신귀가 그제서야 깨달은 듯이 말했다.

[아! 그래서 사형제들께서 우리를 숲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군요.]

사중맹이 말했다.

[그렇소. 우리 형제가 진남에 온 것은 진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소. 그 구미영호의 재빠른 몸 동작은 여러분들도 직접 보아 잘 아실 게요. 우리들은 맹수를 이끌고 숲속을 쥐새끼 한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하였지요. 여우를 곧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당신들이 산 속에 불을 놓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수들이 놀라 이리저리 날뛰는 통에 그만 여우가 달아나 버린 것이지요. 우린 비록 전력을 다했으나 부끄럽게도 끝내 여우를 놓치고 말았소. 그 여우가 일단 자신의 보금자리로 도망쳐 보리면 다시 유인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세째의 중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일이 이렇게 자꾸만 지연되니..... 우리 형제들의 걱정하는 마음과 초조감 때문에 그만 이렇게 되었으니 혹 무타에 결례가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길 바라요.]

그는 말하면서 포권을 취하여 인사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양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번일웅이 말했다.

[이 일은 마땅히 우리 서산 십귀에게 그 잘못을 물어야 되오. 그런데 사형제들은 지난번 어떠한 방법으로 그 여우를 유인해 냈습니까? 이제 다시 그 때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사중맹이 말했다.

[여우란 놈은 의심이 많아 여간해서는 속임수에 안 빠지지요. 그 구미영호는 더더욱 영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들은 1천여 마리의 수탉을 이용해 수 장 건너 한 마리씩 구워 놓아 그 냄새가 흑룡담까지 흩

러 들어가게 했지요. 또 매일 한 마리씩 그 여우가 먹도록 하여 두 달 가까이 지나 경계심을 사라지게 만든 후 비로소 천천히 이 숲속으로 유인해 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놈은 하도 크게 놀라 아마 십 년이 지난다 해도 다시 속지는 않을 겁니다.]

번일웅이 그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히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흑룡담에 가서 잡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중맹이 말했다.

[그 흑룡담의 주위는 온통 늪지대로 길이가 십여 장이나 되는 곳이지요. 제 아무리 경공이 높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배나 뗏목, 심지어 나무판자조차도 사용하기 곤란하지요. 그 구미영호는 몸체가 작고 가벼우며 발바닥이 두껍고 몸놀림이 재빠르지요. 때문에 그놈은 늪지대에서도 미끄러져 갈 수가 있지요.]

곽양은 갑자기 짐에서 기르던 2마리의 수리가 생각났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수리의 등에 올라타서 놀곤 했었다. 이 신조의 몸체는 그녀의 집에서 기르던 2마리의 수리보다도 2 배는 더 컸으므로 능히 두 사람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곽양이 말했다.

[신조협, 당신이 도와 주려고만 한다면 방법이 있어요.]

양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씨 형제처럼 맹수들을 길들이는 집안에서도 속수무책인데 내가 도와 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중맹은 그의 말투에서 도와 줄 기미가 있는 것을 알았다. 이 일은 자기 형제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그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눈발에 꿰어앉아 양과에게 절을 하고서 말했다.

[신조대협, 동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대협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백위, 사계강, 사맹첩 세 사람도 모두 꿰어앉았다.

양과는 황급히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연신 <천만의 말씀>을 연발했

다. 그는 번갯불 같은 눈빛으로 곽양의 얼굴을 훑어본 후 말했다.

[방법이 있다고 말했는데 어디 소저의 고전을 들어 봅시다.]

곽양이 말했다.

[저 수리의 등에 올라타면 흑룡담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양과가 하하하, 웃으며 말했다.

[이 수리형은 보통 날짐승과는 달라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날지 못해요. 무쇠 같은 날갯죽지로 호랑이, 표범 등을 때려 죽일 수는 있어도 날 수는 없답니다.]

이어 그는 사씨 형제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한 번 해 보지요.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책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씨 형제는 매우 기뻐했다. 이 대협외의 명성은 천하에 떨치고 있으니 그가 도와 준다면 천금 같은 힘이 되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운명인 것이다. 사백위가 또 몇 번 절을 하더니 말했다.

[자, 그럼 대협외와 서산 제위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계책을 의논해 봅시다.]

번일웅이 말했다.

[이번 화근은 우리 형제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만큼 당연히 따라야지요.]

사백위가 말했다.

[무슨 말씀을? 비운 후에 땅이 더 굳는다고, 여러분들이 싫지만 않으시다면 우리 형제와 정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산 일굴귀와 사씨 형제는 방금 싸웠기 때문에 서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쌍방은 원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 때의 말 실수로 다툰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좋게 얘기하더니 마침내 결연 관계를 맺었다. 양과가 말했다.

[내가 흑룡담에 한 번 갖다 오지요. 성공하든 못 하든 간에 다시 귀

장을 방문하겠소이다.]

서산 일굴귀와 사씨 형제는 그가 듣던 바 대로 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자, 비록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감히 따라 나서지 못하였다. 양과는 모두에게 포위를 취하더니 북쪽으로 몸을 돌려 떠났다. 곽양이 생각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신조협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비록 용모는 추하게 생겼지만 무공이 뛰어나고 남의 어려움과 곤란을 도와 주니 과연 대협이란 소리를 들을 만하구나. 내가 온 것이 헛되지 않았어.)

그러나 그가 어떻게 구미영호를 잡을지 절로 호기심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양과의 뒤를 따라 나섰다.

대두귀가 그녀를 부르려다 생각을 바꾸었다.

(그녀가 신조협을 만나기를 원했으니 분명 그와 나눌 말이 있을 것이다.)

사씨 형제는 그녀의 내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더더구나 아무 소리도 못 했다.

곽양은 양과의 뒤를 수 장 떨어져서 따라갔다. 그녀는 오직 양과가 어떻게 여우를 잡을 것인가만 생각했다. 양과는 수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큼성큼 나는 듯이 점점 더 빨리 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곽양은 양과와 수십 장이나 뒤떨어져 멀리 양과의 소맷자락이 펄럭이는 모습만 보였다. 눈으로 보기에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와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졌다. 곽양은 가전의 경공을 전개하여 힘껏 쫓아갔다. 그러나 얼마 후 양과와 신조의 뒷모습은 이미 2 개의 흑점으로 축소되곤 했다. 곽양은 초조해지기 시작해 비로소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요, 기다려요!]

그녀는 다급해진 나머지 그만 비틀 하며 눈길에 넘어졌다. 그녀는 부끄럽고 초조해져서 울기 시작했다.

순간 온화한 음성이 귓전에 울렸다.

[왜 울지? 누가 놀리던가?]

곽양이 고개를 들어 보니 양과였다. 그가 어떻게 이토록 빨리 뒤돌아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놀랍기도 했으나 무척 기뻐다. 그러나 곧 창피해서 고개를 숙여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다. 그런데 방금 넘어지는 통에 손수건을 떨구었던 모양이었다.

양과가 소매 안에서 손수건 한 장을 엄지와 식지 사이에 끼고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것을 찾소?]

곽양이 바라보니 바로 꽃 한 송이가 수놓아진 그녀의 수건이었다.

[맞아요. 바로 당신이 나를 놀렸어요.]

양과가 되물었다.

[내가 어째서 소저를 놀렸지?]

[당신이 내 손수건을 훔쳐 갔으니 나를 놀린 게 아니고 뭐예요?]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소저가 길에 떨어뜨린 것을 내가 주워 주었는데 어째서 훔쳤다고 하는 거지?]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난 당신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내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다면 당신이 어떻게 주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 당신이 훔쳐간 것이예요.]

사실 곽양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양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양과는 아가씨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무공은 명가 덕에서 전수받았으리라 여기는 순간 그녀가 눈길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다치기라도 했을까 봐 급히 되돌아와 보니 그녀 옆에 손수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행동이 하도 신속하여 그가 손수건을 집어든 사실을 곽양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성은 뭐고 이름은 뭐지?사부님은 누구신지?.....흐흠, 아무런 대답이 없군. 그렇다면 왜 나를 따라왔지?]

곽양이 말했다.

[당신의 존성 대명은요? 당신이 먼저 말해 주면 말하겠어요.]

양과는 10 여 년 동안 자신의 얼굴조차 남에게 보여 주지 않았거니와 처음 보는 아가씨에게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소저는 참 이상하구료. 말하기 싫으면 그만두시오. 손수건이나 받아요.]

하면서 살짝 손을 흔들자 손수건이 뱅그르르 돌면서 천천히 곽양의 몸 앞으로 날아갔다. 곽양이 매우 신기해 하며 받아들면서 말했다.

[신조협, 그게 무슨 무공이죠? 내게 가르쳐 주세요.]

양과는 그녀가 매우 천진난만하고, 자신의 추하고 소름끼치는 면목에 대해서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자 생각했다.

(그녀를 한 번 놀라게 해 주어야겠다!)

돌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는 담도 크구나.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너를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한 발 다가서서 손으로 그녀를 치려고 했다. 곽양이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곧 킁, 하고 웃으며 말했다.

[난 무섭지 않아요. 만약 나를 해치려면 왜 먼저 말부터 해요? 신조대협같은 사람이 나처럼 어린 계집아이를 해칠 리가 있겠어요?]

설사 조용한 곳에서 도를 닦는 사람이나 산 속에 은거해 사는 사람이라도 진실이 담긴 말로 추켜세우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양과는 비록 남들의 아첨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곽양이 진실되게 말하는 품이 진심으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째서 내가 아가씨를 해칠 리 없다고 하지?]

곽양이 말했다.

[난 비록 당신을 모르지만 어젯밤 풍릉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행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 같

은 영웅은 필히 만나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두귀를 따라서
당신을 보러 온 것이에요.]

양과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무슨 영웅이라고? 보고 난 후에 소문 같지 않아 실망이 컸겠
군.]

곽양이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영웅이 아니라면 누구 영웅이라 하겠어요!]

양과는 그녀가 10 여 세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애인데 당세의 인물을
몇 명이나 알 수 있을까 싶어 웃으면서 물었다.

[그래, 그 몇 분이 대영웅 대호걸들이란 말이지?]

그의 말투에 자신을 중시하는 듯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곽양이
말했다.

[내가 말하겠어요. 만약 옳다고 생각되면 나와 함께 구미영호를 잡
으러 가야 돼요. 알았죠?]

[그래 좋다.누구를 드는지 어디 들어 보자꾸나.]

[그럼 말하겠어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양양성을 지키고 몽고
에 항거해 백성을 보호해 준 영웅은 대영웅이라 할 수 있지요?]

양과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그럼! 곽정 대협은 대영웅이라 할 수 있지.]

[한 분 여자 영웅이 또 있어요. 부군을 보좌해 적을 맞아 성을 지켰
으며, 지모가 뛰어나 신의 경지에 이르렀지요. 이분 또한 대영웅이라
할 수 있는지요?]

[곽부인 황방주를 말함이렷다? 음, 역시 영웅이라 할 수 있지.]

곽양이 말했다.

[나인 든 영웅도 있어요. 오행설에 뛰어나며 탄지신통은 대적할 자
가 없어요. 이 분 또한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그 분은 도화도주 황약사로구나. 그 분은 무림의 대선배로, 나도
평소에 존경해 왔지.]

곽양이 말한 세 사람은 그가 모두 흔쾌히 인정하자 그녀는 마음 속으로 득의양양해서 말했다.

[또 한 분 있어요. 개방을 인솔해 적을 맞이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해 분골쇄신 일하시는 분인데 대영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양과가 말했다.

[노유각 노방주였다? 그 분의 무공은 그다지 대단치 않으며 무슨 큰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을 맞이해 국가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본다면 뛰어난 인물이라 할 수 있지.]

곽양이 생각했다.

(신조협이 눈이 이토록 높으니, 내가 계속 얘기할 때 아니라고 말할까 봐 겁이 나는구나. 아버지.엄마.외할아버지.노유각을 들고나니 또 누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그녀의 얼굴에 주저하는 빛이 나타나자 양과는 생각했다.

(곽백부.곽백모.황도주.노방주, 이 네 사람은 모두 천하에 이름을 떨친 호걸들이다. 이 어린 아가씨가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그리 이상할 게 없지.)

[한 사람만 더 말을 해서 옳다고 여기면 내가 아가씨와 함께 구미영호를 잡으러 흑룡담에 같이 가지.]

곽양은 형부인 야율제를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무공은 비록 상당하지만 대영웅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았다. 무돈유.무수문 두 사형을 거론하기에는 더 가당치 않았다. 순간 반짝 하고 생각이 떠올랐다.

[네, 또 한 분 있어요. 남의 곤경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약한 자를 도와 주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조대협! 이분이 만약 대영웅이라 할 수 없다면 이는 당신이 발뺌하는 것이에요.]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군.]

곽양이 말했다.

[그럼 나를 데리고 흑룡담에 가는 거지요?]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가 이미 날 보고 대영웅이라고 말했는데, 대영웅이 어찌어린 아가씨에게 실언을 하겠는가? 자, 가자!]

곽양은 매우 흥분해 오른손을 뺀어 그의 왼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양양성 안의 호걸들과 같이 지내 모두들 그녀를 조카처럼 여기고 서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간의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 지금 그녀는 기쁜 나머지 양과를 전혀 남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양과는 왼손이 그녀에게 잡히자 그녀의 조그만 손이 보드랍게 느껴졌다. 그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만약 떨쳐 버린다면 무례한 일일 것 같아 그녀를 곁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꺾꺾 뛰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서 그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양과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부쪽을 기라키며 말했다.

[흑룡담은 저쪽이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지.]

이 바람에 양과는 손을 곽양에게서 빼낼 수가 있었다. 양과는 소년 시절 성격이 매우 소탈하여 잘 웃었다. 그러나 그는 소용녀와 이별하고 난 후 우울해져서 행동을 조심하며 10 여 년 간을 강호를 유람하면서 어찌다 젊은 여자를 만나면 그는 도학 선생보다도 더 예절을 갖추었던 것이다. 비록 곽양이 순진 무구했지만 10 여 년 간의 습관 때문에 비록 어린 소녀의 손이지만 조심했다.

곽양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몇 걸음을 걸어갔다. 곽양은 신조의 모양이 비록 추하게는 생겼으나 몸짓이 우아하다고 생각하고 손을 뺀어 수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백수리와 노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냥 두드려 주었던 것이다. 그러자 신조는 날개를 가볍게 흔들어 쉼, 하고 그녀의 팔을 밀어버렸다. 곽양이 깜짝 놀라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수리형, 화내지 말아요! 어째서 보통의 소녀로만 보는 거죠?]

곽양은 혀를 나름거리며 양과의 우측으로 바싹 붙어 더 이상 신조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집안에 있던 2마리의 수리는 가축과 같은 거이고, 이 신조는 양과에게 반 스승 반 친구로, 나이로 보면 선배에 속하는 것이니 신분이 크게 달랐던 것이다.

어느덧 그들은 흑룡담에 이르렀다. 그 곳은 사방 10 리에 초목이 자라지 않아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흑룡담은 원래 큰 호수였는데 후에 수원이 말라붙어, 갈수록 메말라져서 진흙들이 쌓이고 쌓여 커다란 늪지대를 형성했다.

사방을 살펴보니 공기가 사뭇 음산했다. 흑룡담 중간에 마른 나뭇가지와 풀들이 적지않이 쌓여 있었는데 그 구미영호가 숨을 만한 장소는 분명 그 곳 밖에 없었다.

양과가 나무줄기를 하나 꺾어 담 속에 던졌다. 나무줄기는 처음에는 눈 위에 누워 있다가 얼마 안 있어 점점 빠져 들어갔다. 비록 천천히 빠져 들어갔지만 멈추지 않고 파묻혀 나무줄기는 끝내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곽양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무줄기는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늪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녀는 망연히 양과를 바라보았지만 그에게 무슨 묘책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양과는 길이가 6 척이나 되는 나뭇가지를 꺾어 잔가지를 쳐내고 발 밑에 붙잡아 매고 나서 말했다.

[어디 한 번 시험해 보자. 성공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몸을 앞으로 밀고 나는 듯이 눈 위를 미끄러져 갔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리저리 돌면서 잠시도 정지하지 않고 담 위를 한 바퀴 돌아 본래 지점으로 돌아왔다. 곽양이 손뼉을 치며 웃으면서 말했다.

[야, 대단해요!]

그녀의 눈빛을 보니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도 안으로 들

어가 여우를 잡고 싶은데 경공에 자신이 없는 듯이 보였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구미영호를 잡으러 흑룡담에 같이 가자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자신이 없단 말인가?]

곽양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게는 그만한 재주가 없어요. 설령 담력이 있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양과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는 5척 가량 되는 나뭇가지를 꺾어 곽양에게 건네 주며 말했다.

[발밑에다 꼭 붙들어 매!]

곽양은 발밑에 나뭇가지를 꼭 붙잡아 매었다. 양과가 말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발 밑에 전혀 힘을 쥐서는 안 돼!]

그는 왼손을 뻗어 곽양의 오른손을 잡고는 말했다.

[잡내지 말고!]

한 번 잡아 끝자 곽양의 몸이 저절로 그를 따라 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지만 수 장을 미끄러져 가자 몸이 마치 바람에 나리는 것처럼 가볍게 나아가며 발밑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연신 소리쳤다.

[정말 재미있어요!]

두 사람이 한바탕 미끄러져 가는데 양과가 돌연 <앗!>하고 소리쳤다. 곽양이 말했다.

[왜 그래요?]

그녀가 잠시 탄전을 피우는 바람에 발밑에 약간 힘을 주게 되자 왼발이 수렁 속으로 빠져 발등까지 쑥 들어갔다. 그녀는 놀라서 <앗!>하고 비명을 질렀다. 양과가 그녀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동할 때에는 잠시라도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곽양이 말했다.

[네! 그런데 뭘 봤어요? 구미영호예요?]

[아니! 저 담 속에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여기에 어떻게 사람이 살지요?]

[나도 이해가 안가. 그런데 저 나무장작과 풀들의 배치가 천연적인 것 같지 않아.]

두 사람은 담으로 다가섰다. 곽양이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다.

[을목은 동쪽에, 병화는 남쪽에, 무터는 중앙에, 북쪽에 계수가 없는 것이, 경금지상이로구나.]

그녀는 어렸을 때 모친으로부터 음양오행설을 들어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인 곽부와 성격이 달랐다. 비록 무모하기는 했으나 덤벙거리지는 않았으며 언니보다 총명했다. 황용이 늘 말했다.

[네 외할아버지께서 너를 보신다면 무척 기뻐하실 거야.]

황약사는 의술, 점성술, 악기, 서화, 그리고 병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잡학에 능했다. 곽양은 어린 나이에든 은근히 외조부의 품격을 닮고 있었다. 단지,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공의 진전이 느린 동시에 엉뚱한 데가 있어 제멋대로 행동하여 곽정과 황용의 두통거리가 되곤 했었다. 그녀는 집안에서의 별명이 <소동사>였다. 이번에도 연회 석상에서 생전 처음 보는 대두귀를 따라 신조협을 보러 가더니, 또 처음 만난 신조협을 따라 여우를 잡으러 갔으니 그 대담성이야말로 당년의 황용, 곽부와 비교할 바가 이나었다.

양과는 그녀가 배치된 방위를 알아내는 것을 보자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가르쳐 주었지?]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책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맞는 지 틀리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 속의 배치된 모양이 평범한 것을 보니 대단한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양과는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흑룡담의 친구여! 손님이 왔소이다.]

잠시 지났지만 담 속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양과가 다시 불러 보았지만 여전히 정적만이 감돌았다. 양과가 말했다.

[보아하니 누군가 여기다 장작더비로 진을 배치했지만 살지는 않는 모양이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앞으로 20여 장 미끄러져 가자 장작과 풀들을 쌓아 놓은 곳에 이르렀다.

곽양은 갑자기 발밑으로 미치 땅을 밟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양과도 벌써 그것을 느끼고 있어 웃으며 말했다.

[평범하다고 했는데 원래 담 가운데는 작은 섬이었구나.]

말을 마치는 순간 눈 앞에 흰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풀 속에서 2마리의 작은 여우가 뛰어나왔다. 바로 한 쌍의 구미영호였다. 한 마리는 동북쪽으로, 한 마리는 남서쪽으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양과가 곽양에게 소리쳤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는 허리를 굽혀 동북쪽으로 내달린 여우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곽양을 돌 볼 필요가 없으니 경공을 시전해 나는 새처럼 빠르게 눈 위를 미끄러져 갔다. 그러나 그 여우도 매우 민첩하게 달려 연기처럼 미끄러지듯 달리다가 되돌아 오면서 곽양의 몸 앞으로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바람소리가 나더니 양과가 번개같이 다가와 소매를 휘둘러 여우를 거의 잡을 뻔했다. 그러나 여우가 필쩍 뛰어 올라 허공에서 뱅글 돌더니 양과의 옷소매를 살짝 벗어나서 잡히지 않았다. 곽양이 소리쳤다.

[아깝다!]

양과와 여우는 망망한 백설 위를 바람이 일고 번개가 치듯 쫓고 쫓겼다. 곽양은 놀라움과 흥분이 교차되어 계속 양과의 위세를 복돋우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

[신조협, 더 빨리! 여우야, 너는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어. 빨리 항

복해라!]

다른 한 마리의 여우가 동해 번쩍 서에 번쩍 하며 가끔 양과의 몸가
까이로 다가서곤 했다. 양과는 그 놈이 고의로 자기의 마음을 혼란시
키려는 것을 알고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시종 처음 쫓던 여우만을 쫓
아 그놈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달리도록 했다. 그런데 그 여우는 몸
은 작아도 지구력이 대단해 미친 듯이 날뛰며 위험에서 벗어나려 달렸
지만 전혀 힘이 빠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양과가 더욱 빨리 내달라자 다른 한 마리가 자기 동료들을 구하기 위
해 교란하면서 뛰어 다녔다. 양과가 웃으며 욕을 했다.

[요놈아, 내가 네 놈을 거들떠나 볼 것 같으냐?]

몸을 굽혀 눈을 한 움큼 주어 잡자 이내 돌덩이처럼 단단해졌다. 그
는 획, 소리가 나도록 여우의 머리통을 정통으로 맞추어 꼬꾸라뜨렸
다. 양과는 여우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힘을 별로 안 주었다. 그
때문인지 여우는 땅에 나동그라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섬의 억새풀 덩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다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양과는 마음먹은 대로 한다면 곧 여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때려서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 놈과 다리 힘을 겨루고 싶었던 것이 었다.

[여우야, 내가 만약 눈덩이로 너를 맞추어 버린다면 너는 어쩔 수
없이 승복하겠지. 그러나 대장부는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너
를 추월하지 못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 주겠다.]

양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몸을 앞으로 향해 하늘로 치솟듯 뛰어
올라 그대로 미끄러져 가 여우 앞에까지 이르러 몸을 돌려 잡으려고
손을 쭉 뻗었다. 여우는 깜짝 놀라 오른쪽으로 숨어 들었다. 양과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옷소매를 휘둘러서 여우를 소매로 말아올려
왼손으로 그놈의 목덜미를 잡고는 의기양양해져 하하하, 호탕하게 웃
어 젖혔다.

그러나 곧 웃음을 멈췄다. 보아하니 여우는 몸이 뻗뻗해진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미 죽은 것 같았다. 양과가 생각했다.

(아뿔싸! 소매를 말아올리는 힘이 너무 쎈구나. 이놈은 원래가 이렇게 허약한 놈이었구나. 그러나 죽은 여우의 피로 사형제의 내상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는 죽은 여우를 들고 광양 옆으로 와서 말했다.

[이 여우는 죽어서 쓸모가 없어졌어. 나머지 살아 있는 놈을 다시 잡아야겠어.]

그는 죽은 여우를 땅에 내던졌다. 그는 혹시 여우가 거짓으로 죽은 체한 것이 아닌가 하여 여우를 던져 놓고도 웃소매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 놈이 움직이면 다시 휘둘러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여우는 꿈쩍도 안 해 완전히 죽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광양이 말했다.

[이 여우는 참 귀여웠는데 너무 뛰어서 지쳐 죽었나 봐요.]

그리고는 마른 싸리나무를 들고 말했다.

[내가 그 여우를 몰아 올 테니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서 마른 나뭇가지로 풀속을 들쭉쳤다.

한차례 들쭉시고 나서 또 한차례 들쭉시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풀속의 어떤 동물에게 물린 듯 나뭇가지가 움직이지 않았다. 광양이 <어!>하고 소리를 지르며 힘껏 잡아당겼지만 나뭇가지는 오히려 풀숲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더니 풀숲에서 머리가 하얗고 옷이 매우 납루한 노파가 튀어 나왔다.

여우를 키우는 여인의 한(恨)

그녀는 광양을 무섭게 쏘아보더니 싸리나무 가지를 들어 때리려고 했다. 광양은 섬뜩하여 뒤로 훌쩍 뛰어서 양과 옆으로 왔다.

바로 이 때 땅에 누워 있던 그 죽은 여우는 몸을 일으켜 노파의 품

속으로 재빨리 뛰어가서 안기고는, 작은 눈망울을 굴리면서 양과를 쳐다보았다. 여우는 그 때까지 죽은 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양과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호기심과 웃음이 함께 일어났다.

(오늘은 내가 이 작은 짐승에게 졌구나. 보아하니 이 여우는 저 노파가 기르는 것이었군. 저 사람은 대체 누굴까? 강호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저 작은 여우를 얻으려면 꽤나 힘이 들겠군.)

양과는 손을 내리고 인사를 했다.

[후배가 허락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그 노파는 두 사람의 발 아래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는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잠깐 나타났다. 그러나 그런 놀란 기색은 곧 사라지고 손을 저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는 외딴 곳에 은거하여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니..... 너희들은 어서 가는 게 좋겠다.!]

말소리는 음침하면서도 가늘고 날카로왔는데 눈가에는 눈물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양과는 이 노부인의 얼굴이 사뭇 험상궂지만 눈매가 수려한 게, 젊었을 때는 꽤 미인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노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바로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제 친구 한명이 내상을 입었는데 구미영호의 피가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어르신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제 친구의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큰 덕에 매우 감읍할 것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호호.....!]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졌는데 매우 처량하고 원한이 서린 웃음소리였다. 한바탕 웃고 나더니 그녀가 말했다.

[친구가 내상을 입어서 그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그래, 그렇다면 왜 내 아기가 내상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애의 목숨을 전혀 구하려 하지 않았지?]

양과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오싹해졌다.

[어르신께서 아이가 어떻게 내상을 입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부인이 또 크게 웃더니 말했다.

[지금이라도 구한다고? 그 애는 몇십 년 전에 죽었어. 지금은 벌써 뼈까지도 흩어 버릴 텐데, 그대는 지금이라도 된다고 했잖나?]

양과는 그녀가 옛일을 회상하는 것을 알고는 기분이 묘해져서 여러 얘기를 하지 못하고 단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몰래 이곳에 와서 여우를 구하려 한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있듯이 아무 노력 없이 대가를 받을 수는 없으니, 어르신께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 힘을 다하여 해 내겠습니다.]

백발의 노과는 눈망울을 굴리면서 말했다.

[나는 수령에서 외롭게 살면서 친구도 친척도 없이 오직 이 한 쌍의 여우에 의지해 살고 있지. 네가 여우를 가져가고 싶다면, 이 낭자를 남겨 두고 나와 십 년간을 함께 살도록 해야 해.!!]

양과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온통 진흙과 말라 죽은 싸리나무뿐인데 재미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난 여기가 싫어요. 당신이 무료하고 적막한게 싫다면 우리 집에 가서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살아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틀림없이 당신을 귀빈의 예의로 대해 주실 거예요, 어때요?]

노부인의 얼굴이 침통해지더니 화를 내며 말했다.

[네 부모가 뭐길래 나를 모신다는 것이냐?]

곽양은 마음이 넓고 활달했다. 남들이 설사 실례를 범해도 그녀는 화를 별로 내지 않고 웃어 넘겨 버리곤 했다. 노부인의 말은 곽정과 황용을 모독한 것으로, 만약 곽부가 들었다면 곧 풍지평파가 일어났을 것이었다. 그러나 곽양은 미소를 지으며 양과를 향해 혀를 날름 내밀고는 개의치 않았다.

양과는 이 소녀가 불임성이 있고 조금도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는 그녀를 향해 머리를 가볍게 끄덕여 고마움을 표시한 후 고개를 돌려 노부인에게 말했다.

[선배께서 이 소녀를 귀엽게 대해 주셨으니 이는 참으로 얻기 힘든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자기
가.....]

노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녀의 부모가 누구냐? 넌 누구고?]

양과는 잠시 주저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광양이 말을 이어 받았다.

[저의 부모님은 시골 사람이에요. 말해도 알지 못할 거예요. 이 분은.... 이 분은..... 나의..... 큰오빠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양과를 바라보았다.

이 때 양과도 그녀를 쳐다보고 있어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양과는 얼굴에 안피면구를 쓰고 있어서 귀신처럼 음침하여 희로의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친근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광양은 순간 흥분이 되어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나에게 정말 이런 오빠가 있다면 어디서건 나를 돌봐 주고 도와 줄텐데. 언니처럼 하루 종일 사람을 귀찮게 굴면서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하고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얼굴 가득히 은은하게 존경하는 빛이 떠올랐다. 양과가 말했다.

[그래요, 제 여동생은 나이가 어려 철이 없어서 제가 데리고 다니며.....]

광양은 속으로 양과가 부인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저절로 희색이 만면해졌다. 그가 계속 말했다.

[그녀는 구미영호가 이렇게 신기한 것을 보고는 틀림없이 대단한 어른이 기르리라는 것을 알고 만나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

나 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노부인이 냉소를 띄며 말했다.

[그렇게 추켜올려도 아무 소용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여우를
쫓아다니며 때리는 것이 선배를 존경하는 태도냐? 어서 꺼져 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와서 소란을 피우지 마라.!]

하고 말하면서 쌍장을 휘둘러 일장(一掌)은 양과를 향해, 일장은 곽
양에게 밀어붙였다. 세 사람은 일장(一丈)가까이 떨어져 있었는데다가
노부인이 공중에다 일장을 격출했기에 사실 곽양이나 양과의 몸에 닿
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곽양은 그녀의 일장이 격출되자 찬바람이 덮
쳐 오는 것을 느꼈다. 양과는 가볍게 옷소매를 펼쳐서 그녀가 곽양에
게 보낸 바람을 막아 없애 주고, 자신에게 밀려온 장풍에 대해서는 전
혀 개의치 않았다.

그 노부인은 원래 이들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 단지 그들을 흑룡담
에서 내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성의 힘만을 써서 장력을 휘둘렀던 것
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전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하자 내심 놀
라면서도 화가 났다. 그래서 그녀는 단전에 기를 모아 손바닥에 두배
의 힘을 보태어 쌍장을 내밀었다. 이 때는 이미 상대방의 생사를 고려
하지 않았다. 곽양은 장풍이 밀려오자 곧 가슴이 답답해 지는 것을 느
꼈으나 양과가 소매를 한번 휘두르자 찬기운이 사라졌다. 그녀는 두
사람이 내공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아하니 노부인은 얼굴
이 흥하게 일그러지는 데 반해 양과는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노부인은 번개처럼 신형을 날려 재빠르게 일격을 가했다. 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쌍장은 이미 양과의 가슴에 그대로 적중되었다.

그녀는 일결을 가한 후 즉시 물러나 양과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
다. 곽양이 크게 놀라 양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당신, 부상을 당했군요.!]

노부인이 엄중하게 말했다.

[넌 나의 장력 한음전(寒陰箭)에 맞았으니 내일 이맘때까지 살아 남

지 못할것이다. 이는 네 스스로 초래한 일이니 남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

15 년전에 양과의 무공은 이미 이 노부인을 훨씬 능가했으며, 지금은 내공과 외공을 모두 수련해 거의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그 노부인의 한음전 장력이 아무리 세다고 하여도 그를 해칠 수는 없었다. 단지 그는 노부인과 아무런 원한이 없었고, 그녀가 사랑하는 여우를 경솔하게 붙잡은 것을 결국 자기의 잘못이므로 그녀가 세 차례나 가격할 동안 전혀 반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노부인의 한음전은 그녀가 20 여년간 힘들게 수련하여, 한 번에 능히 17 장의 파란 벽돌을 부술 수 있었다. 실지로 지독하고 강한 장력이었다. 그녀는 양과가 자신의 쌍장에 맞아 내장이 파열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자 생각했다.

(이자는 죽음에 임해서도 꾀꾀하군.)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어서 소녀를 데리고 떠나거라. 여기 흑룡담에서 죽지 말고.....]

양과가 머리를 들고 낭랑하게 말했다.

[노선배는 이처럼 외딴 곳에 계셔서 세상의 무학이 복잡다단하고 각기 장점이 있음을 모르시는군요.]

하는 말을 마치고는 길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호탕해서 돌을 부수고 구름을 흩뜨릴 기세가 담겨있었는데 그 속에는 또한 엄청난 기와 깊은 내공이 엿보였다.

노부인은 그가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을 알고는 사색이 되어 비틀거렸다. 그녀는 그제서야 그가 자신의 3 장을 일부러 맞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가 웃음을 멈추기 전에 품속의 여우를 꺼내 안았고, 휘파람을 한번 불어 다른 여우도 풀숲에서 뛰어 나오게 하여 그녀의 품속에 안았다. 노부인이 격렬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의 무공은 정말 대단하오, 정말 감탄했소. 그러나 이 늙은이의

여우를 빼앗아 갈 생각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한 발자국만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이 여우를 죽여 버리겠소. 그러면 당신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게 될 것이요.]

양과는 그녀가 아주 비장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노부인의 성질이 굳세어 죽어도 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한동안 머뭇거렸다. 만약 급히 손을 써 그녀의 혈도를 눌러 여우를 빼앗는다면 그녀는 화가 나서 그만 자살해 버릴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사숙강을 구한다 하더라도 어찌 다른 무고한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때 몸 뒤에서 갑자기 염불 소리가 들려왔다.

[아미타불.!]]

이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승 일등이 만나 보고자 하니 영고는 어서 얼굴을 나타내 주길 바라오.]

곽양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자 깜짝 놀랐다. 이 소리는 결코 크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아주 가까이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러나 주위에는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는데, 이 말하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녀는 일찌기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일등대사가 선배 고수이고 예전에 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으며, 또 무씨 형제의 부친인 무삼통의 사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때 누군가 자칭 <일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매우 기뻐다.

양과도 일등의 음성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일등이 사용한 것이 상승 내공인 천리전음(千里傳音)수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천리전음이라는 수법은 소리가 정말로 천 리 밖으로 퍼지지는 않지만 중간에 큰 건물 따위의 장애물이 없고 수련 정도가 깊은 사람이라면 몇 리 정도는 소리를 보낼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 소리는 바로 옆의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았으며, 내공이 깊을수록 전하는 소리도 부드러워진다. 양과는 그의 음성을 듣자 마음 깊이 더욱 감복했다. 그는 이 고승

의 내공에 비해 자신은 아직도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생각했다.

(이 노부인이 영고라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일등대사가 무슨 일로 그녀를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군. 그가 나타나면 혹시 여우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를 텐데.....)

흑룡담의 이 노부인은 바로 영고였다. 예전에 일등대사가 대리국의 임금으로 있을 때 영고는 궁중의 귀비였는데 노완동 주백통이 그녀와 몰래 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었다. 나중에 구천인이 철장으로 아이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단황야는 질투심 때문에 아이를 구해 주지 않아서 그만 죽게 되었다. 단황야는 곧 후회하고 마침내 출가하여 중이 된 것이었다. 영고는 화산 절정에서 구천인을 죽이지 못하고, 또 주백통을 쫓았지만 잡지 못하고는 그 후 강호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흑룡담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때 일등은 흑룡담 밖에서 이미 7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매일마다 이 시간이 되면 소리를 내어 그녀를 만나 보고자 했지만 영고는 수십 년 전 그가 잔인하게 아이를 죽도록 한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의 원한을 풀지 않은 채 끝내 만나 주지 않고 있었다.

양과는 영고가 몇 발자국 물러서서 마른 싸리 덩불위에 앉는 것을 보았는데 눈빛은 냉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일등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노승 일등이 천 리 밖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영고는 얼굴을 나타내 주길 바라오.]

영고는 여우 한쌍을 안고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일등대사의 무공은 그녀보다 훨씬 깊어, 만약 보려고만 한다면 그녀도 거절할 수 없을 텐데 왜 이처럼 힘들게 보려고 하는 거지?)

일등의 말소리가 끊기자 곧 잠잠해졌다. 광양이 말했다.

[큰 오빠, 일등대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본데 우리 그를 보러 가는 게 어떻겠어요?]

양과가 대답했다.

[좋아.! 나도 막 그를 보러 가려고 했어.]

영고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매우 흥폭하게 빛나고 있어 양과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곽양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자.!]

두 사람은 함께 눈 위로 미끄러져 갔다. 곽양은 양과에게 손을 잡힌 채 한참을 미끄러져 가다가 물었다.

[큰오빠.!그 일등대사란 분은 어디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마치 바로 옆에 있는것 같아요.]

양과는 그녀가 <큰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리자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했다.

(결코 다시는 남들에게 정을 일으키도록 할 수는 없어. 이 소녀는 나이가 어려 아직 천진난만하다. 그러므로 일찍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일이 발생하는 걸 막는 길이다.)

그러나 이런 수렁 속에서는 잠시도 멈출 수가 없었고, 더우기 그녀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곽양이 말했다.

[내가 묻고 있는데 안 들려요?]

양과가 말했다.

[일등대사는 동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몇 리 정도 떨어져 있어. 그가 말하는 것으로 봐선 가까운 듯하지만 실제로는 멀지, 그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천리전음이란 것이야.]

곽양이 기쁜 듯이 말했다.

[당신도 이 무공을 할 줄 아나요?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나중에 우리가 천 리 정도 떨어져 있을때 내가 이 무공을 사용해서 당신과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말이 천리전음이지, 실제로는 몇 리 정도만 들려도 대단한 무공이야. 일등대사 정도의 공력을 쌓으려면 너처럼 총명한 사람도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야 가능할 거야.]

곽양은 그가 자신을 총명하다고 칭찬하는 것을 듣자 매우 기뻐다.

[내가 뭐가 총명해요? 나는 우리 엄마의 십 분의 일도 따라갈 수 없는데요.]

양과는 마음속으로 흠칫했는데 그녀의 미간이 황용과 매우 닮은 것을 보고 깊이 생각했다.

(평생 내가 본 사람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총명함과 재치로 말하자면 곽백모를 따를 사람이 없는데, 설마 이 애가 곽백모의 딸은 아니겠지?)

그러다가 이내 실소를 날렸다.

(세상에 것처럼 공교로운 일이 있을라고? 만약 이 애가 정말 곽백모의 딸이라면 곽백부가 그녀를 멋대로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하지 않을 꺼야.)

[어머니가 누구시지?]

곽양은 조금전에 부친과 모친을 대영웅이라고 말해 놓고 지금 자신이 곽정, 황용의 딸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워 웃으며 말했다.

[나의 엄마는 나의 엄마죠. 말해도 아마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큰 오빠, 당신의 실력이 셴가요, 아니면 일등대사가 더 셴가요?]

이 때 양과는 이미 중년에 가까웠고 소용녀와 헤어지는 쓰라린 경험도 겪은지라 비록 호기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의 마구 날뛰는 자유분방한 성격은 거의 사려졌다.

[일등대사의 명성은 무림에 자자하여 수십 년 전에 이미 도화도주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지. 바로 당시 5대 고수 중의 한 분인 남제(南帝)인데 내가 어떻게 그 어른을 따를 수 있겠니?]

곽양이 말했다.

[만약 당신이 수십 년 먼저 태어났으면 당시의 6대 고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동사.서독.남제.북개.중신통.신조협이 되겠죠. 아, 곽대협과 곽부인이 또 있구나. 그럼 8대 고수가 되네요.!]

양과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 곽대협, 곽부인을 본 적이 있느냐?]

곽양이 말했다.

[물론 본 적이 있죠. 그들은 나를 참 좋아해요. 당신도 그들을 아시나요? 만수산장의 일이 해결되면 나와 함께 그들을 보러 가요, 네?]

양과는 곽부에게 팔이 잘린 원한은 여러 해가 지나면서 차츰 잊혀져 갔지만 소용녀가 독에 중독된 것으로 인해 16년 간이나 떨어져 있게 되었으니 이 일은 그로 하여금 곽부에 대한 원한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곧 차분하게 얘기했다.

[내년이 되면 내가 곽대협 부부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내 처를 만나고 난 후, 우리 부부가 함께 갈거야.]

그는 소용녀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흥분을 참을 수 없었다.

곽양도 그의 손바닥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물었다.

[당신 부인은 매우 아름답고 무공 또한 대단할 거예요.]

양과가 탄식하듯 말했다.

[세상에서 그 여자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다시 없을 거야. 으음, 무공으로 말하면 지금도 분명 나보다 훨씬 강할 거야.]

곽양은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나 말했다.

[큰오빠. 내게 당신 부인을 꼭 보여 주세요. 대답해 줘요, 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안사람도 틀림없이 너를 좋아할 거야. 그 때 너는 정말로 나를 큰오빠라고 불러야 돼.!!]

곽양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못 부르죠?]

이렇게 잠시 서 있게 되자 그녀의 오른발이 진흙탕 속에 빠졌다. 양과는 그녀를 잡고 훌쩍 뛰어서 앞으로 10여 장쯤 미끄러져 갔다.

멀리 눈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백발은 가슴까지 늘어져 있고 회색 승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바로 일등대사 었다. 양과가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자 양과, 대사님을 뵙니다.!]

그는 곽양을 데리고 일등대사의 앞까지 재빨리 나아갔다.

일등은 흑룡담의 수령 밖에 서 있다가 <제자 양과>란 소리를 듣자 마음이 편해졌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양과를 보고는 급히 손을 내밀어 일으키면서 밝게 말했다.

[양현질(揚賢姪), 별고 없으신가? 자네의 무공 진전을 축하하네.]

양과가 일어서는 데 일등의 뒤에 가로누워 있는 사람이 보였다. 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하고 두 눈이 굳게 감겨 있었는데 시체와도 같았다. 의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바로 자은 이었다. 양과는 깜짝 놀랐다.

[자은 대사가 웬일이십니까?]

일등은 탄식하듯 말했다.

[그는 장력에 맞아 상처를 입었지. 노구가 온 힘을 다해 치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네.]

양과는 몸을 숙여 자은의 맥박을 짚었다. 맥박은 아주 희미하게 한참의 간격을 두고서 뛰고 있었다. 만약 그의 내공이 깊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죽었을 것이다. 양과는 이상해서 물었다.

[자은대사 같은 무공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독수에 당했지요?]

일등이 말했다.

[나는 그와 호남(湖南)에 은거하고 있었지. 얼마 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몽고 대군은 오랫동안 양양을 공격해도 실패하자, 군대를 일으켜 남쪽으로 돌아서 대리국을 먼저 치고는 회군하여 돌아 오다가 양양을 다시 공격한다는 것이야. 자은은 노납(老納)이 고국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는, 소식을 들으러 나갔다가 도중에 어떤 사람과 마주쳤지. 두 사람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싸웠는데 자은은 끝내 그의 손에 의해 부상을 당하게 된 거지.]

양과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아.! 금륜법왕.! 이 도둑놈이 또 중원에 왔구나.!]

곽양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당신이 금륜법왕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등대사님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대사님께서는 그가 하루 종일 싸웠다고 했지. 그런데 자은대사는 쉽사리 남의 간계나 암수에 걸려드는 분이 아니야. 당대에 장력으로 자은대사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아도 세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 중에서 오직 금륜법왕 한 놈만이 간악한 놈이지.]

곽양이 말했다.

[당신은 그 놈을 찾아 담판을 지으실 거죠? 이 화상을 대신해 복수를 해야해요.]

자은은 두 눈을 감고 숨결이 희미한 채 땅에 누워 있다가 이 때 갑자기 눈을 뜨고는 곽양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곽양이 말했다.

[어때요? 복수를 안 할 건가요? 아아. 그 금륜법왕이 아주 잔인하다고 했는데 내 큰 오빠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군요.] 일등이 말했다.

[낭자는 잘못 생각했소이다. 내 제자는 평생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십여 년간 죄가를 치르는 데 온 힘을 다해서 악업은 이미 거의 다 없어졌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지. 이는 결코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원한을 갚고 원수를 죽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단지 한 사람의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안심하고 죽을수 있다는 얘기지.]

곽양이 말했다.

[그는 이 진흙탕에 있는 노파를 찾으러 왔지요? 그 노파는 마음이 너무 굳세어 당신은 그녀를 용서해도 그녀는 결코 남을 쉽사리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일등이 탄식하며 말했다.

[바로 그래.! 우리는 이미 여기서 칠일 밤 칠일 낮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그녀는 한 번 만나 주는 것조차 허락을 안 하고 있지.]

양과는 속으로 뜨끔하며 갑자기 그 노부인의 아이가 부상을 당했는데 아무도 치료해 주려 하지 않았다고 한 말이 생각나서 물었다.

[그건 그녀의 아이가 다쳤을 때 치료 받지 못했던 일 때문인가요?]

일등이 가볍게 몸을 떨며 머리를 끄덕였다.

[너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저는 그 속에 담긴 우여곡절은 모릅니다. 단지 그 노파가 말한 두마디를 들었을 따름입니다.]

양과는 구미영호를 쫓다가 그 노부인을 만나게 된 과정을 일등에게 간략히 말했다. 일등이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영고라고 하지. 예전에는 나의 아내였는데, 그녀의.....그녀는 고집이 매우 세지. 아아, 더 이상 지연되면 자은이 죽게 될 텐데.....]

곽양은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생겼지만 일시에 그것들을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양과가 말했다.

[사람이 잘못을 알고 뉘우치게 되면 옛 일은 다 해결되는 법이지요. 저 영고란 사람은 마음을 전혀 열어 놓지 않는군요.]

그는 자은이 곧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저절로 의협지심이 생겨서 말했다.

[대사, 제자가 그녀를 나오게 만들어 볼테니 만나 보십시오.]

일등은 잠시 신음하며 생각했다.

(나와 자은 두 사람은 영고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므로 절대로 무리를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고생스레 애원을 했지만 그녀는 끝내 얼굴을 내밀지 않았지. 이대로라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거야. 만약 양과에게 무슨 수가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질이 그녀를 나오게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 그러나 절대로 화기를 깨어서는 안돼. 그럼 오히려 그녀의 증오심만 부채질 할 뿐이야.]

양과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는 손수건을 꺼내서 네 갈래로 나누었다. 2 장으로 자은의 귀를 막고 남은 2 장은 곽양에게 건네 주면서 손짓했다. 곽양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귀를 막았다. 양과가 일등에게 말했다.

[제가 한번 재주를 부려서 대사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요.]

일등이 함장을 하며 말했다.

[현질이 신공을 터득한 것은 세상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야.]

양과는 몇 마디를 더 하고 나서는 단전에 기를 모으고 왼손으로 허리개를 만지더니 머리를 들고는 커다란 소리를 길게 뿜아 냈다.

이 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맑고 낭랑하다가 차츰 우뢰와 같이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는데 마치 허공의 뇌성벽력 같았다. 곽양은 귀를 막았지만 이렇게 울리는 소리로 인해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발그레하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날카롭고 벽력 같은 소리가 찢어지듯 한차례 울려 퍼지자, 곽양은 마치 광야에서 벼락이 그녀 바로 곁에 떨어진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양과가 지르는 소리가 어서 빨리 멈추어지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천둥소리는 멈추지 않고 울렸으며 갑자기 뇌성 가운데 광풍소리가 섞여 퍼졌다. 곽양이 소리쳤다.

[그만 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고향은 양과의 소리에 완전히 놀려서 자신도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혼백이 달아난 것 같았고 온 몸의 골격이 그 소리때문에 풀려 흩어지는 듯했다.

바로 이 때 일등이 손을 뻗어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곽양이 정신을 차리자 따뜻한 기운이 일등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내공을 사용해서 자신을 진정하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을 알았

다. 그래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수그리고서 속으로 내공을 운용했다. 켓전의 소리는 여전히 천군만마와 같이 요동쳤지만 방금처럼 부들부들 떨릴 정도는 아니었다.

양과의 장소(長嘯)소리는 한참이 지났는데 조금도 약해질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갈수록 장대해져 갔다. 일등도 그 소리를 듣고서 내심 탄복을 하면서, 그 소리가 패도(覇道)의 경지를 넘어섰지만 순양(純陽)의 정기는 아니라고 여겼다. 그러나 자신의 한창 때에도 이러한 내공은 없었으며 늙고 쇠약한 지금은 더욱 그러했다. 그는 양현질의 내공이 엄청나서 실제로 당세의 어떤 고수도 따를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도데체 그가 어떤 수련을 쌓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양과가 신조를 따라 바다의 솟구치는 파도 속에서 내공을 쌓았다는 사실을 일등은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 한참이 지나 흑룡담에 땅거미가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다. 양과는 옷소매를 한 번 털더니 소리를 멈추었다. 곽양은 길게 숨을 내쉬며 머리가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음성이 들렸다.

[단황야, 당신의 그 대단한 패도가 결국 나를 끌어내게 만들었군요. 대체 무슨 일이요?]

일등이 말했다.

[바로 이 양현질이 소리를 내어 불러낸 것이요.]

말하는 사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몸 앞으로 달려왔는데 바로 영고였다. 그녀는 일등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곰곰이 생각했다.

(세상에 단황야 말고도 이처럼 높고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니. 이 사람은 비록 얼굴로는 잘 알아보기 힘들지만 머리카락이 까만 걸 보니 나이가 많아 봤자 서른 정도 밖에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공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 조금전에 그는 나의 3 장을 맞고도 상처를 입지 않아서 놀라게 하더니 이 소리는 더욱 놀랍고 두렵구나.)

방금 양과가 지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 만약 흑룡담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내공에 끌려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상을 크게 입었을 것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안색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양과에게 차갑게 말했다.

[여우를 당신에게 주고, 이 노파는 당신에게 굴복한 걸로 여길테니 빨리 나를 가게 해 주시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여우의 목덜미를 잡아 양과를 향해 던지려 했다. 양과가 말했다.

[잠깐.! 여우는 사소한 일이고, 일등대사께서 보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그 분의 얘기를 좀 들어 보시오.]

영고는 일등을 차갑게 한 번 쏘아보고는 말했다.

[황야, 말해 보시오.!]

일등은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지나간 세월은 꿈 같은것, 옛날의 일을 끄집어 내서 뭘 하겠소? 영고, 당신은 저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면서 땅에 누워 있는 자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때 자운은 승복을 입고 있었고 30 여 년 전 화산 절정에서 만났을 때와는 모습이 크게 달라져 있었다. 영고는 그를 한 번 쳐다보고 나서 말했다.

[내가 이 중을 어떻게 알아요?]

일등이 말했다.

[그 날 장법으로 당신의 아이에게 부상을 입힌 게 누구요?]

영고는 전신을 부르르 떨더니 안색이 붉으락 푸르락 해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구천인, 그 나쁜 놈.! 그 놈은 죽어서 뼈를 태워 재가 되어도 나는 그 놈을 알아볼 수가 있소.]

일등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 일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인데 당신은 아직도 원한을 버리지 못하는 구료. 이 사람이 바로 구천인ियो.! 당신은 그의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그 목은 원한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구료.]

영고는 고향을 한 번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열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자은을 찌를 듯한 형세를 취하고 나서 그의 안색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구천인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다시 자세히 보니 아닌 것도 같았는데 그의 양볼이 쑥 들어가고 땅에 누워 꿈쩍도 안 하는 것이, 이미 거의 죽어 버린 듯하자 날카롭게 말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천인이요? 그가 뭇하러 날 찾아왔소?]

일등이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구천인이요. 그는 자신의 업보가 너무 깊음을 알고 불가에 귀의해 내 문하에 들어와 중이 되었고, 법명은 자은이라 하오.]

영고가 흥, 하며 말했다.

[죄를 짓소 나서 출가를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니. 천하에 중이나 도사가 이렇게 많은 것도 당연하군.]

일등이 말했다.

[죄악은 끝내 죄악이지, 출가했다고 어찌 씻을 수 있겠소? 자은은 중상을 입어 목숨이 조석지간에 놓여 있으면서도 옛날에 당신의 아기에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깊은 자책 때문에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거요. 그래서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하여 천 리 길을 멀다 않고 이곳에 이르렀으니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길 바라오.]

영고는 자은을 응시하더니 그것도 잠시뿐, 얼굴에는 온통 증오와 원한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은 평생의 고통과 불행을 이 한 순간에 다 쏟아낼 듯한 모습이었다.

곽양은 그녀의 얼굴이 이처럼 무섭게 변하자 내심 두려워졌다. 그녀가 두 손을 들어 밑으로 막 내려치려는 순간 곽양은 두렵긴 했지만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잠깐만요.! 그는 이미 이토록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당신이 그를

때리는 것은 무슨 도리예요?]

영고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높은 내 아기를 죽였어. 나는 수십 년 간을 고통스럽게 살아오면서 오늘에야 비로소 그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간도 너무 길었는데 너는 그래도 무슨 도리냐고 묻는 것이냐.!!]

곽양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잘못을 뉘우쳤는데, 지난 일을 가지고 너무 꼬치꼬치 따질 것까지 없잖아요?]

영고는 하늘을 보며 크게 웃었다.

[꼬마야, 너는 너무 쉽게 말하는 구나.!! 만약에 그가 네 아기를 죽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곽양이 머뭇거렸다.

[나.....,네....., 내게 무슨 아기가 있어요?]

영고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만약 그가 네 낭군이나 네 애인을 죽였다면 또 어떻게겠느냐?]

곽양은 얼굴이 빨개졌다.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내게 낭군이나 애인이 어디 있어요?]

영고는 더욱 화가 나 곽양을 이리저리 몰아붙였다. 그녀는 자운을 응시하더니 쌍장을 막 내리치려고 했다. 그 순간 갑자기 자운이 신음을 하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며 나직이 말했다.

[일을 마무리해 주어 고맙소이다.]

영고는 흠칫하면서 내려치지를 못했다. <무슨 마무리?> 생각해 보니 이내 곧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녀의 손에 죽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한 대 한 대 내리칠 때마다 그것으로 죄가를 치르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냉소를 띄며 말했다.

[그렇게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또한 당신을 용서하지도 않겠소.!!]

그녀의 말투는 매우 을씨년스러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오한을 느끼게 했다.

양과는 일등이 결코 그녀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곽양은 너무 어려서 얘기를 해도 영고가 신경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내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윽고 침착하게 말했다.

[영고 선배님. 당신들 사이의 은원(恩怨)관계를 나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선배님께서 이 일의 결말을 보지 않겠다고 하시니 저는 미천하나마 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고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양과를 세 차례나 친 적이 있고, 그의 긴 휘파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이 사람의 무공이 높은 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저항할 재간이 없었다. 그가 뜻 밖에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심한 압박감을 느껴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갑자기 슬픔이 몰려들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이 울음소리는 양과와 곽양에게 미묘한 느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등에게조차도 전혀 뜻밖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만나 보려 하다가 잘 되지 않아 억지로 나를 나오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보러 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겠어요.]

곽양이 급히 물었다.

[노선배님, 누가 당신을 보려 하지 않나요? 우리가 당신을 도울게요.]

[당신들은 나 같은 여자는 속일 수 있지만 정말로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쉽게 그를 쫓 수가 있겠어요?]

곽양이 말했다.

[나같은 계집애는 소용없겠지만 여기 일등대사와 우리 큰오빠가 있는데 누구를 겁내겠어요?]

영고는 가볍게 한숨을 토해 내고는 툭툭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들이 그를 찾아서 나를 보러 오게 해 주면 나와 얘기가 잘 풀릴 것ियो. 그렇게 되면 여우도 줄 수가 있고 구천인과도 화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양과가 말했다.

[선배께서 보려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토록 만나기가 힘들단 말입니까?]

영고는 일등을 가리키며 나직이 말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곽양은 그녀의 얼굴이 은연중에 발갛게 상기되는 것을 보고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늙어서도 여전히 수줍어 할 수가 있을까?)

양과와 곽양이 일제히 자신을 쳐다보자 일등은 느릿느릿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노완동 주백통일세.]

양과가 기쁜 듯이 말했다.

[노완동이라고요? 그와 나는 얘기도 나누고 잘 아는 사이죠. 내가 그를 찾아가서 당신을 보러 오게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영고가 말을 하였다.

[내 이름은 영고라 해요. 당신은 먼저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를 보러 오도록 해야 돼요. 그가 이번에 나를 보러 오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가 온다면 전적으로 그대의 덕분이요.]

양과는 일등이 고개를 천천히 가로짓는 것을 보자 내심 주백통과 영고 사이에 필시 중대한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다. 이 때문에 그가 만나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백통의 도량이 넓은 것을 생각해서 어떤 계책을 사용해서라도 그를 꺾어 데려오리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노완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후배가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영고가 말했다.

[여기서 북쪽으로 1백 리 가량 가면 백화곡(百花谷)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는 그 곳에 은거하면서 양봉을 낙으로 지내고 있어요.]

양과는 양봉이란 소리를 듣자 갑자기 소용녀가 생각났다. 그 당시 소용녀가 주백통에게 옥봉을 지휘하는 것을 알려준 사실이 떠오르자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알았습니다. 후배가 그를 만나러 갈 테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말을 마치고 나서 양과는 영고에게 백화곡의 위치를 분명히 묻고는 몸을 돌려 출발했다. 곽양이 그 뒤를 따랐다.

양과가 머리를 숙여 나지막이 속삭였다.

[일등대사의 무공은 깊고 인품도 자애로우니 너는 여기 남아서 그 분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해라. 그가 조금만 가르쳐도 너는 무한한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거다.]

곽양이 말했다.

[싫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노완동을 보러 갈래요.]

양과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기회는 매우 얻기 힘든 좋은 기회인데 너는 왜 망치려 드느냐?]

[노완동을 찾은 후 당신은 당신 대로 가고, 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당신하고 같이 갈 거예요.!]

이 말속에는 함께 있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 일각이라도 같이 있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양과는 그녀가 자신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로 이 소녀를 동반자로 삼아 강호를 다닌다면 외로움이야 많이 줄어 들겠지.)

그는 미소를 띄며 말했다.

[너 하루 종일 자지도 않았는데 피곤하지 않아?]

곽양이 말했다.

[피곤하긴 좀 피곤해요. 그렇지만 당신과 같이 갈래요.]

[좋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경공을 전개했다. 곽양은 그에게 잡아 끌리자 몸이 한결 가벼워져서 걷는데 힘이 전혀 들지 않았다.

[당신이 잡아 주지 않아도 이 정도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너의 경공의 기본은 아주 훌륭해. 조금만 수련을 한다면 하루종일이라도 달릴 수 있을 거야.]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휘파람을 한 번 불었다. 곽양은 깜짝 놀라 왼손을 귀에 갖다 댔다. 전혀 양과가 분 것 같지 않았는데 신조가 오른쪽 나무 숲속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양과가 말했다.

[수리형, 우리는 일이 있어 북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지요.!]

수리는 머리를 쳐들고 몇 번 울더니 알아들었는지 양과. 곽양과 나란히 걸어갔다.

몇 리 정도를 가자 신조의 걸음이 갈 수록 빨라져 곽양은 비록 양과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점점 따라가기가 벅찼다. 신조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두 무릎을 구부려 몸을 숙였다. 양과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수리형이 너를 태워 주겠대. 그에게 고맙다고 해.!]

곽양은 감히 수리에게 무례를 범할 수 없어서 먼저 그에게 겸손하게 예의를 표하고는 그의 등 위에 올라탔다.

신조는 성큼성큼 내달았다. 곽양은 귓가에 바람이 이는 것 같았고 양 옆의 나무들이 끊임없이 뒤로 가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녀의 집에 있는 쌍조의 비행 속도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빠른 말 정도는 되었다. 양과는 옷깃을 휘날리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신조의 걸을 바짝 따르면서 가끔 곽양에게 강산을 가리키며 풍물을 얘기해 주고 우스갯소리도 했다. 곽양은 무척 기뻐다. 이런 야릇한 느낌은 이제껏 처음이었다. 그녀는 신조가 좀 더 천천히 달려 백화곡에 좀 늦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화해

이윽고 그들은 어느새 1백여 리를 달렸다. 양과는 영고가 가르쳐 준 길을 따라 2개의 산굽이를 돌아 갑자기 눈앞이 확 트였다. 푸르디 푸른 비취빛 계곡에 울긋불긋하고 희고 노란 여라기지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가는 데 어느 곳에도 눈은 쌓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진흙탕만 있어 그야말로 정말 딴 세상 같았다, 곽양이 손뼉을 치면서 즐거이 말했다.

[노완동은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기묘한 곳에 살고 있으니, 큰오빠.! 이곳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양과가 말했다.

[이곳은 계곡이 남쪽으로 향해 있어서 높은 산이 북풍을 막아 주지. 또 땅 속에는 유황과 매탄 등의 광물이 있어서 땅 기운이 특히 따뜻하거든. 때문에 따뜻한 봄이 빨리 와 온갖 꽃들이 먼저 피는 거야.]

[수리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신조의 등에서 뛰어내려 양과와 나란히 걸었다.

두사람이 계곡으로 접어들어 몇 굽이를 돌아드니 양쪽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타나고 세 그루의 커다란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버티어 서서 절벽 사이를 가로막아 천연의 통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무수한 옥봉들이 소나무 사이를 들락날락하여 곳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양과는 주백통이 그 안에 있으리라 짐작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완동.! 동생 양과가 어린 친구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사실 그는 주백통과 나이 차가 3배(三輩)정도는 나서 주백통을 부르는 데 늘 곤란을 느꼈다. 그러나 주백통은 나이는 많지만 쾌활하고 장

난을 즐겨서 그와 준비를 따지지 않을수록 좋아했다.

과연 얼마 후 소나무 사이를 뚫고 한 사람이 나왔다. 양과는 그를 보자 깜짝 놀랐다. 10여 년 전 주백통을 처음 보았을 때, 주백통은 이미 머리카락과 눈썹이 은빛이었는데, 지금 보니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머리카락이나 수염, 눈썹 등은 오히려 반쯤 거무스레해져서 예전에 비하여 더욱 젊어 보였다. 그가 꺄꺄꺄 웃으며 말했다

[양형제, 어째서 오늘에야 날 찾아왔나? 해해, 그 귀신 얼굴로 누굴 놀려 주려는 게지?]

하고 말하면서 양과가 쓰고 있는 인피면구를 잡았다. 주백통이 인피면구를 왼쪽으로 돌리자 양과는 오른쪽 어깨를 움츠리고 머리를 왼쪽으로 조금 기울였다, 주백통이 순간 잡은 것을 놓아 주었다. 그는 다섯 손가락을 펴서 양과의 목덜미에 대고 슬그머니 눌러 보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양형제.! 훌륭해. 훌륭한 무공이야.! 이 노완동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훌륭해.!]

알고보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각기 매우 심오한 무공을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주백통은 손가락의 힘으로 얼굴 전체에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양과는 고개를 틀어 피하면서 급히 뛰어오르려 했으나 인피면구를 잡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손을 뺀어 안간힘을 쓰고 막 아내야만 겨우 떼어 낼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오른쪽 어깨를 움츠리고 나서 소매를 이용해 주백통의 앞가슴을 공격하려 했다. 노완동은 정신을 집중해 버텼다. 왼쪽의 힘이 점차 약해지자 양과는 머리를 살짝 비틀어 상대방이 짝 잡은 강한 힘을 떨어뜨려 버렸던 것이다.

곽양은 이 같은 사정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단지 주백통이 양과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는 내심 의기양양해져서 말했다.

[주영감님, 당신은 지금의 무공이 강합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가 더 강합니까?]

주백통이 말했다.

[젊었을 때는 백발이었고 지금은 흑발이니 자연 지금이 옛날보다 낫지.]

[지금도 당신은 우리 큰오빠를 이기지 못하니 종전에는 더 상대가 안 되었겠네요.]

주백통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너털 웃음을 웃었다.

[꼬마 아가씨가 멋대로 지껄이는군.!]

돌연 두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등을 붙잡고 공중에 번쩍 쳐들어서 세바퀴를 돌리더니 살짝 집어던졌다가 받아 가지고는 땅에 가볍게 내려 놓았다.

신조는 곽양과 함께 왔는데 돌연 주백통이 그녀를 희롱하는 것을 보자 화가 치밀었다. 석, 하고 날개를 펴서 주백통을 쓸어 버리려 했다. 주백통이 생각했다.

(네 날갯죽지가 얼마나 강한지 한 번 시험해 보자꾸나.!)

그는 쌍장에 힘을 가해 반격해 갔다. 평, 하고 두 힘이 맞부딪혔다. 주백통은 꿈쩍도 안 하고 서 있었고, 수리의 날개 힘은 그의 몸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신조가 공격하려는데 양과가 소리쳤다.

[수리형.! 무례를 범하지 말아요.! 그 분은 선배 교수예요.!]

신조는 날개를 거두고 못마땅하다는 듯이 서 있었다. 주백통이 내심 탄복하여 웃으며 말했다.

[훌륭한 짐승이군.! 기운이 정말 대단해. 이렇게 큰 날개를 휘두르다니...]

양과가 말했다.

[이 수리형은 몇백살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의 나이는 아마 당신보다도 훨씬 많을 겁니다.! 으음, 노완동. 당신은 어떻게 해서 노인에서 아이로, 백발에서 흑발로 변했습니까?]

노완동이 웃으며 말했다.

[이 머리카락과 구레나루는 저절로 난 거야. 예전에는 흑발이 백발

로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 또 백발이 흑발로 변하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네..]

곽양이 말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동생 취급을 할텐데 그러면 참 재미있겠군요.]

주백통은 그 소리를 듣자 자신도 모르게 걱정이 되어 정신나간 듯
멍하니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세상에 어떻게 노인이 어린애로
변하는 일이 있겠는가.! 단지 그의 성품이 질박하고 평생 근심 걱정이
없는데다 무공이 심오했고, 게다가 심산 유곡에서 갓은 약초와 옥봉꿀
등 보약들을 먹은 까닭에 머리카락의 색이 변한 것이었다. 설령 내공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늙어서 치아가 빠졌다가 다시 나거나,
늙을수록 뼈마디가 튼튼해지는 일은 허다했다. 주백통은 비록 도사는
아니지만 양생의 비법을 깊이 터득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나이가 1
백 살에 가까운데도 여전히 정신이 맑았던 것이다. 이는 거의 그의 천
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양과는 그가 곽양의 말을 듣고 뜻밖에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보자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주형, 만약 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만 한다면 주형의 머리카락 색이
변해도 어려지지 않게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백통이 말했다.

[누굴 보러간다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아마 당신은 허락하지 않을 거에
요.]

주백통은 비록 성격은 단순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리도 깊은 무공을 닦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양과의
말을 듣자 그가 온 뜻을 짐작 했다.

[세상에서 나는 단 두 사람을 볼 수가 없어. 한 사람은 단황야이고
또 한 명은 그의 귀비였던 영고이지.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그 누구

라도 볼 수 있지.]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보아하니 격장지계(激將之計)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군.)

[원래당신은 전에 그들에게 패한 적이 있고 무공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가 두려운 것이군요.]

주백통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냐.!아냐.! 이 노완동이 비겁한 짓을 해서 그들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야.]

양과는 주백통이 영고를 만나려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해 순간 멍해졌다. 그러나 재빨리 생각을 바꾸어 말했다.

[두 사람이 화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와도 당신은 그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백통은 순간 멍해졌다. 그는 영고와 일등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 두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들은 구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곽양이 배시시 미소 지으며 조금도 걱정 되는 모습이 아님을 보자 크게 웃어대며 말했다.

[어찌 나를 속이려 하느냐? 단황야의 무공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어찌 화를 당하겠느냐? 만약 정말 지독한 적수를 만났다면 그가 당해 내지 못한 것처럼 나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겠소.! 영고는 당신을 무척 보고 싶어해요.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 당신은 그녀를 한 번 만나 봐야 돼요.]

주백통이 돌연 안색이 변하면서 두 손을 마구 휘젓고는 격렬하게 말했다.

[양형제, 네가 다시 한번 그들의 얘기를 꺼내면 그건 곧 나를 백화곡에서 떠나도록 하는 거야. 이 노완동으로 하여금 얼굴을 바꾸어 남이 못 알아 보게 하라는 건가?]

양과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노완동, 나를 백화곡에서 내보내려고 하지만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하하하, 설마 나와 겨루겠다는 애긴 아니겠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약 진다면 곧 백화곡을 떠나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소. 만일 당신이 진다면 나와 함께 영고를 보러 가야 합니다.]

[안돼.! 안돼.! 첫째,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애송이에게 지겠나? 둘째, 진다고 해도 절대 유귀비를 만날 수 없네.]

양과가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이기면 물론 그녀를 보지 않겠지만 당신이 졌는데도 보지 않겠다면 우린 뭘로 내기를 하죠?]

[안 보면 안 보는 것이지, 뭐 꼭 내기를 해야 하는가.! 자 어서 겨루어 보세.]

양과는 그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해 진짜 무공 대결을 해도 실은 이길 자신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갈 데까지 가는 수 밖에 없었다.

주백통은 비록 백화곡에 은거했다고는 하지만 성품이 무예를 좋아하여 매일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무공에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양과가 대결을 신청하자 온몸이 근질근질해졌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가 갑자기 겨루지 않으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까 보냐? 바로 좌장을 들어 소리쳤다.

[주먹을 봐라.]

오른손 주먹을 내지르며 72 초의 공명권법(空明拳法)을 전개했다.

양과는 왼손으로 일장을 받아냈다. 돌연 상대방의 권력이 있는 듯 없는 듯 느껴졌다. 자신의 장력을 그대로 뺏어도 안 될 것 같았고, 허공을 치자니 매우 위험했다. 내심 놀람을 금치 못하여 즉각 10 여년 간

험난한 파도 속에서 힘겹게 수련한 장법을 펼쳤다. 그가 연속으로 세 번을 내질러 장력이 일어나자 몸 주위에 있던 꽃나무의 꽃잎들이 우수수 밑으로 떨어졌다. 홍황자백(紅黃紫白)의 온갖 꽃들이 꽃비처럼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실로 가관이었다. 다시 3장을 내지르자 사방에서 쉬쉬거리는 소리와 뚜둑,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끝내 나뭇가지들이 부러졌다. 양과는 처음에 주백통이 노쇠하여 자신의 맹렬한 장력을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장력을 뺏는 순간 바로바로 회수하곤 했는데 6초가 지나자 상대방의 내공이 심후하고 권법도 자신보다 훨씬 오묘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곧 주백통의 권법에 패할 것 같아 그 때서야 온 힘을 다해 더 이상 여력을 남기지 않고 공격했다. 주백통은 신이 나서 소리쳤다.

[홀룡해.! 홀룡한 권법이야. ! 이 일초는 정말 일품이야.!]

두 사람의 주먹과 손바닥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자 곽양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격투가 계속되며 노완동의 72초 공명권법이 거의 끝아 갔다. 그는 비록 초식에 있어서는 양과보다 유리했지만, 근력으로 말한다면 파도 속에서 단련한 양과의 용솨음쳐 오르는 무궁무진한 기세를 당해 낼 수 없었다.

곽양은 곁에 서서 온갖 꽃들이 휘날리는 속에서 양과와 주백통이 서로 손발을 교환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상대를 해치려는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수들의 대결은 종종 하도 격렬해, 한 순간 실수해도 곧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어 내심 양과가 걱정되어 양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주백통은 스스로 수십 년을 갈고 닦은 공명권으로 시종 양과를 어찌할 수 없자 속으로 양과를 칭찬했다.

(어린 놈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가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좌장우장을 동시에 공격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쌍수양용지술(雙手兩用之術)이었다. 이렇게 되자 노완동의 몸이 요동치는가 싶더니 몸이 둘로 되서 좌우에서

협공하는 꼴이 되었다.

양과는 단지 한 손으로만 그의 두 손을 상대하자니 자연 힘에 부쳤는데 이 때는 더욱 부족함을 느꼈다. 이전에 소용녀가 주백통의 가르침을 받아 두 손을 함께 사용하는 옥소소심검법을 배워서 금륜법왕을 대패시켰었다. 그 후에 양과와 소용녀가 만났을때, 소용녀는 양과가 오른팔을 잃어 그가 난감해 할까 봐 어떻게 두 손으로 서로 다른 초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대략 얼버무렸던 것이다. 지금 주백통이 돌연 그것을 사용하자 양과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좌장에 힘을 가하며 오른쪽 소매로도 상대방의 공세를 받아 낼 수밖에 없었다.

곽양은 두 사람의 정밀하고 오묘한 무공을 깨우치진 못했지만, 두 사람의 백중지세에서 점차 양과가 열세에 몰리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볼 수록 두려워졌다. 이 때 부친께서 자기에게 무공을 가르칠 때, 양손으로 두 종류의 다른 무공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신과 형제들의 공격에 맞섰던 일이 돌연 생각났다. 보아하니 주백통이 지금 사용하는 무공이 바로 부친의 그 무공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무공을 주백통에게 가르쳤는지, 아니면 이 노인이 아버지로부터 몰래 훔쳐 배웠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노완동.! 손을 멈추시오. 불공평해요, 큰오빠.! 그와 싸울 필요없어요.]

주백통이 흠칫하더니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뭐가 불공평해.!]

[당신은 그 권법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훔쳐 배워 그걸 사용해서 큰오빠를 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주백통은 그녀가 말끝마다 양과를 <큰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녀가 진짜 양과의 누이동생인 줄 알고 있었지만 양과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났다.

[남자는 또 허튼소릴 하는군. 이것은 내 스스로 산 속 동굴에서 생

각해 낸 것인데 왜 당신 아버지한테서 흠쳤다고 하는거지?]

곽양이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흠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당신은 두 팔을 사용하고 큰 오빠는 한팔만을 사용해 이토록 오랫동안 싸운다면 뭐를 겨루겠다는 거예요? 만약 오빠가 당신처럼 두 팔을 사용했다면 당신을 벌써 졌을 거예요.!]

주백통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네 말도 일리가 있긴 해. 그러나 두 팔이 있다고 해도 두 손을 함께 사용하는 무공을 펼칠 수는 없을 거다.]

하고 말하면서 득의 양양해 크게 웃었다. 곽양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 큰오빠가 팔이 잘려 회복할 수 없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허풍을 떠는 구요. 당신이 정말로 영웅호걸이라면 무예를 겨룰 때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가 공평하게 싸워야 누가 강하고 약한지 구별할 수가 있죠.]

주백통이 말했다.

[그래.! 내가 사용하는 이 권법이 바로 공평한 거야.]

곽양이 입을 삐죽거렸다.

[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공평해요?]

[그럼 내가 그와 같이 여자한테 팔을 잘려야 옳단 말이나?]

곽양은 흠칫하며 양과를 한번 쳐다보고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제 보니 그의 팔은 여자에게 잘린 거였구나. 그 악독한 여자가 누굴까? 어떻게 이처럼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당신은 한 손을 허리에 묶고 서로 한 팔로 싸우면 공평하게 되잖아요.!]

주백통은 이렇게 무예를 겨루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 같았다. 또 한 손만으로도 평소에 무예를 쌓았기 때문에 꼭 두 손만 못하다고 할 수가 더 없기에 오른팔을 허리춤에 넣고 양과에게 말했다.

[이제 네가 지더라도 한이 없겠지.]

곽양과 주백통이 말하는 동안 양과는 곁에 서서 시종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그는 팔이 잘린 이후로 남들이 <외팔이>라고 말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줄곧 외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천하의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는데, 주백통이 스스로 오른팔을 묶자 상대방이 자신을 깔보는 듯해서 냉담하게 말했다.

[노완동,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를 깔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외팔로써 당신의 두 손을 이기지 못한다면 곧 나 스스로... 스스로....]

그는 <이 백화곡에서 자결을 하겠다>고 말하려 했으나, 소용녀와 상봉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쑥 떠오르자 경솔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입을 다물고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곽양은 몹시 후회했다. 그녀는 어린 마음에 양과를 옹호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가 당대의 협객으로 천하에 명성이 자자하고, 또한 스스로 팔을 묶은 사람과는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급히 말했다.

[큰오빠, 모두 내가 잘못.....]

그녀는 주백통 앞으로 달려가서 그의 오른팔을 허리춤에서 꺼내면서 말했다.

[큰오빠는 한 팔이지만 당신이 두 팔을 다 사용해도 당신을 이길 수 있어요. 어디 한 번 해 보세요.]

양과는 주백통이 다시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몸을 약간 기울여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주백통은 왼손으로 막아내며 오른팔을 허리춤에 댄 채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

주백통은 한 손으로 응대하였으나 무공이 신묘하고 거침없어 양과는 그를 상대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순식간에 20 여 합이 지나갔다.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비록 팔은 하나지만 나이는 한창때 데, 1 백살에 가까운 노인과 1 백여 합이나 교환해도 승부를 내지 못하다니, 십 수 년간이나 수련한 무공은 다 어디로 갔지?)

주백통이 내뿜는 권법의 힘 속에 양강(陽剛)의 기운이 점차 성하여 공명권의 음유(陰柔)와는 사뭇 다름을 느꼈다. 그는 생각을 굴리다가 예전에 종남산의 고묘의 석벽에서 본 구음진경을 생각해 냈다. 지금 주백통이 사용하는 무공이 바로 진경 속에 수록된 대복마권법(大伏魔拳法)인데, 그 기세가 실로 대단했다. 양과가 크게 소리쳤다.

[대 복마권법이 뭐가 대단하오? 당신은 두 손을 다 사용해서 나의 암연소혼장(暗然銷魂掌)을 받아 보시오.]

주백용은 그가 자신이 사용한 권법의 명칭을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또 그가 무슨 암연소혼장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더욱 이상스러워졌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즐겨 천하에 있는 각문 각파의 무공을 널리 알고 있었지만 암연소혼장이란 이름은 오늘 처음 들어본 것이었다. 양과는 왼팔을 든 후 먼 곳을 쳐다보며 다리를 허공에 띄우고, 가슴을 완전히 밀어젖혀 전신의 자세가 무공에서 금기로 하는 것들로 이루어졌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내딛더니 왼손으로 허공을 내질러 시험을 해 보았다. 양과는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주백통이 <조심해.!!> 하고 말하더니 주먹을 뺀어 그의 복부를 쳤다.

그는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되어 힘을 많이 주지 않았다. 주먹이 막 그의 몸에 닿을 듯하더니, 갑자기 양과의 복부가 떨리며 동시에 가슴을 안으로 쑥 빨아당겨서는 탁 튕겨 났다. 주백통은 깜짝 놀라서 급히 왼쪽으로 펄쩍 뛰었다. 내노라하는 고수들이 가슴과 배를 안으로 빨아들여 적의 주먹을 피하는 것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가슴의 근육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다. 그는 곧 호기심이 발동해 소리쳤다.

[그게 무슨 무공이냐?]

[이건 암연소혼장 중 열 세번째 초수로서 심경육도(心驚肉跳)라 하

오.!]]

주백통이 중얼거렸다.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양과가 말했다.

[이건 내가 독창한 열 일곱번째 권법이니 당신이 들었을 리가 없
죠.]

양과는 소용녀와 절정곡 단장에 앞에서 헤어지고 나서 곧 신조와 함
께 파도 속에서 수련을 했었다. 수 년 후 내공이 크게 증진 된 것 이
외에는 별로 수련할 게 없었다. 마음속으로 늘 소용녀를 그리워하다
보니 점점 의기소침해져 사는 재미가 없었다. 하루는 해변가에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무심결에 손발을 휘둘러댔다. 그 순간 내공이 불
같이 차올라 엄청난 장력이 격출되었다. 해변가의 모래밭에 있던 한
마리의 커다란 바다 거북의 등쪽을 가볍게 내리치자 그것은 그만 산산
조각이 나 버렸다. 그는 이 때부터 곰곰이 생각하여 완전한 장법을 창
안해 내었는데, 수법이 보통의 무공과는 매우 달랐다. 그 장법은 모두
내공에 의지해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되었는데 전부 17초로 되어 있다.

그는 평생 동안 적지않은 무공 대가들의 지도를 받았다. 전진교로부
터 현문정종 내공의 구결을 배웠고, 소용녀로부터 옥녀심경을, 고묘에
서는 구음진경을, 구양봉에게는 합마공과 경맥을 바꾸는 법을 배웠다.
홍칠공과 황용은 타구봉법을 가르쳐 주었고, 황약사는 탄지신통과 옥
소검법을 가르쳐 주었다. 일양지를 제외하고는 동사. 북개. 서독. 중
신통의 무학을 다루어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고묘파의 무학은 5대 고수 외에 다른 특별한 과정을 거쳐 습득한 것
으로,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융합되어 이미 하나의 대가를 이루고 있
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팔이 하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초식의 변화
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무학의 통상적인 이치를 정반대로 응
용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장법을 암연소혼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는 강엄(江淹)의 <별부(別賦)>속의 한 귀절인 <묵묵히 혼을 사르는 자

만이 유일하게 구별될 따름이다>에서 취한 것이다. 장법을 연성시킨 이래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백통과 같은 강적을 만난 것이다.

주백통은 이것이 그가 직접 창안한 무공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 흥미를 느꼈다.

[꼭 보고 싶은데.!]

그는 여전히 원팔만을 사용해서 손을 휘둘렀다. 양과는 하늘을 쳐다보고 못 본 체하더니 획 하고 일장을 자신의 머리위로 후려쳤다. 이 일장이 둥글게 덮쳐오자 주백통은 피할 수가 없어 바로 장력으로 맞섰다. 펑, 하고 쌍장이 교환되었다. 주백통의 몸이 순간 휘청거렸다. 그의 무공은 결코 상대방보다 약하지는 않았지만 장법으로 겨룰 때에는 양과의 심후한 장력에 미칠 수 없었던 것이다.

주백통은 가슴의 탁한 기운을 뱉아 내며 칭찬을 했다.

[훌륭하다.! 이걸 이름이 뭐가?]

[기인우천(杞人憂天)이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번에는 무중생유(無中生有)입니다.!]

주백통은 씩 웃으며 무중생유라는 이름이 참으로 신기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양과는 팔을 늘어뜨리고 전혀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주백통의 주먹이 몸 가까이 와 닿을 무렵 돌연 손발을 함께 움직였다. 좌장과 오른쪽 소매, 두 발끝, 게다가 가슴과 등, 허리와 배 까지도 모두 초식을 격출해 상대방을 해치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주백통은 그에게 필시 절초가 있으리라고 여겨 방비는 했지만 그가 전신으로 일제히 공격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순식간에 10여 개의 초식이 동시에 들어왔다. 말하자면 무중생유는 단지 하나의 초식이지만 그 중간에는 10여 가지의 초식들이 잇달아 있는 것이었다. 주백통은 무예가 매우 깊었지만 어쩔 줄 몰라 찢찢맸다. 그는 팔 한쪽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부득불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력을 다해 겨우 이 장법을 막아냈다. 총 11합을 막아내고서 급히 1

장 정도 뒤로 물러나 양과의 또 다른 이상한 공격에 대비했다.

곽양이 소리쳤다.

[주영감님, 두 손을 다 사용해도 안 되면 손을 하나 더 사용해 보세요.]

주백통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지만 웃으며 말했다.

[꼬마 아가씨야, 나보고 삼손이라 불렀느냐?]

양과는 자신이 갑자기 공격한 권법을 그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잘 막아내는 걸 보고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번 것은 타니대수(拖泥帶水:말과 행동이 꾸물거림을 뜻함)라 합니다.]

주백통과 곽양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멋있어.!]

양과가 말했다.

[먼저 권법부터 보시오.!]

그의 오른쪽 소매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나부꼈고, 왼쪽 손바닥은 수천 근의 진흙을 든 것처럼 묵직해 보였다.

주백통은 예전에 황약사가 특히 잘 하던 오행장법은 장력 속에 오행이 어우러져 있다는 왕중양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지금 양과의 오른쪽 소매는 북방의 계수지상(癸水之象)이었고, 좌장은 중양의 무토지상(戊土之象)이었다. 날렵함과 중후함을 함께 겸비하고 있어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었다. 왼손으로는 공명권 중의 일초를, 오른손으로는 대복마권의 일초를 사용해 날렵함에는 날렵함으로 중후함에는 중후함으로 맞섰다. 두 사람이 격돌하자 모두 몇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렇게 4초가 지나가자 두사람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탄복했다. 양과가 생각했다.

(이 암연소혼장을 연마한 이래 만났던 사람 중 이 노인네가 가장 강하군. 그를 이기기란 쉽지가 않겠다. 정말로 승부를 가리려면 내공을

써야 하는데 그럴 경우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겠지. 홍칠공과 의부
였던 구양봉의 경우처럼 동귀어진이 될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복잡한 생각을 거두고 몸을 숙여 말했다.

[노선배님 , 정말 감탄했습니다. 후배가 졌습니다.]

하며 고개를 돌려 궤양에게 말했다.

[동생, 주선배님을 모실 수 없으니, 우린 가자.!!]

주백통이 황급히 말했다.

[잠깐. 잠깐.!! 자네의 무슨 소혼장인가 하는 것은 모두 열 일곱 초
식이라 했으니 아직 열 세 개의 초식을 전개하지 않았잖은가? 어째서
그냥 가려고 하는가?]

양과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당신
은 줄곧 나와 아내에게 잘 대해 주어서 전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당
신의 무공이 고강하여 후배는 패배를 인정한 것 뿐입니다.]

주백통은 연신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냐.!! 자네는 지지 않았어. 내가 이기지도 않았고. 자네가 이 백
화곡을 나가려면 십 칠 초식을 전부 사용해야 돼.!!]

그는 양과가 말한 심경육도, 기인우천, 무중생유, 타니대수, 네 가
지의 장법 이름을 들었는데 이름이 모두 재미있어 장법은 더욱 이상하
게 느껴졌다. 보통 사람이라도 알아보고 싶을 터인데 하물며 주백통처
럼 무술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걸 다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법이다. 양과가 말했다.

[허, 참 우습군요. 내가 그냥 가겠다면 박수를 치고 보낼 것이지,
어째 손님을 붙잡아 두려 하십니까?]

주백통이 애원하듯 말했다.

[자네의 나머지 열 세가지 초식의 장법을 내 어찌 알 수가 있겠는
가? 자네가 크게 선심을 써 좋은 일 좀 하게. 자. 빨리 설명을 좀 해
주게나. 자네가 배우고 싶은 무공이 있다면 뭐든지 알려주겠네.]

양과는 그의 마지막 말에 귀가 솔깃해서 말했다.

[내 장법을 배우려 한다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에게 무공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단, 당신이 내 장법을 배우고 난 후 나와 함께 영고를 만나 보러 간다고 약속해야만 합니다.]

주백통은 근심 어린 얼굴로 눈썹을 찌푸렸다.

[나를 죽인다 해도 난 그녀를 보지 않을래.]

양과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후배는 이만 가겠습니다.]

주백통이 펄쩍 뛴다. 몸을 날려 양과의 길을 막더니 획, 하고 주먹을 내리치고 웃으며 말했다.

[자, 자네가 일초를 시전해 보게.!!]

양과는 전진파의 무공을 사용해 막아냈다. 주백통이 잇달아 권법을 바꾸어 공격했지만 양과는 시종 전진파 장법과 구음진경 속에 기재된 무공으로만 막아냈다.

양과가 주백통을 격퇴시키는 일은 어려웠지만 그의 공격을 방어하려고만 한다면 주백통도 양과를 어찌할 수 없었다. 주백통이 허점을 드러내든 약한 체를 하든 양과는 시종 속지 않고 그 암연소혼장에 있는 새로운 초식을 내보이지 않았다. 가끔 심경육도, 기인우천, 무중생유, 타니대수, 이 네가지 초식을 변화시켜 사용할 뿐이었다. 주백통은 더욱 안달이 났다.

두 사람은 벌써 1시간 가까이 싸웠다. 주백통은 늙고 혈기가 쇠했기 때문에 결국 점점 힘이 떨어졌다. 그는 양과로 하여금 암연소혼장을 사용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자 두 손을 거두어 뒤로 훌쩍 물러서며 말했다.

[그만. 그만.!! 자네에게 여덟 번 절을 하고 자네를 사부로 삼을 테니 나에게 그 암연소혼장을 가르쳐 주게나.!! 양과 사부, 제자 주백통이 인사드립니다.!!]

하고 말하면서 땅에 꿇어 앉았다. 양과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세상

에 이처럼 무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고는 급히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째. 이러십니까? 할 수 없군요. 암연소훈장의 나머지 십삼 초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백통은 너무 기뻐서 소리쳤다.

[고마우이 양형제.!! 고마우이 양형제.!!]

곽양이 말했다.

[큰오빠, 그가 우리와 함께 안 가겠다면 가르쳐 주지 말아요.]

양과는 노완동에게 무벽(武癖)이 있어서 13 개의 이름을 듣고 난 후에는 자신의 시범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여겨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름만 들어서는 별 소용이 없는데.....]

주백통이 급히 말했다.

[맞아. 이름만 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

양과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말했다.

[자, 들어보세요, 암연소훈장의 나머지 열 세 가지는 배회공곡(徘徊空谷), 역불종심(力不從心), 행시주육(行屍走肉), 용인자요(庸人自擾), 도행역시(倒行逆施).....]

여기까지 말했을 때 곽양은 배를 잡고 웃어 댔다.그러나 주백통은 엄숙하게 암송하고 있었다. 양과가 말을 이어갔다.

[폐침망식(廢寢忘食), 고형척영(孤形隻影), 음한탄성(飲恨吞聲), 육신불안(六神不安), 궁도말로(窮途末路), 면무인색(面無人色), 상입비비(想入非非), 매약목계(매若木鷄).!]

곽양은 마음이 처연해져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13 가지 명칭을 말하는 동안 노완동은 정신없이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말했다.

[면무인색이란 일초는 어떻게 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거지?]

양과가 말했다.

[그것은 일초뿐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변화가 많습니다. 얼굴에 희

로애락 등 온갖 모습을 드러내어, 적이 보고선 마음을 자제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면 적도 기뻐하고 내가 근심하면 적도 근심하게 되어 결국 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소리나 형체도 없이 적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길게 소리를 질러 적을 제압하는 것보다 한수 위인 셈이죠.]

[그것은 구음진경의 섭심대법에서 변화시켜 낸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백통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물었다.

[그 도행역시는?]

양과가 돌연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더니 일장을 뺄으며 말했다.

[이것이 <도행역시>의 서른 일곱가지 변화 중의 하나이죠.]

주백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원래 서독 구양봉의 무공인데.]

양과가 바로 서면서 말했다.

[맞아요, 그러나 이 장법은 정(正)과 반(反)이 서로 상충되 모순을 일으킴으로써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백통이 아무리 생각해 보았지만 이치를 잘 알지 못하자 고개를 가우뚱 하며 물었다.

[뭐라고?]

양과가 말했다.

[물론 이 안에는 세세한 사정이 있지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주백통은 으음, 하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더 묻고는 싶었지만 양과가 결코 다시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곽양은 주백통이 고개를 가우뚱 거리며 안달하는 표정을 곁에서 보더니 연민이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주영감님, 도데체 왜 영고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큰오빠가 이 장법을 당신께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주백통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건 내가 어렸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일 때문이야. 사실 애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뭐가 걱정이에요? 말해 버리고 나면 속에 쌓아 두는 것보다 훨씬 시원할 텐데요.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 아빠와 엄마에게 숨기거나 속이지 않고, 한바탕 꾸중을 들으면 그만이었어요. 만약 거짓말을 해서 속이게 되면 제 스스로 나중에 견딜 수 없게 돼요. 이번에 제가 몰래 나와서 아빠 엄마가 화를 내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속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주백통은 그녀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다가 양과를 쳐다보고 말했다.

[좋아. 어렸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일을 말해 줄 테니 비웃지나 말아라.]

곽양이 말했다.

[비웃긴 누가 비웃어요?]

곽양은 그의 손을 잡아 끌고 아주 친근하게 그의 옆에 다가 앉으며 말했다.

[남의 일이라 여기고 말해요. 뭇하면 옛날 얘기라 여기고 말하든지요. 나중에 나도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들려줄게요.]

주백통은 그녀의 예쁘고 자그마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너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어?]

곽양이 말했다.

[물론이죠, 내가 안 그랬으리라 생각해요?]

[그래? 그럼 네가 먼저 하나 얘기해 주렴.!]]

[어찌 한가지 뿐이겠어요. 열가지도 넘어요. 으음, 군사 한 명이 성에서 보초를 서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선 그를 묶어서 머리를 베어 효시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그 병사가 불쌍해서 밤에 몰래 그를 풀어 주고는 어서 도망치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안 아버지께서

는 화가 몹시 나 저를 불러서 한차례 매를 때렸지요.... 또 있어요...
한 번은 가난한 집 여자 아이가 우리 엄마의 예쁜 금사발을 부러워하
길래 내가 훔쳐서 그 애에게 주었어요, 엄마는 찾다 찾다 끝내 찾지
못했지요. 난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
면 말해 버려도 엄마는 개의치 않을 테지만, 언니가 그 애를 못살게
굴 테니까요.]

주백통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일은 나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윽고 그는 자기가 사형 왕중양을 따라가서 어떻게 단황야를 만나
게 됐고, 어떻게 해서 유귀비가 그에게 무예를 배웠고, 두 사람이 어
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귀비가 어떻게 자기에게 정
을 품었는지, 그가 보지 않으려고 피한 일 또 단황야가 왜 화를 냈으
며,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중이 된 모든 사정을 곽양과 양과에게 들
려 주었다.

곽양과 양과는 주백통이 말을 마칠 때까지 줄곧 듣고만 있다가 주백
통의 얼굴이 온통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자 곽양이 물었다.

[단황야에게는 유귀비 말고 또 몇 명의 후궁이 있었나요?]

[그는 대송의 천자처럼 후궁이 삼천 명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삼궁육
원(三宮六院)에 수십명의 후궁들이 있었지.]

[그에게는 수십 명의 후비들이 있었고 당신은 한 명의 부인도 없었
는데 친구를 생각해서 유귀비를 당신에게 주어 버린 일로 생각하면 되
잖아요.]

양과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그덕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세속적인 예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군. 말하는 것이 내
맘에 썩 들어.)

주백통이 말했다.

[그도 그 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유귀비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었지. 그는 그 때문에 왕위도 포기하고 중이 되어 버린 거야. 그래

서 내가 이토록 죄스럽게 생각하지.]

양과가 갑자기 끼어들어 말했다.

[일등대사가 출가한 이유는 당신에게 미안했기 때문이지. 당신이 그에게 미안한 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모르십니까?]

주백통이 말했다.

[그가 왜 내게 미안하지?]

양과가 말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아기를 해쳤지만 그는 끝내 구하려고 하질 않았잖아요.!]]

주백통은 수십 년간 영고와 자기 사이에 자식이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양과의 말을 듣고는 매우 놀라서 다급하게 물었다.

[뭐.!! 내 아기라고?]

양과가 말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등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등이 흑룡담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주백통은 뜻 밖에도 자기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벼락을 맞은 듯 깜짝 놀라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멍하니 있었다. 마음속에 온갖 기쁨과 슬픔이 뒤엉켰으며, 영고가 수십 년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더욱 불쌍하고 측은한 느낌이 들었다.

양과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이 노선배님은 우리들처럼 성정이 바른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십칠초 암연소혼장을 뭐 그리 아깝게 여기랴?)

[주선배님, 내가 장법을 전부 다 하나하나 보여 드릴테니 부족한 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곧 말과 행동으로 17 초의 장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전해 보였다. 단지 <면무인색>의 일초는 그가 인피면구를 착용하고 있어 보여 주질 못했다. 그러나 그가 변화에 대해 말해 주자 주백통은 구름진경을 숙지하고 있는 터라 곧 알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행시주

육, 궁도말로의 초식에 대해서는 그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양과가 몇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주백통은 여전히 이해를 못 했다.
양과가 탄식하며 말했다.

[주노선배님, 십오 년전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후배는 그리움이 사무쳐 느낀 바가 있어 이 장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노 선배님은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내셨으니 그 속에 담긴 근심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백통이 말했다.

[어? 자네 부부가 왜 헤어졌지? 그녀는 예쁘고 또 마음도 고왔으니 자네가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양과는 소용녀가 광부에게 독침을 맞아 부상당한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병이 고치기 어려워서 남해신니를 찾아가 16 년이 흘러야 만날 수 있어 자신은 밤낮으로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그녀가 평안히 돌아오도록 경건히 기도한다는 내용만 간략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했다.

[내가 그녀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라도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광양은 여지껏 그리움의 심도가 이렇게 괴로운 것인 줄 몰랐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줄기 맑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양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늘이 도우셔서 분명 그녀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양과는 소용녀와 이별한 이후, 오늘 처음으로 남에게 이와 같은 진심어린 위로를 받고는 무척 감격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서서 주백통에게 인사를 한 후 말했다.

[주선배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서 광양과 어깨를 나란히 해 걷기 시작했다.

광양은 몇 걸음 걷다가 주백통을 돌아보며 말했다.

[주노선배님. 우리 큰오빠가 부인을 이토록 생각하는데, 당신의 영국 역시 당신을 이토록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끝까지 그녀를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백통은 깜짝 놀라면서 안색이 확 변했다. 양과가 나지막히 말했다.

[동생. 그만해.!! 사람은 각자 생각이 있는 거야.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아.]

그들은 천천히 돌아갔다. 곽양이 말했다.

[오빠. 부인에 대해 물어도 오빠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몇 개월만 있으면 곧 그녀를 보게 될텐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정말 용아를 볼 수 있을까?)

곽양이 말했다.

[어떻게 그녀를 알게 되었어요?]

양과는 고생스러웠던 어린 시절과 중앙궁에서 무예를 배운 일, 스승과 동문에게 굴욕을 당한 일을 고묘로 도망쳐서 소용녀를 만난 일, 오랫동안 정을 나누다가 천신만고 끝에 부부가 된 일 등을 간략하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곽정, 황용, 이막수 등의 이름은 끝내 꺼내지 않았다.

곽양은 묵묵히 들으면서 양과에게 깊은 동정을 느끼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꺼냈다.

[하늘이 도우셔서 꼭 그녀를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바래요.]

[정말 고마워, 너의 그 고마운 마음씨를 영원히 잊지 않을게. 나중에 아내를 만나면 그녀에게도 알려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울먹이고 있었다. 곽양이 말했다.

[나는 해마다 생일이 되면 엄마와 함께 향을 피워 놓고 하늘에 기도를 하죠, 엄마는 늘 나에게 마음속으로 세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

데 반나절이나 고민해도 생각해 내질 못했어요. 올해 생일날에는 이제
빌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난 오빠와 부인이 일찍 만나게 되길 빌겠
어요.]

[나머지 두 소망은?]

곽양이 미소지으며 말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바로 그 때, 갑자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형제 기다려.!!]

주백통이 나는 듯이 달려왔다. 양과는 매우 기뻐하며 몸을 돌렸다.

[양형제.!!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와 함께 영고를 보러 가겠어.]

곽양이 기쁜 듯이 말했다.

[잘 되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 지 당신을 모를 거
예요.]

주백통이 말했다.

[너희들이 가고 나서 나는 양형제의 말을 생각해 보았어. 생각할 수
록 애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만약 그녀를 보러 가지 않으면 나중
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거야. 이 말을 직접 그녀에게 정확히 해 주어
야만 되겠어.]

양과와 곽양은 이번 걸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둘 다 매우 기뻐
했다.

주백통의 급한 성질 때문에 곧장 영고를 보러 떠나려 했으나 이미
날이 저물었고 곽양도 피곤해서 눈을 꿈벅거리 세 사람과 신조는 나무
에 기대어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다시 길을 더나 얼마 되지 않아 흑
룡담 근처에 이르렀다.

영고와 일등은 양과가 정말로 주백통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자 매우
기뻐하며 바라보았다. 영고는 가슴이 마구 뛰어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었다.

주백통은 영고 앞으로 걸어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영고, 우리 아기가 가마가 하나였소, 두개였소?]

영고는 젊어서 그와 헤어지고 난 후 이제 다 늙어서 그를 다시 만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불쑥 꺼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영고가 대답했다.

[쌍가마예요.]

주백통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래, 그럼 날 닮았겠군. 정말 총명하겠는데.]

그러더니 곧 탄식을 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애석하게도 죽어 버렸지.!]

영고는 희비가 교차되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만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주백통이 그녀의 등을 다독거리 주며 큰소리로 위로했다.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그리고 일등에게 말했다.

[단항야, 나는 당신의 아내를 빼앗았고 당신은 내 아이를 살리고자 하지 않았소. 이제 옛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꼬집어 내지 맙시다.!]

일등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자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 당신 아이를 죽인 범인이요. 그를 쳐서 죽이시오.!]

주백통이 말했다.

[영고 당신이 처리하시구료.!]

영고는 자운을 쳐다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만약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당신을 만나 보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없는 일인 이상 오늘의 기쁨으로 옛날의 원한을 모두 잊어버려요.!]

주백통이 말했다.

[그 말이 맞아. 우리 그를 용서합시다.!]

자운의 부상은 매우 위중하여 한 가닥 호흡에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때 주백통과 영고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듣자 크게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곧 일등에게 말했다.

[사부님, 고맙습니다.]

또 양과에게도 말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일등대사는 염불을 외며 합장을 하고서 말했다.

[자은. 자은.! 자네는 내 제자였지만 실은 좋은 친구였네. 이십여 년 간이나 지내면서 공과(功過)도 함께 하며 헤어진 날이 없었지. 오늘 자네가 극락왕생하게 되니 기쁘지만 또한 슬픔을 어쩔 수 없네 그려.]

곧 양과와 곽양 등이 함께 움직여 자은을 땅에 묻어 주었다.

주백통과 영고는 서로 마주보면서 하고 싶은 말 중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양과는 자은의 봉분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지난날 설곡(雪谷)의 나무집에서 소용녀와 함께 신혼을 보낼 때 자은의 미친 듯한 모습을 보았는데 철장과 경공으로 강호에 이름을 떨친 일대의 무학대사도 끝내 묵묵히 흙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영고는 품속에서 2마리의 구미영호를 꺼내며 말했다.

[양공자, 깊은 은덕에 보답을 못 해 부끄럽구료. 이 두 마리 여우를 가져가시오.]

양과가 한 마리를 받아 들고 감사의 말을 했다.

[한 마리만 주셔도 온정을 베푸시는 겁니다.]

일등이 말했다.

[양현질, 두 마리를 다 갖고 가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필요는 없다네. 단지 그 놈의 다리에 있는 혈맥을 베어서 매일 작은 잔으로 한 잔씩 교대로 피를 뽑아 마신다면 아무리 대단한 내상이라도 치유될 수 있을 걸세.]

양과와 영고는 함께 기뻐하며 말했다.

[여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죠.]

양과는 여우를 들고 일등, 주백통, 영고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영고가 말했다.

[여우의 피를 취하고 난 후 그들은 놓아 주어 돌아오게 해 주게나.]

주백통이 불쑥 끼어들었다.

[단황야. 영고.!! 함께 백화곡으로 갑시다. 내가 꿀벌들을 지휘해 보여 주겠소. 난 또 새로운 장법을 배웠는데.....흠흠, 대단해요, 대단해요.!! 양형제, 자네 친구를 다 치료하고 나서 여동생과 함께 놀러오게나.!!]

양과가 웃으며 대답했다.

[속세의 번잡한 일이 없게 되면 당연히 세 분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몸을 굽혀 예를 표시하고 돌아섰다.

2 마리의 구미영호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영고를 바라보았다. 영고가 말했다.

[양공자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 줄 텐데 왜 우느냐?]

곽양이 손을 내밀어 여우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었다.

세 개의 금침(金針)

양과는 주백통을 데려와 영고와 다시 만나게 하고, 자은이 안심하여 죽게 하고, 또 한 번의 수고로 여우를 얻어서 연달아 세 가지나 좋은 일이 생기자 저절로 신이 나서 곽양, 신조와 함께 만수산장(萬獸山莊)으로 돌아왔다.

사씨 형제는 양과가 여우를 2 마리씩이나 구해 온 것을 보고 기쁘고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모르며 곧 여우의 다리를 베어 피를 받았다. 사숙

(史叔)은 그것을 먹은 뒤에 운공을 하여 부상을 치료했다.

이 날 저녁 만수산장에서는 연회석을 크게 차려 놓고 양과를 추대하여 상석에 앉혔다. 연회석에 늘어놓은 것은 모두가 성순(猩脣), 낭퇴(狼腿), 웅장(熊掌), 녹태(鹿胎) 등의 여러 가지 진이(珍異)한 짐승고기로,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할 음식이 이 날 저녁 연회석에는 수십 가지나 갖추어져 있었다. 연회석 옆에는 커다란 그릇 하나에 산해진미를 가득 채워 놓고 신조가 먹도록 했다.

사씨 형제와 서산 일굴귀(西山 一窟鬼)는 양과에게 더 이상 감은재덕(感恩載德)이니 뭐니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기들의 목숨은 양과가 내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후로 그가 무슨 분부를 내리든지 간에 만 번을 죽더라도 사양하지 않을 참이었다. 자리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고담활론(高談闊論)을 주고 받는데 말하는 것이 모두 강호의 기문질사(奇聞軼事)였다.

곽양은 양과와 만난 이래로 줄곧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각자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양과는 우연히 그녀를 한 번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 심난한 기색이 감도는 것을 보고 이 작은 아가씨가 매일 이리저리 뛰어다녀 피곤해서 일거라고 생각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가 어찌, 곽양이 그와의 이별을 눈앞에 두고 같이 지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몰래 시름을 달래고 있다는 것을 알랴!

술이 몇 순배 돌았는데 돌연 바깥의 수풀 속에서 한 마리의 원숭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어서 여기저기서 호응하여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일제히 울었다. 사씨 형제는 약간 안색이 변했다.

사맹첩이 말했다.

[양대형과 서산 제형은 편안히 앉아 계십시오. 소제가 나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 홀연 대청을 나갔다.

각자는 수풀에 외적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았지만 눈앞에 이토록 많

은 고수가 모여 있으니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됐다.
살신귀가 말했다.

[곽도왕자가 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 모두 그와 함께 격투를 벌여 사삼형에게.....]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맹첩이 대청 밖에서 소리를 질렀다.

[늑신데 이 밤에 산장을 찾아 오셨나요? 잠시 걸음을 멈추시오!]

이어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머리가 큰 난장이가 이곳에 있는지요? 나는 그에게 내 동생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물어 봐야 합니다.]

곽양은 언니가 찾아온 것을 알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양과를 힐끗 쳐다보니 그의 두 눈에서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며 매우 이상한 표정이었다. 마음속으로 괴이한 생각이 들어 목에서 <언니!>라는 말이 솟구쳐 올랐지만 차마 부르지를 못했다. 사맹첩이 노하여 말했다.

[이 여자가 무례하기 짝이 없군. 어찌 나의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멋대로 소란을 피우는 거냐?]

다시 곽부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이어서 쉿쉿, 하고 무기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곽부는 뛰어들어 오려 하고 사맹첩은 대청 밖에서 막느라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양과는 절정곡에서 곽부와 헤어지고 난 뒤 10여 년 동안을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저도 모르게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대청 밖에서 무기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점차로 멀어지는 것을 보니 사맹첩이 이미 곽부를 이끌고 멀리 간 것 같았다. 대두귀가 말했다.

[그녀가 나를 만나러 온 것이니 내가 가서 만나 보지요.]

하고 말한 뒤 대청을 뛰어나갔다. 사계강(史季强)과 번일홍도 함께

나갔다. 곽양이 일어나 말했다.

[큰오빠, 나의 언니가 날 찾으로 왔으니 나는 가야 해요.]

양과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녀가....그녀가 너의 언니라구?]

[그래요. 내가 신조대협을 몹시 만나고 싶어해서 그 분 대두숙부께서 나를 데리고 와 당신을 만나도록 한 거예요, 나..., 나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는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뛰어 나갔다.

양과는 그녀가 한 방울의 눈물을 술잔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생각했다.

(그녀는 바로 그 때 곽백모가 낳은 어린 아기였는데 이토록 장성했구나. 그녀가 깊은 밤에 나를 찾아온 것은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 텐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 버렸을까? 그녀의 심사가 괴로운 것을 보니 내가 상관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대청을 나가서 곽양을 뒤쫓아 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숲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곧장 추격한 끝에 이윽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애야!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무슨 말이라도 괜찮아.]

곽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없어요. 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옅은 달빛이 눈처럼 희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비추어, 양과는 그녀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보니 너는 곽대협과 곽부인의 딸이었구나. 언니가 너를 놀리더냐?]

그는 걱정, 황용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하고 위엄이 당세에 떨치고 있으니 그들의 딸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란 없을 것이고, 아마

도 곽부가 멋대로 횡포를 부려 동생을 놀린 것이리라고 생각했다. 곽양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언니가 나를 놀린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나를 욕하여 내가 그녀와 말다툼을 하면 그녀도 감히 나를 때리지 못해요.]

[그러면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무슨 일 때문이지? 어서 얘기해 보아라.]

[나는 풍릉도구(風陵渡口)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의협의 사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탄복하여 당신을 한번 만나기를 매우 바랬어요. 이 외에는 별 다른 뜻이 없어요. 오늘밤 연회를 열 때 나는 <천하에 흠어지지 않은 연석은 없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고 매우 우울해 있었는데 연석이 아직 흠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목소리에는 이미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양과는 마음이 시큰하며 회상에 잠겼다. 그녀가 태어난 당시에 자기가 그녀를 안고 갔다가 나중에 금륜법왕, 이막수 등과 몇 차례나 쟁탈을 벌렸고, 또 어미 표범을 잡아다가 그녀에게 젖을 먹이고 그 뒤에는 고묘에 데리고 들어가 오랫동안 길렀었는데....결국 이토록 어엿하고 예쁜 소녀가 되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다. 지나간 일을 회상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착잡했다. 잠시 후 곽양이 말했다.

[큰오빠, 나는 가야 해요! 그런데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 보려므나.]

[부인과는 언제 다시 만나지요?]

[올해 겨울이란다.]

[부인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를 시켜 양양에 있는 저에게 소식을 전해 주어 저도 당신을 위해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양과는 너무나 감격하여 이 작은 아가씨와 곽부는 비록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다.

[아버님과 어머니께선 모두 안녕하시지요?]

[네.]

곽양은 마음속에 돌연 한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듯 말했다.

[큰오빠, 부인과 만난 뒤에 양양에 한 번 들러 주세요,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와 당신 부부는 모두 호걸지사들이니 분명히 의기가 투합하실꺼예요.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에요.]

[그 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애야, 너와 내가 만날 일을 언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음,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곽양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요?]

풍릉도구에서 사람들이 신조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언니는 그에 대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자 곽양은 그들이 일찌기 무슨 곡절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어서 즉시 다시 말했다.

[말하지 않을게요.]

양과는 눈동자도 돌리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15년 전에 품속에 안고 다니던 아기의 조그만 얼굴이 생각났다. 곽양은 그가 뚝 어지게 쳐다보자 약간 부끄러움이 일어 고개를 숙였다. 양과는 가슴속에 그녀를 보호하고 보살피 주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쳐 10여 년 전의 그 어리고 천진난만한 아기를 대하는 심정 그대로였다.

[동생, 너의 아버님과 어머니는 당대의 대협이요, 사람들이 모두 매우 공경하고 존중하니 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물론 내가 가서 애쓸 필요는 없겠지. 그러나 세상 일은 변화가 많아 화와 복을 예측하기란 그야말로 어렵단다. 네가 만약 부모님께 말하고 싶지 않은 무슨 일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거든 언제라도 소식을 전해주렴. 내가 너에게 이롭도록 열심히 도와주마.]

곽양은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내게 잘 대해 주셨어요. 언니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곽대협, 곽부인의 딸이라고 떠들고 다녀 나는 때때로 정말 언

니 때문에 부끄러워요. 아빠와 엄마가 비록 커다란 명망을 누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신조대협이 나의 큰오빠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언니는 아무리 해도 따르지 못할 사람이라구요.]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언지가 어찌 나같은 사람을 거들떠 보거나 하겠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가락을 꼬아 세어 보며 말했다.

[네가 올해로 열여섯 살이구나. 9 월. 10 월....22,23,24... 너의 생일이 10 월 24 일이지, 그렇지?]

곽양은 너무도 놀라와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리고 나서 말했다.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양과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은 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네가 양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자 이름인 양(襄)으로 했지, 그렇지?]

[오빠는 뭐든지 다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셨군요. 내가 태어난 첫 날 당신이 나를 안은 적이 있지요, 그렇지?]

양과는 정신이 나간 듯 그녀의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말했다.

[16 년전, 10 월 24 일에 양양에서 금륜법왕과 큰 싸움을 벌일 때 용이가 그 아기를 안고.....]

곽양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풀 속에서 무기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자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사맹주 등에게 다칠까 봐 걱정이 되었다.

[큰오빠, 나는 정말로 가야 해요.]

양과는 계속 중얼 거렸다.

[10 월 24 일, 10 월 24 일, 정말 빨리도 16 년이 흘렀군.]

그러더니 갑자기 놀라며 정신이 든 듯 말했다.

[아, 너는 가야지..... 음, 금년 10 월 24 일이 되면 너는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며 하늘에 세가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해라.]

그는 그녀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 때 하늘에게 소용녀와 만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말을 기억해 낸 것이었다. 곽양이 말했다.

[큰오빠, 이후에 만약 내가 당신에게도 세가지 일을 부탁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양과는 기꺼이 말했다.

[내 힘이 닿는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며 품속에서 조그만 상자 하나를 꺼내어 뚜껑을 열고 소용녀가 평소 사용하던 3 개의 금침을 꺼내 곽양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가 이 금침을 보면 너의 얼굴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지. 네가 만약 직접 나를 만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금침을 주면서 부탁하여 내게 소식을 전하면 나도 반드시 너에게 그 일을 해 주겠다.]

[정말 고마워요!]

금침을 받고 나서 곽양이 말했다.

[우선 첫번째 소원을 말하겠어요.]

그녀는 즉시 첫번째 금침을 양과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당신의 가면을 벗어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그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냐? 나는 옛날 나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다닌단다. 네가 되는 대로 이렇게 금침 하나를 사용했으니 아깝지도 않니?]

그러면서 양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미 내 입으로 직접 허락했으니 다시 번복하거나 후회할 수도 없지. 네가 금침을 가지고 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 달

라고 해도 나는 거절할 수가 없지. 그런데 왜 내게 이토록 전혀 상관
도 없는 조그만 일을 해 달라고 할까?)

곽양이 말했다.

[당신의 진짜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알아보겠어
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좋아!]

원손을 들어 얼굴의 가면을 벗었다.

곽양의 눈앞에 갑자기 청려하고 준수한 얼굴이 나타났다. 검미(劍
眉)는 귀밑까지 뻗고 봉안(鳳眼)에서는 위엄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안색이 창백하여 자못 초췌한 모습이었다. 양과는 그녀가 뚫어지게 자
기를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자못 이상한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
했다.

[왜 그러니?]

곽양은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이토록 빼어나리라고 나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두번째 금침을 양과에게 건네 주며 말
했다.

[두번째 소원을 말하겠어요.]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말을 해도 늦지 않아, 작은 아가씨! 모
두 어린아이 같은 소원만 말하는 구나.]

그리고는 금침을 받지 않았다. 곽양은 금침을 그의 손에 꼭 쥐어주
며 말했다.

[나의 두번째 소원은 올해 10 월 24 일, 나의 생일에 당신이 양양에
와서 나를 만나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록 첫번째 소원보다는 약간 힘들텐 것이지만 여전히 매우 아

이같은 요구였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그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하지만 나는 너 한 사람만 만날 것이며 네 아빠나 엄마, 언니 등은 만나지 않겠다.]

곽양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의 희고 여린 섬섬옥수에 있는 세번째의 금침이 달빛 아래 반짝 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이건 세번째 소원인데....]

양과는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나 양과가 어찌 가벼이 남에게 허락을 하겠느냐? 작은 아가씨가 경중(輕重)을 모르고 나의 허락을 가지고 장난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녀의 얼굴이 돌연 빨갛게 물들더니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세번째 소원은 생각이 나지 않네요. 다음에 이야기 할게요.]

하고 말한뒤, 몸을 돌려 숲속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언니! 언니,!]

곽양이 무기가 부딪치는 소리를 따라 서둘러 가 보니 곽부가 사맹첩, 대두귀, 두사람과 한창 싸우고 있었고, 번일웅와 사계강은 무기를 들고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곽양이 외쳤다.

[언니, 내가 왔어요. 이 분들은 모두 좋은 친구예요.]

곽부는 부모의 지도 아래 무공을 익혔고 남편 야율제도 당대의 고수여서 늘 함께 연마를 하여 10 여년 전의 실력에 비하면 크게 진전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성질이 급하여 약간 맛만 보고는 그만두어서, 고통을 겪으며 각고수련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남편은 모두 무학의 명가인데 그녀 자신은 시종 2,3류 사이를 배회했다. 이 때 사맹첩과 대두귀가 합력을 하자 점점 밀려 그야말로 초조한 순간에 갑자기 동생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

[빨리 와라!]

사맹첩은 제 귀로 직접 곽양이 양과를 <큰오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곽부가 또 그녀를 <동생>이라고 부르자 저도 모르게 감짝 놀라 생각했다.

(설마 이 여자가 신조대협을 부인이나 오누이는 아니겠지?)

내지르던 일초를 막 거두어 들이고 급히 뒤로 물러났다.

곽부는 상대방이 양보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장검을 사납게 뺨어 폭, 하는 소리와 함께 사맹첩의 가슴에 검을 찔렀다. 대두귀는 감짝 놀라 펄쩍 뛰며 외쳤다.

[아니..어떻게?]

곽부의 장검이 휘돌아 찬 빛이 번쩍, 하자 대두귀의 팔에도 다시 길다란 칼자국이 생겼다. 그녀는 득의 만면하여 소리쳤다.

[이제 이 색시의 무서움을 알았겠지!]

곽양이 크게 소리쳤다.

[언니, 내가 이 분들은 모두 좋은 친구라고 말했잖아요!]

곽부는 화가 나서 말했다.

[어서 나와 함께 돌아가자! 누가 너보고 이런 개돼지 같은 친구와 사귀라고 했느냐?]

사맹첩은 가슴에 맞은 이 일검이 결코 가볍지 않아 몸을 몇 번 흔들더니 앞으로 고꾸라졌다. 곽양은 몸을 숙구쳐 그의 허리를 감싸서 부축하여 일으키며 물었다.

[사오숙, 사오숙, 상처는 좀 어때요?]

사맹첩의 가슴에서 선혈이 뿜어 나와 그녀의 옷을 군데군데 적시었다. 곽양은 서둘러 옷자락을 찢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

곽부는 검을 들고 옆에 서서 계속 재촉했다.

[어서 가자, 어서 가!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려서 너를 단단히 혼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곽양이 노하여 말했다.

[언니가 멋대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나는 아빠 엄마께 모두 말할

꺼야.]

사맹첩은 그녀의 조그만 얼굴이 온통 상기되고 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그렇게 마음쓸 것 없어요. 나의 상처는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사계강은 상비간(象鼻杆)을 들고 씩씩 숨을 몰아쉬며 잠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곱부와 목숨을 다뒀야 할지 아니면 먼저 다섯째 동생의 상처를 치료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돌연 곱부가 <아!> 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맞은편에서 2마리의 맹호가 소리를 죽이고 다가왔다. 그녀는 몸을 돌려 피하려고 했지만 왼쪽에는 2마리 수컷 사자가 딱 버티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4마리 표범이 있었다. 원래 이 경각의 순간에 사중맹이 이미 못짐승들을 거느리고 그녀를 단단히 포위한 것이었다. 곱부는 얼굴이 처참할 정도로 창백해져 거의 기절할 뻔했다. 홀연 수풀 속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제.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사맹첩이 말했다.

[아직 괜찮습니다!]

[음, 신조협이 전하기를, 이 두아가씨를 가게 하라고 하셨소!]

사계강이 몇 번 소리를 지르자 맹수들은 몸을 돌려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곱양이 말했다.

[사오숙. 제가 언니를 대신해서 당신께 사과할게요.]

사맹첩은 상처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신조협의 안면을 봐서, 아가씨의 언니가 나를 죽였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곱양이 급히 말했다.

[당신의 상처는..... 정말로 심하지 않나요?]

곱부가 그녀의 손을 나뻗채며 소리쳤다.

[아직도 안 가겠단 말이나?]

힘껏 그녀를 끌고 수풀을 뛰어 나갔다. 사씨 형제들과 서산 일굴귀는 모두 옆에서 매복해 있다가 두 자매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일제히 뛰어나와 사맹첩과 대두귀의 부상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이러쿵 저러쿵 떠들며 곽부가 무례하다고들 말했다. 그러나 그녀와 양과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 말하는 가운데에도 감히 무례하게 굴지를 못했다. 사계강이 분해 하며 말했다.

[그 작은 아가씨는 사람이 그토록 좋은데 그녀의 언니는 반대로 오만 무례하군. 나의 오제가 분명히 양보를 했다는 것을 그녀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독수를 쫓아. 이 일검이 만약 두촌(寸) 아래로만 찔렸더라도 오제는 이미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대두귀가 말했다.

[우리 가서 신조협에게 물어봅시다.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내력이 있는지 말입니다. 풍릉도구에서도 그녀는 연방 신조협이 옳지 않다고만 얘기했으니 내가 보기엔 신조협도 그녀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큰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와 말했다.

[천만 다행히도 사오형의 상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군요. 그 여자는 언제나 그렇게 경망되게 굴죠. 나의 이 오른팔도 바로 그녀의 일검에 배어진 것입니다.]

바로 양과였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속 가득히 의혹을 품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질문을 하지 못했다.

곽부는 곽양을 데리고 풍릉 나루터로 돌아왔다. 그 때 황하는 이미 얼음이 풀려 세 자제(姉弟)는 황하를 건너 양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곽부는 이러쿵저러쿵 쉬지 않고 곽양을 힐책하며 그녀가 상관도 없는 사람을 따라가서 가는 곳마다 문제거리를 만든다고 투덜

거렸다. 곽양은 귀가 먹은 채하며 그녀의 말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고, 양과를 만난 일에 대해서는 더욱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양양에 도착하여 곽부는 부모에게 장춘진인 구처기의 서신을 전해주고 그는 연로하고 병이 있어 거동은 할 수가 없지만 전진교 교주 이지상이 교(敎) 중의 고수들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부는 곧바로 곽양의 잘못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도중에 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지 몰라요.]

곽정은 깜짝 놀라 그 까닭을 물었다. 곽부는 즉시 곽양이 풍릉에서 황하를 건너기 전에 알지도 못하는 강호의 한 호객을 따라 나가서 이틀 낮 이틀 밤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일을 기름을 치고 양념을 섞어가며 이야기 했다.

곽정은 요즈음 한창 군무가 긴급하여 국사를 근심하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은근히 화가 치밀어 물었다.

[양아, 언니의 말이 사실이나?]

곽양은 히히, 웃으며 말했다.

[언니는 괜한 것을 가지고도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친구를 따라가서 구경을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잘못 됐단 말이에요?]

곽정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떤 친구냐? 이름이 뭐지?]

곽양이 혀를 날름 내밀며 말했다.

[아차..그의 이름을 안 물어 봤군요. 그의 호를 <대두귀>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요.]

곽부가 말했다.

[서산 일굴귀인가 뭔가 하는 인물 중의 하나 같아요.]

곽정도 <서산 일굴귀>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들은 비록 악행을 저지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인 군자는 아니어서 작은 딸이 이

중의 한 사람과 어울려 다녔다는 말을 듣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는 본래 말이 없어 다만 <휴우!>하고 한숨만 내뿜을 뿐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황용만 곽양에게 한바탕 이런저런 말로 좋게 타일렀다.

저녁이 되자 곽정 부부는 집안에 연회석을 차려 놓았는데, 곽부, 곽파로를 위한 자리만 마련해 놓고 곽양의 자리는 마련해 놓지 않았다. 야율제가 그 일에 대해 장인, 장모에게 몇마디 권해 보았으나 곽정은 이렇게 말했다.

[딸아이를 만약 집에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후에는 그녀 자신을 해치게 된다. 양아는 어렸을 때부터 엉뚱한 일을 잘 하여 자못 걱정스럽구나. 자네는 형부로서 나 대신에 마음을 많이 써 주어야 할 것이네.]

야율제는 <예, 예.>하고 대답만 할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곽정부부는 이전에 곽부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랑을 베풀어 많은 화를 불러 일으킨 것을 거울로 삼아 곽양과 곽파로에게는 그 정반대의 방법으로 키워 어렸을 때부터 매우 엄하게 단속을 했다. 곽파로는 침착하고 무계가 있는게, 부친의 풍모를 지니고 있어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나 곽양은 입으로는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다. 이 날 저녁 하인이 말하는데 나으리와 부인에게서 연회를 차렸는데 고의로 둘째 아가씨를 청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곽양은 화가 나서 밥을 먹지 않고 이틀을 꼬박 굶었다. 사흘째 되던 날 황용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곽정 몰래 몸소 여섯 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녀를 달래고 얼어서 겨우겨우 작은딸의 마음을 풀어 주었다. 황용의 요리솜씨는 그야말로 천하 제일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실력을 발휘하지 않다가 일단 솜씨를 내자 곽양이 그것을 먹고 웃음꽃이 만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부부가 딸을 가르치려는 심혈과 노고는 다시 허사가 되어 버린 꼴이었다.

그 때 몽고 대군은 이미 대리(大里)를 함락하고 군대를 돌려 북상한

뒤 다른 길로 병마를 북에서 남으로 내려보내 두 길의 대군이 양번(襄樊)에서 만나 일거에 대송을 섬멸하기로 했다. 이번에 몽고는 사전에 몇 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짜서, 북상하는 대군은 쿠빌라이가 통솔하고 남하하는 대군은 모고 황제 몽케(蒙哥)의 어가가 친히 통솔하여 정병과 맹장이 모두 모였으며 그 성세의 거대함은 실로 이전에 없던 것이었다. 이 때는 가을이 한창이어서 공기는 상쾌하고 풀은 무성히 자라고 말은 살져 마침 몽고의 철기(鐵騎)가 치달리는 데에는 더없이 이로운 계절이었다.

몽고 대군이 아직 가까이 들이 닥치지도 안았는데 양양성 안에서는 하루 저녁에도 몇 차례나 놀라곤 했다. 임안(臨安)의 대송 조정에서는 간신 정대전(丁太全)이 나랏일을 맡아 보아 임금은 어리석고 신하는 간사하여 이런 것들은 일거리로 치지도 않았다. 양양에서 위급을 알리는 문서가 비록 눈송이 날리듯 수없이 당도해도 조정의 군신들은 모두들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었다.

[몽고 녀석들이 양양을 수십 년 동안 공격해도 함락시키지 못했으니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의기소침하여 귀의할 것입니다. 양양성은 놈들의 상극입니다. 관례가 이러한데 어찌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배개를 높이 베고 발을 짝 뻗고 자도 상관 없습니다. 어찌 하잘 것 없는 놈들 때문에 근심하고 소란을 피울수 있겠습니까?]

몽고의 남쪽에 있는 대군이 대리로 진격할 때 광정은 이번의 국세는 긴급하여 실로 심상치가 않음을 알고 영웅첩을 돌려 천하의 영웅들에게 일제히 양양에 모여 적에 대항할 계획을 협의하도록 청했다. 몽고군의 행진은 귀신같이 빨라서 얼마 되지 않아 대리를 멸망시켰다. 그, 대리국의 국주는 단흥지(段興智)로 일등대사의 증손인데 <정천현왕(定天賢王)>이라고 불렸다. 나이가 어려 왕위에 선지 두 해가 못 되어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때 무삼통, 주자류, 사수어은(泗水漁隱) 등이 구출해 냈다.

각처의 영웅들이 양양에 모였을 때 몽고의 북로 대군도 점차로 조여

들어오고 있었다. 영웅대연은 10 월 15 일에 열려 연일 10 일 동안 계속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날은 바로 13 일로, 모이기로 한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동서남북 각처의 호한들이 마치 물결이 해변으로 몰려오듯 속속 양양으로 모여들었다. 곽정, 황용부부는 온 정신을 부서의 군무에 쏟느라 빈객을 접대하는 일은 노유각과 야율제가 처리하도록 맡겨두었다. 무돈유, 야율연 부부와 무수문, 완안평 부부가 옆에서 이것을 도와 주었다.

이 날 주자류가 도착하고 사수어은이 도착하고 무삼통이 도착하고 전진교 장교 이지상이 16 명의 사형제를 거느리고 도착하고 개방의 모든 장로와 7 대, 8 대의 모든 방수(幫首)가 도착하고 육관영, 정요가 부부가 도착하고....., 일시에 양양성에는 고수가 구름같이 모여들고 못 현인들이 모두 모였다. 평소에는 절대로 강호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던 많은 선배 영웅, 협객들이 이 양양의 영웅연은 천하의 기운(氣運)이 걸려 있어 실로 보통일이 아님을 알고, 또한 곽정 부부의 인의를 흠모하여 영웅첩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열에 7,8 명은 모두 모임에 참가했다. 당년의 대승관의 영웅대회에 비하여 훨씬 더 성황을 이루었다.

10 월 13 일 저녁, 곽정 부부는 사택에서 간단한 연회를 베풀어 주자류, 무삼통 등 교분이 있는 10 여명을 초청하여 회포를 풀었다. 술이 세 순배 돌 때까지 개방 방주 노유각이 도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만 그가 개방의 일로 바빠서 잠시라도 몸을 빼낼 수 없을 것이라고만 알고 그다지 괘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즐겁게 떠들고 마음껏 마시며 10 여 년동안의 무림의 질사이문(軼事異聞)에 대하여 이 야기를 나누었다. 한쪽에서는 야율제, 곽부 부부가 무씨형제등의 몇몇 어린 사람들과 따로 상을 마련하여 술 마시기 내기를 걸어서 떠드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웠다.

한참 소란한 가운데 돌연 개방의 8 대 제자가 총총 들어와 황용의 귀에다 대고 나지 막이 몇마디를 속삭였다. 황용은 안색이 크게 변하며

벌떡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수가!]

사람들은 깜작 놀라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황용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 외인은 없으니 예기해도 상관이 없다. 이 일의 경과가 어떻게 된 거란 말이나?]

사람들은 그녀가 말을 하는데 눈이 둥그랗고 눈물을 머금은 것을 보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 8대 제자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노방주께서 두 명의 7대 제자를 대동하고 전례를 따라 성의 남쪽으로 병영을 순찰하러 가셨는데 신(申)시가 지나서도 여전히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 등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몇 갈래로 나누어서 찾아보았는데 마침내 현산(峴山)아래 양태부(羊太傅)의 묘당 안에서 노방주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유해>라는 말을 듣고 모두들 저도 모르게 <아!>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 제자는 여기까지 말하자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노유각이 무공은 비록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인자하고 믿음이 있으며 은혜롭고 자애스러워 방중의 추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제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 두명의 7대 제자도 방주의 곁에 쓰러져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미 목숨이 끊어졌고, 다른 한사람은 중상이나 아직 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 사람이 묘당 밖에서 몽고의 궤도 왕자와 마주쳤는데 방주가 먼저 그의 음흉한 계략에 말려 들었다고 합니다. 두 명의 7대 제자가 그와 목숨을 걸고 다투었으나 결국 모두 그에게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곽정은 화가 나서 안색이 온통 창백하게 변하여 말했다.

[으음. 궤도, 궤도!]

만약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을 일찌기 알았더라면 당년에 중앙

궁에서 그를 봐 주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황용이 말했다.

[그 콧도 왕자가 무슨 말을 남기지는 않았더냐?]

[제자가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나? 그가 콧정, 황용이 어서 빨리 몽고에 투항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유각과 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방주께서는 바로 보셨습니다. 콧도 그 악적이 바로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개방 사람들은 황용이 비록 일찌감치 방주의 자리를 내놓았지만 방중에서는 면전에서나 등뒤에서나 여전히 그녀를 <방주>라고 부르고 있었다. 황용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노방주의 타구봉은 물론 콧도에게 빼앗겼겠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곧장 분분히 자리를 떠나 노유각의 유해를 살펴보았다. 그의 등에 예리한 강침이 하나 꽂혀 있고 가슴의 늑골이 부러진 것이, 콧도가 먼저 암기로 뒤에서 습격을 하여 기선을 잡아 다시 장력을 움직여서 그를 죽인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모두 비분에 떨었다.

이 때 양양성 안에 모인 개방의 제자들은 무려 1천여명을 헤아릴 정도였는데 노유각이 간인(奸人)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 안에는 온통 슬퍼하는 소리뿐이었다.

콧양은 평소에 노유각과 매우 사이가 좋아서 항상 그의 손을 잡고 교외의 외단 곳으로 가 술을 마시곤 했었다. 한 노인과 한 소녀가 잔을 들고 대작하며 콧양이 그에게 강호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며 한 번에 반나절을 보내는 것이 두 사람에게서 모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양태부 묘는 양양성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콧양과 노유각이 항상 가던 곳이었다. 그녀는 이 오랜 벗이

결국 그 묘에서 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어 곧장 술 한병과 안주 한 그릇을 들고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묘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는 자야(子夜)에 가까와 오고 있었는데 곽양은 2 개의 잔과 젓가락을 놓고 술을 따르고서 말했다.

[노노백(魯老伯), 보름 전만 해도 나는 당신과 이곳에서 대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신과 같은 영웅이 이렇게 비참한 화를 당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혼이라도 있다면 어서 오셔서 이 탁주 한잔 드시지요.]

하고 말한뒤, 맞은 편에 있는 술 한잔을 바닥에 붓고 자기도 한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 버렸다. 이 망년지교(忘年之交)가 이로써 영원히 가버렸다고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슬픔이 솟구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말했다.

[노노백, 다시 한잔 비읍시다.]

그리고 나서 한 잔을 땅에 붓고 자기도 다시 한 잔을 마셨다.

그녀는 사실 주량이 매우 작았지만 성격은 활달하여 강호의 호사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떠들기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두 잔의 술을 단숨에 비우자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질어질하여 벌써 취기를 느끼고 있었다.

밖은 캄캄한데 홀연 문 밖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정말로 노유각의 혼이 왔다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노노백이에요? 영혼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면 어서 오셔서 함께 있어요.]

그녀는 비록 가슴이 쿵쿵 뛰고는 있지만 정말로 노유각의 혼을 보는 듯했다.그런데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삼경의 깊은 밤에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냐? 엄마가 너를 빨리 데려오라고 하셨다.]

한 사람이 묘당밖에서 뛰어들었다. 바로 곽부였다.

곽양은 적잖이 실망을 하여 말했다.

[나는 이제 막 노노백의 혼을 불러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언니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그가 어떻게 오려고 하겠어? 언니, 먼저 돌아가. 나도 뒤따라서 곧 갈게.]

[또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거냐? 너의 이 조그만 머릿속에는 온통 어지러운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구나. 노유각의 혼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가 있겠니?]

[그는 평소에 나와 가장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의 한 가지 심정을 말해 주기로 했는데 바로 내 생일날에 그에게 말해 주기로 했던 말이야. 기다리다 보면 그가 올지도 모르잖아?]

여기까지 말하자 웬지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졌다. 곽부가 말했다.

[엄마가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잠시 생각하더니, 네가 분명히 이곳에 왔을 거라고 그러셨어. 네가 아무리 안 그런 척을 해 봐야 엄마한테는 부처님 손바닥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는 네가 갈수록 무모해진다고 야단치셨어. 그 곽도가 아직도 옆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 같이 어린 계집애가 깊은 밤중에 혼자서 이곳에 오면 어찌 위험하지 않겠니?]

곽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노노백이 너무 위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해. 좋아, 언니. 언니도 잠시 내 옆에 앉아 있어 줘. 노노백의 혼이 정말로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소란을 피워서 그가 놀라 달아나지 않도록만 해줘.]

곽부는 평소에 노유각을 그다지 대수롭게 보지 않았고 그가 개방의 방주 노릇을 하게 된 것도 모두가 어머니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혼이 오더라도 별로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이 동생의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 여기서 기다려 달라고 말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서 호통을 치기 전에는 그녀를 돌아가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애야. 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나. 네가 금년에는 열 여섯 살이니 다시 3년만 지나면 시집을 갈텐데.....,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렇게 바보처럼 굴거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언니도 형부와 결혼을 하고도 이전의 규수 때처럼 멋대로 행동하고 다니잖아.]

[흥! 내가 어찌 너의 형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니? 그는 당금의 호걸로, 식견이 일등 가는 높은 사람이어서 당연히 나를 구속하지는 못해. 그의 이런 문무의 재략을 소인배 중에 어느 누가 따를 수 있겠니? 너의 장래의 남편이 그의 반만큼만 닮아도 엄마 아빠는 만족하실꺼야.]

곽양은 그녀가 아주 오만하게 말하는 것을 뜨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형부는 그야말로 훌륭해. 하지만 나는 세상에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애긴 믿지 않아.]

[믿지 못하겠으면 어디 가서 찾아보렴!]

말투에 매우 오만한 기색이 가득했다. 곽양이 말했다.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형부보다 열 배는 더 나아.]

곽부는 대로하여 말했다.

[누군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

[꼭 밝혀야돼? 나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면 그만이지.]

곽부는 냉소하며 말했다.

[주삼제(朱三弟)니? 아니면 왕검민(王劍民)이니?]

그녀가 말한 사람들은 모두 몇몇 소년 영웅 헐객이었다. 곽양은 계속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들은 형부에게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보다 열 배나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담?]

[외할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주대숙등의 선배 영웅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은 나이는 형부보다도 아직 어린데 생김새는 형부보다도 훨씬 빼어나고 무공도 훨씬 뛰어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과 땅 차이로서 도저히 비교가 안돼.]

그녀가 말을 하는데 곽부는 <피!피!피!>하며 연신 코방귀를 끼었다. 곽양은 전혀 상관치 않고 계속 말했다.

[언니가 믿지 않는 건 언니 마음이야. 그 사람은 또한 사람됨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급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모르는 사람도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 준단 말야.]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자 그 가름한 얼굴을 살며시 들어올리며 마치 정신 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곽부가 노하여 말했다.

[너의 그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멋대로 생각해 봐라. 노유각이 죽은 뒤로는 개방에 방주가 없게 되었어.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영웅대연에 못 호걸들이 모두 모인 기회에 이 모임에서 가장 강한 한 사람을 뽑아 방주를 맡김으로써 방중의 오의파, 정의파가 다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겠다고 하셨어, 네가 말한 사람이 그렇게 무시무시 하다면, 그에게 와서 한번 너의 형부와 겨루어서 누가 방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보자고 해라.]

곽양은 히, 하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개방의 방주 같은 것은 말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곽부가 노하여 말했다.

[네가 어찌 감히 방주의 직위를 우습게 본단 말이나? 이젠에 홍할아버지께서도 하셨고 엄마도 하셨는데 설마 너는 홍할아버지와 엄마까지도 깔보는 건 아니겠지?]

[네가 언제 깔본다고 그랬어? 언니도 내가 노노백과 가장 친하게 지내었다는 것 잘 알잖아?]

[좋아! 그럼 네가 말한 그 대영웅에게 너의 형부와 한번 겨뤄 보라고 그래 보시지. 보아하니 당세의 호한들이 모두 양양에 모였으니 누가 영웅이고 누가 구웅(狗熊)인가는 대적해 보면 명명백백해 질 것이

나.]

[언니,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내가 언제 형부 보고 구웅이라고 했어? 만약 그가 구웅이면 언니도 짐승이 되는 거 아냐? 언니와 나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 나도 그럴테고 말이야.]

곽부는 이 말을 듣고 웃지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하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너와 잔소리할 여유가 없어. 네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까지도 함께 욕을 먹는단 말이야.]

곽양은 영리하고 말재주가 있어 언니와 말다툼하기를 제일 좋아했다.

[아이고, 언니는 출가한 딸인데도 아빠 엄마는 줄곧 언니를 가장 아끼고 생각하는 걸. 언니는 또, 새 방주의 부인이 될 텐데 어느 누가 무슨 배짱으로 감히 언니를 욕해?]

곽부는 동생이 자기를 <새 방주의 부인>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팬스리 즐거워하며 말했다.

[이 수많은 영웅호한들도 보아하니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고, 너의 형부가 아직 된 것도 아니니 미리 자신 만만하게 말하진 마!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겠어.]

곽양은 정신이 나간채 잠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은쟁반 같은 달이 하늘에 걸려 찰듯 말듯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탄식하며 말했다.

[보아하니 노노백의 혼은 오지 않을 것 같아. 언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빨리 새 방주를 뽑아서 모두들 마음속으로 노노백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은 많이 가지도록 만들려고 하지?]

[너는 또 왜 어린애 같은 말만 하니? 개방은 강호에서 제일 가는 대방인데 용이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엄마는 언제 방주를 뽑는다는데?]

[15일 영웅대연이 열리는 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해의 호걸과 연락을 취하여 몽고와 항쟁할 것인가를 상의하는 거야. 이번

상의가 짧으면 5,6 일 길면 8,9 일 이 걸릴테니 개방의 방주를 뽑는 것은 23,24 일이나 되아야 되겠지?]

곽양은 <아!> 하고 소리질렀다. 곽부가 물었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야. 24 일은 바로 나의 생일이잖아. 언니들이 방주를 뽑느라고 이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 엄마는 내 생일잔치를 차려 줄 생각도 하지 않을 텐데...]

곽부는 하하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어린애의 생일을 차려 주는 것이 뭐가 또 그리 중요하니? 어떻게 그 일을 방주를 뽑는 이런 큰 일과 비교를 할 수 있겠니? 공연히 말을 꺼냈다가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사겠단다. 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오직 너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런 하잘 것 없는 조그만 일이나 기억하고 있다니.]

곽양은 얼굴이 온통 빨갛게 상기되어 말했다.

[아빠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엄마는 반드시 기억하실거야. 언니는 작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나한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내가 만 16 세가 된다는 것을 언니도 알어?]

곽부는 더욱 우스운 듯 빈정거렸다.

[그날이 되면 양양성 중의 수천 명의 영웅호한들이 모두 우리 작은 곽아가씨께 와서 축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훌륭한 선물을 하나씩 줄거야. 우리 작은 곽아가씨가 이제 만 16 세나 되니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다 큰 아가씨 이기 때문에...! 하하하!]

곽양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신경도 쓰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한 분 대영웅만은 나의 생일을 기억하실 거야. 그는 약속했어.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말이야.]

그녀는 이 몇 마디 말을 할 때 마음속에서는 자못 자랑스러워 하는 기분이 생겼다.

[어떤 대영웅인데? 아, 너의 형부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그 영웅말이지? 내가 네게 말해 주지, 첫째, 세상에는 그런 으뜸간다고 할 만한 인물이 없어. 보나마나 네가 너의 그 작은 머릿속에서 멋대로 생각해 낸 걸거야. 둘째, 정말로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중요한 큰 일들이 많을 텐데 너 같은 조그만 계집애의 생일에 와서 축하를 해 주겠니? 그가 영웅대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곧바로 양양성으로 온다면 몰라도.]

곽양은 언니의 이 말을 듣고 울크렸다. 거의 울음이 나올 뻔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그는 기억한다고 했던 말이야. 그는 기억한다고 했던 말이야. 그는 영웅연에도 오지 않고 방주 자리를 다투지도 않을거야.]

[그가 영웅이라면 아빠가 그에게 영웅첩을 보내지 않았을 리가 없어. 그는 영웅이 아니야. 그가 영웅연에 온다면 그야말로 격에 맞지 않아.]

곽양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언니들의 영웅대연에는 나도 가지 않을 거야. 언니들이 방주를 뽑아도 좋고 새 방주가 임명돼도 좋아. 그런 시끌시끌한 일을 나는 하나도 보지 않을 거야.]

곽부는 냉소하며 말했다.

[아이고, 작은 곽아가씨가 오지 않으면 영웅대연이 무슨 꼴이 될까? 개방의 새로운 방주 노릇을 할 사람에게 무슨 영광이 있을까? 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곽양은 손을 뻗어 두 귀를 막고 묘당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 때 돌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묘당 문 앞에서 번쩍 하더니 곽양의 앞을 가로막았다.

규방의 영웅소연(英雄小宴)

곽양은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뛰어서 다행히 그 사람과 가슴이 부딪치지 않는 않았다. 달빛 아래서 보니 이 사람은 키가 몹시 크고 얼굴이 시커먼데 상체는 도리어 기이할 정도로 짧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원래 이 사람은 두 발이 잘려 겨드랑이에는 6 척이나 되는 길다란 지팡이 2개를 짚고, 두 바짓가랑이는 길게 꿰매어 펄럭펄럭 땅에 끌리는 것이 난장이가 목발을 짚고 거인이 된 것이다. 곽부가 놀라 말했다.

[당신은.....바로 니마성이 아니냐?]

그 사람은 바로 니마성이었다. 이번에 몽고 황제의 어가가 친히 정벌을 나설 때 몽고에 있던 서역의 용사와 무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남하했는데 그들은 모두 이번에 한 번 자기의 숨씨를 발휘하여 널리 공명과 충애를 얻기를 바랐다. 니마성은 비록 두 다리가 잘렸지만 손의 무공은 아직 잃지 않아 10 여년 동안 고된수련을 거쳐서 한 쌍의 철장에 대한 조예는 다리가 잘리기 전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었다. 몽고 대군은 공략한 이래로 아직은 양양성으로부터 수백 리 떨어져 있었지만 니마성 등의 무사와 첩자들은 이미 양양성 가까이에 먼저 이르러 있었다. 이날 밤 그는 원래 양태부의 묘에서 하룻밤을 묵을 계획이었는데 묘 밖에서 곽부와 곽양 자매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미칠 듯이 기뻐했다. 곽정이 비록 양양성을 지키는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양양의 득실은 실로 이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만약 그의 사랑하는 두 딸을 사로잡아 간다면, 그를 위협하여 항복까지는 힘들더라도 그의 정신을 혼란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니 실로 크나큰 공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곽부가 자기를 알아보자 말했다.

[곽 큰아가씨는 눈이 참 좋으시군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당신은 더욱 예쁘게 자랐군요. 서로 기분을 상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순순히 나와 함께 나는 게 어때요?]

곽부는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났다. 이 사람의 무공이 무시무시하니 자기 자매가 함께 대든다 해도 결코 그의 적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곽양을 성난 눈초리로 쏘아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모두가 내가 멋대로 나돌아 다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지금 당장 이 화를 어떻게 수습해야 한단 말이나?)

곽양은 도리어 니마성에게 물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요? 이전에 잘리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길었나요?]

니마성은 <흥.> 하고 내뱉으며 그녀는 본 척도 않고 곽부에게 말했다.

[너희들 둘이서 앞에 가라.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 말투를 들어보니 그녀 자매를 이미 포로로 간주하고 있었다.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말하는 것이 더욱 이상하군요. 삼정의 한밤중에 우리 자매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마성이 노하여 말했다.

[조그만 계집애가 말이 많구나. 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양양성 안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다 된 일을 그리칠까 봐 걱정이 되었다. 곽부가 나지막이 말했다.

[양아, 이 시커먼 난장이는 몽고의 무사인테 무공이 대단하다. 내가 그의 좌측을 공격할 테니 너는 그의 우측을 공격해라.]

말을 마친 곽부는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을 빼서 니마성의 허리를 향하여 찔렀다.

곽양은 성을 나올 때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사람은 두다리가 없어 오로지 2 개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버티고 있는데 언니가 검으로 그를 찌르면 그가 어떻게 대적할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언니, 이 사람이 불쌍해. 그를 다치게 하지 마!]

그녀의 외치는 소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니마성은 왼쪽 지팡이를 땅에 버티고 오른쪽 지팡이를 가로로 휘둘러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곽부의 검을 쳤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불꽃이 이리저리 튀었다. 곽부의 장검이 하마터면 손에서 벗어나 날아갈 뻔했는데 팔이 시큰거리

고 가슴에 은근히 통증이 몰려왔다. 곽부는 즉시 왼손으로 검결(劍訣)을 그리자 검이 몸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월녀검법을 전개하여 치고 찌르고 공격하고 방어하며 니마성과 싸우기 시작했다. 이 월녀검법은 바로 당년에 강남칠괴 중의 한소영(韓小瑩)이 곽정에게 전수했는데, 그 뒤에 한소영이 불행히도 참사를 당하자 곽정은 사부의 은혜를 생각하며 애지중지하던 두 딸에게 전수해 준 것이다. 이 검법은 그 연원이 길고 변화가 정미하여 원래는 검학 중의 대종이어서 만약 곽정이 사용했다라면 우뢰와 같은 위세가 생겨나 누구라도 당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곽부는 공력에 한계가 있어 검법은 비록 정미했지만 니마성의 쌍철장 아래에서는 웬지 모르게 열세를 보였다.

곽양이 보니 니마성은 쌍지팡이를 교대로 사용하여 왼쪽 지팡이로 공격을 하면 오른쪽 지팡이로 땅을 짚고, 오른쪽 지팡이로 공격을 하면 왼쪽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물러나는 것이, 그 민첩함이 몸에 두 다리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게다가 철장은 매우 길어서 그가 위아래로 공격하는 셈이 되어 위세가 한층 더하여서 언니는 분명히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깜짝 놀라 조금해지기 시작했다. 곽부는 적의 지팡이의 압력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 한 줄기 깊은 흡인력이 그녀의 수중에 있는 장검을 빨아들여 검을 내찌를 때마다 자꾸만 빗나감을 느꼈다. 곽양은 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여 쌍장을 교차하면서 적수공권으로 니마성을 향하여 대들었다.

[으랏차!]

니마성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왼쪽 지팡이로 땅을 짚자 몸이 공중으로 뜨며 쌍지팡이를 나란히 뻗어서 신속하고 민첩하게 오른쪽 지팡이로 곽양의 왼쪽 어깨를 찌르고, 왼쪽 지팡이로 곽부의 가슴을 찔렀다. 곽양은 몸이 휘청휘청하며 연달아 몇 걸음 물러섰다. 곽부가 맞은 그 1장도 결코 가볍지 않아 이윽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졌다.

니마성은 떨어지는 것도 마치 귀신과 같이 빠르고 민첩했다. 그는

철장을 살며시 짚고 이미 곽부의 몸에 가까이 접근하여 냉소하며 말했다.

[순순히 나와 함께 가자고 했는데....]

곽부가 펄쩍 뛰어 일어나며 외쳤다.

[양아, 빨리 묘 뒤로 물러서!]

니마성은 크게 놀랐다. 철장은 분명히 곽부의 신장혈(神臍穴)을 눌렀는데 어떻게 그녀가 여전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곽부가 몸에 연위갑을 입었다는 것과 곽가(郭家)는 폐혈의 절기가 전해져 혈도를 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사실 곽부는 아직 혈도가 막히지는 않았지만 철장의 충격에 의하여 통증이 이미 뼈까지 파고들어 더 이상 검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곽양은 낙영장법을 펼쳐 언니의 몸을 보호하면서 외쳤다.

[언니, 먼저 가!]

니마성은 철장을 격출하여 곽양의 앞으로 곧장 내리쳤다. 철장은 그녀의 코끝 3촌의 거리를 스치고 지나가 거센 바람이 그녀의 여린 얼굴에 붙어닥쳐 통증이 몰려왔다. 니마성이 외쳤다.

[끔찍 마라!]

곽양이 노하여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너를 불쌍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너는 이토록 흉악무도하구나!]

니마성은 <하..하..>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조그만 계집애가 아직 쓴 맛을 몰라 이 어르신들의 무서움을 모르는군.]

그는 철장으로 땅을 찍어 툭툭툭, 소리를 내며 얼굴에는 흉악한 웃음을 머금고 한 발 한 발 접근해 왔다. 곽양은 일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당한 적이 없었다. 검고 사납고 추한 얼굴에 두 눈을 동그렇게 뜨고 하얀 이빨을 드러낸 채 접근하는 모양을 보니 마치 사람을 물어버릴 것만 같은 기세여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홀연 뒤에서 누군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암기로 그를 공격해라!]

너무도 위급한 때를 당하여 곽양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겨를도 없이 몸을 한 번 더듬어 보고는 급히 말했다.

[나는 암기가 없어요.]

니마성이 다시 한 걸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를 몰라 쌍장으로 산화세(散花勢)를 쳐 내며 몸을 보호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녀가 수장을 막 앞으로 펼쳐 내는데 몸 뒤에서 돌연 한 줄기 미풍이 불어왔다. 팔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 팔목에 있던 한 쌍의 금사부용촉(金絲芙蓉觸)이 갑자기 손을 떠나 날아가서 땡땡, 하는 소리와 함께 니마성의 철장에 부딪쳤다.

두 번 부딪치는 이 소리는 아주 가볍게 들렸는데 니마성은 쌍장을 더 이상 잡지 못하여 2 개의 시커먼 철장이 사납게 뒤로 던져져 땡땡, 하는 두 마디 거대한 소리와 함께 담장에 부딪쳤다. 대들보가 흔들리며 먼지가 어지러이 떨어졌다. 니마성은 쌍지팡이가 손에서 벗어나자 몸도 따라서 고꾸라졌다. 그러나 그는 몸을 한번 뒤집어서 등으로 땅을 쳐 그 위세로 다시 뛰어올라 와와와, 하고 고향치며 열개의 시커먼 손가락을 뻗어 공중에서 곽양을 향하여 대들었다.

곽양은 소스라치게 놀라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되는 대로 머리카락에 꽂은 청옥잠(靑玉簪)을 뽑아 니마성을 향하여 던지는데 몸 뒤에서 다시 미풍이 불어와 옥잠을 앞으로 밀어 보냈다. 니마성은 왼손이 앞에 있고 오른손이 뒤에 있는데 돌연 옥잠이 괴이한 위세로 날아오는 것을 보고 급한 나머지 두 손으로 나란히 맞받았다.

이어서 <이상하군!>하고 가볍게 소리를 지르더니 땅바닥에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곽양은 그가 무슨 술책을 부리는 줄 알고 곽부의 곁으로 뛰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빨리 가!]

두 자매가 양태부의 신상 옆에서 지켜보아도 니마성은 시종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중풍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닐까?]

이어서 힘껏 소리쳤다.

[니마성,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곽부는 그의 철장이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검을 들고 앞으로 몇 걸은 나아갔다. 니마성은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가득한 채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죽어 있었다.

곽부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며 부싯돌로 신단 위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고 앞으로 가 살펴보려 하는데 홀연 묘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부매. 이때! 이디 있어? 묘 안에 있는거야?]

마침 야율제가 온 것이다. 곽부는 기뻐하며 말했다.

[빨리 와 봐요. 이상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곽부가 동생을 찾으러 갔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야율제는 갑자기 노유각이 누군가의 계략에 말려든 것이 생각났다. 지금 양양성 밖에는 적들이 출몰하여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어서 그녀들 두 자매가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맞으려고 한 것이다. 그는 개방의 6대 제자 2명을 데리고 대전으로 뛰어들어 와서 니마성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천축 난장이의 무공이 매우 강하여 자기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 함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아내의 손에 죽자 실로 전혀 뜻밖이어서 곽부의 손에서 촛대를 받아들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다가 더욱 놀랐다.

니마성은 두 손바닥 가운데에 모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고 청옥잠 하나는 그의 뇌문 정중앙에 있는 신정혈(神庭穴)을 맞추었다. 이 청옥잠은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부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 도리어 이 무학명가의 두 손을 꿰뚫고 다시 그의 뇌문을 맞춰 죽게 하였으니 이것을

쏜 사람의 무공은 실로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곽부에게 말했다.

[외할아버지 그 분께서 오셨나? 어서 인사를 시켜 드려야지.]

곽부는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누가 외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외할아버지가 아니라구?]

야율제는 두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더니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은사님께서 오셨군.]

몸을 돌려 사방을 돌아보았지만 주백통의 자취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부의 성격이 장난을 좋아하여 아마도 어딘가에 숨어서 자기를 한번 놀래 주려 한다고 생각하고 곧장 묘 밖으로 뛰어나갔다. 지붕에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사방 어느 곳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곽부가 외쳤다.

[여보! 당신은 바보같이 무슨 외할아버지니 사부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율제는 대전으로 도로 들어와 두 자매에게 어떻게 니마성과 만났고, 이자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물었다. 곽부는 말을 했지만, 동생의 청옥잠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때려 죽게 했는지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야율제가 말했다.

[이때의 뒤에서 분명히 어떤 고인이 몰래 도와 준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당세에 이런 무공은 지닌 사람은 장인어른을 제외하고는 오직 우리의 외할아버지, 나의 은사, 일등대사와 금륜법왕, 다섯 사람 밖에 없어. 법왕은 몽고의 국사이니 당연히 니마성의 적이 아니요, 일등대사는 경솔하게 살수를 퍼지 않으니, 나는 외할아버지가 아니면 은사라고 추측을 한 거야. 이때, 너를 도와 준게 누군지 한 번 말해 봐!]

곽양은 청옥잠에 의해 니마성이 죽은 뒤 즉시 고개를 돌려 보았지만 등 뒤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줄곧 묵묵히 <무서워하지 말아라! 암기로 그를 공격해라.> 하는 말을 되뇌이고 있

었다. 목소리가 매우 익숙하여 혹시 양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양과라고 생각되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절대로 그는 아니야! 단지 내가 그였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로 들렸을 뿐이야.)

야율제가 물어 볼 때도 그녀는 여전히 정신이 나가 있어서 알아 듣지 못했다.

곽부는 동생의 두뺨이 빨갛게 되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표정이 약간 이상한 것을 보고 그녀가 방금 너무나 놀라서 그런 줄로 알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애야. 너 왜 그러니?]

곽양은 몸을 한번 떨더니 부끄러워 얼굴이 온통 빨갛게 되어서는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곽부는 화를 내며 말했다.

[형부가 방금 너에게 누가 너를 구해 주었느냐고 물었잖아. 안 들리니?]

[아. 이 악인을 때려서 죽이도록 도와 준 것이 누구냐고? 물론 그 사람이지! 그를 제외하고 누가 이런 실력을 자꼰겠어?]

곽부가 말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네가 말한 그 대영웅 말이냐?]

곽양은 가슴이 쿵쿵 뛰어 서둘러 말했다.

[아니..아니야! 나는 노노백의 혼을 말한 거야.]

곽부는 피, 하고 내뱉고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곽양이 말했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니 분명히 노노백이 몰래 나를 보호해 준 거야. 언니도 알잖아! 그는 생전에 나와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것 말야.]

곽부는 반신반의 했다. 귀신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노유각의 영혼이 정말로 흩어지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나 만약 귀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도 분명히 옆에 있으면서 전혀 자취를 알아채지 못했단 말인가?

야율제는 니마성의 철장 2 개를 집어들고 감탄하며 말했다.

[이런 무공은 그야말로 탄복을 금치 못하게 하는군.]

곽부, 곽양이 자세히 보니 철장 하나하나에 모두 금사부용촉(金絲芙蓉觸)이 박혀 있어 마치 장인이 주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금사세촉(金絲細觸)은 바로 황금사, 백금사를 사용하여 부용화(芙蓉花) 풀잎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그 재주가 실로 교묘했다. 그런데 누군가의 강력한 내력에 의하여 니마성의 두껍고 무거운 2 개의 철장이 손에서 벗어나 달아나게 했으니 야율제가 진정으로 감탄하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곽부가 말했다.

[우리 가지고 가서 엄마에게 보여 줘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엄마는 한 번 보시면 알 거예요.]

즉시 2 명의 개방 제가가 하나는 시신을 짊어지고 하나는 쌍장을 들고 야율제와 곽씨 자매를 따라서 성 안으로 돌아왔다. 곽정과 황용은 곽부의 얘기를 듣고 은근히 놀랐다.

곽양은 자기가 이번에 소란을 피워서 또 아빠 엄마가 심히 꾸중할 것으로만 알았는데 곽정은 딸이 도의를 매우 중히 여긴 것을 기뻐하며 도리어 그녀를 위로했다. 황용은 남편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작은 딸을 품속에 꼭 껴안고 귀여워 해 주었다. 황용은 니마성의 시신과 쌍지팡이를 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곽정에게 물었다.

[여보! 누구 같아요?]

곽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내력은 순전히 강맹함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 내가 아는 바로는 오직 두 사람밖에 없소.]

황용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은사 홍칠공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당신 뿐이잖아요.]

그녀는 양태부 묘에서 싸웠던 경과를 자세히 묻고도 시종 누군지 생 각해 내지를 못했다.

곽부, 곽양 자매가 쉬러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자 황용이 말했다.

[여보! 둘째딸이 뭔가 마음속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느끼고 계셨나요?]

곽정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무얼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녀가 복상하여 영웅첩을 보내고 돌아온 이후로 항상 멍하니 정신 이 나가 있는데 오늘밤 얘기할 때의 표정은 더욱 이상했어요.]

[그 애가 놀라서 정신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 아니겠소!]

[아니예요. 그 애는 어떤 때는 부끄러워 거북한 표정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입가에 웃음을 띄고 있는 것이, 절대 놀란 것이 아니예요. 그 애의 마음속에는 뭔가 말 못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홀연 고인의 도움을 받았으니 당연히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할 텐데 그것이 뭐가 그리 이상하다는 거요?]

황용이 살며시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런 여자아이의 심정을 당신은 젊었을 때도 알아차리질 못했으니 나중에 늙으면 더구나 무엇을 알겠어요?)

그들 부부는 곧장 화제를 돌려 적을 방어할 포진을 어떻게 파고, 내 일 영웅대연에는 빈객을 어떻게 접대할 것이며 자리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등을 상의한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황용은 침상에 누워서 곽양의 표정을 생각하며 줄곧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애는 태어난 당일부터 갖가지 난리를 겪어서 나는 줄곧 그녀가 일생 동안 이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 할까 봐 애를 태웠다. 다행히도 16 년 동안은 평안하게 지냈는데 설마 이제 와서 어떤 변고가 그녀에게 닥친 것일까?)

다시 그녀는 강적이 변경을 위협하여 곧 닥칠 대난리와 성의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당면해 있는 재화(災禍)를 생각했다. 만약 일찌감치 이런 기미를 눈치챌더라면 미리 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애는 타고난 성격이 이상하여 어려서부터 한번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가 아무리 달래고 꾸짖어도 그녀는 줄곧 얼굴만 붉히며 단 반 마디도 털어놓지 않아 부모로 하여금 화내지도 웃지도 못하게 만들곤 했었다.

황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살그머니 일어나서 성 근처로 가 성문을 지키는 군사에게 문을 열도록 하고 즉시 성의 남쪽에 있는 양태부의 묘로 갔다.

시각은 사고(四鼓)의 깊은 밤인데 별은 침침하고 밝은 달은 검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황용은 손에 백랍단간(白蠟短絙)을 하나 들고 경공을 펴서 현산(峴山)으로 올라갔다. 양태부의 묘와는 아직도 수십 장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홀연 타루비(墮淚碑) 옆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황용은 몸을 낮추고 살그머니 접근하여 비(碑)와 수장의 거리에 이르러서 한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손(孫) 삼형, 은공(恩公)이 우리 보고 이 타루비 뒤에서 서로 만나라고 했는데 이 비는 왜 이런 괴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소.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손가라는 사람이 말했다.

[은공은 평생 동안 뭔가 크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단장(斷腸)이니 우수(憂愁)니 타루(墮淚)니 뭐니 하는 명칭들만 보면 쉬이 마음에 새기는 것 같소이다.]

첫번째 사람이 말했다.

[은공의 이런 능력으로는 천하에 더 이상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을 텐데 그의 눈빛이나 말투를 보면 마음속에 언제나 무슨 말 못 할 사연이 있는 것 같소. 이 <타루비>라는 세 글자도 그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닌지 모르겠소.]

손가가 말했다.

[그건 그렇지 않소. 내가 일찌기 대고(大鼓) 곡예를 하는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지요. 삼국 시대에 양양은 위진(魏晉)에 속해 있었는데 이곳을 지키는 장수 양고(羊枯)가 매우 큰 공로를 세워 태부(太傅)의 관직에 봉해 졌는데 이 지방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은덕이 매우 두터웠소. 그는 평소에 이 현산에 와서 노닐기를 좋아하였는데 세상을 떠난 뒤에 백성들이 그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이 현산에 이 양태부 묘를 짓고 비를 세워 그의 덕을 기록했소. 백성들은 이 비를 보면 그의 평생의 훌륭한 점을 기억하여 종종 대성통곡을 하므로 이 비를 <타루비>라고 부르게 되었소. 진육제(陳六弟), 양태부와 같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라고 할 수 있소.]

그 진가라는 사람이 말했다.

[은공은 의협의 일을 행하여 오호사해(五湖四海)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오. 만약 그가 양양에서 관직을 지냈더라면 양태부보다도 더 훌륭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거요.]

손가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다.

[양양의 꼭대협은 이미 보경안민(保境安民)하고 또한 의협의 일을 행하고 있으니 그는 양태부와 우리 은공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소.]

황용은 그들이 자기의 남편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득의양양했다.

(그들이 말한 은공은 누구일까? 혹시 바로 양아를 몰래 도와 준 그 사람이 아닐까?)

다시 손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우리 두 사람은 이전에 은공과 적대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도리어 그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으니 은공의 이러한 적을 친구처럼 대하는 마음은 양고 양태부보다도 훨씬 훌륭하지. <삼국>의 고사를 말해 준 그 분은 또 말하셨지요. 양고가 양양을 지킬 때 그와 대항하고 있었던

동오대장(東吳大將)은 육손(陸遜)의 아들 육항(陸抗)이었소. 양고가 동오의 경내에 군사를 파견하여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의 곡식을 가져다 군량으로 삼을 때는 반드시 동오의 백성들에게 배상금을 주었지. 육항이 병이 들어서 양고는 그에게 약을 보냈는데 육항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먹었다고. 부장이 그에게 조심하라고 전했는데 그는 <양숙자(羊叔子)>가 어찌 독으로 사람을 죽이겠나? > 라고 했는데 약을 먹은 뒤에 과연 병은 다 나았지요. 양숙자는 바로 양고지. 그의 인품이 워낙 뛰어나서 적들도 그를 공경하고 존중했지요. 양고가 죽었을 때 동오의 변방을 지키는 장사들까지 모두 며칠 동안 대성통곡을 했으니까. 이렇게 덕으로 사람들을 감복시켜야만 비로소 영웅이라고 할 만하지요.]

진가는 비석을 더듬으며 연방 감탄을 하면서 정신이 나간 듯 한참 있다가 말했다.

[은공이 우리보고 여기에서 만나도록 한 것은 이제 생각하니 양태부의 사람됨을 양모해서 인 것 같군요.]

손가가 말했다.

[나는 일찌기 은공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요. 양고가 한 한마디 말 중에 가장 그의 심금을 울린 말이 있다고.]

진가가 황망히 물었다.

[무슨 말이죠? 천천히 말하세요. 내 마음속 깊이 기억을 하고 싶소. 은공까지 감탄을 했다면 이 말은 분명히 보통 말이 아닐 거요.]

[당년에 육항이 죽은 뒤에 오주(吳主)가 무도하여 양고는 표를 올려 동오를 징벌할 것을 청하여 동오의 백성을 구하고 이 틈을 타 천하를 통일할 수도 있었는데 도리어 조정의 간신에게 모함을 당했다고. 그리하여 양고는 탄식하면서 <천하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에서 항상 일곱 여덟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은공이 칭찬한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진가는 이런 말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여 자못 실망하고는 몇 마

다 중얼거리다가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손삼형. 양고, 양고, 이 이름은 은공의 이름과 음이 같고 글자는 다르지...]

손가가 호통을 쳤다.

[췌, 조용히 ! 누군가 오고 있소.]

황용은 깜짝 놀랐다. 과연 산허리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생각해 보았다.

(<양고(羊鼓)>와 음은 같고 글자가 다르다면 혹시 <양과(楊過)>가 아닐까?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과아의 무공이 진보를 했다고 해도 결코 이토록 신출귀몰한 경지에까지 도달했을 리는 없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음은 같고 글자는 다르다>는 말이 아닐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 올라온 그 사람이 가볍게 손뼉을 세번 치자 손가도 손뼉을 세 번 쳐서 대답했다. 그 사람이 타루비 가까이로 와 말했다.

[손, 진 두분 노제(老弟)! 은공은 당신들에게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은공의 명의로 된 서찰이 두 개 있으니 두 분은 즉시 보내 주기 바랍니다. 손삼제는 이것을 하남(河南) 신양부(信陽府)에 있는 조로작야(趙老爵爺)께 전해주고, 진육제는 이것을 호남(湖南) 상덕부(常德府)에 있는 오아산(烏鴉山)농아두타(壟啞頭陀)에게 전해 주어 그 두 분께 열흘 안으로 이곳으로 꼭 모이라는 말을 전해 주시오.]

손,진 두 사람은 공손하게 대답하고 명첩(名帖)을 받아서 품속에 집어 넣었다.

이 몇 마디 말은 황용을 더욱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신양부 조로작야는 바로 송조 종실의 후예로 태조의 32 세장권(三十二勢長拳)과 18로 제미봉(十八路齊眉棒)이 가전의 절기인데 그는 대대로 작위를 이어받는 신분이어서 강호의 무인들과 어울리지를 않았다. 오아산 농아두타

는 삼상(三湘) 무림의 명가로 무공이 매우 강한테 다만 귀가 멀고 병
어려워서 외인과 왕래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 양양의 영웅대연에
서 곽정과 황용은 이 두 사람이 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산을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호걸들의 명망을 존경
하여 역시 영웅첩을 보냈는데 과연 두 사람은 회신을 완강하게 사양을
했었다. 그런데 이 <은공>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단 한
통의 서찰만을 가지고 이 산림에 은일(隱逸)하는 고사(高士) 두 분을
열흘 안으로 달려오도록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황용은 갑자기 매우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

(영웅대연이 내일이면 열리는데 이 사람은 강호의 고수를 양양으로
불러 모아 무슨 계책을 꾸미는 걸까? 혹시 몽고를 도와 주어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건 아닐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조로작야와 농아두타는 비록 성질은 괴팍하지만
결코 간사한 무리는 아니었고 만약 그 <은공>이 바로 양아를 몰래 도
와 니마성을 죽인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와 같은 무리일 것이었다.

그녀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세 사람은 다시 나지막이 몇 마
디를 나누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분명히 들리지는 않았으나 그 진가
가 하는 말이 띄엄띄엄 들려왔다.

[.....은공은 그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켜 보낸 적이 없었으니
이번만은 반드시....그 굉장한 광경과 소란을... 체면을 세우고.....
우리의 선물을.....]

그 나머지 말은 들을 수가 없었다. 손가가 큰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움직입시다. 마음 놓으십시오. 결코 은공
의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한뒤 세 사람은 바빠 산을 내려갔다.

황용은 그 <은공>이 어떤 내력을 지닌 사람인지 실로 조금도 생각해
낼 수가 없었고, 공연히 그들을 놀라게 하여 세 사람을 사로잡아서 심
문하고 싶지도 않았다. 세 사람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묘 안으

로 들어가 전후좌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적군이 가까이 접근해 오자 묘 안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성 안으로 달아나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묘를 나와 성으로 돌아올 때는 하늘이 점차 밝아 오고 있었다.

성문 밖의 갈림길에 가까이 왔는데 맞은편에서 홀연 2 필의 말이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황용은 재빨리 몸을 피하여 길가로 물러서서 보니 말 위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타고 있었다. 2 필의 말이 갈림길에 이르러자 하나는 말머리를 서북쪽으로 돌리고 다른 하나는 말머리를 서남쪽으로 돌려서 길을 나누어 가려 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장대과자(張大誇子)에게 잊지 말고 말해. 한구(漢口)의 악단, 창극단, 공연단을 빠짐없이 데리고 오라구 말이야. 등을 걸고 장식을 하는 뛰어난 장인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잊지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공연히 나한테만 그러지 말라구. 네가 모시고 올 천채대사부(川菜大師傅)가 만약 하루라도 늦게 도착하면 은공은 너를 봐 주실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너를 그냥 놔 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도 웃으며 말했다.

[흥, 그럴리가 있나? 하루라도 늦으면 내 머리를 잘라다 돼지머리고기를 만들게나.]

두 사람은 말을 하고 나서 포권을 취한 뒤 길을 나누어 각자 말을 달렸다.

황용은 천천히 성으로 들어서며 더욱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일찌기 듣기를, 장대과자는 한구의 일 패(霸)로 관부와 통하고 수단이 뛰어나 부근 산채의 호객들이 모두 그의 얼굴을 팔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은공>은 단 한마디로 그를 불러올 수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모여 도데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

돌연 한가지 생각이 퍼득 들어 외쳤다.

[그렇다. 그래! 분명히 그럴거야.]

그녀는 부중(府中)으로 돌아와 곽정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가 영웅첩을 하나 빠트린 곳이 있어요?]

곽정은 이상해 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나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단 말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몇 번이나 검토를 해 보았잖소? 빠트린 곳이 있을 리 없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 분에게라도 득죄를 할까 봐 그다지 큰 명망이 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수십 분의 명가들한테도 모두 영웅첩을 보냈지요. 하지만 오늘 내가 본 바로는 분명히 악의는 없는 한 대단한 인물이 양양성의 영웅대연에 참가하여 우리와 함께 한차례 격투를 벌일 것 같아요.]

곽정은 기뻐하며 말했다.

[이 분 영웅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면 정말로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 우리가 그를 맹주로 추대하여 그가 군웅을 거느리고 함께 몽고에 항쟁하고 우리 부부도 일제히 그의 호령을 따르면 되겠군.]

황용이 눈썹을 약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또한 적에 항거하기 위하여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명첩(名帖)을 보내 신양의 조로작야, 오아산의 농아두타와 한구의 장대과자 등의 사람들을 오게 했어요.]

곽정은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탁자를 치고 일어나서 말했다.

[이 사람이 만약 조로작야, 농아두타 등의 고인을 오게 할 수만 있다면 양양성의 성세는 크게 떨치게 되오. 용이, 이런 인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한 번 사귀어 봐야 하오.]

황용은 생각에 잠겨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빈객을 접대하는 제자가 강남 태호(太湖)의 채주(寨主)들이 왔다고 보고했다. 곽정, 황용은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다. 이 날 각처의 호걸들이 분분히 도착해 황용은 응대 접객을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빠서 어제 저녁 보고 들은 것들은 자세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다음날은 바로 영웅대연이었다. 못 영웅들이 모여들어 400 여 개의 탁자를 늘어놓고 양양에서 삼군을 통솔하는 안무(安撫) 여문덕, 수성대장(守城大將) 왕견(王堅) 등은 각처의 영웅들에게 경주(敬酒)를 올렸다. 연회석에 있는 사람들은 몽고가 잔인하고 포악하여 우리 백성을 죽이고 우리 대송의 강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며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들과 한차례 결전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저녁이 되어 곽정을 추대하여 회맹(會盟)의 맹주로 뽑고 사람마다 삽혈(插血)로 맹세하여 목숨을 버리고 적에 대항할 것을 다짐했다.

곽양은 그 날 양태부 묘에서 곽부와 말다툼을 하면서 영웅대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과연 두문불출 방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시중드는 시녀에게 말했다.

[언니는 영웅대연에 나갔지만 나는 혼자서 편안하게 술을 마시니 그 너만큼 유쾌하지 못할 것도 없지.]

곽정, 황용은 적을 방어할 대계를 생각하고 있으니 이 순간 어린 곽양의 사소한 일을 생각할 겨를이나 있겠는가? 곽정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지도 못하고 있었다. 황용은 대략 물어 보았지만 그녀의 성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단지 한번 웃고 말 뿐이었다.

영웅들은 십중 팔구 모두 주량이 세어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어떤 사람은 흥이 나서 자리에서 무공을 선보이며 웃고 즐기고 있었다.

황용은 마침내 작은 딸이 걱정이 되어 곽부에게 말했다.

[부야, 너 양아에게 가서 대청으로 나와 이 광경을 좀 보라고 해라. 이런 큰 모임은 일생동안 한번도 제대로 보기 힘들거야.]

[싫어요! 동생은 기분이 좋지 않아 저만 보면 말싸움을 하려고 해요. 내가 가면 공연히 화만 돋우게 되요.]

곽파로가 말했다.

[제가 가서 데리고 오지요.]

그는 훌훌 자리에서 일어나 내실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파로가 혼자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곽부가 말했다.

[내가 그 애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내 말이 맞지?]

황용은 아들의 안색이 이상한 것을 보고 물었다.

[작은 누나가 뭐라고 했니?]

[엄마, 정말로 이상해요!]

[뭐가 말이냐?]

[작은 누나가 그러는데요, 방에서 영웅소연을 베푸느라 영웅대연에는 오지 않겠대요.]

황용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네 작은 누나는 언제나 그렇게 남이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하는구나. 그냥 놔 두어라.]

[작은 누나 방엔 정말로 손님이 있어요. 남자 다섯과 여자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황용은 눈썹을 찌푸리며 이 여자아이는 가면 갈 수록 하늘 높은 줄, 땅 넓은 줄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다 큰 남자를 규수의 방에 불러들여 멋대로 술을 마신단 말인가? <소동사(小東邪)>라는 별명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가빈(嘉賓)이 구름처럼 모여 있으니 이 일로 딸아이를 꾸짖어서 영웅들의 호쾌한 기분을 꺾 수는 없었다. 곽부에게 말했다.

[너희 형제는 나이도 어려 처음 보는 손님을 접대할 수도 없을 테니 네가 가거라. 동생의 친구들에게 모두 대청으로 와서 술을 마시며 함께 즐기도록 하라고 전해라.]

곽부는 호기심이 일어나 동생의 방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평소에 남녀 관계를 꺼리지 않아 무슨 시정의 잡배들이나 병사들하고도 거리낌없이 사귀었다. 오늘 동생의 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서너 명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친의 분부를 듣자 곧장 몸을 일으켜 곽양의 규방으로 갔다. 방문과 1장 남짓 떨어져서 있는데 곽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봉두, 주방에서 술을 두 항아리 더 가지고 와라.]

<소봉두(小棒頭)>는 하녀였다. 곽양은 자기의 하녀에게 지어 준 이름까지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 하녀가 대답을 했다. 곽양이 다시 말했다.

[주방에 분부하여 양다리 두 개를 더 굽고 잘 익은 쇠고기 20 근을 잘라 가지고 오도록 해라.]

소봉두는 대답을 하고 방을 나왔다. 방안에서 쇠를 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곽아가씨는 정말로 호방하군요. 저 인주자(人廚子)가 이전에 당신을 알지 못한 것이 애석합니다. 그러면 일찌기 당신과 친구가 되었을 텐데요.]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친구로 사귀어도 늦지는 않아요.]

곽부는 눈썹을 찌푸리며 창가로 가 보니 동생의 방에 조그만 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위에는 잔과 접시가 즐비했다. 여덟 사람이 바닷가에 주저 앉아 잔을 주고 받으며 한껏 흥을 돋우고 있었다. 맞은편에 있는 한 사람은 머리가 비대하고 가슴을 열어 젖혔는데 가슴에는 길다란 검은 털이 드러나 있었다. 그 사람의 왼쪽은 문사(文士)로 긴 수염이 세 갈래 나 있고 의관이 깨끗하며 손에는 부채를 들고 가벼이 흔들고 있었는데 자못 우아했으나 부채에 그린 그림은 혀를 길게 내밀고 있는 무상귀(無常鬼)였다. 문사의 왼쪽에는 40 세 정도의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오관(五官)은 매우 맑고 수려하고 얼굴에는 여기저기 칼자국이 나 있어 적어도 10 여 군데는 되는 것 같았다. 그 옆에는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두타승(頭陀僧)이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는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입에는 살찐 닭을 하나 물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창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아하니 둘은 백발의 노인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검은 옷을 입은 니고(尼姑)였다. 곽양은 이 사람들의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 붉은기가 맴돌고 눈가에는 술기운이 서린 채 말하고 웃는 모습이 매우 득의

양양해 있었다. 꺾부는 그들이 이렇게 흥이 나 있는 것을 보니 그들에게 대청에 가도록 청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백발의 노인이 일어나 말했다.

[오늘 술은 어느 정도 마셨으니 아가씨의 생일날에 저희는 다시 와서 한바탕 크게 취해 보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한 가지 결례를 할까 하니 아가씨는 그냥 웃어 넘겨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한 뒤, 품속에서 비단으로 싼 상자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 놓았다. 다른 노인이 말했다.

[백초선(百草仙), 네가 가지고 온 것은 뭐지? 어디 한 번 보자구.]

하고 말하며 상자를 열어 보고서 저도 모르게 낮게 소리를 지르고는 말했다.

[아니, 이 천년설삼(千年雪參)은 어디서 구했지?]

꺾부가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그는 한 자 정도 길이의 설백인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어린아이의 모양이어서 머리와 몸체와 손과 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피부에는 은은하게 혈색까지 퍼져 있어서 그야말로 희귀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자 그 백초선은 아주 득의양양해 하며 말했다.

[이 천년설삼은 온갖 병을 치료하고 온갖 독을 해독하여 기사회생의 효과가 있는데, 아가씨는 아무 재난이 없이 백 세는 사실 것이니 원래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백 세가 된 그 생신일에 이것을 복용하면 다시 한 세상을 더 사시고 아무 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일제히 그의 훌륭한 선물을 칭찬했다. 다시 머리가 비대한 인주자가 품에서 쇠로 된 상자 하나를 꺼내어 웃으며 말했다.

[그저 장난삼아 드리는 것이라고 아가씨가 웃지나 않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상자를 열어 철로 주조한 2개의 뚱뚱한 화상을 꺼냈다. 길이가 7촌

정도 되었는데 기계 장치를 돌리니 두 철인형이 네가 일권(拳) 내가 일각(脚)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그러나 그 한쌍의 철인형은 싸우는 것이 엄연한 법도가 있어 분명히 <소림나한권(少林羅漢拳)>의 자세 였으며 10 여 초를 겨루자 철인형 안에 장치된 기계가 다 움직여서 멈추었는데 두 철인형이 마주하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자못 무림 고수의 풍모가 엿보였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더 이상 웃지를 않고 얼굴에는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 가득한 것 같았다. 얼굴에 칼자국이 난 그 부인이 말했다.

[인주자, 공연히 체면을 세우려고 곽아가씨에게 번거로움을 끼치지는 말아! 이건 송산(嵩山)소림사의 철나한인데 어떻게 이것을 흠쳐 가지고 왔지?]

인주자는 웃으며 말했다.

[헤헤, 나 인주자가 아무리 담력이 크기로서니 감히 소림사에 가서 좀도둑질을 하지는 않아. 이건 소림사 나한당 수좌 무색선사(無色禪師)께서 내게 보내라고 하신 거야.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어. 아가씨의 생일에는 반드시 양양에 와서 아가씨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이것을 나 인주자가 조그만 성의로 드리는 거야!]

철상자의 다른 한 층을 여니 검은색의 옥촉(玉觸) 하나가 나왔다.

이 검은색의 옥팔찌는 시커멓게 생겨서 별다른 기이한 것이 없어 보였다. 인주자가 허리에서 등이 두툼고 날이 얇은 귀두도(鬼頭刀) 한 자루를 꺼내어 옥팔찌를 조준하여 한번 내려치니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귀두도가 도로 튕겨나오고 흑옥촉은 조금도 상처가 없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어서 문사, 니고, 두타, 부인 등도 모두 곽양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한결같이 진기하지 않은 것이 없어 평생에 보기 드문 것들이었다. 곽양은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며 하나하나 받고 감사를 표시했다.

곽부는 보면 볼수록 신기하여 몸을 돌려 대청으로 급히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얘기했다.

황용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곽부보다도 더욱 놀랍고 이상하여 즉시 주자류를 손짓하여 불러서 세 사람은 내당으로 물러났다. 황용은 딸에게 방금 본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했다. 주자류도 매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인주자, 백처선도 마침내 양양으로 온다구?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승은 아마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절호수(絶戶手) 성인사태(聲因師太) 인 것 같고, 그 문사의 부채에 무상귀가 그려져 있다면 음, 전륜왕(轉輪王) 장일맹(張一氓)이 아닐까?]

그가 말할 때마다 황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자류는 도리어 연방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가씨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최근의 한 번을 빼놓고는 양양에서 사방 수십 리 밖의 땅을 디딘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 삼산오악(三山五嶽)의 괴인들과 사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숭산(嵩山) 소림사의 무색선사(無色禪師)는 최근 몇 년동안 면벽수도를 하느라 무림의 고인들이 온갖 정성으로 산에 올라가 그를 한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양양에 와서 조그만 여자아이에게 축하를 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음, 분명히 작은 아가씨가 호사가들을 모아다가 고의로 허장성세를 부려 언니와 다투면서 장난을 하려고 그런 걸 겁니다.]

황용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러나 성인사태, 장일맹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평소에 거의 들먹이지도 않았으니 양아는 알지 못할 테고 더구나 이런 일을 꾸민다는 건 더욱 불가능한 일이지.]

주자류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도 사실이군요. 저희가 한 번 가서 예로 써서로 만나 봅시다. 그들이 이미 둘째 아가씨의 친구라면 양양에 온 일도 결코 악의가 없을 것입니다.]

황용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인사태, 전륜왕 장일맹, 이 사람들의 행실은 사악했다가도 바르게 행동하여 희로(喜怒)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수는 없지만 일이 잘못 되면 또 하나의 골치거리가 되기 십상이에요. 눈앞의 대적이 와서 변경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실로 이런 괴인들을 상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소.]

돌연 창밖에서 한 사람이 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곽부인 들으십시오. 이 괴인들이 양양에 오는 것은 오직 둘째 따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한 것이요, 별다른 악의는 없습니다. 뭘 그리 머리 아파하십니까?]

<별다른 악의는 없습니다. 뭘 그리 머리 아파 하십니까!> 이 말을 할때 목소리는 이미 몇 장 밖에 있었다. 황용, 주자류, 곽부는 일제히 창가로 가 보았다. 담장에 검은 그림자가 번쩍 하는데 그 신법이 더할 나위 없이 빨라서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곽부가 즉시 뒤따르려 하는데 황용이 그를 붙잡아 멈추게 했다.

[경거 망동하지 마라. 쫓아가지 마!]

고개를 들어 보니 하늘의 공손수(公孫樹) 나뭇가지에 펼쳐진 백지선(百紙扇) 하나가 꽃혀 있었다.

그 종이 부채는 땅에서 4장 이상이나 높이 꽃혀 있어 곽부는 단번에 뛰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외쳤다.

[엄마!]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벼이 뛰어서 왼손으로 나뭇가리를 살짝 붙잡고 그 힘으로 위로 몸을 뒤집어 오른손으로 다시 가로놓인 나뭇가지를 잡자 몸은 이미 4장의 높은 곳에 있어서 부채를 뽑아 가지고 내려왔다.

세 사람은 내당으로 돌아와 등불 아래로 가서 보니 종이부채의 한 면에는 혀를 내민 백무상(白無常)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아주 우스웠다. 두 손은 포권(抱拳)을 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으며 옆에는 글이 써어 있었다.

<곽아가씨의 생일을 축하하며 백 세토록 장수하고 영원토록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황용이 부채를 뒤집어 보니 다른 면에도 글씨가 써어 있었다.

<흑의니성인(黑衣尼聖因), 백초선, 인주자, 구사생(九死生), 구육두타(拘肉頭陀), 한무구(韓無垢), 장일맹이 곽대협, 곽부인께 인사드리며 영애의 꽃다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감히 방문하여 인사드리지 못하오니 용서 바랍니다.>

이 몇줄의 글자는 먹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아주 힘있고 훌륭한 글씨였다. 주자류는 서법의 명가였다. 그는 계속 칭찬했다.

[좋은 글씨군, 좋은 글씨야.]

황용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리 양아를 보러 갑시다.]

주자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여자아이와 무슨 특별히 꺼릴 것이 없어서 즉시 황용과 함께 곽양의 방에 이르렀다. 소봉두와 다른 시녀 하나가 남은 술잔과 안주를 치우고 있었다. 곽양이 말했다.

[주백부, 엄마, 언니! 보세요. 이걸 손님들이 내게 보내 준 생일 선물이에요.]

황용과 주자류는 천년설삼, 쌍철나한, 흑옥축과, 절호수 성인사태, 전륜왕 장일맹 등이 준 진기한 선물을 보고 모두 속으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곽양은 기계장치를 돌려 한 쌍의 철나한이 싸우도록 하고는 매우 득의만면해 있었다. 황용은 10 여초의 <나한권>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양아, 도데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에게 얘기 좀 해봐라.]

곽양이 말했다.

[새로 생긴 몇몇 친구들이 내 생일이 가까왔다는 것을 알고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이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나는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

고 있는데 그 한무구 언니가 창 밖에서 말했어요. <동생아, 우리 너와 함께 술을 마시러 왔는데, 어떨겠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죠,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죠. 그들은 창으로 뛰어들어 와 24 일 그날이 되면 모두 와서 내게 축하를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내 생일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 사람들은 모두 엄마와 아빠를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좋은 것들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빠와 엄마도 모두 그들을 모른다. 어떤 이상한 친구가 너와 대신 약속을 한거지, 그렇지?]

곽양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상한 친구는 없어요, 형부를 제외하고는요.]

곽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너의 형부가 뭐가 이상하단 말이야?]

곽양은 혀를 내밀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언니를 아내로 맞았으니 그게 이상하지 않으면 뭐가 이상해?]

곽부는 손을 뻗어 때리려고 하자 곽양은 킁킁 웃더니 숨었다. 황용이 말했다.

[애들아 그만 해라! 양아, 엄마가 다시 묻겠다. 전륜왕, 백조선 그들이 우리의 영웅대연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예요. 하지만 그 구사생과 백조선은 모두 아빠에 대하여 매우 탄복했다고 말했어요.]

황용은 다시 몇 마디 묻고 곽양이 무얼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말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서 자거라.]

그녀는 주자류, 곽부와 함께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곽양이 문까지 따라와 말했다.

[엄마, 이 천년 설삼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반 드시고 아빠가 반을 드세요.]

[그건 백초선이 너에게 생일 선물로 보낸거야.]

[나는 태어나서 살기만 했지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엄마만 고생하
시고요.]

황용은 딸의 이런 효심을 저버릴 수 없어 설삼을 받고는 곽양이 태
어나던 그 날의 놀라움과 위험, 고통과 난리를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깊이 한숨을 쉬었다.

이 날 영웅대연에서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고 흠어졌다. 곽정은 방으
로 돌아와 황용에게 못 영웅들이 일심협력하여 원수와 항거한다는 말
을 하는데 말투가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 황용이 이어서 성인사태, 백
초선 등 일곱 사람이 곽양과 밤에 연회를 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
다. 곽정은 깜짝 놀라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 천년설삼을 보니 과연 일평생 보기 힘든 진귀한 물건이었다. 황
용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보배 같은 작은 아가씨의 면식이 엄마 아빠보다도 훨씬 크
군요.]

곽정은 아무런 대꾸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성인사태, 전륜왕, 한무
구 등의 사람들이 평생 행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했다. 황용이 말했다.

[여보! 개방에서 방주를 뽑는 일을 며칠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양아의 생일까지 지연되어 만약 백초선들의
사람들이 정말로 온다면 양양성 안에는 온갖 사람들이 섞여 다른 변고
가 생길지도 몰라요.]

[나는 따로 주의는 하고 있소. 우리가 그대로 10 월 24 일에 방주를
뽑는 다면 크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यो. 만약 무색
선사, 농아두타 등의 인물이 친히 오신다면 우리가 대의로써 그들을
설득하여 함께 친구로서 외적과 항거하도록 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겠소?]

황용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그들이 축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오지만 실제로는 한바탕 난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양아와 무슨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서둘러 와서 축하를 하려고 하겠어요? 자고로 가지가 크면 바람이 부는 법, 천하의 무학지사들의 절반은 당신이 이 무림맹주를 맡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지도 모르잖아요?]

곽정은 몸을 일으켜 하하, 웃더니 말했다.

[용이, 우리가 하는 일은 다만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바라는 거요. 몽고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거요. 이 무림맹주는 누가 맡아 보든 모두가 마찬가지요. 다시 말하면 사(邪)가 정(正)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요. 이 사람들이 만약 정말로 악의를 품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한바탕 겨루면 되지. 당신의 타구봉법과 나의 강룡십팔장을 십 여년 동안 사용해 보지 못했었지만 그것도 상관없는 일이요.]

황용은 그가 분노가 치밀어 호기가 당년보다 조금도 줄지 않은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우리 주사(主師)의 뜻을 본받아요. 당신이 이 설삼을 드세요. 내가 보아하니 4,5년의 공력은 늘어날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계속하여 세 아이를 낳느라 적잖이 내력에 손상을 입었으니 마땅히 보신을 한번 해야 하오.]

그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아낌이 그야말로 수십 년이 하루 같아 반나절을 서로 양보하다가 마침내 곽정이 말했다.

[내일은 용쟁호투(龍爭虎鬪)가 있을 테니 분명히 상당한 친구들이 부상을 당할거요. 이 설삼은 그들의 구제용으로 남겨둡시다.]

딸의 세가지 소원

다음날에도 영웅대연은 계속되었다. 곽양은 방안에서 다시 영웅소연

을 펼치고 있었다. 황용은 일찍부터 주방에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라고 명해서 딸이 손님을 초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광부는 요 며칠 사이에 자기의 남편이 개방의 방주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뜩해 있어서 동생의 이상한 손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가자 영웅 대회에서는 각처의 호걸들과의 연락 방법, 몽고의 지원 부대를 혼란시키는 방법과 어떻게 협조해서 성을 지키는가 하는 등의 문제들이 거의 타협이 되었다. 군호(郡豪)들은 주먹을 비비면서 적군이 공격해 오면 그들을 쳐부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광정은 군호들의 마음이 모두 합쳐지자 비록 안심이 되었으나 그 자신이 몽고의 군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몽고 대군의 강력함을 잘 알고 있어 결코 수천 명의 사나이로는 그들을 막아낼 수 없음을 잘 알고는 속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0 월 24 일 대회는 끝났고 오후에 새로운 방주를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호걸들은 점심을 먹고 서쪽에 있는 대교장(大校場)으로 부지런히 갔다. 교장의 한가운데에는 높은 무대가 우뚝 솟아 있었고 남쪽으로는 1 천여 개의 의자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었 있었다.

이 무대 밑에는 이미 2 천여명의 개방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개방에 몸담은 경력이 오래 되었고 무예가 뛰어난 인물로 제일 낮은 품급(品級)이 4 대 제자였다. 이 2 천여 명의 무리들은 각각 4 대 장로의 통솔을 받았다. 개방은 원래 노,간,양,팽 의 4 대 장로 가운데 노유각은 방주가 된 이후 최근 해를 입었고 팽장로는 개방을 배반하고 자은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간장로는 말년에 병으로 죽어서 지금은 양장로만이 홀로 남아서 수석 장로로 있었다. 기타 3 명의 장로는 모두 각파의 8 대 제자(八袋弟子)가 자리를 잇고 있었다, 개방의 무리는 노,군,주,현(路軍州縣)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당에 앉았다. 개방에 대대로 전해 오는 규칙에 사람들은 대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땅에 앉아서 거지의 원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이었다.

개방의 무리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입장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야율제, 곽부 부부, 무돈유 야율연부부, 무수문 완안평 부부는 나이가 어린 후배이고 거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까닭에 맨끝에 앉아 있었다. 각자는 10 여년 동안 힘써 연습해 온 무공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각하며 어떻게 이 수천 명의 영웅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까 생각하고 있었다.

곽파로는 곽부의 옆에 앉아 영웅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기세의 대단함에 감격하여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작은 누나는 참 이상해. 어찌해서 이 재미있는 광경을 보지 않으려 하지?]

곽부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 좁아빠진 마음속을 어찌 알겠니.]

그 때 동편에 있는 개방의 무리 가운데 8대 제자 한 명이 일어나 손을 쭉 내밀어 큰 조개를 입에 대고 큰소리로 불었다. 황용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아래를 향해 공손히 예를 올린 뒤 낭랑히 말했다.

[오늘 우리 개방의 대회에 천하 각로의 선배 영웅과 후배 호걸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가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시니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다시 한번 예를 올렸다. 무대 아래에 있던 개방의 무리들은 일제히 일어나 답례를 했다.

[어질고 의로우신 노장로는 평생 동안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고생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얼마 전 현산 양태부 묘에서 사악한 몽고왕자 곽도에게 해를 입으셨습니다. 이 원수를 아직 갚지 못했으나 실로 개방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개방의 모든 제자들은 노유각이 일생 동안 공평정직하고 아랫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 준 것을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리거나 이를 갈면서 사악한 곽도를 비난하고 욕했다. 황용은 계속 말을 이

었다.

[그러나 몽고의 대군이 양양을 침범해 오늘에 이르렀으니 우리들은 단지 개방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국가의 대계(大計)를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방의 원수를 갚는 일은 잠시 뒤로 미루고 강적을 물리치고 난 뒤 다시 이야기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무대 아래에 있던 영웅들은 모두들 동의를 표하며 선공후사(先公後私)는 영웅호걸의 기개라고 소리쳤다.

[우리 개방의 제자 십여만은 온 천하에 흩어져 있으니 반드시 새로운 방주를 선출해야 합니다. 마침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우리들은 인덕과 재주를 갖추고 문무를 겸비한 영웅을 개방의 방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대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미리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양장로께서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장로가 은빛의 머리를 날리며 몸을 곳곳이 세우고는 민첩하게 무대에 뛰어오르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다. 이 대교장에는 4,5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기세가 웅만해 일제히 소리를 지르자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양장로는 두 주먹을 모아 답례를 보내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큰소리로 말했다.

[전 황방주는 지혜가 뛰어나서 무슨 말씀이든 모두 옳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겸손하셔서 우리 네 명의 장로와 여덟 명의 8대 제자에게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 어리석은 12명은 한참동안 생각해 겨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무대 아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양장로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개방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흩어져 있고 대단한 기술이 없어 훌륭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수는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수십만의 제자들을 통솔하려면 전 황방주의 말씀처럼 인덕과 재주를 갖추고 문무를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개방이 비록

인재가 드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홍노방주, 전 황방주같이 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인물은 정말로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노방주처럼 덕으로 사람을 감복케 하는 인품을 가진 사람은 더욱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곰곰히 생각한 끝에 전 황방주가 어렵더라도 다시 이 수 많은 제자들을 통솔해 주셨으면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무대 아래의 박수 소리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 모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있었다.

(개방에 황용과 같은 인물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천하에 이 같은 사람을 다시 뽑기는 어렵다.

양장로는 좌중이 조용해지자 다시 말했다.

[전 황방주가 만약 승낙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간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몽고의 달자들이 이번에 남북으로 양양을 공격해 정세가 매우 긴박한 것이 그것입니다. 전 황방주는 온신경을 쏟아 광대협을 보좌해 국경을 지키고 적을 물리칠 묘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거지 무리의 조그만 일을 갖고 그 분을 괴롭힌다면 천하에 모든 백성들이 어찌 우리를 한심한 놈들이라 욕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잘 생각해 방주를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대의 아래에 있던 개방의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개방의 일은 모두 선공후사니 과연 수백 년 동안 강호 제일의 대방(大幫)이다.)

[본방 중에는 걸출한 인재가 없고 전 황방주도 신경을 쓰실 수 없으니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개방의 밖에 있는 영웅을 본방에 끌어들여 십 수만의 제자들을 통솔하게 하면 됩니다. 그 옛날 군산(君山)대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전 황방주를 방주로 추대했는데 그녀는 원래 개방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당시 일부 형

제들은 불만을 품고서 그녀와 대결을 했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하,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패해서 공손히 복종했지요. 그녀가 방주가 된 이후 우리 개방은 매우 기세가 왕성해지고 번창했습니다. 군산대회에서 전 황방주는 겨우 10 여 세의 어린 아가씨로, 죽봉한 자루로 개방의 사대 장로를 마음속으로 부터 굴복하게 만들었으니 이 어찌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다가 일제히 황용을 쳐다보았다. 개방의 제자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모두 그 때의 일을 보았으므로 잠시 그 상황을 생각하자 가슴에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양장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강호상에 이름을 날리는 사나이들로 각자 방주를 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웅호걸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12 명은 어쩔 수 없이 졸렬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영웅께서 무대에 올라와 누가 강하고 약한지 모두가 볼 수 있게 합시다.]

그의 이 말을 듣자 무대 아래 사방에서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은 우선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오늘 무예를 겨루는 것은 단지 가볍게 평가하는 데 그쳐야 하며 만약 인명을 상하게 되면 그 죄가 무겁습니다. 만약 여러분 상호간에 무슨 원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무대에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몇 마디 말을 하면서 무대 아래의 모든 제자들을 두루 굽어 보며 늙름하게 말했다. 무예를 겨루는 데 각자 절기를 펼쳐 만약 하수에게 흑심을 품고 그를 해친다면 어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양장로는 신중히 경고해 만약 누군가 이 기회를 이용해 복수를 한다면 모두가 일어서 그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웅들은 이미 오늘의 개방대회가 매우 떠들썩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장로의 이 말을 듣고는 각자 속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나이가 든 인물들은 원래 일찍부터 명위(名位)를 갖고 있거나 혹은 일가

(一家), 일파(一派)의 장문이 되었거나 일방(一幫) 혹은 일채(一寨)의 수령으로 스스로 다시 나서서 개방의 자리를 놓고 다툴 수가 없었다.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고수들이 비록 적지 않았으나 모두 무림의 명예는 쉽게 얻기 힘들다고 생각하고는 자기의 무공이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다고 해도 대교장에 있는 많은 호걸들의 위세에 눌려서 감히 나서지 못했다. 또 만약 나섰다가 크게 패하고 망신만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할까 봐 한참 동안 망설이며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40 세 이하의 장년들은 적지않게 흥분되어 가슴이 뛰었으나 이 같은 무대에 겨룸은 자연히 지구전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먼저 무대에 오르면 오를 수록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양장로가 말을 마친 후에도 감히 무대에 오르려는 사람이 없었다.

양장로가 다시 크게 외쳤다.

[몇 분의 선배 기숙(耆宿)과 세상에 이름난 고인(高人) 이외에도 천하 영웅이 모였는데 개방의 방주가 되고자 하는 분은 무대에 올라와 그 무예를 한번 보여 주시오. 본방의 제자 가운데도 만약 자신의 무예가 뛰어나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무대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비록 사대 제자라 할지라도 깊이 그 무예를 숨겨서 나타내지 않으면 그가 영웅이란 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몇 번을 말하자 무대 아래에서 뇌성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내가 나가지요!]

쾅, 하며 한 사람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사람들은 그를 한번 보고 모두 겁을 먹었다. 이 사람은 키가 크고 매우 뚱뚱해 족히 3 백여 근 정도 되는 것같았다. 그가 뛰어서 무대에 오르자 그렇게 튼튼하게 보이던 무대가 휘청거렸다.

그는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가 주먹을 모아 예를 올리지도 않고 두 손을 허리춤에 갖다 댔다.

[나는 천근정(千斤鼎) 동대해(童大海)로 개방의 방주 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하고 무예를 한번 겨루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 이 무대에 오르십시오.]

무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약간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양장로가 웃으면서 말했다.

[동형, 우리들은 오늘 무예를 겨루려고 만난 것이 아니요. 만약 동형이 개방의 방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곧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오.]

동대해는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는 분명히 무대인데 누가 무대가 아니라 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대결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어찌 다시 사람들에게는 무대에 오르라고 합니까?]

양장로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동대해가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나하고 한번 붙어도 좋습니다!]

주먹을 휘둘러 앞에 있던 양장로를 쳤다. 양장로는 뒤로 물러나서 피하며 가볍게 웃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어찌 동형의 주먹을 당할 수가 있겠소.]

[내가 원래 당신은 안 된다고 일찍 비키라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대 위에 그림자가 번쩍 하며 의복이 남루한 거지가 눈앞에 우뚝 섰다.

등뒤에 6개의 포대를 꿰어진 30여세 정도의 이 거지는 바로 양장로의 직계 제자로 성질이 매우 포악했으나 평소 사조(師祖)에 대해서는 신명(神明)처럼 공경하였다. 천근정 동대해가 사조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대로 뛰어올라 냉랭하게 말했다.

[우리 사조님은 후배와 상대하시지 않소. 동형, 내가 당신의 주먹을 세 번 막겠소!]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지!]

동대해는 그의 성명도 묻지 않고 커다란 주먹을 휘둘렀다.

[자, 간다!]

하며 거지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는 몸을 돌려서 뒤로 한 걸음 내딛자 펑, 하는 소리에 주먹은 그의 등에 있는 포대에 명중했다. 동대해는 그의 주먹이 닿은 곳이 미끄럽고 부드러운 것을 느끼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포대 속에는 무슨 이상한 것을 넣고 다니지?]

그 거지는 무표정했다.

[거지가 무엇을 잡겠소?]

동대해는 겁을 먹어 목소리가 떨렸다.

[배....., 뱀,...?]

[그렇소, 뱀이오!]

동대해는 더욱 나쁜 마음이 생겨 두번째 주먹을 그의 얼굴을 향해서 날렸다. 그러나 그 거지는 몸을 날려 공중에서 반원을 그리며 등을 그에게 향하게 했다.

동대해는 주먹이 포대 속에 있는 큰 뱀에게 물리거나 그 독니에 물릴까 두려워서 급히 주먹을 돌려서 가슴을 막고 오른발로 그의 하반신을 찼다. 그 거지는 동대해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서 쾌재를 부르며 몸을 비스듬히 해 무대에서 한번 굴러 등에 짊어지고 있는 포대를 그의 다리에 갖다 대었다. 이 포대에 있는 큰 뱀은 사실 이미 훈련되어 있고 독니까지 이미 뽑아 버렸다. 그러나 동대해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 큰소리를 지르며 필쩍필쩍 뛰었다. 거지는 오른팔을 내뻗어서 이미 그의 먹살을 잡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오자서(伍子胥)가 천근정을 쳐들었다!]

그의 몸을 공중에서 흔들거렸다. 동대해는 경망중에 상대방에게 가슴의 자궁혈(紫宮穴)이 눌러서 온몸이 마비된 채 꼼짝할 수 없어 화가 치밀어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무대 아래에 있던 군웅들은 그의 별명을 <천근정>이라 불렀는데 그가 지금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보고는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양장로도 웃으면서 그 거지에게 말했다.

[그만 놓아주어라. 더 이상 무례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는 동대해를 공중에서 무대에 내려 놓고 즉시 무대를 내려가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동대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무대 아래를 가리키며 욕을 해 댔다.

[이 나쁜 거지놈아, 무기를 사용해 다시 한번 나와 대결을 해 보자.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고 어찌 사나이라 하겠느냐? 냄새나는 거지놈, 치사한 거지놈!]

그가 계속해서 거지를 욕하자 무대 아래의 사람들은 모두 재미가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

돌연 한 사람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왼발을 무대의 한쪽에 대고 서 있어 흔들흔들 마치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다. 동대해는 원래 마음은 착한 사람이라 급히 외쳤다.

[조심하십시오!]

하며 앞으로 나가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군웅 앞에서 자기의 뛰어난 무술을 보여 주고자 동대해의 왼쪽 어깨에 손을 대고 대금나수 가운데의 한 동작인 도절금강(倒跌金剛)을 펼쳤다. 동대해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무대 밖으로 곧장 날아가서는 펑, 하며 보기 좋게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의복이 깨끗하고 준수하게 생긴 게 바로 광정의 제자인 무수문이었다.

광정은 무대 맨 앞줄의 의자에 앉아서 그의 대금나수 동작이 비록 교묘하나 동작이 경망스럽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임을 알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과연 무대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좋지 않게 생각해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세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대단한 무공이다. 몇동작을 더 보여주세요.]

[그게 무슨짓이냐?]

[호의를 갖고 당신을 도와 주려 했는데 당신을 암기를 펼치다니!]

라는 말이 나오며 세 사람이 동시에 무대로 뛰어올랐다.

무수문은 광정과 황용 양가(兩家)의 무공을 모두 배웠고 집안 전래의 무공인 일양지의 신기를 부친과 사숙(師叔)에게 이미 배워 이 때 장년의 영웅 가운데에서는 제일의 인재였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 오자 그는 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생각했다.

(내가 동시에 이 세 놈을 해치운다면 능히 내 실력을 영웅들에게 보여 줄수 있으리라.)

오히려 이 세 사람이 나누어 공격할까 두려워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순식간에 무대로 뛰어올라온 세 사람에게 각각 한 동작을 펼쳤다. 세 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적의 공격이 갑자기 다가오자 급히 손을 들어서 막았다. 무수문은 상대방의 반격을 기다리지도 않고 두 손을 다시 날렸다. 마치 하나가 셋을 포위하는 것 같이 되어서 3명의 상대는 포위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무수문은 그 밖에 있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방해가 되어서 손과 발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무대 아래에 있던 군웅들은 이 상황을 보고 매우 놀랐다.

(광대협이 명성이 천하에 진동하는데 과연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가 길러 낸 제자까지 이처럼 무서우니....)

이 세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 다른 사람의 무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무수문에게 둘러싸여 있어 서로를 호응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각자를 견제하는 모양이 되었다. 세 사람은 계속해 동작을 펼쳤으나, 무수문의 계속되는 장법으로 이루어진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

완안평은 무대 아래에서 남편이 기세를 올리자 마음속으로 흐뭇했다. 광부가 말했다.

[저 형편없는 친구들은 당연히 소무(小武)형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때 진짜 영웅이 나타나면 어찌하려고 저렇게 힘을 헛되이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안평은 가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율연은 평소 광부와 말다툼하기를 좋아해 시누이 올케가 결코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 때 일찌감치 올케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수문 도련님이 우선 한바탕 정리를 해도 이룰 수 없고 제 남편이 다시 올라가도 성공할 수 없는데 우리 오빠가 무대에 올라 군웅을 물리치면 올케는 편안하게 개방 방주의 부인이 되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곽부의 얼굴이 빨강게 달아올랐다.

[이렇게 많은 영웅호걸들이 어찌 모두들 방주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데 <편안히> 라는 말을 어떻게 그리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율연이 말했다.

[사실은 우리 오빠가 무대에 오를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이지요?]

[방금 양장로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때 군산의 개방 대회에서 사모님이 불과 10 여 세의 나이인데도 단지 죽봉하나로 군웅들을 굴복시켜서 방주가 되셨습니다. 속담에....., 그 어머니에 반드시 그 딸이라 했습니다. 올케언니 ! 당신이 무대에 올라가 우리 오빠와 한 번 겨루어 보시지요!]

[흥! 쓸데없는 소리로 나를 놀리지 말아요.]

하며 손을 내밀어 그녀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혔다. 야율연은 야율제의 등 뒤에 숨어 웃으면서 말했다.

[방주님 살려주세요. 방주님의 부인이 소녀를 해치려 합니다.]

이때 곽부, 무씨 형제 등은 모두 30 여세가 되었지만 어려서부터의 장난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야율연, 완안평도 이미 아기가 있는 부인들이었지만 이 광경을 보고 까르르 웃는게 그 모양은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황용은 이미 대교장의 사방에 개방의 제자들을 배치시켜 조금이라도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녀는 곽정 옆에 앉아서 시시각각 사방을 둘러보며 낯선 사람이 대교장에 섞여 들어오지 않았나 두리번 거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성인사태, 한무구, 장일

맹 등의 무리들이 끼어들어 소란을 피울까 걱정했다. 그러나 미시(未時)가 지나고 신시(申時)가 되어도 사방이조용하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무리들이 어째서 양양에 왔을까? 무슨 음모가 있다면 어찌 지금까지 아무런 기미가 없단 말인가? 그들이 결코 양아의 생일을 축하하러 올 까닭이 없는데...)

고개를 돌려서 무대를 바라보자 무수문이 이미 두 사람을 무대 아래로 밀어내고 나머지 한 사람과 대적하고 있는데 다섯 동작 이내에 물리칠 것처럼 보였다.

(오늘 천하의 군웅들이 모여 무예로 개방의 방주를 결정하는데 최후에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몹시 궁금하구나.)

이 때 무대 아래에 있던 수천의 영웅들 가슴속에도 모두 방주가 되려는 야심이 있었으나 곽부(郭府)의 후원 꽃밭에 있는 한 사람은 이 큰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어린 곽양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은 내 열 여섯번째 생일이다. 그날 나는 그에게 금침을 한 개 주면서 오늘 꼭 나를 만나러 오라고 요청했고 그도 응낙을 했다.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작약정(芍藥亭)에 앉아서 팔을 난간에 기대어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붉은 해를 쳐다보았다.

(오늘은 이미 반나절이 지나갔으니 그가 지금 온다고 해도 겨우 반나절 정도밖에 만날 수가 없겠구나.)

땅에 있는 작약의 그림자를 보며 두 손가락으로 나머지 1개의 금침을 손끝으로 집으며 속으로 가볍게 말했다.

(나는 아직 그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도대체 그는 나를 이미 잊고 오늘 나와 만나기로 한 약속조차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 세 가지 일은 말해서 무엇하리!)

잠시 후 다시 생각을 바꾸었다.

(그럴 리가 없다. 결코 그렇지 않아. 그는 당대의 대협으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찌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겠는가? 조금 더 기다리자. 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반드시 나를 보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곽양은 그를 만난다고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두 볼이 달아오르며 금침을 쥐고 있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한 가지 생각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비록 약속을 소중히 생각해도 나는 결국 조그만 계집애가 아닌가! 그가 응낙한 것이 만약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면 그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그만 계집애, 곽양일 뿐.... 그의 눈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보일까? 단지 엉뚱한 생각만 하는 어린 아이로 보는 걸까. 그는 지금 내 말을 기억하며 단지 하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쓸데없는소리! > 라고 하지나 않을까?)

작약정 옆의 꽃을 보는 어린 곽양의 가슴을 울적해졌다.

대교장에 있는 황용은 이것 저것을 골똘히 생각했다.

(양태부 묘에서 부아와 양아가 위험을 만났을 때 고인(高人)이 나타나 구원을 받았다. 우리 그이가 말하기를 지금 오직 두 사람만이 그림 내력이 강하다고 했지. 그러나 홍철공 은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이는 더욱 더 아니다. 그 나쁜 무리들을 모아서 곽양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 하고, 니마성을 죽인 고수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노완동 주백통이 비록 장난을 좋아하지만 행동은 이를 데 없이 치밀하고...., 일등대사는 품행이 방정해 결코 이렇게 한가한 일은 하지 않을 테고....., 서독(西毒) 구양봉, 자은, 구천인은 이미 죽었다. 그렇다면 설마 아버님이.?)

그녀는 부친과 이미 10 여년 간을 만나지 못했다. 황약사는 마치 구름 가듯 강호를 유람해 어느 누구도 그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추측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해 오히려 그의 행동과 매우 유사한 데가 있었다. 황약사의 명성은 여전해 강호에 수십 년간 <황노사>라 알

려져 이 사마(邪魔)들이 대부분 그와 의기가 투합했을 것이다. 만약 황약사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뽑았다면 그들은 결코 황약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잠시 멍청해져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순리적으로 말하자면 황약사가 결코 어린 외손녀와 이처럼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겠지만, 그는 일생 동안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발상으로 변화무쌍하게 행동했으므로 황용이 비록 그의 친딸이지만 왕왕 그의 본심을 알 수가 없었다. 그가 대거에 사람들을 모아서 외손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녀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곽부를 향해 손을 흔들어 불러서는 그녀에게 낮게 말했다.

[양아가 풍릉 나루터에 하루 저녁 나갔다가 돌아온 후 외할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냐?]

곽부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외할아버지요? 없었어요! 동생은 외할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어요!]

[너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아라. 그 아이가 풍릉 나루터에서 산 일굴귀와 함께 나가서 도대체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그녀는 그날 동생이 이미 양과를 보기 위해 나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부모님의 면전에서 제일 두려운 <양과>라는 두 글자를 감히 언급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렇다 해도,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왕왕 안색이 변하서는 하루 이틀간 그녀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동생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도 이 일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아무 탈 없이 지나간 과거의 일을 다시 들먹여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황용은 그녀의 얼굴이 약간 이상함을 눈치채고 속으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

[눈앞의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네가 보고 들은 대로 모든 일을 내게 숨김없이 말해라.]

곽부는 어머니의 얼굴이 근엄해지는 것을 보고는 감히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다.

[단시 한가한 사람들이 무슨 신조협인가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양...., 양...., 양과예요. 동생은 그를 보려고 갔었어요.]

황용은 가슴이 떨렸다.

[그래서....., 그를 결국 만났느냐?]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만났다면 동생이 이것저것 계속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황용은 속으로 소리쳤다.

(과아, 과아! 정말 그런 말인가?)

[양태부의 묘에서 니마성을 죽인 것이 양과라고 너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럴 까닭이 있나요? 양...., 양형에게 어찌 그 같은 무공이 있겠어요?]

[너는 동생과 양태부의 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숨김 없이 이야기해라.]

[무슨 대단한 것은 없어요. 동생이 저에게 늘 말대꾸를 했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어찌해서 영웅대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개방의 방주를 추대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며 그녀의 생일날 잘 생긴 영웅이 그녀를 보러 온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했다. 나중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애의 친구는 정말 많아요. 스님과 비구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왔는데 어디 무슨 잘생긴 영웅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황용은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이 곽양이 말하는 사람이 틀림없는 양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곽양과 양과가 양태부 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언니가 돌연 끼어들자 양과는 곽부에게 화를 내지 않고 곽양을 도와 주었고 마침내는 강호의 고수들을 모아서 곽양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왜 양아에게 이처럼 관심을 두는 거지?)

작은 딸이 근래에 마음이 불안정하고 눈빛이 몽롱하며 황홀해 하는 것이 생각났고 특히 그녀가 갑자기 두 뺨을 붉히던 일이 생각나자 황용은 자신도 모르게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양아가 풍릉 나루터에서 하루밤 돌아오지 않았는데 설마 그 때 그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양과는 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데 원한을 품고 있으며 부아가 자기의 팔을 자르고 독침으로 소용녀에게 상처를 입힌 데 큰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이다. 아, 소용녀와 그가 헤어진 지 16년 만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올해가 바로 16년째 되는 해로구나. 양과는 바로 그것을 복수하러 오는 것이다!)

일단 <양과가 복수하러 온다.>라는 생각이 들자 곧 등에 냉기가 돌았다. 그녀는 양과가 어려서부터 행동이 사납고 또 소용녀에 대한 정이 매우 깊어 만약 소용녀를 16년 만에 만나지 못하면 그 화근을 찾아서 곽가로 복수하러 올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16년 동안에 쌓인 원한은 그의 성질로 보아 결코 곽부를 단칼에 죽이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반드시 악독한 음모를 꾸며서는 대거에 보복하리라 생각했다.

(설마 그가 우리 양아를 유혹해 그녀의 마음이 자기에게 기울어 복종하게 한 다음 그녀를 괴롭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나 아닌가? 맞다, 맞어! 양과의 성질로 보아 그는 반드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며칠동안 쌓였던 의혹이 일시에 모두 풀렸다. 양과가 니마성을 죽이고 곽양을 구하고, 당대의 고수들을 모아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는 까닭은 모두가 그녀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

다. 그러나 황용은 속으로 다시 묵묵히 생각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오늘은 양아의 생일이다. 16년 전 양아가 세상에 태어난 몇 개월 후 양과는 절정곡에서 소용녀와 헤어졌다. 생각해 보면 그가 복수를 하기 위해 16년이나 기다려 소용녀와 약속한 기간을 넘겼다. 이 16년의 약속이 비록 아득하지만 그 남긴 글이 분명히 그녀의 손으로 쓴 것이니 어느 누가 그들 부부가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설마 우리 아버지가....., 설마 남해 신니가?)

그녀는 눈썹을 찡그리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졌다.

(하여간 양아가 다시 그와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양아는 천진난만하니 어찌 사람의 마음이 악독한 것을 알 수 있으랴!)

<아야!> 하는 소리가 들려와 황용이 고개를 쳐들자 무수문이 하나 남은 상대편의 뚱뚱한 중을 장력을 써서 무대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곱정의 옆으로 다가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여기를 좀 살펴보세요. 저는 양아를 찾아볼게요.]

곽정이 말했다.

[양아는 오지 않았는가?]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불러오지요. 그 애는 좀 이상해요.]

곽정은 이 말을 듣고 가볍게 웃으며 아내를 처음 만나던 때가 잠시 생각났다. 그 때 그녀는 남자의 웃을 입고 조그만 거지 같은 차림새를 하고 있어 무척 이상했었다.

황용은 남편이 온화하게 웃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가볍게 웃으며 총총 부중(府中)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비록 마음은 초조했지만 남편의 웃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같이 관대한 사람의 두 어깨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도 능히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자 다소나마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즉시 곽양의 방으로 달려갔으나 딸아이는 방에 없었다. 하인에게 물어보니 둘째 아가씨는 후원의 꽃밭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황용은 약간 걱정이 되었다.

(양아가 대교장에서 무예를 겨루는 것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확실히 양과와 몰래 만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서 우선 자기 방으로 돌아와 몸에 금침 암기를 숨기고 허리춤에는 짧은 칼을 차고 다시 단봉(短棒)을 들고서 후원의 꽃밭으로 갔다. 그녀는 양과의 현재 무공이 예전과 크게 달라서 실로 두려워할 만한 강적이라고 생각하여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다. 그녀는 아란석(鵝卵石)이 깔려 있는 꽃길로 가지 않고 가산석(假山石) 뒤의 조그만 길로 돌아가 작약정에 이르렀다. 광양이 크게 한숨을 쉬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용은 몸을 낮추고 가산석 뒤에 몸을 숨기자 광양의 소리가 들렸다.

[어찌해 지금 시간까지 오지 않지? 정말 애타서 죽겠구나!]

황용은 크게 위로가 되었다.

(그가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를 먼저 막아야 하겠다.)

다시 광양의 소리가 들렸다.

[매년 생일이 되면 엄마는 항상 나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지. 지금 옆에 아무도 없으니 나는 하느님께 말해야 겠다.]

황용은 원래 앞으로 나가서 딸과 말을 하려 했으나 그녀의 이 말을 듣고는 이미 한 걸을 내디뎠던 왼발을 제자리로 하며 생각했다.

(내가 비록 엄마이지만 평소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마침 지금 저 애가 자신의 세 가지 소원을 말한다고 하니 어디 들어보자.)

잠시 후 광양의 말소리가 들렸다.

[하느님, 저의 첫번째 소원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병사를 이끌고 영웅호걸들과 함께 우리 나라를 침범한 몽고놈들을 모두 무찔러서 양양성의 백성이 편안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황용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애는 가끔 엉뚱한 일을 벌이지만 대세를 모르지는 않는구나.)

[저의 두번째 소원은 부모님의 몸이 건강하셔서 뱀 년 장수하시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황용이 곽양을 낳고 기르던 때는 그들 부부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닥쳐와 그 일에 매달려 신경을 쓰느라 그녀에게는 큰 딸만큼의 애정을 줄 수가 없었는데 곽양이 이처럼 효심 어린 소원을 말하자 저절로 두 눈이 뜨거워지며 딸에 대한 애정이 더해져 갔다.

곽양의 세번째 소원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잠시 시간이 지난 후 들렸다.

[저의 세번째 소원은 신조대협 양과가.....]

황용은 이미 그녀의 세번째 소원은 분명히 양과와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곽양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양과>란 두 자를 말하자 온몸이 떨려왔다.

[.....그의 부인인 소용녀와 다시 만나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황용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녀는 단지 양과가 딸아이를 갖은 교묘한 말로 유혹했으리라 생각했을 뿐, 어찌 딸이 소용녀의 일을 알고서 양과의 마음과 같이 소용녀와 양과를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축원할 줄을 알았겠는가! 그러나 생각을 잠시 더 하자 다시 불안 했다.

(아아, 교묘하구나! 양과가 더욱 교활하게 마음을 썼구나. 그가 양아에게 옛정을 잊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양아는 그가 깊은 정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더욱 그에게 마음이 기울게 될 것이다. 그래. 예전에 그이가 나를 본 후에 만약 화쟁공주를 머리에서 지워 버리고 조금도 옛날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히려 그를 무정한 사람이라고 탓했을 것이다.)

황용은 이 일을 이모저모 충분히 생각하자 양과에게는 아직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 느꼈고 딸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간절해 마음의 갈

등을 일으켰다. 바로 이 때 획, 하는 소리가 들리며 담장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려 왔다. 머리는 크고 키가 작은 게 , 형상이 괴상해 웃음이 나왔다.

곽양은 그 사람은 보고 펄쩍 뛰며 기쁜 듯이 말했다.

[대두귀(大頭鬼), 대두귀 아저씨, 당.... 당신이 무슨 일로 오셨지요?]

대두귀는 작약정으로 걸어 들어가 몸을 굽혀서 곽양에게 예를 올렸는데 그 자세가 매우 공손했다.

[아! 대두귀 아저씨, 당신이 무슨 일로 나에게 이렇게 공손하십니까?]

[나를 대두귀 아저씨라 부르지 마시고 단지 <대두귀>라 부르시면 됩니다. 신조대협께서 곽아가씨께 말씀을 드리라고 명령.....]

곽양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해서는 즉시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그 분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나를 보러 오지 못하게 되었나요? 그러나 오신다고 했는데.....]

대두귀는 계속해 그의 큰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곽양이 급히 말했다.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곽양은 마음이 급해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는 그 분이 아가씨를 뵈러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곽양의 눈물은 금세 미소로 변했다.

[당신의 말투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똑똑하게 말씀하세요.]

대두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신조대협께서 직접 아가씨에게 드릴 세 가지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느라 오늘 약간 늦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양의 마음은 날아갈 듯 기뻐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셔서 나는 필요한 게 더 이상 없어요. 그에게 선물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전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선물 가운데 첫째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두번째는 신조대협이 형제들을 이끌고 한창 마련하시고 계셨는데 아마 지금쯤은 거의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나는 신조대협이 일찍 오시는 게 좋지 나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시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싫습니다.]

[세번째 선물은 신조대협이 반드시 대교장의 개방대회에서 아가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쯤 대교장으로 나간다면 대충 시간이 맞을 것입니다.]

곽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이미 언니에게 화를 내고 개방의 대회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분께서 것처럼 말씀하셨다니 할 수 없이 나가야지요. 좋아요, 우리 함께 갑시다.]

대두귀가 고개를 끄덕이고 휘파람을 불자 담장 밖에 있던 거무스레한 거대한 물체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신조였다.

곽양은 신조를 보자 손짓을 해 부르며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반가와 했다. 신조는 오히려 두 걸을 물러서 우뚝 솟은 고개를 비스듬히 구부렸다. 곽양은 웃으며 말했다.

[수리형은 신기(神氣)가 참 대단하군요. 나를 몰라봐요? 나는 수리형을 잘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 신조의 목을 끌어안았다. 이번에 신조는 다시 피하지 않고 머리를 비스듬히 해 마치 엄한 부친이 개구장이 귀여운 딸아이를 만나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는 동작을 취했다.

[수리형, 우리 함께 나가요. 내가 맛있는 음식과 술도 드릴게요. 그런데 술은 마실 줄 아세요?]

대두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가씨가 신조에게 술을 대접하다니,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즉시 신조와 두 사람은 대교장으로 나갔다. 그들이 대회장으로 들어서자 군웅들은 신조의 몸집이 거대하고 생김새가 추한 것을 보고 모두 한마디씩 수군거렸다. 곽양은 대두귀와 신조를 이끌고 무대 옆으로 다가가서 빈 자리에 앉았다. 손님들을 안내하던 개방의 제자들은 대두귀의 낯선 모습을 보고 즉시 다가와 이름을 물었다. 대두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곽아가씨가 데리고 와서 그냥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윽고 황룡이 도착했다.

(양과는 대교장에 오려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이 때 무돈유, 무수문은 이미 무대에서 패하여 물러났으며 주자류 조카, 사수어은의 제자 3명, 개방의 8대 제자 4명과 7대 제자 6명도 이미 패했다. 무대에는 야율제가 이미 3명의 고수를 물리치고 지금은 주백통에게 전수받은 72로의 공명권(空明拳)을 전개해 40여 세의 늙은 사나이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남천화(南天和)로 귀주(貴州)의 묘인(苗人)이었다. 어릴 때 사람들과 함께 사천(四川)의 청성산(靑城山)에 이르러 약초를 따다가 실족을 해서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다. 마침 그 곳에서 기인을 만나 굳셈과 용맹함이 겸비된 외문공부(外門功夫)를 배웠다. 그의 장력 중에 은은히 뇌성과 같은 바람소리가 일어났는데 확실히 위풍이 대단했다. 야율제의 권법은 동작을 펼쳐도 소리가 나지 않고, 걸음도 흔적 없이 표연해 상대방이 그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두 사람이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부드러워 무대는 쌍방의 세력이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무공을 전개하자 무대 아래에서 무대에 오르려 했던 수백 명의 사나이들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다.

(내가 무대에 오르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망신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의 이같은 내력과 외공은 내가 비록 10여 년을 단련한다 해도 결코 그의 호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남천화의 장력이 비록 강했지만 결국 오래 견디지는 못했다. 장력의 소리는 점점 커져 갔지만 사실 그 힘은 이미 예전만 못했다. 야율제의 주먹도 예전처럼 민첩하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비해 느리지는 않게 그를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싸움이 몇 명의 상대를 물리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올라오는 적수들이 점점 더 강해짐을 알고 있어 힘을 아끼고 있었다.

남천화는 시간이 지체되며 이기지 못하자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남의 각처에서 20여 년간 지금까지 자기의 30 동작을 상대해 낸 적수가 없었음을 생각하고는 오늘 천하의 영웅들 앞에서 후배에게 망신을 당하기 싫어서 즉시 힘을 일으켜 장력을 끊임없이 증강시켰다. 두 사람은 빙빙 돌며 다시 20여 동작을 전개했다. 남천화는 돌연 상대의 권법 가운데 약점이 있음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

[간다!]

일장 구귀적성(九鬼摘星)을 전개해 야율제의 가슴을 쳤다. 야율제는 오른손을 휘둘러 가슴을 막자 두 사람의 손은 팍 달라붙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각자 내력으로 대결하는 국면으로 변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남천화는 돌연 안색이 변하며 비틀비틀 두 걸음 물러나며 두 손을 모았다.

[감복했습니다!]

그는 무대의 가운데로 걸어나가 큰소리로 말했다.

[야율 형님께서 인정이 많으셔서 저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과연 영웅은 인의(仁義)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개를 흔들며 무대를 내려갔다. 야율제가 소리쳤다.

[남형, 몸조리 잘 하시오.]

원래 남천화는 일장을 내밀어 야율제의 오른손과 서로 맞닿자 급히 내력을 더했었다. 그러나 돌연 손이 뜨거워지며 마치 물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손에 무엇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았다. 또다른 끈끈한 기운이 손을 감싸 들어왔다. 순간 상대방의 장심으로부터 무언가 자기의 손으로 전해 오고 다시 손에서 팔 그리고 가슴을 통해서 바로 단전에 이르러 아랫배가 마치 10 여 그릇의 끓는 물이 쌓인 것처럼 밖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너무 당황해 정신이 혼란해져 급히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손바닥이 마치 부드럽고 질긴 고무풀에 붙은 것처럼, 뒤로 반 척 정도 물러 났지만 상대방의 장심으로부터 떨어질 수는 없었다. 과거에 사부가 그에게 무예를 전수해 줄 당시에 이 풍뇌장법(風雷掌法)은 능히 강호에서 뛰어난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내가의 고수를 만나면 반드시 주의해야지 그렇지 않았다가 상대방의 내력이 단전에 침입한다면 즉시 치명상을 입으며 일신의 공부를 모두 망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 말이 떠오르자 두 눈을 꼭 감고 죽음만을 기다렸는데 돌연 손에 있는 끈끈한 힘이 사라지고 단전에 쌓여 있던 거북한 기가 천천히 풀린 것이었다. 그가 가볍게 윤력을 하자 전신의 공부는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상대방의 온정에 의한 것으로 그는 부끄러운 나머지 무대의 가운데에 서서 군웅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방금 두 사람의 용쟁호투(龍爭虎鬪)에서 남천화의 장력이 대단함을 무대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나 야율제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를 패배시키자 약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은 감히 다시는 무대에 올라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 야율제는 광정의 사위로 개방과는 관계가 깊어 4 대 장로와 8 대 제자는 모두 그가 개방의 방주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또 전진파의 기숙(耆宿)인 주백통의 제자로 전진교의 제자는 모두 그의 후배가 되는 셈이었다. 광정 부부와 전진교는 무릇 친분이 있는 사이로 다툼이 없었다. 단지 재주가 없고 경망한 무리 몇 명이 무대에 뛰어올라 몇 동작 만에 패하여 물러났을 뿐이다.

곽부는 남편의 무예가 대교장을 압도하자 너무나 기뻐서 그 감격을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불꽃놀이

곽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돌연 한 마리의 이상하고 추한 거조(巨鳥)와 풍릉 나루터에서 보았던 큰 머리 난장이가 동생의 양 옆에 나란히 앉아 있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곽양과 대구귀, 신조가 대교장에 왔을 때는 야율재와 남천화가 한창 격투를 벌이고 있을 때라 곽부의 온 정신이 그 곳으로 쏠려서 신조의 모양이 괴상해 그녀가 쳐다보았다 해도 알 수가 없었다. 지금 강적이 사라지자 그녀는 어째서 동생이 나오지 않겠다고 말해 놓고 다시 나왔는지를 생각했다. 잠시 생각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돼! 양과가 자칭 <신조대협>이라 하는데 이 흉악스러운 큰 새가 반드시 무슨 신조라는 새일 것이다. 신조가 이미 왔다면 양과도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가 만약 방주가 되려고....., 그가 만약 방주가 되려고.....)

순식간에 마음속의 기쁨은 근심으로 변하며, 그 때 양과가 옷소매를 휘둘러 그녀의 장검을 구부려 버린 광경이 눈앞에 생생히 되살아났다.

(남편의 무공이 비록 강하지만 그 외팔이 괴인(怪人)을 당할 수는 없다. 아,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 운명의 마성(魔星)으로 오늘같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다시 또다시 나를 찾아 왔구나.)

그러나 사방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양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때는 이미 하늘이 어두워졌고 야율재도 다시 7명을 패배시키고 한참을 기다려도 다시는 무예를 겨룰 사람이 무대에 오르지 않을 때였다.

양장로가 무대에 올라 소리쳤다.

[야울대형은 문무를 겸비해 우리 개방의 모든 이가 흠모하니 만약 개방의 주인이 된다면 모든 제자는 기쁘게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가 여기까지 말하자 무대 아래에 있던 개방의 제자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양장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다른 영웅호걸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무대에 올라와 뛰어난 무예를 보여 주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세 번이나 소리쳤으나 무대 아래는 고요했다.

곽부는 몹시 기뻐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양과가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미 기회를 잃은 것이다! 남편이 일단 방주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가 와서 소란을 피워도 이미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바로 이 때 돌연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며 2마리의 말이 대교장을 향해 질주해 왔다. 그 발굽소리를 듣자 하니 말등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곽부는 덜컥 겁이 났다.

(결국 오고야 말았구나!)

2마리의 말이 질풍처럼 달려서 대교장에 이르자 회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는데 그들은 곽정이 몽고군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보낸 첩자였다. 곽정은 비록 무대에서 무예를 겨루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잠시도 몽고군의 동태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2명의 첩자가 이처럼 황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결국 오고야 말았구나!)

곽정, 곽부 부녀는 마음속으로 같이 <결국 오고야 말았구나!>를 외쳤지만 곽부가 말하는 것은 양과이고 곽정이 말하는 것은 바로 <몽고대군> 이었다.

2명의 첩자는 무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자 말에서 내려 급히 곽정에게로 달려가 예를 올렸다. 곽정과 황용은 그들 두 사람

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의 안색을 보고는 정세가 좋은지 나쁜지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얼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기쁨에 넘쳐 마치 뜻밖의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았다.

한 명의 첩자가 입을 열었다.

[곽대협께 보고 드립니다. 몽고 대군의 좌익 선봉인 일개의 천인대가 이미 신야(新野)에 이르렀습니다.]

곽정은 깜짝 놀랐다.

(참 빨리도 왔구나!)

또 다른 한 명의 첩자가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몽고의 우익 선봉인 일개의 천인대가 이미 등주(鄧州)에 도착했습니다.]

곽정은 <으음> 하는 소리를 냈다.

(북로의 적군이 다시 두 갈래로 나뉘었으니 진격도 빠르고 매우 용감할 것이다.)

신야와 등주는 양양에서 불과 1백여리 밖으로 그 두 곳에서 남하하여 양양의 대안(對岸)인 번성(樊城)에 이르면 계속 평야가 펼쳐져 아무런 자연적 장애물이 없었다. 몽고의 철기로 달린다면 하루면 능히 양양을 공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명의 첩자는 희희낙락하며 말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등주 교외의 몽고 천인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 마침내 관졸(官卒)이 한명도 살아 남지 못했습니다.]

곽정이 이상해서 물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 명의 첩자가 말했다.

[소인이 가 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야의 몽고군 1천 명도 모두들 귀신으로 변했습니다. 단지 사방에 시체들이 널려 있을 뿐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들 몽고군 시체들의 왼쪽 귀가 누군가에 의해서

배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첩자도 말을 이었다.

[등주의 몽고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 귀가 잘렸습니다.]

곽정과 황용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몽고의 두 갈래 선봉인 천인대가 전멸했다면 그들의 예기(銳氣)를 크게 꺾은 것이다. 공격해 오는 적군의 십여만의 무리 중 이천여 명의 손실은 대세와 무관하겠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 몽고 3군의 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니 우리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그 누가 용감한 병사를 이끌고 이 두갈래의 몽고병을 모두 섬멸해 버렸을까?)

이러한 생각에 빠졌던 곽부부부는 잠시 망설였다. 이윽고 곽정이 물었다.

[신야와 등주의 우리 군사는 어찌하고 있는가?]

2명의 제자는 동시에 대답했다.

[두 성의 병사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몽고군은 교외에서 죽었으니 성을 지키고 있던 장군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황용이 말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여대수(呂大帥)에게 보고 드려라. 그는 기뻐서 분명히 상을 내릴 것이다.]

두 첩자는 고개를 숙여 읊을 한뒤 기뻐서 돌아갔다.

몽고의 선봉대는 양양의 수군(守軍)과 교전을 벌이기도 전에 이미 섬멸을 당했던 것이다. 황용이 무대에 서서 이 소식을 개방의 제자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개방이 새로운 방주를 선출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어찌 몽고군을 섬멸한 큰 일과 비할 수가 있겠는가? 양장로, 빨리 술과 안주를 마련해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며 기쁨을 나누도록 합시다.]

주연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개방은 오늘 저녁 원래 군웅대연을 열어 신임방주를 축하하려고 했는데 이 때 다시 승전보가 전해져 사람

들은 잔뜩 흥겨워졌다. 무돈유 등은 비록 무예 겨루기에서 패하여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대교장에 가득한 즐거움에 휩쓸려 이들의 울적한 마음은 순식간에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개방의 손님들은 탁자와 의자도 없이 이쪽저쪽에 한무리 한무리씩 대교장에 모여 앉아 술잔을 돌려가며 유쾌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주연의 모양은 비록 초라했지만 음식과 술은 매우 풍성했다.

군웅들은 곽정과 황용의 기묘한 계책을 칭찬하며 축하의 술을 계속 마셨다. 곽정은 계속해서 그것은 자기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너무 겸손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군웅들이 어찌 그것을 믿겠는가? 황용이 말했다.

[여보, 이 일이 너무 이상해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잠시 후면 확실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원래 황용은 첩자의 보고를 듣고 의심이 생겨서 뛰어난 개방의 제자 8명을 즉시 신야와 등주에 보내 소상히 알아보도록 했다.

곽양과 대두귀, 신조가 함께 나란히 앉자 옆 사람들은 신조의 위력에 놀려 누구도 감히 가까이 앉으려 하지 않았다. 곽양이 물었다.

[그분은 어찌해서 아직도 오지 않지요?]

대두귀가 대답했다.

[그는 온다고 했으면 반드시 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돌연 지꼈었다.

[들리지 않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곽양이 귀를 기울이자 아주 먼 곳에서 은은히 사자와 호랑이 울음소리, 원숭이, 코끼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매우 기뻐서 소리쳤다.

[사씨 형제가 오는 군요?]

과연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대교장에 있던 군웅들은 우선 겁을 먹고 안색이 변해 분분히 무기를 잡고 일어서자 대교장은 잠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맹수들이 몰려오는가?]

[사자다. 큰 곤충도 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나운 이리와 표범을 막읍시다!]

곽정은 급히 무수문에게 말했다.

[빨리 내 명령을 전하고 이천 명의 궁수를 데리고 오너라.]

[네,!]]

막 몸을 돌려 가려고 하자 돌연 먼 곳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만수산장의 사씨 형제가 신조협의 명령을 받고 곽아가씨의 생일을 축하드리려 합니다.]

목소리는 한 사람이 내는 것이 나이고 사씨 형제가 한꺼번에 지른 것이었다. 그들 다섯 사람의 내공은 비록 일류는 아니었지만 모두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 이 합창은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의 5음이 모두 갖추어져 모든 사람에게 아주 맑고 웅장하게 들렸다. 황용은 무수문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곽정의 명령을 전하라고 했다. 사씨 형제가 비록 이같이 말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예측할 수 없으니, 그들이 다른 뜻이 없다 해도 차라리 궁수들을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무수문은 말등에 뛰어올라 궁수를 부르러 급히 달려갔다.

이윽고 일대의 궁수들이 도착해 대교장의 측면에 포진했다. 곽정은 몽고에서 말 타고 활 쏘는 기술을 익혀 이것으로 군졸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양양의 군사들은 천하 제일 이었다. 오직 1개 성의 군사로 몽고에 수십 년간 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양의 궁수들은 큰 활로 매서운 화살을 쏘아 그 실력은 결코 몽고 무사에게 뒤지지 않았다.

궁수들의 배치가 막 끝나자 호랑이 가죽옷을 입은 사나이가 1백 마리의 맹호를 이끌고 대교장 밖에 이르렀는데 그가 바로 백액산군 사백위였다. 1백 마리의 맹호들은 질서정연하게 땅에 꿰어 앉았다. 이어 관견자 사중맹이 1백 마리의 금전(金錢) 펄범을 이끌고, 금갑사왕 사

숙강은 1 백 마리의 수사자를, 대력신 사계강은 1 백 마리의 코끼리를, 팔수선원 사맹첩은 1 백 마리의 원숭이를 이끌고 각각 열을 지어 대교장 주위로 몰려들었다. 맹수들은 계속해 으르렁거리며 질서있게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교장에 있던 군웅들은 모두가 견식이 넓었지만 돌연 이렇게 많은 맹수를 보고 놀라자 앉을 수가 없었다.

사씨 형제는 손에 각각 1 개의 가죽자루를 들고 광양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몸을 숙이고 말했다.

[아가씨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소서.]

광양은 급히 일어나 답례를 올렸다.

[다섯 분의 사씨 어저씨, 고맙습니다. 세번째 아저씨는 몸이 건강해 지셨습니까? 다섯번째 아저씨의 상처는 치료가 됐는지요?]

사숙강, 사맹첩이 일제히 말했다.

[아가씨의 염려 덕택에 모두 좋아졌습니다.]

사백위는 5 개의 가죽자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신조협이 아가씨에게 보내는 첫번째 생일 선물입니다.]

광양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음, 내가 추측하기에는 가죽자루 안에 새끼 호랑이나 새끼 표범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 놈들은 참 귀엽지요.]

사백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선물은 신조협이 칠백여 명의 강호 고수들을 데리고 가 마련해 온 것으로 적지 않게 힘이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5 개 자루를 열었다. 광양은 고개를 내밀어 자루를 들여다보고 그만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앗, 귀다!]

사백위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다섯 자루에는 모두 이천 개의 귀가 있는데 전부 몽고 장병의 것입니다.]

곽양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놀란 채 말했다.

[이 많은 사람의 귀를 내가...., 내가 무엇하겠어요?]

곽정과 황용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백위의 곁으로 다가가 자루를 들여다 보았다. 다시 첩자들의 말을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황용이 입을 열었다.

[사대형(史大兄), 원래 신야와 등주성 교외의 몽고병을 신....., 신조협이 사람을 이끌고 가서 모두 죽였습니까?]

사씨 오형제는 곽정과 황용에게 예를 올렸다. 곽정 부부도 답례를 했다. 사백위가 대답했다.

[신조협이 말씀하시길...., 곽아가씨가 양양에 계신데 오늘이 16 세 되신 생신으로 몽고의 달자들이 감히 무례하게 침범하니 어찌 곽아가씨가 놀라지 않겠느냐? 실로 그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서 모두 죽일 수 없으니 호걸들을 이끌고 그 선봉에 섰던 두 개의 천인대를 죽인 것입니다.]

곽정이 말했다.

[신조협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직접 찾아뵙고 양양성의 백성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10 여년간 곽정은 오로지 군사를 훈련시켜 양양성을 수비하는데 힘을 기울이니라 강호의 일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양과도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여러사람들을 접촉했기 때문에 곽정은 <신조협>이 바로 양과임을 모르고 있었다.

[신조협은 연일 계속해 따님에게 드릴 선물을 마련하느라 미리 와서 곽대협과 곽부인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연 먼곳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산 일굴귀 신조협의 명령을 받아 곽아가씨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음성은 매우 가늘어서 끊어질 듯 이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렸다.

곽정은 첫번째 선물이 너무나 큰 것을 보고 급히 소리쳤다.

[곽정이 인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후해 멀리까지 전달되었다. 그는 대교장의 입구까지 걸어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당신, 이 신조협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바로 양과예요!]

곽정은 잠시 멍청해졌다가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다.

[대단하군, 대단해! 그가 이같이 훌륭한 공을 세웠으니 정말로 대송(大宋)의 큰 복이다.]

[당신은 이 두번째 선물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곽정이 슬그머니 웃었다.

[과아의 지혜가 뛰어나 단지 당신만이 그를 능가할 수 있으니 오직 당신만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지.]

황용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번에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양과는 양양을 위해서 이같은 큰 공을 세우고 단지 양아를 위해서 했다고 말했지. 그러나 우리 부부와 부아에 대한 그의 원한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윽고 장수귀(長鬚鬼), 번일옹(樊一翁)이 팔귀(八鬼)를 이끌고 교장에 와서 곽정 부부에게 예를 올리고 곽양 앞으로 나아갔다.

[아가씨의 평안을 기원하고 만복이 끊임 없기를 기원합니다! 신조협이 저희들에게 두번째 선물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산 일굴귀의 손에 각자 나무그릇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곽양은 그들이 다시 무슨 사람의 코나 귀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겁을 먹었다.

[만일 흉칙한 물건이라면 뚜껑을 열지 마세요.]

대두귀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매우 보기 좋은 것입니다.]

번일옹은 그릇의 뚜껑을 열고 커다란 불꽃놀이 화포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 화포는 하늘로 치솟아 공중에서 소리를 내며 폭발해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마치 온 하늘이 꽃비가 오는 것 같았다. 이 흩어진 불꽃은 하늘에 <공(恭)>자를 만들었다. 곽양은 이것을 보며 기뻐서 박수를 쳤다.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조사귀도 이어 화포를 쏘아 1 개의 <축(祝)>자를 만들었다. 서산 일굴귀는 각각 한 발씩을 쏘아 <공축 곽아가씨 다복다수>의 열 글자를 하늘에 수 놓았다. 이 열글자의 색깔은 서로 달랐고 높은 하늘에 걸려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군웅들은 환호하며 갈채를 보냈다. 이 불꽃놀이 화포는 한구(漢口)에 있는 천하 제일의 기술장이인 황일포(黃一袍)가 만든 것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어 당대 제일의 광경이었다. 곽정은 웃으며 생각했다.

(딸아이가 이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마침 과아가 화포 만드는 기술자를 찾았으니 다행이다.)

공중에 있던 10 개의 글자가 막 사라지자 북쪽 하늘에 돌연 1 개의 유성(流星)이 솟아올랐다. 그곳은 대교장에서 겨우 몇 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이어서 아주 먼 북쪽에서 다시 유성 1 개가 솟았다. 황용은 잠시 생각했다.

(이 유성으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봉화(烽火)로 위험을 알리는 것을 본뜬 것으로 잠시 만에 한개 한개가 계속 이어 수백 리를 간다. 양과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구나. 그의 두번째 선물은 결코 양아에게만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즉시 개방의 제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해 사씨 형제와 서산 일굴귀를 대접하라고 분부했다.

술잔을 채우기도 전에 돌연 북방의 먼 곳에서 마치 뇌성과 같은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얼마 지나자 그 소리는 점차 작아졌

다.

사씨 형제와 서산 일굴귀는 이 소리를 듣고 돌연 일제히 일어나서
기빠하며 소리쳤다.

[성공, 성공했다!]

군웅들은 놀라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대두귀는 머리를 흔들며 북쪽을 가리키면서 크게 소리쳤다.

[장관이다, 장관이야!]

이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북쪽 하늘은 은은한 붉은색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황용은 놀랍고 기빠서 소리쳤다.

[남양(南陽)에 큰 불이 일어났다!]

곽정은 다리를 쳤다.

[맞아, 바로 남양이다!]

황용은 변일웅에게 물었다.

[원하건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조협이 곽아가씨에게 선물을 주려고 몽고 이십만 대군의
양식과 건초(乾草)를 태우는 것입니다.]

황용은 속으로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곽정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매우 기뻐했다.

원래 몽고군의 대군은 남쪽에서 양양을 공격하기 위해 남양을 식량
비축고로 사용해 수년 전 부터 남양에 식량창고와 풀 저장 가옥을 건
설하고 4년 동안 수만 석의 곡식과 수많은 건초를 모아 남양에 쌓아
두었다. <대군이 움직이려면 우선 양식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미곡은 군사의 식량이며 건초는 말의 먹이로 군대에서는 중요한
것이었다. 몽고는 원래 기병 부대라 이 마른 풀이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곽정도 수 차례에 걸쳐서 남양을 습격했지만 몽고의 병졸들
이 너무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 결국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했었다. 그
러나 뜻밖에 오늘 하루 저녁에 양과가 그것을 모두 태운 것이다.

곽정은 북쪽의 붉은 빛이 더욱더 하늘 높이 치솟자 걱정이 되어 번

일웅에게 물었다.

[그 곳에 가 있는 호걸들은 모두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변일웅이 생각했다.

(곽대협은 우선 전과를 묻지 않고 병사의 안전부터 물으니 과연 어진 사람이로구나.)

[곽대협의 걱정은 매우 고맙습니다. 신조협이 이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남양의 성에 불을 지르는 사람은 성인사태(聖因師太),인주자(人廚子), 장일맹(長一氓), 백초선(百草仙)등 3 백여 명의 고수로 몽고의 무사들은 결코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곽정은 무언가 크게 깨닫고 황용에게 말했다.

[당신 들어요! 과아가 군호들을 모은 것은 원래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소. 만약 이 많은 고수들이 동시에 무예를 펼치지 않는다면 어찌 이천 명의 몽고 정예군을 몰살시킬 수 있겠소!]

변일웅이 다시 말했다.

[우리들은 몽고군이 대포로 양양을 공격하기 위해 남양성의 저지대에 수만 근의 화약을 몰래 숨겨 놓은 것도 염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축하 불꽃놀이를 신호로 유성을 쏘아 남양성에 매복해 있는 고수들이 동시에 우선 화약에 불을 지르고 다시 식량과 건초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몽고 대군의 군사와 말은 이번 일로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곽정과 황용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으로 몹시 놀랐다. 그들 부부는 일찌기 징기스칸의 서정(西征)에 참가해 몽고군이 대포로 성을 부수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화약과 대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몽고가 여러 번 양양을 공격해 오면서도 지금까지 대포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때 황제 몽케(蒙哥)가 친히 정벌하면서 당대에 가장 무섭게 성을 부수는 무기를 가지고 왔던 것이다. 만약 양과가 이번에 그것을 태우지 않았다면 양양의 군사와 백성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

다. 두 사람은 다시 생각했다.

(몽고의 두 개 천인대를 섬멸한 것은 단지 그 기세를 꺾어 놓은 것이지만 몽고군이 수년 동안 남양에 비축했던 식량과 화약, 건초 등을 태웠으니, 만약 식량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다면 군사를 퇴각시켜야하니 그 공로는 실로 지대하다 아니 할 수 없구나.)

곽부부는 계속해서 사씨 형제와 서산 일굴귀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백위와 변일웅이 말했다.

[소인들은 단지 신조협의 명령을 받들어 일을 처리했을 뿐 저희들의 작은 공은 부 분의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먼 곳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다 잠시 후 잠잠해졌다. 그러다가 몇 번의 폭발음이 일어나더니 땅까지 흔들렸다. 변일웅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제일 커다란 화약고가 폭발한 모양입니다.]

곽정은 무씨 형제를 불러서 말했다.

[너희들은 각각 이천명의 궁수들을 데리고 남양을 습격해라. 만약 부대가 질서정연하면 공격을 하지 말고 혼란에 빠져 허둥대면 그 기회를 이용해 화살로 적을 죽여라.]

두 사람은 명령을 받고 나갔다.

두 가지 좋은 일이 계속해 일어나자 교장에 있던 사람들은 기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축하의 술잔을 높이 들며 모두 신조협의 공덕이 끝없음을 떠들어 댔다.

곽부는 남편이 군웅의 우두머리로 개방의 방주 자리가 손에 들어와 호걸들 앞에 자랑스런 얼굴을 드러낼 줄 알았지 어찌 이 같은 일이 돌연 일어날 줄 알았으랴! 양과가 비록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남편의 위세는 그에게 여지없이 밀려 버리고 말았다. 비록 몽고의 선봉을 섬멸하고 남양의 식량과 화약을 불태웠다는 두 가지 커다란 좋은 소식을 접했지만 그녀는 우울하고 즐겁지 않은 기분을 면할 수 없었다. 또한 이것이 모두 양과가 동생을 위해서 라는 소리를 사씨 형제와 서산

일글귀에게 듣고 비록 하늘 높이 걸려 있던 불꽃으로 만든 큰 글자가 동생을 위해 한 것만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의 광채가 감소됨을 생각하자 울적해졌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맞다! 양과놈이 내가 자기의 팔을 자른데 앙심을 품고 고의로 내 체면을 구기려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더욱더 화가 치밀어 건딜 수 없었다.

양장로는 야율제, 곽부와 함께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모두 기뻐 해도 곽부는 안색이 변하지 않고 침울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이유를 알고 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잠시 노망이 들었습니다. 이 일도 물론 기쁘지만 눈앞에 있는 큰일을 잊고 있었군요.]

즉시 무대 위로 뛰어올라 낭랑하게 말했다.

[영웅 여러분, 몽고 대군이 크게 패한 소식을 두번 이나 들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욱더 기쁜 일이 있는데, 방금 야율대형이 뛰어난 무공을 보여 주어 우리 모두 그에게 탄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방은 야율대형을 방주로 모셨습니다. 천하영웅 여러분,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본방 제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세 번이나 물었으나 아래에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양장로가 말했다.

[그렇다면 야율대형은 무대에 오르시지요.]

야율제는 무대에 뛰어올라 두 주먹을 감싸쥐고 아래를 향해 연신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막 무능하고 덕이 없다는 겸손의 말을 하려 하자 돌연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잠깐, 소인이 할 말이 있습니다.]

야율제는 놀라며 이 말이 튀어나온 곳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개방 가운데 한 거지가 일어났다.

[야율대형의 아버님은 원래 몽고의 재상이며 형님은 고관을 지냈습

니다. 비록 그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우리 개방과 몽고는 적이 아닙니까? 야율대형께서는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본방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율제는 목청을 돋우어 말했다.

[아버님 초재공(楚材公)께서는 몽고의 황후에게 독살을 당하셨고 형님인 야율진은 지금의 몽고 황제에게 피살당했기 때문에 소인과 몽고의 폭군은 실로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입니다.]

그 거지가 말했다.

[말은 비록 그렇게 하시지만 아버님의 죽음은 그가 우매해서 화를 좌초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증이 없습니다. 또한 형님은 법을 범하는 죄를 지어 죽어도 마땅했는데 무슨 원수를 갚는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본방의 원수도 갚지 못해....]

곽부는 남편을 비꼬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감히 그같이 쓸데없는 소리를 찌껄이다니 용기가 있으면 무대로 나와서 이야기해 보시오.]

그 거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직 방주가 되지도 않았는데 방주 부인께서 먼저 위세를 나타내는군요.]

그의 발걸음을 보기도 전에 몸이 흔들거리자 그는 이미 무대에 올라와 있었다. 군웅들은 그의 이 같은 경공을 보고는 놀랐다.

(이 사람의 무공이 실로 대단한데 도대체 누구지?)

무대 아래 있던 수천개의 눈이 모두 그를 향했다.

그는 몸에 혈렁하고 다 떨어진 검은 옷을 걸치고 손에는 철장(鐵杖)을 들고 있었다. 머리는 어지럽게 엉켜 있고 얼굴은 누렇게 부었으며 울퉁불퉁 상처 투성이었다. 등에 5개의 포대를 메고 있는 오대(五袋)제자 중 1명이었다. 개방에는 원래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 드물었으나 이같이 추악한 사람도 역시 드물었다. 개방의 제자들은 그가 평소에 별 말이 없고 평범한 하사아(何師我)임을 알았다. 그는 10여 년 동안

개방의 일을 열심히 돌보아 겨우 5대 제자로 승진되었던 것이었다. 그의 무예는 형편없었고 학식도 보잘것 없어 누구도 그를 중시하지 않아 모두들 그가 5대 제자로 승진한 것이 그의 한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같이 평범한 사람이 돌연 야율제에게 질문은 던졌으니 무공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뜻밖이라 생각했다.

(이 하사아가 도대체 어디에서 몰래 무공을 배웠는가?)

하사아는 사람됨은 평범하나 그 모습이 매우 추해 한번 보기만 해도 결코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야율제도 이미 그를 알고 있어 두 손을 모았다.

[하형(何兄)에게 고견이 있는지 미처 몰랐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사아는 코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가르쳐 달라니 당치도 않아요. 단지 제가 두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무대에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 두가지란 무엇인가요?]

[첫번째. 우리 개방의 신, 구 방주가 교대할 때에는 지금까지 모두 타구봉을 신물(信物)로 삼았습니다. 야율대형께서 오늘 방주가 되셨는데도 우리의 귀중한 보물인 타구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자 개방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날카로운 질문이다.)

야율제가 대답했다.

[노방주께서 사악한 무리에게 목숨을 잃고 타구봉도 그들에게 뺏겼습니다. 이것은 본방의 중대한 치욕이니 본방의 제자라면 모두 책임을 지고 반드시 그 타구봉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겠지요.]

[두번째로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노방주님의 원수는 도대체 갇을 겁니까, 안 갇을 겁니까?]

[노방주께서 사악한 곽도에게 해를 입었다는 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당대의 호걸이라면 누구나 비분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추적하여 찾고 있지만 아직 그 곽도의 행방을 모르니 이것이 본방의 급선무입니다. 우리는 하늘끝과 바닷속을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곽도란 놈을 기어코 찾아내어 억울한 노방주의 죽음에 복수를 해야 합니다.]

하사아가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첫째, 타구봉을 아직 되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전 방주인 노유각 방주를 살해한 범인을 아직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 단지 방주가 될 생각만 하니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요?]

이 몇마디 질문은 사리에 들어맞고 그 기세가 당당해 야율제는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양장로가 입을 열었다.

[하제(何弟)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소. 그러나 본방의 제자는 십수만 명이나 되어 천하에 골고루 퍼져 있으니 우두머리의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봉을 되찾고 그 곽도놈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니니 누군가가 나서서 지도를 해야만 비로소 이 두가지 큰 일을 충분히 해 낼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히 새로운 방주를 추대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사아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양장로의 이 말씀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실로 앞뒤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양장로는 개방 4대 장오의 우두머리로서 노방주가 죽은 후에는 모두들 그를 받들어 왔는데 지금 이 5대 제자가 감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그의 신분에 맞지 않는 실로 대답한 일이 었다. 양장로가 화를 벌컥 냈다.

[내 말이 뭐가 틀렸단 말이지?]

[소인의 생각으로는 그 누구든지 타구봉을 되찾을 수 있고 곽도를 죽여 노방주의 복수를 할 수 있다면 그를 곧 우리 개방의 방주로 추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같이 무공이 가장 강한 사람을 본방의 방주로 내세운다면 만약 광도가 갑자기 이 곳에 나타나고 무공 또한 야율대형을 능가한다고 해도 그를 방주로 받들수는 없겠지요?]

이 몇 마디의 말에 군웅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으나 모두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광부가 무대 아래에서 고함을 질렀다.

[무슨 터무니 없는 소리요! 광도의 무공이 어떻게 그를 능가할 수 있다는 말ियो?]

하사아가 냉소하며 말했다.

[야율대형의 무공이 비록 강하지만 천하 무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소인이 비록 개방의 일개 5대 제자이지만 반드시 그에게 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광부는 하사아의 무례한 말투에 화가 나 있던 참에 그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 오는 말을 듣고는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다.

[여보, 이 간덩이가 부은 미친 놈에게 한 번 가르침을 주세요.]

[본방의 일은 지금까지 단지 방주와 4대 장로가 담당해 왔으므로 방주 부인은 상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율대형이 아직 방주가 된 것도 아니니 자신이 방주 부인이라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야율부인 일지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개방의 제자를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부는 얼굴이 온통 붉어져서 <네....., 네..이 나쁜...> 하는 말만 더듬었다.

하사아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머리를 돌렸다.

[양장로님, 제자가 만약 야율대형을 이기면 이 방주의 자리는 제자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봉을 되찾고 노방주의 복수를 해야만 그를 곧 방주로 추대하실 것입니까?]

양장로는 그가 갈수록 무례한 것을 보고는 가슴속의 노기가 치솟아

말했다.

[그 누구든지 만약 군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방주가 될 수 없소. 이후에 만약 타구봉을 되찾고 복수를 하지 못한다면 방주 자리를 차지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오. 야율대형이 만약 본방의 방주가 된다면 그 두 가지 큰 일을 능히 해낼수 있을 것이오. 그렇지만 그가 만일 하제(何弟)를 이기지 못한다면 어찌 감히 이 자리를 맡을 수가 있겠소?]

하사아가 큰소리로 말했다.

[양장로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제자는 우선 야율대형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타구봉을 찾고 광도를 처치하겠습니다.]

그의 말뜻은 능히 야율제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야율제는 일을 처리할 때 매우 온건하고 신중했지만 하사아의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했다.

[제가 재주와 학식이 미천해 사실은 감히 개방의 방주라는 중임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하형께서 가르침을 주신다면 좋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며 그는 철장을 무대 위에 내리 꽂으며 <후>하는 소리와 함께 일장을 들어 야율제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이 장력은 결코 강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장력의 미침은 일장의 둘레에까지 골고루 미쳤다. 양장로는 그 때까지 비껴나지 않고 있다가 그의 장력에 왼쪽뺨을 얻어맞고는 후끈한 통증을 느끼면서 급히 무대의 측면으로 물러났다.

야율제는 감히 소홀히 상대할 수가 없어서 왼손을 튕기면서 오른손으로는 72로 공명권 가운데 한 동작인 심장약허(深藏若虛)를 써서 반격했다. 이 때는 이미 술시(戌時)에 가까와져서 달은 가고 별은 희미했으나 무대 주위에는 10여 개의 큰 횃불을 밝혀서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무대 밑에 있는 궁웅등이 모두 볼 수가 있었다.

황용이 10여 동작을 바라보니 야율제가 조금도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다시 하사아의 무공을 자세히 쳐다보니 도대체 어느 파

의 무공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의 손과 발 동작은 심히 난잡해 조금도 뛰어난 점이 없었으나 공력만큼은 매우 심후(深厚)하여 적어도 40 년 이상의 고된 수련을 쌓은 듯 보였다.

(최근 12,3 년 만에야 비로소 우연하게 개방의 명부에서 하사아가 열심히 노력하여 점차 상승중이라는 것을 보았으나 지금껏 누구도 그의 무공을 칭찬하는 말을 듣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의 몸놀림을 보아 하니 결코 최근에 어떤 뜻밖의 만남이 있어 이렇게 공력이 급속하게 증진된 것이 아니다. 그가 개방 중에서 여태까지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렇다면 오늘을 위해서였단 말인가?)

50 동작을 싸우고 나자 야율제는 내심으로 점점 놀랐다. 자신이 어떻게 동작을 변화시키든 간에 상대방은 시종 여유 있게 받아 내니 정말로 평생 드물게 보는 강적이었다. 그러나 그가 기회를 틈타 공격해 오지 않는 걸 보니 자신의 내력을 소모시키게 하고 나서 크게 공격하려는 것 같았다.

야율제는 이 날 이미 여러 명과 연달아 싸웠으나 상대방은 남천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범한 실력으로 조금도 그의 힘을 소모시키지 못했었다. 그는 하사아가 이리저리 신법을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즉시 쌍권을 장(掌)으로 바꾸어 재빨리 공격해 들어갔다. 주백통의 그 쌍수호박지술(雙手互搏之術)은 결코 누구나 배울 수 있는게 아니라서 야율제는 비록 입실고제(入室高弟) 였지만 그의 이 무공을 배우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전진교 현문의 정종무공은 야율제가 이미 십중팔구는 배운 것이라 지금 그것을 펼치자 무대 주변의 10 여 개 횃불의 불꽃이 모두 바깥쪽으로 휘날려 그 장력의 위력을 알 수가 있었다. 횃불이 비추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의 주먹이 난무하며 그림자가 너울거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가슴을 졸였다. 황용이 광정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어느 파의 동작을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아직 본문의 무공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보니 자신의

내력을 최대한 숨기려는 것 같소. 그렇지만 다시 칠팔십 동작을 겨루어 제아(齊兒)가 점차 승세를 차지하게 되면 그는 지지 않기 위해 참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이 때 두 사람은 싸울수록 그 기세가 점점 빨라져서 순식간에 4,5 동작의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했다. 그래서 거의 7,80 동작을 겨루었을 때, 과연 광정이 말한 대로 야율제의 장풍은 이미 상대의 전신을 휘감게 되었다. 광정과 황용은 그가 이런 처지에서도 만일 본문의 무공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잡파의 무공을 써서 상대한다면 크게 곤란해지리라는 것을 알고는 눈을 모아 하사아를 주시했다. 야율제도 이 점을 간파하고는 장력에 점점 힘을 가했지만 결코 무턱대고 나서지는 않고 기선을 제압하고만 있었다.

그 때 하사아가 동작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서 돌연 그의 두 소매가 흔들리더니 한 줄기 광풍을 바깥 쪽으로 내쫓고는 곧 거두어 들였다. 무대 주변의 10 여 자루 횃불의 불길에 동시에 날리며 일시 밝아졌다가 곧 꺼져 버렸다. 군웅들은 눈앞이 캄캄해져서 단지 야율제와 하사아가 크게 고함치는 소리만을 들었는데 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무대 밑으로 넘어졌다. 하사아는 무대 위에서 <하하.> 하며 크게 웃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고있는데 그 정적 가운데 하사아가 득의양양해 하는 웃음소리만 들렸다. 양장로가 외쳤다.

[횃불을 밝혀라!]

10 여 명의 개방 제자가 올라가서 횃불을 다시 밝히고 보니 야율제가 무대 아래에 서 있는데 왼쪽 얼굴에 선혈이 낭하자고 술잔만한 상처가 나 있었다. 하사아가 왼손 바닥을 내뻗으며 냉소를 띄고 말했다.

[좋은 철갑이로군, 좋은 철갑이야.]

그의 손바닥에는 한웅큼의 선혈이 고여 있었다.

광정과 황용은 서로 쳐다보며 하사아가 야율제를 공격하였으나 광부가 남편을 위해 미리 연위갑(軟蝟甲)을 입혀서 오히려 하사아의 손바

닥은 연위갑의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야올제가 어떻게 해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어떻게 해서 무대 밑으로 떨어졌는지는 어둠 속이라 자세히 보지 못했다.

원래 하사아는 싸움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돌연 대풍수(大風岫)의 무공을 사용해 무대 주위에 있던 횃불들을 다 꺼 버렸던 것이다. 야올제는 당황하여 급히 일장을 내뺀어 자신을 보호했으나 돌연 손가락 끝이 서늘해지며 무슨 철기(鐵器)에 닿은 듯 하자 즉시 깨닫는 바가 있었다. 상대방이 싸움을 오래 끌면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는 돌연 간계를 써서 어둠 속에서 병기를 꺼내 기습을 한 것이었다. 그는 비록 적수공권(赤手空拳)이었지만 적이 갖고 있는 병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즉시 대금나수(大擒拿手)를 펼쳐 상대의 병기를 빼앗아 그의 간계를 천하 영웅들 앞에 폭로하려고 했다. 교수팔타(巧手八打)의 동작을 써서 하사아의 몸 앞 2 척 되는 거리에 이르러서 오른팔을 뒤집으며 이미 적의 병기 자루를 움켜 잡았다. 그가 왼손바닥을 잇달아 뺀어 적의 면문(面門)을 곧바로 공격하자 하사아는 병기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하사아가 과연 머리를 옆으로 급히 피하면서 손가락을 느슨하게 하자 야올제는 손으로 병기를 빼앗았다. 바로 이 때 그의 왼쪽 뺨에 맹렬하게 통증이 엄습하며 이미 부상을 입고 만 것이다. 잇달아 파, 하는 소리를 내며 가슴에 일장을 얻어맞고는 똑바로 서지 못하고 즉시 무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상대의 병기가 매우 특이한 것으로 그 가운데 기괄(機括)이 장치되어 있어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위의 반쪽은 그에게 빼앗겼으나 나머지 반쪽이 돌연 날아와서 자신의 뺨을 명중시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그는 얼굴에 반촌(半寸) 깊이의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다. 하사아의 살수(殺手)는 본래 그 일장의 공격에 있었으나 다행히 곽부가 그에게 저고리 안에 몰래 연위갑을 입기를 강요한 덕분에 이 일장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하사아의

장심이 가시에 찢려 선혈이 낭자하게 되었던 것이다.

곽부는 남편이 무대 위에서 떨어지자 놀람과 분함이 솟구쳐서 급히 다가가 그를 보호했다. 양장로 등은 하사아가 어둠 속에서 간계를 썼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나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동시에 두 사람이 나란히 부상을 입고 피를 흘렸으니 그 어느 한쪽이 <우열을 가리고 곧 그만 둔다>라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할 수가 없었다. 보건대 두 사람 모두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야율제는 공격을 받고 무대 위에서 떨어졌으니 이번 싸움은 그가 패한 것으로 여겨졌다.

곽부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외쳤다.

[여보! 이 사람이 몰래 간계를 썼으니 무대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승패를 겨루어 보세요.]

야율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가 지혜로써 이겼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이긴 것이요. 하물며 각자 무공으로 목숨을 내건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요.]

황용은 야율제에게 손짓을 해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그가 빼앗은 그 반 조각의 무기를 바라보았으나 단지 5 촌(五寸) 길이의 강철 조각일 뿐 무림 중의 그 누가 이것을 무기로 쓰는지는 금방 생각해 낼 수 없었다.

하사아는 누렇게 뜬 추한 얼굴을 들면서 말했다.

[제가 비록 야율대형을 이기기는 하였으나 아직 감히 방주의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타구봉을 찾고 곽도를 죽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의 공평한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같은 말을 듣고는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비록 정당하지 못한 간계를 사용해 이긴 것으로 보였으나, 무공은 상당히 훌륭한 셈이라 그의 이 몇 마디 말을 듣고는 개방의 몇몇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다.

하사아는 무대 위에 서서 두 주먹을 모으며 예를 올렸다.

[더 가르침을 주실 영웅이 계시면 누구든지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가 막 <올라오십시오.>라고 말하자 돌연 사백위의 <아!>하는 커다란 외침소리가 들리면서 대교장을 둘러싸고 있던 사방의 5백 마리 맹수들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한꺼번에 울부짖어 댔다. 한 마리의 사자나 호랑이만 울어도 그 위세가 대단할 판인데 하물며 5백 마리나 되는 맹수들이 동시에 짖어 대니 그 소리는 정말로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대교장 위의 모래 먼지가 치솟아 누런 안개처럼 하늘을 뒤덮었다. 군웅들의 앞에 놓여 있던 술잔과 요리 접시들도 이 거대한 소리의 진동에 의해 서로 맞부딪치며 계속해서 땡땡 소리를 냈다.

맹수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서산 일굴귀와 사씨 형제 15명이 동시에 무대의 주변으로 급히 다가서서 병기를 꺼내 들고 무대의 사방을 에워쌌다.

돌연 교장의 입구에서 불빛이 밝아 오며 8명이 횃불을 높이 들고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조협이 곽아가씨의 생일을 축하하며 세번째 선물을 드립니다.]

여덟 명은 말을 마치자 곧 나는 듯이 가볍게 교장으로 들어서서 순식간에 곽양의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두 일신의 상승경공(上乘輕功)을 보여 주었다. 가운데 있는 4명의 사람들은 각각 한 손을 뻗어 다 함께 1개의 큰 포대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세번째 선물은 바로 그 포대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여덟 명은 곽양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서 각자 이름을 말했는데 군웅들은 그것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맨 앞에 있는 1명의 노스님은 오대산(五臺山) 불광사(佛光寺)의 방장인 담화대사(曇華大師)로서 평소 소림사(少林寺)의 방장인 천명선사(天鳴禪師)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조로작야(趙老爵爺), 농아두타(聾啞頭陀), 곤륜파 장문(崑崙派掌門)인 청령자(靑靈子), 등으로 하나같이 무림중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누려 온 선배들이었다.

곽양은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명성이 있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몸을 세워 답례를 하면서 꽃같은 보조개를 만들며 말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재미있는 물건입니까?]

포대를 들고 있던 네 사람이 손목을 뒤로 잡아당기자 짹, 하는 소리를 내면서 포대가 네 조각으로 찢어지며 그 속에서 중 1 명이 굴러나왔다.

3 대(三代)의 은혜와 원망

그 중은 어쨌죽지를 땅에 기대어 즉각 민첩하게 일어났다. 그가 몹시 화난 얼굴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곽정과 황용은 그가 어째서 담화대사와 조로작야에게 붙잡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곽양은 보파리 속에 숨겨진 것이 무슨 재미나는 물건이려니 생각하고 있다가 외모가 볼품없는 티벳승이었음을 알자 다소 실망하여 말했다.

[큰오빠가 내게 이 화상을 보낸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는 왜 아직도 오지 않죠?]

예물을 갖고 온 8 명중 청령자는 티벳 근처에서 오래 살아서 티벳어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달이파의 귓가에다 뭐라고 나직이 몇 마디를 속삭였다. 달이파는 크게 놀란 듯 얼굴색이 확 변하여 무대 위의 하사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청령자는 또 티벳어로 크게 두 마디 말을 하더니 등뒤에 메고 있던 황금저를 달이파에게 건네 주었다. 그것은 본래 달이파의 병기로 그가 8 대 고수의 공격을 받아 잡혔을 때 이 병기도 빼앗겼었다.

달이파는 황금저를 들더니 크게 고함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올라갔다. 청령자가 곽양에게 웃으며 말했다.

[곽소저, 이 화상은 요술을 부릴 줄 알아 신조협은 그를 무대 위에 올려 아가씨에게 요술을 보여 주려 한 것이오.]

곽양은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랬었군요. 난 큰 오빠가 그렇게 힘을 들여 가며 무엇 때문에 이 화상을 보냈을까 하고 의아해 했죠.]

달이파가 하사아에게 뭐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하사아가 소리쳤다.

[뭐라고 하는 소리냐?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달이파는 맹렬히 달려들어 획, 하고 황금저를 그의 머리통을 향해 휘둘렀다. 하사아는 얼른 몸을 틀어 피했다. 달이파는 황금저를 찌뚫듯 휘두르며 계속 밀어붙였다. 하사아는 아무 병기도 없는 맨몸인지라 이 묵직한 병기의 맹공 아래 계속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개방의 무리들은 이 티벳승이 이처럼 흥폭스럽게 달려드는 것을 보자 모두들 적개심이 일어나 분분히 떠들기 시작했다. 양장로가 소리쳤다.

[화상은 충돌을 멈추시오. 그 분은 다음 개방의 방주가 될 분이요.]

그러나 달이파는 전혀 개의치 않고 황금저로 황금빛을 일으키며 휘획, 바람소리를 내면서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개방의 몇몇 제자들이 참을 수 없어 무대위로 뛰어올라 거들려고 했다. 그러나 청령자 등 8대 고수, 사씨형제, 서산 일굴귀 등 모두 2,30명이 무대 주위를 에워싸 누구든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개방의 무리들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바탕 어지러운 가운데 청령자가 무대 위로 몸을 날려 하사아가 무대 곁에 꽂아 두었던 철봉을 뽑아 냈다. 하사아가 대경실색하여 빼앗으려 덤볐다. 그러나 달이파의 황금저가 막아 서고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

곽정과 황용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양파가 왜 이 사람을 보내 소란을 피우게 하며 또 그것이 무슨 속셈인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곽양에게 보낸 첫번째, 두번째 예물은 모두 양양에

유리한 것들이므로 이 세번째 예물도 분명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야율제는 비록 하사아에게 당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는 장모의 대업을 계승하고 뜻을 세워 개방을 위해 힘을 다하리라고 생각했다. 지금 하사아가 달이파에게 계속 밀리는 것을 보자 대갈하며 소리쳤다.
[하형! 당황하지 말아요,. 내가 돕겠소!]

하고 말하고는 무대 곁으로 몸을 날렸다. 순간 무대 왼쪽 머리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쳤다.

[누구도 올라가지 못한다!]

그는 야율제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야율제가 손을 뻗자 그가 핵 나뭇잎을 뿌렸다. 그 초식이 정교하고 내공이 심후한 것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야율제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다보니 바로 사씨 형제중의 세째인 사숙강이었다. 야율제가 잇달아 초식을 펼쳐 보았지만 그를 격퇴시킬 수 없었다. 야율제는 혼란에 빠졌다.

(이 사람은 신조협의 수하의 졸병에 불과한데 이토록 대단하단 말인가? 신조협의 호령 하나로 이같이 허다한 고수들을 움직일 수 있다니 그 자신은 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단 말인가?)

청령자가 철봉을 높이 쳐들고 크게 소리쳤다.

[영웅 제위들이여!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돌연 우장을 뺀 철봉의 허리계를 탁, 하고 내리쳤다. 순간 철봉이 박살났다. 이 철봉은 원래 중간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청령자가 갈라진 철봉을 꼬집어 내자 파르스름하게 빛나는 죽봉이 나타났다.

순간 개방의 무리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해지더니 이어 일제히 소리치기 시작했다.

[방주의 타구봉이다!]

사씨 형제, 서산 일굴귀와 다투고 있던 개방의 무리들이 분분히 물러서며 매우 의아해 했다.

(타구봉이 어째서 저 철봉안에 숨겨져 있었을까? 어떻게 하사아의

수중에 넘어갔을까? 그는 또 왜 그것을 숨기고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모두들 청령자가 이러한 의아심을 풀어 주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청령자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내려와 두 손으로 타구봉을 받쳐 들고 공손하게 곽양에게 건네 주었다. 곽양은 얼떨결에 타구봉을 받아 들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청령자의 웃는 모습을 보자 얼른 죽봉을 모친에게 건네 주었다.

이 무렵, 달이파의 황금저는 더욱 바싹 조여들고 있고 하사아는 자신의 교묘한 신법으로 이리저리 피하기에 급급했다. 개방의 무리들은 타구봉을 본 후로 청령자 등이 달이파로 하여금 하사아와 격돌하게끔 만든 데에는 필시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더 이상 아무도 무대 위로 올라가 도와 주려고 하지 않았다.

보아하니 10 초 이내면 하사아는 황금저에 목숨을 잃을 것같이 보였다. 갑자기 황용은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하사아는 병기를 사용해 제아를 물리쳤다. 그의 소매 안에는 분명 병기를 숨기고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토록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꺼내서 막지 않는 것일까?)

달이파의 황금저는 계속 난무하고 하사아는 피하고만 있었다. 달이파의 황금저가 아래서 위로 부딪쳐 갔다. 하사아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있는 상태라 이 1 초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다. 돌연 땅, 하며 병기 부딪치는 소리가 나더니 하사아는 어느새 한 자루의 짧은 병기를 손에 들고서는 물러섰다. 달이파는 얼굴이 온통 시뻘개져 마구 욕을 해 대며 황금저를 미친 듯이 휘둘러 댔다. 그러나 하사아는 손에 병기를 잡아 금방 열세를 만회하였다. 그의 병기는 비록 짧았지만 초식이 극히 오묘하여 달이파와 호각지세를 이루었다.

주자류가 잠시 지켜보더니 돌연 깨달은 듯이 소리쳤다.

[곽부인! 저 놈이 누군지 알겠소?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황용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밀가루와 석고 같은 것에 꿀과 고무풀을 섞어 바른 것이지요.]

야율제와 곽부, 곽양 자매는 이 때 황용의 곁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감을 잡지 못했다. 곽부가 물었다.

[주백부, 대체 누구예요?]

주자류가 말했다.

[네 남편을 다치게 한 저 하사아 놈을 말하는 것이지요.]

곽부가 물었다.

[뭐라구요? 그럼 저 사람이 하사아가 아니예요?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이지요?]

주자류가 말했다.

[자세히 보거라. 그가 사용하는 병기가 무슨 병기인지?]

곽부가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저건 한 척도 채 안 되네요. 아미자(娥眉刺)도 판관필(判官筆)도 아니고, 점혈궤(點穴癰)도 아닌데요.]

황용이 말했다.

[잘 생각해 보아라. 그가 어쩌서 여태까지 병기를 사용치 않고 위험을 무릎쓰면서까지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다가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그제서야 부득불 병기를 끄집어 내게 되었는지? 그는 병기를 사용해 제아를 패배시켰는데 어쩌서 기선을 빼앗기려 했을까?]

곽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 사람은 교활하기 그지없는데 어떤 곡절이 있을까요?]

곽양이 말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의 병기 신법을 알아볼까 봐 진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거예요.]

주자류가 칭찬하여 말했다.

[바로 맞혔어. 둘째 아가씨는 참 총명하군.]

곽부는 주자류가 동생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자 불만스럽게 말했다.

[무슨 진상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는 확실히 무대 위에 서 있지 않았느냐?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곽양은 모친이 한 말이 생각나 말했다.

[아, 그 사람. 얼굴에 있는 울퉁불퉁한 상처는 원래 고무풀과 밀가루로 만든 가짜이군요. 이런 얼굴을 하여 남들이 한 번 쳐다보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하려는 것이군요.]

황용이 말했다.

[무섭게 분장하면 할 수록 진면목을 나타내기 힘들어지지. 왜냐하면 남들이 혐오하여 더 이상 보려 하지 않으니 이처럼 변장을 오랫동안 하고 다녀도 전혀 발각되지 않은 것이야. 아! 이토록 오랫동안 변장하고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주자류가 말했다.

[얼굴은 변장할 수 있지만 무공과 신법은 감출 수 없지. 수십 년 동안 수련한 무공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곽부가 말했다.

[저 하사아가 가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누구까요? 동생 너는 총명하니 어디 한번 말해 보렴.]

곽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조금도 총명치 않아. 그래서 난 전혀 모르겠어.]

주자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큰소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지 그 땐 둘째 소저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야. 십칠 년 전 대승관 영웅대회에서 난 한 승려와 수백 합을 겨룬 적이 있지. 그가 누구였지?]

곽부가 말했다.

[곽도라고?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음, 그가 사용한 부채는 저 병기와 흡사한 점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부채는 부채면은 없고 단지 부채살만 있는 것이군요.]

주자류가 말했다.

[내가 그와 벌인 치열한 격투는 내 평생 가장 위험한 한판이었지. 그런 내가 어찌 그의 신법 초식을 기억할 수 없겠느냐? 저 사람이 광도가 아니라면 주자류가 눈이 빠졌지.]

곽부는 무대 위의 하사아를 다시 잘 살펴 보았다. 그의 경쾌한 발놀림, 매서운 손동작 등이 과연 그 해 영웅대회에서의 광도와 흡사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만약 그가 정말로 광도라면 저 서장의 화상은 그의 사형인데 설마 알아보지 못하고 그와 저렇게 싸우겠어요?]

황용이 말했다.

[달이파는 그가 사제임을 알아 보았기 때문에 그와 싸우는 거야. 전에 종남산 중앙궁 대전에서 양과는 현철검 한 자루로 달이파와 광도 두 사람을 공격하여 꼼짝 못하게 하였지. 광도는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간계를 사용하여 혼자 도망쳤었다. 이 일은 전진교 사람들 모두가 보았는데 너는 이제껏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느냐?]

곽부가 말했다.

[음! 그래서 달이파가 그를 미워하게 되었군요.]

곽양은 모친이 <양과가 현철검으로 달이파와 광도 두 사람을 공격하여 꼼짝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당시 양과의 늠름한 자세가 생각이 나며 솟아오르는 사모의 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곽부가 또 물었다.

[그가 왜 거지로 변했을까요? 또 타구봉이 어떻게 그의 수중에 있게 되었을까요?]

황용이 말했다.

[그건 추측하기 어렵지 않지. 광도는 사문을 배반하였으니 자연 사부와 사형이 그를 찾을까 두려워 했겠지. 그래서 변장을 하여 개방에 들어와 조금도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지냈지. 십여 년 동안 차근차근 올라가 5대 제자가 됐으니 개방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 금륜법왕은 더더욱 그를 찾아낼 수가 없었고 그러나 이 간악무도한 녀석은 여기서 일생을 묻히길 원하지 않았던 게야. 시기가 오면 한바탕 일을 벌일 속셈이었지. 전에 노방주가 성곽을 순시할 때 그는 매복해 있다가 돌연 습격한 거야. 물론 그 때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드러내어 목격자를 만들어 놓고 그 제자로 하여금 노유각을 죽인 자는 광도라고 말하게 한 것이지. 그는 타구봉을 빼앗은 후 그 철봉 속에 몰래 감추어 놓은 거다. 그래서 그는 본 개방의 대회에서 방주를 거론할 때 타구봉을 이어받는 일을 거론했던 것이다. 그것은 본방에서 대대로 내려온 규칙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일이지. 광도, 이 간악한 놈이 이처럼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놈이로군.]

주자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광부인이 살아 있는 한, 그가 잠시 속일 수는 있을 망정 결국은 탄로나고야 만 셈이죠.]

황용은 미소만 지어 보일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광도가 개방 안으로 숨어 들어와 시종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 나를 속일 수는 있었지. 그러나 개방의 방주가 되려면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을거야.)

주자류가 말했다.

[양과는 정말 대단해. 그는 광도의 간계를 꿰뚫어 보고 타구봉을 되찾게 하였으며 또한 광도의 진면목을 폭로하기 위해 둘째 아가씨에게 이러한 예를 보냈으니..... 정말 대단해요.]

광부가 말했다.

[흥! 그가 어찌다 알게 된 것 뿐일 텐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광양이 생각했다.

(그 때 큰오빠는 양태전 묘 밖에서 내가 노방주의 제사를 지내는 것

을 보고 나와 노방주가 친한 사이라는 걸 알았을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이러한 예를 보낸 것이니 그의 이러한 마음은.....)

곽양은 갑자기 한 가지 일이 생각나 말했다.

[곽도는 비록 개방 안에서는 못생긴 거지로 분장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진짜 얼굴로 밖에서 활동을 했어요. 사씨형제 중 세째인 사삼숙도 그에게 당했어요. 사삼숙은 줄곧 그를 찾아 복수하려고 했는데 마침내 그의 행적을 찾아낸 셈이에요.]

황용이 그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강호상에 때때로 곽도가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개방의 하사아가 바로 곽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하사아.하사아! 그의 이름은 잘 음미해 봐.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이야.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 끝내 패가망신하는 날이 있게 마련이지.]

곽부가 말했다.

[엄마, 저 하사아가 어쩌서 곽도를 죽이겠다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거짓이었을까요?]

[그건 단지 남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한 것 뿐이지.]

곽부가 말했다.

[양....., 양과 오빠가 하사아가 바로 곽도라는 것을 일찌기 알았다면 미리 알려줘서 야율제가 당하지 않게끔 했어야지요.]

황용이 웃으면서 말했다.

[양과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제아가 암습을 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곽양이 말했다.

[언니가 바로 신선이야! 그래서 연위갑을 형부에게 입혀 주었잖아.]

곽부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며 속으로 매우 득의만만했다. 이러한 사이 무대 위의 달이파와 곽도의 격투는 더욱 치열해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기에 서로 상대방의 초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달이파는 묵직한 초식과 힘에는 우세했으며 곽도는 민첩하고 날렵했다. 수백 합이나 겨루었지만 쉽게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갑자기 달이파가 대갈하며 근 50 근이나 나가는 황금저를 곽도에게 질풍같이 내던졌다. 황금저의 기세가 매우 강했을 뿐 아니라 예전엔 그가 이러한 초식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곽도는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질질 끌어도 승부가 나지 않으니 그가 이젠 마구잡이로 나오는구나.)

그는 급히 몸을 틀어 피했다. 달이파가 몸을 앞으로 날려 황금저를 손바닥으로 툭 밀자 황금저는 방향을 바꿔 다시 곽도에게 쳐들어갔다. 곽도는 기겁을 했다. 10 여 년 동안 사형은 사부 곁을 따라 다녔다. 사부가 그에게 상당한 무공을 전수해 주었음을 알았다. 이렇게 황금저를 날리는 기술은 바로 사부의 오류를 날리는 무공에서부터 변형시켜 나온 것으로 황금저가 달려드는 기세가 너무 세어 결코 철부채로 막아낼 수가 없었다. 단지 옆으로 비스듬히 몸을 틀어 피할 수 밖에 없었다. 황금저는 그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달이파의 황금저는 점점 더 빨리 던져졌다. 무대 주위에 꽂혀 있던 촛대들이 바람에 흔들려 잇달아 밝아졌다 흐려졌다 깜박거렸다. 곽도는 황금저 그림자 아래 아슬아슬하게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무대 아래 군웅들은 숨을 죽인 채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달이파가 18 번째 내던질 때 대갈하며 쌍장으로 황금저를 밀치자 황금저는 화살처럼 곧바로 날아갔다. 곽도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하여 펍, 하고 황금저가 가슴에 적중되었다. 그의 몸이 힘없이 쓰러져서 무대 아래 길게 뻗어 꼼짝하지도 않았다.

달이파는 황금저를 수습하고서 크게 세번 울더니 사제의 곁에 앉아 극락왕생을 비는 염불을 외기 시작했다. 염불이 끝나자 무대에서 내려와 청령자 앞으로 걸어가 황금저를 돌려주었다. 청령자는 그의 병기를

거절하며 말했다.

[사문의 패륜아를 처치한 것을 축하하오. 신조협이 당신을 용서하여 서장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이후로 다시는 중원에 오지 마시오.]

달이파가 말했다.

[신조대협께 고맙다고 전해 주시오. 소승은 그대로 따르리다.]

그는 합장을 하더니 표연히 떠나갔다. 곽부는 곽도가 무대 위에 죽어 나자빠진 채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자 그 얼굴이 가짜임을 알지 못하여 장검을 뽑아들고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말했다.

[우리, 이 간사한 놈의 진짜 얼굴이 어떤지 봅시다.]

하고 말하면서 검끝으로 그의 코를 찔러 갔다.

곽도는 돌연 비명을 지르며 벌떡 튀어올라 공중에서 쌍장을 후려쳤다. 원래 그는 황금저에 얻어맞아 치명상을 입었지만 즉시 절명하진 않았었다. 그는 일부러 꿈쩍도 않고 달이파가 가까이 다가와 살펴보길 기다렸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해 같이 동귀어진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달이파는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염불을 처연히 외더니 바로 무대를 내려가 버렸다. 그러더니 도리어 곽부가 올라와 자신의 얼굴을 검으로 찌른 것이었다. 곽도의 이 일격은 몸에 남은 힘을 몽땅 사용한 것이다. 곽부는 갑자기 시신이 살아나자 대경실색하여 미쳐 검으로 막을 생각을 못했다. 그녀는 또한 연위갑마저도 남편에게 벗어 준 몸이라 곽도의 이 쌍장에 생명이 위태로웠다. 곽정, 황용, 야율제 등이 일제히 몸을 날려 구하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미치지 못할 판이었다.

순간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2개의 암기가 날아왔다. 좌우 양쪽에서 동시에 곽도의 가슴을 향해 격출되었다. 이 2개의 암기의 크기는 작은 돌맹이만 했으나 기세가 이상할 정도로 매서웠다. 곽도는 몸을 휘청하더니 뒤로 파당 하고 넘어져 선혈을 한 모금 토해 내더니 정말로 죽어버렸다.

모두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이 암기가 발사된 곳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하늘엔 구름이 열게 깔린 가운데 별빛이 몇 개 빛나며 초생달이 비스듬히 걸려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이었다. 암기는 마치 무대 앞쪽에 있는 2 개의 장대기둥의 깃발 끝에서 발사된 것 같았다.

황용은 이 암기의 파공음을 듣는 순간 당세에 부친의 탄지신통 외에 이러한 무공을 사용할 사람이 없으며 또한 2 개의 장대기둥은 높이가 수 장이나 되며 서로 10 여 장이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양쪽에서 동시에 암기를 발출할 수 있을까 의아해 했다. 그러나 더 이상 깊게 생각할 겨를 없이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아버지 오셨어요?]

왼쪽 깃발 속에서 낭랑한 음성으로 하하하, 대소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 소우(小友), 우리 같이 내려가지!]

오른편에서 <예예!> 하는 대답이 들리더니 양쪽에서 한 명씩 뛰어 내렸다.

달빛 아래 두사람의 적삼이 흩날리며 동시에 무대 위로 떨어져 내렸다. 백발에 청포를 입은 사람과 외팔에 남색 옷을 걸친 그들은 바로 황약사와 양과였다. 두 사람은 비스듬히 떨어지며 황약사가 오른손을 뻗어 양과의 왼손을 잡고 두 사람은 공중에서 손을 잡은 채 내려왔다. 만약 두 사람의 말소리를 먼저 듣지 못했다면 아마 하늘에서 비장군(飛將軍)이 하강하는 줄로 알았을 것이다. 광정, 황용이 급히 황약사에게 다가가 절을 올렸다. 이어서 양과는 광정 부부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조카, 양과 광백부 광백모께 인사올립니다.]

광정이 급히 손을 뻗어 양과를 일으켜 웃으며 말했다.

[과아야, 너의 세가지 예물은.....아, 정말..... 정말...!]

그는 감격한 나머지 <정말!> 하고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광부는 부친이 자기보고 양과가 구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고 할까 봐 얼른 황약사에게 말했다.

[외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탄지신통 무공 덕분에 저 놈의 쌍장에서 벗어났어요.]

양과는 무대 위에서 내려와 곽양 앞으로 걸어갔다.

[누이동생, 내가 좀 늦었지?]

곽양은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빨개지며 나직이 말했다.

[당신이 내게 준 세 가지 예물은 정말....., 정말이지 너무나 과분해요.]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누이동생의 생일을 틈타 모두들 한바탕 흥겹게 즐겨 보는 것인데 뭘 그래?]

이어 왼손을 한번 흔들었다. 대두귀가 소리쳤다.

[모두 갖고 오너라!]

대교장 입구에서 누군가 이어 받아 소리쳤다.

[모두 갖고 오너라!]

멀리서 또 고함소리가 들렸다.

[모두 갖고 오너라!]

한 소리에 이어 한 소리가 계속 전달돼 갔다.

잠시 후 대교장 입구로 한무리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다. 횃불을 든사람, 광주리를 짊어진 사람, 나무판자를 멘 사람 등등.....교장 주위에 흩어져 바로 나무를 세우고 말뚝을 박고 똑딱똑딱 무대를 세우고 등을 달며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나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질서정연하게 모두들 자신이 맡은 이상한 작업을 하느라고 바빠 움직였다.

군중들은 방금 양과가 보낸 세 가지 예물을 보았으므로 양과에 대해 깊이 탄복하고 있었다. 그가 이처럼 사람들을 불러든인 데에는 분명 무슨 속셈이 있으리라고 여겼다. 얼마 후 남서쪽 모퉁이에 나무 무대가 먼저 세워져 인형극을 공연하기 시작했다. 인형극은 바로 <팔선하수(八仙賀壽)>였다. 이어 북서쪽 모퉁이에서도 생일을 축하하는 연극

이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지고 온통 시끌벅적 진 치 동네가 되었다. 각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하남,사천,호남 등지의 명연기자들로 모두들 정성껏 묘기를 보여 주었다. 군중들은 여기저기서 묘기를 구경하며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무렵 사씨 형제는 이미 맹수들을 이끌고 교장을 떠났으며 서산 일굴귀, 신조, 청령자 등 고수들도 살며시 물러갔다.

곽양은 양과가 자신을 위해 이처럼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것을 보자 두 눈에 기쁨의 눈물을 가득 머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곽부는 양태전 묘 안에서 동생이 그녀의 생일에 한 젊은 대협이 축하하러 온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정말 그대로 행해지자 슬그머니 질투가 솟았다. 그녀는 황약사의 손을 끌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며 주위의 광경은 전혀 보지 않는 체했다.

곽정은 양과가 이처럼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양양성과 개방을 위해서도 즐거운 날이므로 모든 걸 양과에게 맡긴 채 그는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 뿐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용이 부친에게 물었다.

[아버지, 양과하고 저 장대기둥 꼭대기에 숨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황약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러니까 전에 내가 동정호에서 달을 감상하고 있는데 홀연 누군가 연파조수(烟波釣嫂)를 찾아와 무신 신조협이라 하면서 양양성에서 만나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 그 연파조수는 성질이 괴팍스럽고 무공도 대단해 너희들이 걱정되어 몰래 온 거야. 신조협이 양과란 것을 일찍 알았다면 이 늙은 이가 걱정을 하지 않았을텐데.....]

황용은 부친이 비록 강호를 떠돌아 다니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아요.]

황약사는 대답은 않고 곽양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애야, 이리 오렴! 외할아버지가 한번 보자꾸나.]

곽양은 여지껏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급히 다가가 절을 했다.
황약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큰소리로 말했다.

[똑같다. 똑같애!]

황용은 그가 죽은 아내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곽양이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았다고 얘기하여 공연히 그의 심사를 건드릴까 염려되어 그녀는 말을 이어받지 않았다. 곽부가 웃으며 말했다.

[어찌 닮지 않겠어요! 외할아버진 노동사(老東師)이고 재는 소동사(小東師)인데.....]

곽정이 꾸짖었다.

[부야, 외할아버지께 버릇이 없구나!]

황약사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양아, 네 별명이 <소동사> 더냐?]

곽양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말했다.

[처음엔 언니만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엔 모두들 그렇게 불렀어요.]

이 때 개방의 4대 장로등은 양과를 에워싸고 계속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해 대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양양성을 위해 큰 공을 세웠다. 또한 타구봉을 되찾게 하여 곽도의 흥계를 파헤쳐 노방주의 원한을 갚게 해 주었다. 만약 그가 본방의 방주를 맡아만 준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데....)

양장로가 말했다.

[양대협.. 본방의 노방주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

양과는 벌써부터 그의 의도를 짐작하고 있어 그가 말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얼른 말했다.

[야율제는 문무를 겸비하고 인의에 충실한 사람이지요. 저와는 전부터 교분을 맺고 있어요. 그에게 귀방의 방주를 맡긴다면 분명 흥, 황, 노 세 분 방주의 대업을 계승할 수 있을 겁니다.)

황약사는 곽양의 무공에 대해 몇마디 물어 보고 나서 양과에게 말을

건네려고 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보니 그의 그림자가 가볍게 흔들거리더니 양과는 이미 교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양과 소우, 나도 갈거야!]

긴 소매를 흔들며 금세 양과 곁으로 쫓아가서 그들 둘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황용은 부친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입을 열지 못하다가 뜻 밖에 그가 가 버리자 깜짝 놀라 급히 쫓아나갔다.

그러나 황약사와 양과는 너무 빨리 걸어서 황용이 쫓아갔을 때는 이미 10 여 장이나 떨어져 있었다. 황용이 말했다.

[아버지, 양과! 며칠만이라도 묵었다 가요!]

멀리서 황약사의 웃음 섞인 소리가 들렸다.

[우리 둘 다 모두 야인 기질이 있어서 구속받는 걸 제일 싫어해. 우리가 그냥 떠나게 해 다오.]

마지막 몇 마디는 이미 수십 장 밖에서 들려왔다. 황용은 매우 아쉬웠지만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발길을 되돌릴 수 밖에 없었다. 대교장은 징과 북소리로 매우 시끌벅적했다.

개방의 4 대 장로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 야율제를 방주로 삼기로 했으며 이것은 개방의 큰 은혜를 준 양과도 야율제를 추천했으므로 이 일은 순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윽고 세 사람이 황용에게 설명을 하고는 단 위에 올라가서 야율제를 개방의 방주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개방의 무리들은 역대의 관습에 따라 차례로 야율제의 몸에 침을 뱉었다. 개방 외의 사람들은 축하 인사하기에 매우 분주했다.

곽양은 양과가 이렇게 왔다가 자신과는 한마디 말과 미소만을 남긴 채 가 버리자 말할 수 없이 애통했다. 보아하니 언니는 매우 흥겹고 들뜬 채 형부 곁에 서서 축하하는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곽양은 마음속의 깊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곧 몸을 돌려 자기 방

으로 가려고 했다. 몇 걸을 걸어가는데 황용이 곧 그녀 곁으로 다가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양아, 왜 그러니? 오늘 즐겁지가 않니?]

곽양은 대답했다.

[아니예요. 아주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고는 곧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하마터면 몇 방울 떨어질 뻔 했다. 황용은 딸애의 심사를 알 길이 없어서 희곡 중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어 그녀를 웃게 만들려고 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황용은 딸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양아, 피곤하지?]

[괜찮아요. 엄마는 어젯밤 잠도 못 주무셨는데 좀 쉬셔야죠.]

황용은 그녀와 침대에 나란히 앉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양아, 양과 오빠의 일에 관해서 너에게 여지껏 말한 적이 없구나. 이 이야기는 아주 길지만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얘기해 주마.]

곽양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은 그의 할아버지 대(代)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이어서 곽소천과 양철심이 임안 우가촌에서 결의를 맺은 일, 곽양양가(兩家)가 사돈을 맺기로 한 일 등등.... 양과가 어렸을 적 도화도에서 산 일, 곽부가 그의 팔을 자른 일, 그가 소용녀와 절정곡에서 헤어진 일 등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다.

곽양은 놀라운 마음으로 듣고 있다가 모친의 손을 꼭 잡았는데 작은 손 안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한시도 잊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큰오빠>가 자기 집안과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었다. 또한 그의 한쪽 팔이 언니에게 잘린 것이며, 그

의 아내인 소용녀가 떠난 게 언니가 잘못 쓴 독침 때문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녀는 단지 양과를 자신이 만나 본 소탈하고 똑똑하며 풍채가 좋은 젊은 험사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설레이고 자연 떠나 보내기가 힘들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그 속에는 은혜와 원한이 3대 까지 얹혀 있었던 것이었다. 모친의 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이미 취한 듯 정신을 잃은 듯 마음속이 심히 어지러웠다.

황용이 길게 한 숨을 토해 내며 말했다.

[처음에 나는 잘못 생각했었지. 그가 너와 아는 사이가 되려는 반면에 나쁜 생각이 숨어 있는 줄 알았어. 아아, 사람을 진실되게 믿어야 하는 것인데 나는 정말로 네 아빠에 비하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구나. 양과는 오늘 저녁 세 가지 대사를 치렀는데 그에게는 결코 사념이 없었고 설사 호의는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깊은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냐?]

곽양이 이상히 여겨 물었다.

[엄마, 양오빠가 어쩌서 호의를 안 가졌겠어요? 그에게 달리 무슨 사념이 있겠어요?]

황용이 대답했다.

[내가 애초에 잘못 생각했어. 나는 그가 우리 곽씨 가문에 깊은 원한을 갖고 너를 이용해 복수하려는 줄로만 알았지.]

곽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떻게. 그럴수가? 그가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풍릉 노상에서 그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였어도 나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게 뭐 힘들었겠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 해. 그가 너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과 번민을 준다면 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악랄한 방법이지. 아아, 그러나 이젠 말할 필요가 없지. 이제 나도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영 마음에 안 놓이는 구나.]

[엄마, 뭘 걱정하세요? 양과 오빠는 지난 옛 일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에 새겨 두지 않고 있어요. 그는 곧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음은 더욱 쾌활해져서 모든 일을 깨끗이 지워 버릴 거예요.]

황용이 탄식조로 말했다.

[네가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소용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란단다.]

곽양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요? 어째서요? 양과 오빠가 내게 직접 말했어요. 오빠의 아내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남히신니를 찾아 치료를 받고 16년 후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들 부부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여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어째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황용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면서 <음!> 하고 신음을 했다. 곽양이 또 말했다.

[오빠가 말했는데 부인이 단장에 아래에 검으로 글자를 새겨 놓았다는군요. <16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부부는 정이 깊으니 약속을 지키는 일을 잊지 마세요.>라고요,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만나야 한다>라고요. 그렇게 새긴 글들이 그림 가짜란 말인가요?]

황용이 말했다.

[그 글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양과에 대한 소용녀의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양과가 끝내 그녀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거야.]

곽양은 모친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황용이 말했다.

[16년 전 양과 부부는 모두 중상을 입었는데 양과에게는 치료할 약이 있었지만 소용녀는 독이 퍼져 회복하기가 어려웠지. 양과는 사랑하는 아내가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도 살고 싶지 않아서 선단묘약이라 할지라도 먹으려 들지 않았어.]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하며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 이러한 일들은 내가 어렸을 때라 생각이 나지 않을거야.]

곽양은 뉘를 잃은 채 한참 있다가 머리를 들며 말했다.

[엄마, 만약 내가 소용녀였다면 난 몸이 다 나은 것처럼 가장해 그가 단약을 복용하도록 하였을 거예요.]

황용은 뜻밖에도 딸아이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남을 위한 생각을 하자 말했다.

[그래, 당시에 소용녀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양과 곁을 떠난 거지.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녀는 부부의 정이 깊고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주 간절히 부탁했지. 당시 난 그 글자를 보고 소용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은 양과가 안정을 취하면서 편안히 16년간 그녀를 기다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아아 그녀는 1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면 양과가 옛 정에 대해 답답해지리라 생각한 것이지. 그러면 그가 설사 마음은 괴롭더라도 자신을 생각해서 또다시 자살을 기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야.]

곽양이 말했다.

[그럼, 남해신니는요?]

[그 남해신니는 내가 꾸며 낸 인물이야. 세상에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있지 않았어.]

곽양은 매우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해....., 남해신니가 없다구요?]

황용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날 절정곡 단장에 앞에서 나는 양과의 고통스러워하는 처량한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남해신니를 꾸며 내어 그를 위로했단다. 그가 16년간 마음을 편히 먹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지 난 남해신니가 대지도(大智島)에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은 세상에 그런 섬

은 없어. 난 또 남해신니가 너의 외할아버지에게 장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여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도록 했지. 양과는 너무 총명하여 내가 생생하게 표현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전혀 믿지 않았을 거야. 그가 만약 믿지 않았다면 소용녀의 그러한 마음 씀씀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 아니겠냐!]

곽양이 말했다.

[그럼 오빠의 부인은 이미 죽었다는 말인가요? 16년 전의 언약은 모두 그를 속인 것인가요?]

황용이 서둘러 말했다.

[아냐, 아냐! 아마 소용녀가 살아 있다면 약속한 날에 올 거야. 그녀가 살아서 양과와 만날 수만 있다면 이는 하늘의 뜻이지. 고묘파의 창시자인 임조영의 학문은 넓고 깊은 데다 내공과 외공 모두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지. 고묘파의 유일한 전수자인 그녀가 그러한 신기에 가까운 무공을 다 전수받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말이야.]

곽양은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용녀처럼 착하고 오빠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양과 오빠가 약속한 날에 그녀를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그는 아마 미쳐 버릴 거예요.]

[오늘 네 외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난 남해신니라는 꾸며낸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어찌지?]

곽양도 걱정이 되어 말했다.

[이제 양과 오빠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갔으니 틀림없이 남해신니에 관한 일을 물어 볼 거예요. 외할아버지께서 전후 사정을 모르시고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러면 어떡하죠?]

[만약에 소용녀가 정말로 그와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약속 날짜에 소용녀를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는 미쳐 버려 얼마나 난동을 피울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내가 자기를 속여서 16년간이나 괴롭게 기다렸다는 것을 깊이 원망하겠지.]

곽양이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오로지 그를 위해서였잖아요!
엄마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호의에서 그런 것이잖아요.]

황용이 말했다.

[물론 곽,양의 양쪽 집안은 3 대째 관계를 유지하며 양과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너의 아버지, 엄마, 언니 그리고 너를 구해 주었으며, 또한 오늘의 양양에서 이런 큰 공을 세웠잖겠어! 우리가 그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었다 해도 아직 만분의 일도 보답을 못 한 셈이야. 아아, 양과는 평생을 외롭고 고통스럽게 자라 30살이 넘도록 진정으로 즐겁게 지낸 날은 며칠도 안 될꺼야.]

곽양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오빠가 소용녀를 만날 수 없다면 그는 정말 미쳐 버릴 거야.)

황용이 또 말했다.

[양과는 정말 착하고 정이 깊은 사람이야. 단지 어려서 불행을 겪어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 종종 엉뚱한 일을 했을 뿐이야.]

곽양이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그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모두 사파(邪派)예요.]

황용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맞아.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기(邪氣)가 좀 있지. 만약 불행하게도 소용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너는 절대로 그를 만나서는 안 된다.]

곽양은 뜻 밖에도 모친이 이런 말을 하자 급히 물었다.

[왜요? 왜 양과 오빠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황용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만약에 그가 소용녀와 만나게 된다면 그 때 너가 그들과 함께 지내도 좋다. 그들과 함께 놀아도 좋고 그들 집에 놀러가도 좋아. 그들을 따라 하늘끝 바다끝까지 간다 해도 안심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가 소용녀와 만나지 못한다면 양아, 너는 양과의 성질을 몰라서 그래. 그는

성질이 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몰라.]

곽양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엄마, 그가 아내를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 상심해 하고 비통해 할 거예요. 우리는 그를 잘 위로해 주어야 해요.]

황용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곽양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엄마, 16 년이나 떨어져 있다가 그가 그런 상심을 하면 자살을 기도 하거나 않을까요?]

황용이 가볍게 신음 하더니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심사를 헤아릴 수는 있어도, 양과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너보고 그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가 소용녀를 만났을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너가 양과를 만나선 안 된다.]

곽양은 멍하니 넋을 잃은 채 말을 잊지 못했다. 황용이 말했다.

[양아! 이것은 모두 너를 위해서란다. 네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러는 거다.]

곽양의 예쁜 눈썹이 잔뜩 찌푸러지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을 보자 황용은 부드럽게 말했다.

[양아, 너에게 들려줄 얘기가 또 있어. 양과의 부친인 양강에 대해 말해 주지.]

이어서 양강이 어떻게 목염자를 만나 양과를 낳게 되었으며 어떻게 죽었나 등등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었다.

[양과의 엄마는 용모도 좋았지만 성품이 아주 착했지. 하지만 불행한 운명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게 병들어 죽었지.]

곽양이 말했다.

[엄마, 그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양강 아저씨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말이에요.]

황용은 딸의 모습이 피곤해 보이고 눈꺼풀도 반쯤 덮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내 양말과 겹옷을 벗도록 도와 주고 나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주며 말했다.

[빨리 눈을 붙이도록 하렴! 엄마는 네가 잠든 것을 보고 나가마.]

곽양은 눈을 감았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못해 정말 피곤했다. 어느새 그녀는 새근새근 숨쉬며 잠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황용은 딸의 귀여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 자식들 중 네가 제일 걱정스럽구나. 너희 3남매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이루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단다.)

그리고는 그녀는 곧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저녁무렵, 무씨 형제가 소식을 보내왔다. 남양에 있는 몽고 대군의 양곡이 불에 타 모두 없어졌고 화약이 폭발하여 많은 몽고 병사가 죽었으며 아직도 불길을 잡지 못한 채 몽고군은 1백여 리나 후퇴해 한동안은 병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소식이었다. 양양성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성 안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신조대협>이란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렸다. 어떤 사람은 말을 더욱 확대시켜 양과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그가 어떻게 신야(新野), 등주(鄧州), 두 곳에서 적병을 섬멸 시켰으며 어떻게 남양을 격파시켰는가를 입에 게거품을 물고 떠들어 대 마치 모든 걸 직접 본 듯했다. 아무도 그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밤이 되어 곽정 부부는 안무사인 여문덕의 부름에 응해 막사에 가서 군사 정황을 상의하고 늦게서야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야율제, 곽부, 곽파로 등은 평상시 대로 후당으로 가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렸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곽양이 오지 않자 황용은 걱정이 되어 몸종을 시켜 그녀가 아프지나 않나 그녀의 방에 가서 살펴보고 오도록 했다. 잠시 후 몸종은 곽양의 몸종과 함께 와서 말했다.

[둘째 아가씨는 어젯밤 방에서 주무시질 않았는데요.]

황용이 화들짝 놀라 급히 물었다.

[어째서 어젯밤에 알리지 않았느냐?]

[어젯밤에 마님께서 늦게 돌아오셔서 소인이 감히 소란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가씨는 곧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돌아오시질 않는군요.]

황용은 가볍게 신음을 하더니 즉시 딸의 방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그녀의 옷이나 무기, 은화 등등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드는 순간 베개 밑에 백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황용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얼른 종이를 펴 보았다. 종이에 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전상서. 소녀는 양과 오빠가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권해 주려 갑니다. 그에게 얘기하고 나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껍양 올림.>

황용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애는 정말 너무나 천진하구나! 양과가 어떤 사람인데....이 세상에서 소용녀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들을 성 싶으냐?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건 양과가 아니야.)

마음은 즉시 나가서 딸을 돌아오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북 양쪽에서 몽고의 대군이 호시탐탐 양양을 엿보고 있는데 비록 눈앞의 공세는 주춤하고 있다지만 언제 다시 공격할 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사사로이 딸을 찾아나설 수가 있겠는가 곧바로 껍정과 의논한 후 4통의 간절한 편지를 써서 8명의 날랜 개방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네 길로 나누어 껍양을 찾아 나서게 했다.

불초자(不肖子)가 세운 비석

곽양은 그날 모친으로부터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곧 잠이 들었다.
그러나 계속 악몽에 시달렸다. 양과가 칼로 자살을 하고 또 그가 자신의 남은 팔마저 자르기도 하고 천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피투성이가 된 광경도 보였다. 몇 개의 악몽을 꾸고 난 후 그녀는 온 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깨어났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오빠가 내게 세 개의 금침을 주면서 세 가지 일을 해 주겠다고 했었지. 아직 금침 하나가 남아 있으니 이것을 갖고 그에게 가서 내 말을 듣게 해야지. 그는 호협지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은 꼭 실천할 거야. 지금 곧 그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곧 성을 나간 것이었다.

그러나 양과가 황약사와 함께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30 여리 쯤 가자 뱃속이 출출해지기 시작했다. 음식점을 찾으려 했지만 양양성 밖의 백성들은 모두 피난을 가 음식점은 고사하고 인가마저 찾을 수가 없었다. 곽양은 여지껏 혼자 집을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녀는 길가에 있는 바위에 앉아 두 손으로 턱을 꺾 채 한숨을 내쉬었다.

(식당이 없으니 과일이라도 따 먹어야겠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주위의 몇 리 안에는 한 그루의 과일 나무도 없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말 한 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자 말 위에는 키가 크고 깡마른 고승이 누런 황포를 걸치고 앉아 있는 게 보였다. 말은 매우 빨리 달려 눈 깜짝할 사이에 수 장을 스쳐 지나갔다. 그 노승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곽양에게로 다가와 멈추더니 물었다.

[남자는 누구요,? 왜 혼자서 여기 있는 거요?]

곽양은 그의 예리한 눈빛을 보고는 내심 겁이 났다. 그러나 흑룡담에서 만난 일등대사를 떠올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일등대사도 그렇게 자상했는데 이 스님도 필시 좋은 사람일 거야.)

[제 성은 곽이고 찾을 사람이 있어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 노승이 말했다.

[누구를 찾아가는데?]

곽양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스님께서는 모르셔도 돼요. 스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노승이 말했다.

[네가 찾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내가 길에서 만났다면 길을 알려줄 수가 있잖니?]

곽양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럴 듯하여 대답했다.

[제가 찾는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는 오른팔이 없는 젊은이예요. 아마 한 커다란 수리와 함께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거예요.]

그 노승은 바로 금륜법왕이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양과라는 것을 알고는 내심 뜨끔했으나 얼굴에는 도리어 희색이 만면 해져서 말했다.

[아, 네가 찾으려는 사람은 성이 양씨이고 이름은 과이지. 그렇지?]

곽양은 기뻐하며 말했다.

[맞아요. 그를 아세요?]

법왕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찌 그를 모르겠느냐? 그는 바로 내 친구야. 내가 그를 안 것은 아마 네가 태어나기도 전일거야!]

곽양은 얼굴이 상기되더니 밝게 웃으며 물었다.

[스님, 스님의 법명이 뭐예요?]

[주목랑마(珠穆朗瑪)라 하지.]

주목랑마는 티벳 경내에 있는 산의 이름인데 그 봉우리의 높이는 실제로 높았다. 법왕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는 무공이 뛰어나 아무도 견줄 수 없다는 뜻이 은연중에 담겨 있었다.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진주니 목마니 해서 이름이 참 길군요.]

금륜법왕이 말했다.

[주목랑마라니까.]

[좋아요. 주목랑마 대사님! 당신은 우리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네 오빠라니?]

[내가 찾는 사람 말예요.]

[어? 너는 양과를 오빠라 하면서 어떻게 곽가 성을 가졌지?]

곽양의 얼굴에 약간 홍조가 어리며 말했다.

[우리는 대대로 집안끼리 알고 지내 왔어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법왕은 마음에 쏙이는 게 있어 말했다.

[내가 속세와 교제하는 중에 나와 매우 절친한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무공이 뛰어나서 이름이 만천하에 자자하지. 성은 곽가요. 이름은 외자로 정인데, 낭자가 혹시 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곽양은 흠짓하며 생각했다.

[내가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친구라면 아마 나를 집으로 끌고 갈거다. 말하지 않는게 좋겠지.]

[곽대협을 말하는 건가요? 그는 우리 집안의 어른신네이지요. 스님은 그를 보러 가는 건가요?]

법왕은 사람이 총명한데다 오랫동안 세상의 풍파를 겪었는지라 곽양의 얼굴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그래서 곧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와 곽대협은 우정을 나눈 지 이미 20 여 년이나 그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전에 북방에서 부고를 전해 들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다는 얘기였지. 노승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급히 서둘러 그의 영전에 참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야. 아아, 대영웅이 이렇게 단명

하다니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의 내공은 몹시 깊어서 전신의 피부 호흡을 자유 자재로 할 수 있었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었다.

곽양은 그가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았다. 비록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녀간의 정이 새삼 일어나 마음이 아리고 눈가에 물기가 어리며 말했다.

[스님, 상심하지 마세요. 곽대협은 죽지 않았어요.]

법왕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마! 그는 틀림없이 죽었다. 어린애가 어떻게 어른들의 일을 안단 말이냐?]

곽양이 말했다.

[나는 지금 막 양양에서 나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어제도 난 곽대협을 보았는데요.]

법왕은 그제서야 아무 의심없이 껄껄 웃어 대며 말했다.

[오오, 네가 바로 곽대협 of 딸이로군.]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냐, 그럴리가 없어. 곽대협 of 딸은 곽부라고 너도 알고 있지. 그녀는 금년에 서른 다섯 남짓 되었을 텐데 설마 너처럼 이렇게 어리겠니?]

곽양은 그 말에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 사람은 저의 언니예요. 그녀는 곽부고 나는 곽양이에요.]

법왕은 내심 기뻐하며 생각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군. 호박이 덩쿨째 굴러 들어오다니.)

[그렇다면 곽대협이 정말 죽지 않았구나.]

곽양은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진심으로 부친의 건재함을 기뻐하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말했다.

[물론 살아계시지요! 만약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나도 울다가 죽었을 거예요.]

법왕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 너만 믿는다. 그렇다면 내가 양양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번거롭겠지만 부친 곽대협과 모친 황방주에게 주목량마가 안부 전하더라고 전해 주렴!]

그는 곽양이 자기에게 양과의 일을 물어보리라 짐작하고는 일부러 빠져 나오려고 두 손을 함장하고 나서 말에 올라타려 했다. 곽양이 말했다.

[어어? 스님! 당신은 어찌 그렇게 사리에 안 맞으십니까?]

[사리에 안 맞다니?]

[나는 스님께 아버지의 소식을 들려 주었는데 스님께서는 양과 오빠에 대한 소식을 말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지요?]

법왕이 말했다.

[아, 어저께 남양 북쪽 계곡에서 양과와 만나질 얘기를 했지. 그는 지금 검술을 연습하고 있을 거야. 지금 바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걸.]

곽양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렇게 많은 계곡 중에서 어디서 그를 찾아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법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 나도 본래 북으로 가려고 했으니 함께 그를 보러 가자.]

곽양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낭자가 말에 타시지. 나는 걸어가지.]

곽양이 말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법왕이 말했다.

[이 말은 다리가 네 개지만 결코 나보다 빠르지 못하단다.]

곽양은 말에 올라타려다가 갑자기 말했다.

[아휴, 스님.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있어요?]

법왕은 바랑에서 말린 음식을 꺼냈다. 곽양은 밀가루 떡 2 개를 먹고 나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법왕은 긴 소매를 휘날리며 말 옆에 붙어 갔다. 곽양은 그가 한 말이 생각나서 채찍을 휘두르며 웃으면서 말했다.

[스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말을 마치자 말은 네 발굽을 나는 듯이 앞으로 내뺌으며 달렸다. 그 말은 힘이 대단해 곽양은 꺾가에 바람이 이는 것을 느꼈다. 눈 옆으로 나무들이 훑훑 지나갔으며 순식간에 몇 리를 내달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웃으며 말했다.

[스님, 저를 쫓아 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금륜법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흠칫 놀랐다. 돌연 화상의 목소리가 앞에 있는 숲속에서 들려왔다.

[곽낭자. 내가 천천히 달릴 테니 어서 채찍을 더 휘둘러라.]

곽양은 매우 신기했다.

(그가 어떻게 내 앞에 있을까?)

얼른 말을 몰아 달리니 법왕은 10 여장 앞에서 큰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곽양은 채찍을 더 힘차게 휘두르자 말은 더욱 빨리 달렸다. 그러나 법왕과의 거리는 시종 10 여 장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이 때 두 사람은 이미 양양성의 북쪽 큰 길에 접어들었다. 드넓은 평야에서 그 말은 흙먼지를 날리며 내달렸다. 그러나 법왕은 발밑에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고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듯했다.

곽양은 몹시 감탄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가 이런 무공을 지니지 못했다면 아버지와 어떻게 우정을 나누었겠어.)

곽양은 존경심이 일어 외쳤다.

[스님,! 스님이 그래도 어른이신데 말을 타고 가요. 난 천천히 따라 가면 돼요.]

법왕이 뒤돌아보며 웃었다.

[우리들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니? 네 오빠를 일찍 찾는 것이 좋지 않겠어?]

이 때 곽양이 타고 있던 말은 점점 힘이 떨어져 속도가 처음만 못했다. 그래서 법왕과의 거리는 자꾸만 멀어져 갔다.

바로 이 때 북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2 필의 말이 달려오고 있었다. 법왕이 말했다.

[우리 저 두 마리 말을 잡아서 바꿔 타고 달리면 더욱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잠시 후 2마리의 말이 가까이 오자 법왕이 말했다.

[말에서 내려 걸어가도록 해라!]

2 마리 말이 놀라서 일제히 울음소리를 내며 앞 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말을 탄 사람은 기술이 뛰어나 말에 몸을 바짝 붙여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 화가 나서 고함쳤다.

[누구나? 죽고 싶어?]

그리고는 석, 하고 말채찍을 높이 들어 내리쳤다. 곽양이 기뻐서 말했다.

[대두귀, 장수귀! 잠깐만요. 우리편이에요!]

말을 탄 사람들은 바로 서산 일굴귀 중의 장수귀와 대두귀 였다. 이 때 법왕은 왼손을 이용해서 대두귀의 말채찍을 붙잡아서 나뺐다. 대두귀는 몸은 왜소했지만 천성적으로 힘이 션다. 말채찍 또한 아주 튼튼한 쇠가죽으로 법왕이 수백 근의 힘으로 나뺐지만 끊어지지 않았으며 대두귀의 손에서 빼앗지도 못했다. 법왕이 소리쳤다.

[좋았어!]

손에 힘을 주어 <이얍!>하며 끝내 대두귀를 말에서 끌어내렸다.

대두귀는 매우 화가 나서 채찍을 놓고는 법왕을 공격하려 했다.

장수귀가 소리쳤다.

[세째야 ,잠깐만!]

[곽소저, 왜 금륜법왕과 함께 있는 거죠?]

그는 금륜법왕이 양과와 함께 절정곡에 들어갔을 때 한번 보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어요. 이분은 주목량마 대사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예요. 금륜법왕은 아버지의 적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변일웅이 물었다.

[어디서 그를 만났지?]

곽양이 대답했다.

[난 그를 방금 만났어요. 이 스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참 웃기죠? 이 분은 나를 데리고 오빠를 보러 가는 거예요.]

대두귀가 말했다.

[아가씨, 빨리 이리 와요. 그 중은 나쁜 사람이에요.]

곽양은 반신반의 하며 물었다.

[그가 날 속였다는 건가요?]

대두귀가 말했다.

[신조협은 남쪽에 있는데 그는 어째서 남자를 북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금륜법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난장이가 거짓말도 잘 하는 구나.]

몸을 슬쩍 비키더니 돌연 그들 곁으로 가 쌍장으로 그들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법왕은 이 10 여년 동안 몽고에서 용상반야공(龍象般若功)으로 수련을 했었다. 그것은 밀종의 지고무상한 호법신공이었다.

이 용상반야공은 도합 13 층으로 되어있는데 제 1 층의 무공은 매우 쉬워서 우매한 사람도 전수받는데 1,2 년이면 능히 수련할 수가 있다.

제 2 층의 무공은 제 1 층보다는 배는 어려워 3,4 년이 소요된다. 제 3 층

은 2층보다 또 배는 어려워 7,8년이 걸린다. 이처럼 배로 증가하여 뒤로 갈수록 더욱 어렵게 된다. 제 5층 이후에는 1층을 더 수련하는데 왕왕 3,40년 이상의 고된 수련이 필요하다. 밀종 일문에서는 역대로 고승과 기사가 배출되었지만 이 13층의 용상반야공 중 10층 이상을 닦은 사람은 없었다. 이 무공은 점차적으로 순서가 올라가지만 본래 다 수련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만약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끝내는 제 13층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밀종의 고승 수사들은 죽을 때까지 수련해도 제 7,8층에서 마치게 되곤 했다. 만약 초조해져서 무리하게 수련에 들어가면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다. 북송연간에 티벳의 한 고승이 제 9층까지 수련한 후 계속 정진하여 제 10층을 쌓을 무렵 심마(心魔)가 끼어 자제하지 못하고 끝내는 7일간을 미쳐 날뛰다가 경맥이 끊어져 죽고 말았다.

금륜법왕은 실로 불세출의 기재로서 험난한 수련을 빠르게 마치어 이미 제 9층의 난관을 돌파하고 지금은 제 10층의 경지에 들어서 있었다. 정말 고금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용상반야공에 따르면 지금쯤은 일장을 격출하면 십룡십상(十龍十象)의 괴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정진해 보아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그는 천하에 적수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으며 제 11층을 연마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고 여겼다. 예전에 그는 양과 소용녀의 검에 패하여 평생 처음으로 큰 치욕을 맛보았으나 지금은 공력이 배나 증가하여 몽고 황제가 친히 정벌에 나서자 그 틈바구니에 따라 나서서 쌍장으로 양과 소용녀 부부를 격파하여 예전의 치욕을 씻으려고 했다.

지금 그가 일장을 내어 그 둘을 공격하자 대두귀는 팔을 들어 막았지만 뚜둑, 소리가 나더니 팔이 부러져 버렸고 이어 머리에 명중되어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즉사해 버렸다. 번일웅은 상대의 일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탁천세(托天勢) 일초를 사용해 두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1천 근의 무게의 압력이 등을 내리누르는 것을 느끼

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 지더니 곧 땅에 쓰러졌다. 곽양이 대경실색하며 소리쳤다.

[이 두 사람은 내 친구인데 왜 해치려는 거죠?]

변일웅은 선혈을 두 모금 토해 내더니 벌떡 일어나 법왕의 두 다리를 붙잡고 소리쳤다.

[곽낭자, 빨리 도망가시오.]

법왕은 왼손으로 그의 등을 잡아채 그를 떨쳐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변일웅은 목숨을 걸고 곽양을 보호하기 위해 두 손을 쇠사슬처럼 하여 그의 다리를 꼭 붙잡았다. 법왕은 힘이 세지만 그를 때어낼 수가 없었다. 곽양은 놀랍고도 화가 났다. 그제서야 법왕이 호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변일웅을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쳐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두 손을 허리춤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다.

[나쁜사람! 것처럼 음흉하다니? 어서 장수귀를 놓아 주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소?]

변일웅이 소리쳤다.

[빨리 도망쳐요, 나는 상괭말고.....]

그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채 곧 숨이 끊어졌다.

법왕은 변일웅의 시신을 길 옆에다 내던지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왜 말을 타고 도망치지 않았지?]

곽양은 여지껏 살아오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었다. 노유각이 곽도의 손에 죽었을 때도 그녀는 곽도가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다만 마음으로만 비통해 했지 적을 증오하지는 않았었다. 그녀는 지금 법왕의 잔인무도한 행동을 보자 극도로 미움이 생겨서 그를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노여운 눈빛으로 쬈어보았다. 법왕이 말했다.

[애야, 넌 어째서 겁을 내지 않는거냐?]

[당신이 뭐가 겁나요? 나를 해치려면 어서 처치하면 되잖아요?]

법왕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 칭찬했다.

[홀룡해, 핏줄은 역시 못 속이는 군.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야!]

곽양은 법왕을 한번 췌려보았다. 두 사람을 매장해 주고 싶었으나 삽 같은 것이 없어 잠시 생각하다가 두 사람의 시신을 변일웅의 말등에 끌어 올려놓고 가죽 끈으로 시신을 묶고 나서 말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말했다.

[말아! 말아! 어서 주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 말은 질풍처럼 달려갔다.

양과는 그날 밤 황약사와 함께 양양을 떠나 경공을 시전해 남쪽으로 질풍같이 달려갔다. 그들은 순식간에 수십 리를 달려 아침 나절에 이미 의성(宜城)에 다다랐다. 두 사람은 주막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든든하게 먹었다. 황약사는 정영, 육무쌍 자매가 10여 년동안 고향인 가흥에 은거해 함께 산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는 그 두 사람과 함께 강호를 거닐며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고 싶었지만 두 자매가 끝내 원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다. 양과는 묵묵히 탄식하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두 사람은 몇 잔의 술을 마셨다. 양과가 말했다.

[황도주, 이 10여년간 후배는 당신의 거처를 찾아 해맸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 볼 일이 있는데 오늘에서야 가능하게 됐군요.]

황약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니 행방이 일정치 않아서 나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웠겠지! 근데 내게 뭘 물어보겠다는 건지 모르겠군.]

양과가 막 말을 하려는데 돌연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세 사람이 올라왔다.

황약사와 양과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이들 세 사람의 무공

이 매우 강하다는 걸 감지했다. 양과는 한 눈에 맨 앞의 사람은 소상자이고 맨 뒤에 오는 이는 윤극서라는 걸 알아보았지만 얼굴이 검은 가운데의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이 때 소상자와 윤극서도 양과를 보았다. 그들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더니 서로 눈짓을 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했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만나 보지 못하다가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왜 그리 빨리 가려고 합니까?]

윤극서가 인사를 하며 웃었다.

[양대협! 그간 별고 없었습니까?]

소상자는 종남산에서 팔을 잘린 것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 10 여년 간 무공이 크게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의 적수가 아님을 알고 더 이상 양과를 쳐다보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 검은 얼굴의 사내는 쿠빌라이 휘하의 유명한 무사였다. 그들은 이번에 윤극서, 소상자 두 사람과 함께 의성으로 정탐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소상자의 얼굴에 노기가 서린 것을 보더니 큰소리로 말했다.

[소형, 잠깐만요. 꽤먹지 않은 놈이 기분을 상하게 했나 본데 이 몸이 처리하겠소.]

이어서 큰 손을 뻗어서 양과의 어깨죽지를 잡아 계단 아래로 집어던지려 했다.

양과는 그의 손바닥의 서기가 은은한 것이 독사장(毒砂掌)중의 일문을 수련했음을 알고 내심으로 생각했다.

(이 세사람을 이용해서 황선배님에게 남해신니의 일을 알아봐야겠군.)

그는 그의 손바닥이 자신의 어깨에 닿는 순간 반격을 가했다. 팍, 소리가 그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황약사는 매우 놀랐다.

(상당히 빠르군!)

이것은 양과 자신이 창안한 무공으로 이미 탁월한 대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파박, 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더니 소상자의 양

쪽 뺨도 정확히 가격당했다. 양과는 윤극서의 행동은 예의를 갖추고 있어 그는 봐 주었다. 황약사가 웃으며 말했다.

[양동생! 자네가 새로 창안한 그 장법은 상당히 뛰어나군.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복이 있을까 모르겠네.]

양과가 말했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바로 몸을 흔들하더니 <암연소혼장>을 시전했다. 긴 소매를 훑날리며 왼손을 날려 돌연 타니대수(打尼帶水)의 일초를 보이더니 또 신불수사(神不守舍)를 시전해 소상자, 윤극서 그리고 검은 얼굴의 사내를 모두 장풍안에 가두어 버렸다. 그 세 사람의 몸은 마치 거대한 풍랑에 휩싸인 듯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양과의 장풍에 따라 흔들거렸다. 빠져 나오려고 애썼지만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으며 전혀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황약사는 잔을 들어 술을 쭉 들이키며 말했다.

[옛 사람은 한서(漢書)를 안주로 삼았는데 오늘 노부는 형제의 장법을 술안주로 삼으니 이 얼마나 호방한가.]

양과가 말했다.

[노선배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손바닥을 펼쳐 장력으로 소상자를 황약사에게 보냈다. 황약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좌장을 밀쳐 소상자를 되돌려 보냈다. 이어 검은 얼굴의 사내가 밀려오자 술잔을 들어 한모금 마시더니 그를 밀쳐 냈다. 양과는 그의 장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무공은 대단했으나 특출한 신묘가 나오지 않자 생각했다.

(내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해신니에게 배운 장법을 사용하지 않겠군.)

하여 곧 단전에 힘을 모아 장력을 증가시켜 소상자등 3명을 더욱 빨리 황약사의 쪽으로 밀어붙였다.

황약사는 수 장을 돌려 보내고 나자 세 사람이 밀려오는 형세가 마치 파도와 같음을 느꼈다. 물결이 한차례 지나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오

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어 생각했다.

(이 친구의 장력은 갈수록 세어지는군. 확실히 무림의 기재야!)

바로 이때 검은 얼굴의 사내가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양발이 황약사의 얼굴로 쏘도해 들어왔다. 황약사는 비스듬히 막았는데 오른손이 가볍게 떨렸고 술잔 속의 술이 몇 방울 흘러 넘쳤다. 이어서 윤극서와 소상자가 함께 솟아 오르더니 하나는 정면으로 하나는 비스듬히 밀려 들어왔다. 황약사는 <좋다!>하고 소리치고는 술잔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받아넘겼다.

황약사와 양과 두 사람은 약간의 사이를 두고 주거니 받거니 가격을 하여 그 세 사람은 장난감이 되어 버린 채 두 사람의 장력에 따라 공중에서 오고 갔다. 암연소혼장을 반쯤 사용해 보니 황약사의 낙영신검장법이 이미 상대가 되지 못했다. 황약사는 윤극서가 화살처럼 날아오자 자신의 장력으로는 대항하기가 어려움을 깨닫고는 손가락을 뺀어 한 번 튕겼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미세한 장력이 뺀어와 양과가 보낸 장력을 무마시켰다. 그가 연속으로 세 번 튕겨 내자 콧당 콧당 콧당, 세 번 소리가 나면서 세 사람은 마룻바닥에 떨어져 기절해 버렸다. 이 탄지신통의 기공과 양과의 암연소혼장에 기세는 실로 대단해 서로의 우열을 가릴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하하하, 웃으며 자리로 돌아와 앉아 다시 술을 마셨다. 황약사가 말했다.

[자네의 장법은 힘으로 논한다면 당대에서 오직 내 사위인 곽정의 강룡십팔장만이 상대가 되겠구만. 늙은이의 낙영신검장은 상대가 되지 않아.]

양과는 거듭 겸손의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저는 예전에 선배님의 탄지신통과 옥소검법의 양대 기공을 배워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제가 스스로 독창한 이 장법은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예에 적지 않은 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선배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듣건대 선배님께서도 일찌기 남해신니의 가르침을 받아

장법을 배웠다고 들었는데 후배에게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약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남해신니? 그가 누군데? 난 여지껏 그런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양과는 얼굴색이 변하며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설마 세상에....., 남해신니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요?]

양과의 얼굴빛이 갑자기 이상해지자 황약사도 크게 놀라 신음하듯 말했다.

[근래 새로 나온 이인이 아닌가? 노부는 외딴 곳에 홀로 살아서인지 아직 그 이름을 못 들었다네.]

양과는 멍하니 선 채 꿈쩍도 안 했다. 그의 가슴이 마구 두근거려 밖으로 튕겨 나올 것만 같았다.

(곽백모가 분명히 용아는 남해신니의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났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어. 나를 속인 거야. 모두 나를 속인 거야!)

양과는 하늘을 보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는데 기와가 흔들거렸고 두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황약사가 말했다.

[자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거로구만. 잘 모르겠지만 이 늙은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네.]

양과는 절을 허더니 울먹이며 말했다.

[후배가 마음이 어지러워 언행이 단정치 못했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긴소매를 펄럭이며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쿵쿵, 소리가 그의 마음을 밟는 듯 계속 들려왔다. 황약사는 망연자실하여 중얼거렸다.

[남해신니라? 남해신니. 그가 누구지?]

양과는 미친 듯이 걸어다니면서 며칠간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마치 스쳐가는 바람처럼 며칠이 지났다. 그는 죽을 듯이 피곤해져서야 소용녀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나중에 소용녀를 만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지금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큰 강가에 이르렀다. 그의 마음은 마구 찢어져 더 이상 지탱해 낼 수가 없었다. 그는 강가에 범선이 한 척 있는 것을 보고는 곧 훌쩍 배에 올라타 뱃사공에게 은화를 한 줌 건네 주고는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 보지도 않은 채 선실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큰 강은 동쪽으로 도도히 흘러갔다. 양과가 탄 배는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시장이 서는 곳마다 며칠씩 정박해서 상품을 사고 팔았다. 알고 보니 양자강에서 상품을 매매하는 상선이었다. 양과는 마음이 공허하여 사방을 돌아다녔다. 그 배가 도중에 얼마나 머무는지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배 안에서 낮에는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밤에는 장탄식만 토해 내며 시간이 가는 것도 상관치 않았다. 사공과 상인들은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은화를 탐냈으나 그가 강호를 떠돌아다니는 미치광이라 생각하고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다.

어느날 배가 강가에 닿자 한 상인이 가흥, 임안으로 실을 사러 간다는 얘기가 들렸다. 양과는 가흥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아버지께서 가흥의 철창묘에서 황용에게 죽임을 당하셨지. 죽어 까마귀밥이 됐다고 했는데 혹시 유해라도 남아 있는 것은 아닐는지? 나는 부친의 유해도 제대로 안장치 못한 불효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곧 배에서 내렸다.

때는 이미 겨울에 접어 들고 있어서 북방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눈발이 날렸다. 양과는 남루한 옷에 삿갓을 쓴 채 눈을 밝으며 남으로 내려갔다. 3일째 되어서야 가흥에 도착했다.

성 안에 이르니 서쪽 하늘은 이미 황혼에 젖어 있었다. 그는 술집을

찾아 음식을 시키고는 철창묘로 가는 길을 물었다. 그는 하늘을 온통 가린 폭설을 뚫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철창묘에는 거의 삼경이 다 되어서야 도달했다. 폭설은 아직 멈추지 않았으며 북풍은 계속 세차게 몰아쳤다.

회고무례하게 비치는 백설 아래로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다망가진 그 묘가 보였다. 산문(山門)은 다 썩어 있어 한 번 밀자 옆으로 쓰러졌다. 묘 안으로 들어갔더니 신상은 부서진 채 옆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온통 거미줄과 먼지투성으로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30여 년 전을 회고했다. 부친이 이 신전에서 독수에 맞아 부자가 한 번도 상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가뜩이나 아픈 마음이 더욱 찢어질 듯 아팠다.

묘 안을 빙 둘러보았다. 부친이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 되어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되어 묘의 뒤쪽으로 걸어갔다.

두 그루의 커다란 나무 사이로 분묘가 보였는데 분묘 앞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무덤과 비석은 모두 흰 눈에 뒤덮여 있었다. 양과는 소매를 힘차게 휘둘러 비석에 쌓인 백설을 날렸다.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보는 순간 끓어 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억제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불초제자 양강지묘(不肖弟子 揚康之墓)>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또 한줄이 새겨져 있었다.

<불재업사 구처기 비를 쓰다(不才業師 丘處機 書碑)>

양과는 몹시 화가 났다.

(구처기 이 늙은이는 너무 무정해. 아버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째서 비석을 세워 그 과실을 밝히는 것인가? 아버님께서 어째서 불초란 말인가? 흥, 잘난 당신은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내가 전진교에 가서 그를 죽이지 않고는 이 원한이 풀리지 않을 거다!)

그는 손바닥을 들어 묘비를 부수어 버리려고 했다.

바로 이 때 서북쪽에서 눈길을 재빠르게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

렸다. 그 소리는 매우 이상해 마치 무림의 고수들이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마라의 맹수가 바짝 따라오는 것도 같은 게 발이 땅에 닿을 때 왼쪽은 묵직하고 오른쪽은 가벼워 심상치가 않았다. 양과는 호기심이 일어 묘비를 부수는 걸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바로 철창묘 쪽으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급히 신전으로 되돌아와 자빠져 있는 신상 뒤에 숨어 어떤 괴물인지 살펴보려고 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묘 앞에 이르러 멈추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묘 안에 적이 숨어 있나 살피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들은 신전으로 들어왔다. 양과는 머리를 들어 그들은 보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신전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똑같이 왼쪽 다리가 부러져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오른쪽 어깨를 쇠사슬로 서로 묶고 있었다. 그래서 걸을 때 4 개의 지팡이가 함께 움직여 땅을 짚었고 이어 오른쪽 다리가 동시에 땅을 짚었던 것이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로 왼팔이 반쯤 잘려 있었다. 두번째 사람은 이마에 3 개의 커다란 점이 있었으며 역시 왼팔이 완전히 잘려 있었다. 두 사람은 유독 심하게 상해 있었다. 세번째 사람은 키가 작고 흉악해 보였다. 네번째 사람은 키가 큰 화상이었다. 네 사람은 모두 늙어 보였다. 양과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들은 도대체 뭐하는 자들일까? 어쩌서 이처럼 서로 묶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머리가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반쯤 타다 남은 초에 불을 붙였다. 양과가 자세히 보니 맨 앞사람 말고 나머지 세 사람은 모두 동공이 없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알고보니 세 사람은 저 대머리에 의해 길을 인도 받는구나.)

대머리 노인은 초를 들어 철창묘 주위를 살펴보았다. 네 사람이 마치 큰 계를 묶어 놓은 것처럼 하나하나 걸어갔다. 그들간의 거리는 서로 3 척도 채 되지 않았다. 이 네 사람은 행동이 불편하고 또 한 명만이 사물을 볼 수 있어서 설령 4 명의 귀와 눈이 예민하고 손발의 놀림

이 경쾌하더라도 양과가 신상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네 사람은 잠시 주의를 기울이더니 신전으로 되돌아갔다. 대머리 노인이 말했다.

[가노인이 우리의 종적을 누설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만약 누군가를 불렀다면 틀림없이 이곳에 미리 매복시켰을꺼야.]

세번째 노인이 말했다.

[맞아. 그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은 협사로 자부하기 때문에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네 사람은 나란히 땅에 앉았다. 점이 있는 두번째 사람이 말했다.

[사형, 가노인이 정말로 올까?]

첫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이치로 따진다면 오지 않을 거야. 제 발로 와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멍청이가 어디있어?]

세번째의 마른 사람이 말했다.

[그러나 가노인은 강남칠괴의 우두머리로서 그 때 그들은 그 용서 못할 구노인과 내기를 해 그 먼 몽고까지 가서 곽정에게 무예를 가르쳤잖아. 이 일이 강남에 퍼져 강남칠괴의 말은 천금 같다는 말들을 하지. 우리도 그런 사정 때문에 그를 풀어 주었잖아!]

양과는 신상뒤에서 이 말을 푹푹히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들은 가노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로군.)

두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는 분명히 오지 않을 거야. 팽형, 누가 이기나 내기를 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쪽에서 눈을 밝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가볍게 한 번은 무겁게 지팡이를 짚고서 오고 있었다. 양과는 어렸을 때 도화도에서 가진악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 말라 빠진 자가 웃으며 말했다.

[후형제, 가진악이 오는군! 그래도 내기를 할까?]

점박이가 중얼거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긴 오는군.]

쨍쨍쨍, 쇠막대기가 땅에 부딪치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가진악이 신전에 들어와서는 곳곳이 선 채 말했다.

[가진악이 약속을 지키러 왔소. 이젠 도화도의 구화옥로환으로 모두 열 두 알이니 한 사람 앞에 세 알씩이요.]

오른손으로 자색의 작은 병을 우두머리인 대머리 노인에게 던져 주었다. 그 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고맙소이다!> 하고 말하며 손을 뻗어 받았다. 가진악이 말했다.

[늙은이의 사사로운 일은 끝났으니 이제 죽여 주시오!]

백발을 휘날리며 머리를 든 채 신전에 서 있는 그의 모습에는 당당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형, 그가 우리의 내상과 고통을 치료해 주려고 구화옥로환을 갖고 왔는데다가 그에게 깊은 원한이 없으니 그를 용서해 줍시다.]

마른 노인이 냉소를 띄며 말했다.

[허허, 후동생! 후환을 없애야 하오. 당신의 인정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묻힐 곳이 없게 할 것이오. 그가 지금은 누설하지 않더라도 나중까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소?]

갑자기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모두 공격해라!]

네 사람은 그 소리에 따라 일제히 가진악을 둘러쌌다. 대머리 노인이 어눌한 음성으로 말했다.

[가노인, 30여 년 전 우리는 여기서 양강이 죽는 걸 함께 보았는데 뜻밖에 오늘 당신이 그 길을 가게 되다니 참으로 안됐구료!]

가진악은 쇠지팡이로 땅을 탁, 치며 화를 냈다.

[그 양강은 도적놈을 아비로 여기고 나라를 팔아먹은 철면피한이다. 나 가진악은 당당한 남자로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거늘 그 가적을 어찌 나와 비교하려 드느냐? 네놈은 아직도 내가 죽을 지언정 욕되지 않고 자 함을 모르느냐?]

그 마른 사내가 <흥!> 하더니 욱을 했다.

[죽는 순간까지도 영웅호걸 기세가 충만하시군!]

나머지 세 사람이 일제히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가진악은 이 네 사람이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고는 지팡이를 짚고 똑바로 선 채 응대를 안 했다.

그런데 질풍이 지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평, 소리가 나자 먼지가 흩날렸다.

네 사람은 자신들의 장력이 가진악이 아닌 다른 상대를 맞췄다는 것을 느꼈다. 그 대머리 노인은 분명히 보고 있었지만 가진악의 종적을 알 수가 없었다. 가진악이 서 있던 자리에는 묘 안에 있던 철창 왕언장(王彦章)의 신상이 대신 놓여져 있었다. 신상의 머리는 맹렬한 장력에 적중되어 금세 가루로 변했다.

대머리 노인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보니 30 여세 가량의 남자가 매우 성난 기색으로 가진악의 뒷덜미를 잡아 공중에 쳐들고서 소리 지르는 것이 보였다.

[너는 뭘 근거로 우리 아버지를 욱하는 것이냐?]

가진악이 물었다.

[넌 누구냐?]

[난 양과이고 양강은 나의 아버님이시다. 내가 어렸을 때 당신은 내게 잘 대해 주었는데 어째서 등 뒤에서 돌아가신 선인을 매도한단 말이나?]

가진악은 차갑게 말했다.

[고금의 인물 중에서 어떤 이는 향기가 백 세까지 전하고 어떤 이는 악취가 만 년을 전하는데 어찌 세인의 입을 막을 수 있겠는가?]

양과는 그가 조금도 굴하지 않자 더욱 화를 내며 그를 들어 땅에 내던지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어찌 비루하고 철면피한이란 말이오?]

대머리 늙은이는 양과의 그와 같은 신공과 순식간에 사람을 신상과

바꾸어 놓은 것을 보고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고 조심스럽게 나머지 세 사람의 쇠사슬을 끌어 몰래 묘 밖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양과는 몸을 날려 문 입구를 가로막고 소리쳤다.

[내게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 돌아갈 수 없다.]

네 사람은 일제히 기합을 넣고 힘을 합해 그를 공격했다. 양과가 소리쳤다.

[좋다. 오너라!]

왼손으로 일장을 내밀자 강력한 장풍이 그들을 압도하여 네 사람은 이내 서 있지 못하고 뒤로 자빠졌다. 그들이 과르르 하고 신상을 던치자 신상은 몇 토막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네 사람 중 두번째 사람의 무공이 가장 약했는데 마침 이마의 점이 신상의 가슴에 부딪치자 곧 기절해 버렸다. 양과가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왜 이처럼 이상한 꼴을 하고 다니지? 왜 가진악과 이곳에서 만나고 있었지?]

대머리 노인은 양과의 일장에 가슴이 콕 막혀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아 털썩 주저 앉아 호흡을 몇 번 가다듬은 후에야 천천히 말할 수가 있었다.

이 대머리 노인은 바로 사통천(沙通天)이었으며 두번째 점이 있는 자는 그의 사제인 삼두교 후통해(侯通海)였다. 세째는 팽련호(彭連虎)였으며 마지막 키가 큰 화상은 대수인 영지상인(靈智上人)이었다. 30여 년전 노완동 주백통은 이 4명을 잡아 구처기, 왕처일에게 넘겨 지키라고 했다. 중앙궁에 가두어 개과천선시켜 풀어 주려고 한 것이다. 4명의 악한 성질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 갖가지 방법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매번 붙잡혀 되돌아왔다. 세번째 도망칠 때는 팽련호, 후통해, 영지상인 세 사람은 각기 지키고 있던 전진제자를 죽였었다. 전진교의 도인들은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 그들의 한쪽 다리를 자르고 또 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다만 사통천만이 인명을 해치지 않았기에 두 눈을 보전할 수가 있었다. 16년 전 몽고 무사들이 중앙궁을 불

태웠을 때 사통천 등은 끝내 혼란을 틈타 도망쳤다. 세 사람은 눈이 먼 까닭에 사통천의 길 인도가 없으면 안 되었다. 팽련호 등은 그가 자신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까 봐 전진도인들이 그들의 어깨에 묶었던 쇠사슬을 한데 묶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양과는 예전에 중앙궁에서 잠시 무예를 배웠는데 사부와 사형들의 환심을 얻지 못하여 4 명이 감금된 곳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때문에 네 사람의 얼굴을 몰랐으며 그들의 내력은 더욱 알 길이 없었다.

사통천 등은 중앙궁을 도망쳐 나온 후 전진교의 근거지는 이미 파괴되었지만 강호에서는 여전히 전진교의 제자들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사통천 등은 자신들의 몸이 이미 상해 대항할 도리가 없게 되자 이내 강남으로 잠적하여 외딴 시골에 은거하면서 편안하게 16년 간을 보냈다. 어느 날 네 사람이 밖에서 햇볕을 쬔고 있는데 가진악이 마을 밖 오솔길로 걸어오고 있었다. 사통천은 그가 자신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하여 곧 길을 가로막았다. 가진악의 무공은 4 명에게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세 붙잡혀 신문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에게 다른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사람은 그와 별다른 원한은 없었지만 그가 자신들의 행방을 누설할까 봐 그를 죽이려고 했다.

가진악은 당시 가흥으로 꼭 가야 될 일이 있어 일을 마치고 와서 죽여달라고 했다. 만약 네 사람이 그에게 며칠간 활동할 여유를 준다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화도의 구화옥로환을 그 대가로 주겠다고 했다. 네 사람은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 날씨가 곳을 때마다 온몸이 쭈시고 아팠는데 가진악이 영약을 주겠다는 말을 하자 곧 그에게 네 사람의 행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하고 또한 부하를 매복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은 후 날짜를 정해 철창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사통천은 지난 일을 다 얘기한 후 말했다.

[양대협! 춘부장께서 살아 계실 때 우리는 모두 그 닥의 손님이었소. 그 분이 돌아가신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조금치도 그 분에게 미안

한 일을 한 적이 없소. 바라건데 당신은 옛 정을 생각해서 우리를 놓아 주기 바라오.]

수십 년 전 사통천, 팽련호, 등은 강호에서 내노라 하는 당당한 인물들로 설령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도끼로 위협한다 해도 결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윤패당하고 다리를 잘리고 눈에 상처를 입은 후로는 심기가 약해져 호기를 잃어버려 양과에게 애걸복걸했다.

양과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체 하며 가진악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영, 육무쌍을 보러 가는 거요? 무슨 일이 있소이까?]

가진악은 고개를 젓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양과야, 너는 어려서 잘 모르는 가 보구나.]

양과가 성난 듯이 말했다.

[내가 어째서 모른다는 말이오?]

가진악이 웃으며 말했다.

[일이 오늘에 이르러서도 나 가진악은 이 늙은 목숨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젊고 힘이 있을 때에는 더구나 누군들 두려워 했겠느냐? 너의 무공이 제 아무리 높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에게나 위협을 줄 수가 있지 설마 강남칠괴가 남의 협박에 굴복하겠느냐?]

양과는 그의 당당하고 늙름한 기상을 보고는 내심 존경심이 생겨 말했다.

[가노인장! 나 양과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의 아버님을 욕한 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노인장의 명성은 사해에 널리 퍼져 있고 양과는 어려서부터 흠모해 오면서 여태껏 무례를 범하지 않았습시다.]

가진악이 말했다.

[이제야 사람다운 말을 하는군. 나는 너의 인품이 훌륭하고 또 양양에서 대공을 세웠다는 걸 듣고 너를 훌륭한 인물로 여겼지. 만약 자네

부친처럼 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 나를 모욕하는 걸세.]

양과는 마음속으로 더욱 화가 치밀어 큰 소리로 말했다.

[저의 아버님께서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양과가 만난 사람 중에는 그의 부친인 양강의 지난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직언하여 양과의 기분을 다치도록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양과가 물으면 상관없는 말들만 해 주었던 것이다. 가진악은 본래 악을 싫어하고 성품이 매우 곧아서 양과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양강과 곽정의 일들은 낱낱이 말했다. 또 양강과 구양봉이 어떻게 해서 강남칠괴 중 오괴를 죽였으며 어떻게 해서 양강이 이 철창묘에서 황용에게 죽게 되었는가를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직접 본 것이야. 사통천, 팽련호 너희 둘도 말해봐라. 내 말중에 거짓이 있더냐?]

여섯 사람이 신전에서 신상을 부수고 큰소리로 떠들어 대자 높다란 탑위에 있던 수백 마리의 까마귀들이 놀라서 공중을 빙빙 돌며 까악까악, 하고 울어 댔다. 사통천이 탄식하듯 말했다.

[그 날 저녁에도 이렇게 많은 까마귀가 있었지....., 나는 직접 까마귀 한 마리를 양공자에게 잡아 주었는데 만약 팽형제가 재빨리 기회를 틈타 내 팔을 자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까지 살 수가 있었겠소?]

팽련호가 말을 이었다.

[가노인의 말은 크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양대협이 춘부장께서 옛날에는 매우 예의가 있고 인품도 매우..... 영준하고 대범했지.]

양과는 머리를 숙인 채 비분하여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자신의 생부가 이처럼 간악했었는지 전혀 뜻밖이었으며 자신의 명성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 부친의 수치를 씻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신전의 여섯 사람은 모두 아무 말도 없이 단지 끊임없이 울어 대는 까마귀 소리만 듣고 있었다.

한참 후 가진악이 말했다.

[양공자, 자네는 양양에서 것처럼 큰 공을 세웠으니 부친의 잘못을 모두 덮을 수 있을 걸세. 그는 구천에서 자네가 부친을 대신해 잘못을 씻어 준 걸 기뻐할 걸세.]

양과는 광정 부부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았다. 황용이 시종 자신을 꺼려한 것과 그동안 수많은 오해를 낳았던 까닭이 모두 여기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부친이 없었다면 자신의 몸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러나 자신의 무수한 번뇌가 사실은 부친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라 어쩔 수 없이 깊은 탄식을 토해 내고 가진악에게 물었다.

[가노인장! 정,육 두 자매는 잘 지내고 있는지요?]

가진악이 말했다.

[그녀들은 자네가 남양에서 곡창을 불태우고 몽고군의 선봉을 격퇴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자네의 근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고 또 소용녀의 소식도 물었지. 그들은 모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네. 안타깝게도 내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네.]

양과가 그윽하게 말했다.

[그 두 의자매를 저도 16년 간이나 보지 못 하였습니다.]

돌연 양과는 몸을 돌려 사통천에게 큰소리로 꾸짖었다.

[가노인께서는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주겠다고 하셨다. 그 분은 지금 까지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을 하는 신의를 지킨 분이시다. 이제 어서 공격을 하거라. 만약 너희들이 힘을 합쳐 이길 수 있다면 네 명 모두 함께 그를 죽여라. 그러면 나는 곧 너희 네 놈의 목을 잘라 그 분의 원한을 갚아 주리라.]

사통천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팽런호가 말했다.

[양대협! 우리 넷은 무지해서 감히 가노인께 무례를 범한 것이니 두 분 대인께서는 소인들의 잘못을 잊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너희들은 잘 기억해 두어라. 이걸 너희들 스스로가 약속

을 어긴 것이니 가노인을 공격해선 안 된다.]

팽런호가 말했다.

[네, 네! 가노인의 굳은 신의에 저희들도 매우 감복했습니다.

양과가 말했다.

[그럼 빨리 이곳을 떠나거라. 다시는 내 손에 걸리지 마라.]

사통천 등 네사람은 일제히 공손하게 절을 하고는 묘를 빠져 나갔다.

양과가 이처럼 가진악의 생명을 구해 주고 또 그의 체면을 세워 주자 가진악은 매우 감격했다. 두 사람은 신전 위의 진흙을 치우고 나란히 앉았다. 가진악이 말했다.

[내가 가흥에 온 것은 곽양 때문이라네.]

양과는 흠칫 놀라며 말했다.

[그 남자가 어찌 됐는데요?]

가진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고 말했다.

[곽정의 두 딸은 모두 말썽꾸러기들이라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지.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지만 곽양이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양양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서 그녀의 부친이 몹시 애를 태우고 있다네. 계속 사람을 보내 알아보고는 있지만 모두 감감 무소식이야. 어떤 사람이 도화도로 찾으러 왔다네. 사실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계집애가 뭇하리 늙은이를 찾아 도화도에 오겠는가? 나는 걱정이되어 그녀를 찾아 나섰다네.]

[무슨 소식을 들으셨나요?]

[일전에 내가 임안 근처에 있을 때 두 명의 몽고 사신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양양 곽대협 딸아이가 몽고군중에 잡혀....]

양과가 소리쳤다.

[아이쿠! 그게 정말인지 거짓인지 모르나요?]

가진악이 대답했다.

[몽고의 대군이 남북으로 양양을 협공해 오자 임안 조정의 대신들은 화친을 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혔지. 몽고에서 두 명의 사신을 파견해 우리 대송의 군신들을 속이려 들었는데 그들은 관직이 매우 높았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알아들을 수 없다고 여겨 거리낌없이 몽고 말로 얘기를 나누었지. 그러나 나 가진악은 일찌기 몽고에서 10 여 년 간이나 살았었고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예민해 푹푹히 들었다네.]

양과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확실히 거짓말이 아니겠군요?]

[그래! 나는 원래 독납새풀을 그들 몽고놈들에게 주어 맛을 보도록 하려고 했지. 그러나 양양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욱 급해 자 질구레한 일은 쫓혀 두고 그들을 묶어 버렸는데 뜻밖에 4 명의 악귀들에게 길을 차단당하게 된 것이라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곽양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해서 가흥으로 가서 정영과 육무쌍에게 알렸지. 정영과 육무쌍은 소식을 듣자마자 곧 북상해 올라갔고 나는 곧 약속을 지켜 죽으려고 돌아온 거라네. 그런데 이 가진악은 약속을 지켰지만 네 놈의 악귀가 약속을 어겨 끝내 손을 쓰지 않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하하하!]

양과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노인장은 그 몽고 사신이 말한 것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곽양이 어떻게 붙잡히게 됐나요? 생명에는 위험이 없답니까?]

[그걸 얘기 안 했어. 얘기를 들어보니 그 두 명의 몽고 사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네.]

양과가 말했다.

[이 일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 제가 먼저 가서 힘껏 구해 보겠으니 노인장께서는 천천히 오십시오!]

가진악은 일전에 도화도로 곽양을 찾아온 개방 제자의 입을 통해 양과가 양양에서 큰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들어 알았기 때문에 그의 능

력을 믿고 말했다.

[자네가 먼저 간다니 나도 마음이 놓이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의 묘비를 세워 주십시오. 비석에다 <선부양부군강지묘 불초자양과근립(先父楊府君康之墓 不肖子楊過謹立)>이라 써 주십시오.]

가진악이 멍하니 있다가 이내 그 속뜻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그래, 그래! 자네는 불효 자식이 아니야. 자네의 불초는 다른 사람의 효보다 훨씬 낫네. 이 늙은이가 꼭 그렇게 하지.]

양과는 가흥으로 돌아와서 튼튼한 말 3마리를 샀다. 그는 질풍같이 말을 몰아 북쪽으로 치달렸다. 가는 동안 계속 말을 갈아타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 몽고 군영 가까이 다다랐다.

몽고 황제는 양양을 징벌하러 갔다가 신야, 등주 두 곳에서 크게 패배를 당했다. 남양에 여러 해 동안 저장해 놓은 군량과 화약이 하루 저녁 사이에 몽땅 불타 없어졌고 많은 군졸들이 부상을 입어 예기가 크게 꺾였다. 게다가 송군의 허실을 알 수가 없어 대군을 남양의 북쪽에 주둔시켜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쌍방 대치 상태에 있었다. 사방에 깃발이 펄럭이고 창칼이 번쩍었다. 양과가 멀리서 바라보니 막사가 줄은 이은 것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양과는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군영에 잠입하여 상황을 살펴보았다. 경비가 삼엄하고 군기가 엄격함을 보고는 함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음을 알았다. 어영(御營) 주위에는 창과 방패를 든 호위병들이 뺑뺑이에워싸 철통 같았다. 양과는 군영의 병사가 많고 고수들도 많아 보여 감히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밤중까지 살펴보고서야 겨우 동쪽의 군영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다음날 다시 서쪽의 군영을 조사하고 이렇게 사흘 밤 동안 동서남북 4개의 태군영을 살살이 살펴보았지만 꼭 양과 관련되는 소식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군영 안에서 한어(漢語)를 할 줄 아는 참모를 붙잡아 심문을 했다. 그 참모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양양 곽대협(郭大協)의 딸이 붙잡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

다.

양과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며칠 더 조사하고 나서야 곽양이 몽고 군영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생각했다.

(보아하니 곽백부가 이미 그녀를 구했거나 아니면 그 몽고 사신이 잘못 듣고 사실 무근의 소리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양과는 소용녀와 약속한 16 년의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북으로 말을 달려 절정곡으로 갔다.

절정곡의 슬픈 메아리

그 날 곽양은 금륜법왕이 독수를 뺏어서 장수귀와 대두귀,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 상심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마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들어 말했다.

[어서 나를 죽여라. 뭘 기다리는 거냐?]

금륜법왕은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계집애를 죽이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느냐? 오늘은 두 사람을 죽인 것으로 충분하다. 며칠 지난 다음에 좋은 날을 잡아서 너를 죽여 줄 테니 어서 순순히 나를 따라와라.]

곽양은 이 순간 그에게 대들었다가는 공연히 욕만 당하리라고 생각했다. 그저 그와 함께 가다가 기회를 보아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입술을 뺨죽 내밀어 약올리는 시늉을 한 뒤 말에 올라탔다.

법왕은 마음속으로 매우 즐거워하며 생각했다.

<황상(皇上)과 사대왕(四大王)께서 천방백계(千方百計)를 사용하여 곽정의 목숨을 빼앗으라 했지만 끝내 뜻대로 하실 수가 없었다. 오늘 곽정의 사랑하는 딸을 사로잡아 가서 곽정을 위협하면 그가 머리를 숙이고 명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일검으로 그를 찔러서 죽이

는 것보다도 뛰어난 계책이다. 설사 광정이 그야말로 완강하게 굴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성 아래에서 천천히 이 아이를 괴롭혀 그가 칼로 가슴을 도려내듯 마음이 아프고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릴 때 몽고 대군이 일거에 성을 공격한다면 어찌 이기지 못하겠는가!)

하늘이 어둑어둑해지자 그들은 서둘러 길가에 있는 인가 하나를 찾아서 묵었다. 집안은 이미 도망친 흔적이 역력하여 방들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사방의 벽만이 남아 있었다. 법왕은 말린 음식을 꺼내어 광양에게 먹도록 나눠 주고 그녀는 결채에서 자도록 하고 자기는 당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연공을 했다.

광양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밤중이 되어 살금살금 당 앞으로 가서 보니 법왕은 벽에 기대어 이미 쿵쿨 잠들어 있었다. 광양은 매우 기뻐하며 살그머니 창을 넘어가서 보자기를 4개로 찢어 말의 발을 감싼 뒤에 고삐를 끌고 발걸음을 가벼이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 집과 약 반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러 뒤돌아보니 법왕이 쫓아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비로서 말을 타고 서둘러 달렸다. 그녀는 법왕이 깨어난 뒤에 자기가 도망친 것을 알면 반드시 양양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여 서북방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급히 달렸다. 단숨에 반 시간을 달렸더니 말의 달리는 힘이 떨어졌다. 고삐를 늦추고 천천히 가며 줄곧 고개를 돌려 보았지만 여전히 법왕이 쫓아오는 것이 보이지는 않았다. 하늘이 밝아오자 이미 5,60 리는 달려온 것 같아서 그녀는 겨우 마음이 놓였다.

이 때는 이미 어느 산 옆으로 나 있는 조그만 길을 가고 있었다. 갈수록 높이 올라가 산모퉁이를 하나 돌자 갑자기 앞에서 우뢰소리처럼 코고는 소리가 들리며 한 사람이 사지를 쭉 뻗고 길가에 가로누워 있었다. 광양은 그를 보는 순간 너무나 놀라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은 까까머리에 황포를 입고 있는 바로 금륜법왕 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광양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곧장 산 언덕을 내려와 고개를 돌려 보니 법

왕은 여전히 높은 곳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동남쪽의 후미진 곳을 향하여 달아났다. 밥 한끼 먹을 정도의 시간을 달리자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에 어떤 사람이 두 발을 나뭇가지에 걸고서 거꾸로 매달려 그녀를 보고 히히 웃고 있었다. 법왕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곽양은 놀라지도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길을 막으려면 막을 것이지 왜 이렇게 자꾸만 아가씨를 놀리려고 하는 거냐?]

하며 말을 몰아 법왕이 매달려 있는 나무 쪽으로 급히 달려가서 채찍을 들어 쏘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을 쳤다.

그는 전혀 피하지 않아서 채찍이 그의 얼굴에 맞았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로 이 때 그녀는 말을 타고 이미 질풍같이 지나가고 있었다. 곽양은 오른손을 당겨 채찍을 도로 거두려고 하는데 돌연 한 줄기 강력한 힘이 오른팔로 전해 오는 것이 아닌가! 곽양은 저도 모르게 안장을 벗어나 공중에 뿔었다. 법왕은 채찍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입을 벌려 채찍 끝을 물고서 몸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네를 타듯 흔들며 곽양을 끌어당긴 것이었다.

곽양은 몸이 공중에 뿔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법왕이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츠려 다시 자기를 되당기려 하는 것을 보고 즉시 채찍을 손에서 놓아버렸다. 법왕은 도리어 깜짝 놀라 그녀가 떨어져 다칠까 봐 급히 손을 뻗어 그녀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조심해!]

곽양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곽양은 법왕의 두 손과 반 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르자 돌연 쌍장을 나란히 뻗어 펄펄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을 쳤다. 곽양의 변초는 기이할 정도로 빨라서 법왕이 아무리 무공이 높고 강하며 기지가 있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 손발을 허위적거리며 땅에 떨어져 쪽 뻗

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곽양은 자신의 단 일격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였는데 저도 모르게 크게 기뻐하며 커다란 돌 하나를 들어 그의 번쩍 거리는 대머리를 부수어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껏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비록 그가 자기의 두 친구를 해친 것이 미웠지만 차마 내려치질 못하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커다란 돌을 내려 놓고 손을 뺀 어 그의 목에 있는 천정혈(天鼎穴), 등에 있는 신주혈(身柱穴), 가슴에 있는 신봉혈(神封穴), 팔에 있는 청냉연(淸冷淵), 다리에 있는 풍시혈(風市穴) 등을 쉬지 않고 단숨에 눌러 그의 몸에 있는 13 곳의 대혈을 누른 다음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다시 몇십 근이나 되는 커다란 바위를 4 개 들어다 그의 몸을 눌러 놓고 말했다.

[악인아, 악인아! 아가씨가 오늘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이후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아서 다시는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알았느냐?]

하고 말한 뒤 말등에 올라탔다.

금륜법왕은 두 눈을 뻔뻔하게 굴려 그녀를 쳐다보고 웃으며 말했다.

[작은 아가씨는 마음씨가 아주 착하군! 이 노화상은 아가씨를 좋아해요!]

4 개의 커다란 바위가 돌연 그의 몸에서 튕겨 나가 파바박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 나뿔굴고 이어서 그는 단숨에 일어났다. 곽양은 자기가 눌러 놓은 13 곳의 대혈이 어떻게 일시에 모두 풀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 눈을 둥그렇게 뜨고 멍하니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왕은 비록 그녀의 쌍장을 맞았지만 어린 소녀의 쌍장이 어찌 그를 나무 위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었겠는가? 또한 어찌 그것으로 인해 꿈쩍하지도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당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는 도리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곽양이 어떻게 손을 쓰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녀가 돌을 들었다가 내려치지 않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

했다.

(이 계집아이는 총명하고 영리하며 마음씨도 착한 데다 내 두 제자의 장점은 다 갖추고 있고 단점은 없구나.)

그는 웬지 모르게 그녀를 붙잡아 제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평생 동안 3명의 제자를 거두었는데 대제자는 문무를 겸비하고 자질도 뛰어나서 법왕은 본래 그에게 의발(衣鉢)을 전해 주려고 했었지만 불행히도 그 제자는 일찍 죽었다. 두번째 달이파는 성실하고 근후(謹厚)하지만 헛되이 신력만을 갖추고 있고 고심비오(高深秘奧)한 내공은 이해하지 못했다. 세번째 광도왕자는 천성이 못된 자여서 위난 중에 사부를 배반하고 떠나간 무정무의(無情無義)한 인간이었다. 법왕은 이미 나이도 많은데 헛되이 일신의 신기만을 지니고 있어 전해 줄 사람이 없어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절세의 무공은 결국 여기서 인멸되고 말 것이 괴로웠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 울적하기 짝이 없었다. 이 순간 광양의 훌륭한 자질을 보니 평생 동안 만나기 힘든 재원이었다. 비록 적의 딸이지만 그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고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오직 절기를 전수해 주어 시일이 오래 지나면 그녀는 자연히 지나간 일들은 점차로 잊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물며 자기와 그녀의 부모는 두 나라가 싸우기 때문에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불구대천의 깊고 큰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무림의 사람들은 제자를 거두고 법을 전하는 일을 극히 중시하는데다 출가를 한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일신의 능력은 오로지 제자에 의지하여 대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의발을 주고받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 법왕은 이런 생각을 하자 양양을 공격하고 광정을 협박하는 생각같은 것은 이미 염두에 두지 않았다.

광양은 그가 두 눈만 굴리며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곧장 말에서 뛰어 내려 말했다.

[노화상의 능력은 정말로 낮지 않은데 다만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해석하군요.]

법왕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이미 나의 능력을 부러워한다면 나를 사부로 모셔라. 내가 이 일신의 공부를 너에게 모두 전해 주겠다.]

곽양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피! 내가 화상의 공부를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비구니가 될 생각은 없어요.]

법왕이 웃으며 말했다.

[나의 무공을 배우기 위해 꼭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단 말이나? 네가 나의 혈도를 눌렀는데 나는 스스로 풀 수 있고 네가 큰 돌로 내 몸을 눌렀는데 돌이 저절로 튕겨 나가고 네가 말을 타고 급히 달렸는데 나는 이미 네 앞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설마 재미 없단 말이나?]

곽양은 이런 공부가 정말로 재미있기는 하지만 이 노화상은 악인이니 어떻게 그를 사부로 모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자기는 양과를 찾는 것이 급하여 그와 다룰 여유가 없어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의 능력이 더 높다고 해도 나는 악인에게 사부라고 절을 할 수는 없어요.]

[너는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니?]

[당신은 단번에 손을 써서 장수귀와 대두귀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은 당신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왜 독수를 뺏쳤나요?]

법왕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네가 탈 말을 그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한 것 뿐인데 그들 둘이 먼저 대든 거야. 너도 보았잖아? 만약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면 일찌감치 그들을 먼저 죽였을 거야. 화상 노릇을 하는 사람은 자비를 항상 생각한단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되지!]

곽양은 흥, 하고 코방귀를 끼며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왜 나를 그냥 가게 놔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못 가게 했니? 너는 말을 타고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고 나는 길에서 잠만 자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 손이라도 까딱하여 너를 막은 적이 있었나?]

[그렇다면 내가 양오빠를 찾아가도록 그냥 놔 두세요. 공연히 나와 입씨름만 하지 말고요.]

법왕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말했다.

[그건 안돼! 너는 나를 사부로 모시고 나와 이십 년 동안 무예를 배워야 해. 그 때는 네가 누구를 찾으러 가고 싶으면 찾으러 가도 상관 없어!]

곽양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정말 이치도 따질 줄을 모르는 군요. 내가 사부로 모시고 싶지 않는데 왜 자꾸만 억지로 시키려고 그래요?]

[너 같은 꼬마야말로 정말 이치를 따질 줄을 모르는구나. 나같이 훌륭한 사부를 하늘 아래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내게 삼백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면 팔 년 십년 동안 애걸복걸을 해도 나는 그를 제자로 거두지 않았어. 오늘 너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도 싫다 하니 어찌 이상하지 않겠냐?]

곽양은 손가락을 뺨에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창피해요. 창피해! 당신이 무슨 훌륭한 사부예요? 당신은 나같은 열 몇 살의 여자 아이밖에 이기지 못하는데 그게 뭐 그리 신기해요? 당신은 우리 아빠 엄마를 이긴 적이 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황노도주를 이긴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접어두고 우리 큰오빠 양과라도 이긴 적이 있어요? 당신은 그 하나도 이기지 못 해요.]

법왕은 마구 내뱉었다.

[누가 그래? 누가 내가 양과같은 쫓나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

[천하의 영웅호한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양양성 안의 영웅대연에서 모두들 그랬어요. 세상에 세 사람의 금륜법왕이 일제히 대들어 머리가 셋에 팔이 여섯이라도 팔이 하나뿐인 신조대협 양과를 이기지 않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녀의 이 말은 사실 되는 대로 지어내 법왕을 약올리려고 한 말일 뿐이었다. 영웅대연에서 상의한 것이 어떻게 양양을 지키고 몽고에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은 고사하고 정말로 법왕과 양과의 무공의 우열을 말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곽양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을 리가 없었다. 말한 사람은 무심하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뜻있게 받아들여 이 말은 법왕의 아픈 곳을 찌른 격이 되었다. 그는 10여 년전에 과연 양과의 손에 몇 번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영웅들이 분명히 이것으로 말꼬리를 삼았으리라고 생각하니 화가 불길처럼 치밀어 소리쳤다.

[양과 이놈이 만약 여기에 있다면 그에게 나의 용상반야공(龍象般若功)의 무시무시한 맛을 보여 주겠다! 그가 한 번 쓴 맛을 알고 나면 당세에 양과가 대단한 것과 아울러 나 금륜법왕은 더욱 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될거야.]

곽양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말했다.

[당신은 우리 큰오빠가 여기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이렇게 큰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은 그를 한번 찾아가 겨루어 볼 담력이 있나요? 당신의 사저불약공(蛇猪不若功).....]

법왕이 나서서 말했다.

[용상반야공이야!]

[당신이 그를 이겨야만 비로소 용상(龍象)이죠. 만일 일격도 당해 내지 못한다면 결국 뱀이나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당신이 만약 그를 이기면 나는 당연히 당신을 사부로 모시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감히 앞서서 그를 찾으려 가지는 못하고 공연히 큰소리만 치고 있군요. 나

는 알아요. 당신은 양과의 그림자만 보아도 놀라서 도망도 제대로 못 간다는 것ですよ.]

법왕이 어찌 곽양이 자기를 분격하게 하려는 꾀임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자기를 극히 과시했는데 오직 양과에게만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번에 용상반야공을 제 10 층까지 연마한 것도 원래는 양과를 찾아 지난번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였다. 그는 큰소리로 말했다.

[내가 양과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말한 것은 너를 속인 거야. 이 놈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알기만 한다면 내가 그를 찾아가서 그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용서를 빌게 만들 것이다.]

곽양은 하하, 하고 크게 웃고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화상, 화상! 당신은 언제나 거짓말만 좋아해! 천하에 적수가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멀리 양과가 동쪽에서 오는 것이 보이면 발바닥에 기름을 바른 듯 서쪽으로 도망간다네.]

법왕은 피, 하고 내뿜고는 성난 눈초리로 곽양을 쳐다보았다. 곽양이 말했다.

[비록 오빠가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가 분명히 어떤 장소에 갈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어디에 간단 말이냐?]

[당신에게 말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은 감히 그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공연히 놀라 혼만 달아날 텐데요.]

법왕은 이를 부드득 갈며 소리쳤다.

[말해, 말하란 말이야!]

[그는 절정곡에 갈 거예요. 단장애 앞에서 그의 부인 소용녀와 만나려고요. 양과 한 사람만으로도 당신은 놀라 가슴이 펄쩍펄쩍 뿔텐데 게다가 소용녀까지 있으니....헤헤, 노화상, 공연히 단장애 앞에 가서 헛되이 목숨만 버릴까 걱정되네요.]

금륜법왕은 10 여 년 동안 용상반야공을 각고 수련할 때 마음 속으로 양과와 소용녀가 함께 공격하는 옥녀소심검법을 적수로 삼았다. 만약 그가 하나로 둘을 대적하는 방법을 배워 이 부부를 이길 자신이 없었다면 이번에 중원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는 곽양의 이런 말을 듣자 10 여 년 동안 가졌던 양과와 소용녀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도리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그러면 곧바로 절정곡으로 가자! 내가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을 이기면 그 때는 또 어떻게 할 테냐?]

[만약 당신이 그토록 높고 강한 무공을 지녔다면 내가 당신을 사부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다만 절정곡은 깊고 외딴 곳에 있어서 그 소재를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게 탈이지요.]

[내가 마침 그 곳에 가 본 적이 있으니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이르니 너는 일단 나와 함께 몽고 영중에 가서 내가 몇 가지 일을 처리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절정곡으로 가면 되겠다.]

곽양은 그가 절정곡으로 양과를 찾아가 무예를 겨루기를 허락하자 마음이 놓여 생각했다.

(나는 오직 네가 가지 않으려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이미 내게 가기로 약속했으니 뭐가 무섭겠냐? 너 이 나쁜 화상아 너는 비록 하늘과 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네가 큰오빠를 만난다면 그 때는 네가 그 보답을 받을 것이다.)

곽양은 곧장 그를 따라 몽고군영으로 갔다.

법왕은 일단 곽양에게 자기의 의발을 물려줄 뜻을 세우자 오직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이후에 바야흐로 본문의 뛰어난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는 도중 그녀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무림 중에서는 훌륭한 사부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뛰어난 재질을 지닌 제자를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제자는 사부를 잘 선택하고 사부도 역시 제자를 잘 선택해야 했다. 법왕은 곽양과 도중에서 이것저것

애기를 하면서 그녀의 총명함과 깨우침이 남보다 뛰어남을 느끼고는 속으로 무척 즐거워했다. 때로 곽양이 장수귀와 대두귀가 참사당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법왕의 처사가 악랄했음을 꾸짖을 때도 법왕은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그녀를 제자로 삼는다면 그녀의 마음씨가 너무 좋아 곽도 왕자처럼 박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법왕이 곽양을 데리고 간 몽고군영은 황제의 아우 쿠빌라이가 통솔하는 남대영(南大營)이었고 양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아간 곳은 몽케 대한이 머무르고 있는 북대영(北大營)이었다. 두 몽고 사신이 이것저것 한담을 나누었을 때 가진악이 잘못 알아들어 양과가 헛되이 며칠을 헤맸던 것이다. 그 후에 양과가 절정곡으로 출발했을 때 법왕과 곽양도 남대영에서 출발하여 세 사람의 거리는 불과 1백여 리도 채 되지 않았다.

곽정과 황용은 어린 딸이 집을 나간 후 밤낮으로 걱정이 되었다. 그 뒤로 딸의 소식을 탐문하러 사방으로 파견시킨 개방 제자들은 하나하나 돌아와 보고 했지만 한결같이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다시 10여 일이 지나자 갑자기 정영과 육무쌍이 양양에 와서 가진악의 소식을 전하고 곽양이 이미 몽고군영에 포로로 잡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 황용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날 저녁 황용과 정영 두 사람은 몰래 몽고군영에 들어가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양과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단서를 찾지 못 했다. 세째날 저녁에는 몽고의 무사들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져 40여명의 무사가 황용과 정영을 겹겹이 에워쌌는데 황용, 정영 두 사람의 무공이 뛰어난 데다 황용이 연달아 피를 써서 가까스로 적의 군영을 탈출하여 양양으로 돌아왔다.

황용은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정세를 보아 딸아이는 결코 몽고군영에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으니 그다지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몽고 대군이 당장에 남공할 기세는 보이지 않아 곽정과

상의하여 자신이 성을 나서서 수소문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한 쌍의 흰 수리를 대동하여 만약에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쌍조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 육무쌍 자매도 그녀와 함께 가려고 했다. 세 사람은 몽고 진영을 돌아서 서북쪽으로 갔다.

황용은 생각했다.

(양아가 이번에 나간 것은 양과에게 너무 설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에 그녀가 동관(潼關), 풍릉도(風陵渡) 왼쪽 근처에서 그와 만났으니 이번에도 다시 그 곳으로 갔을 것이다.)

세 사람이 양양을 떠날 때는 바야흐로 추운 겨울이었는데 여기저기 소식을 수소문하며 천천히 풍릉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월 하순이 되어 얼음과 눈이 녹고 있었다 황용 등 세 사람은 나루터에서 사공, 점원, 수레꾼, 행인 등에게 만나질 동안을 물어 보았지만 모두 그런 소녀는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정영이 황용을 위로하였다.

[사자(師姊),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양아가 태어난 첫 날 금륜법왕과 이막수 그 두 대마두에게 빼앗겼어요, 속담에 대난에 죽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때 그토록 위험했어도 아무 탈이 없었는데 하물며 지금 그 지경은 아니잖아요?]

황용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나루터를 떠나 교외를 한가로이 걸었다.

이 날은 햇볕이 너무나도 따스하고 남풍이 훈훈하게 불며 가지끝에는 이른 꽃들이 새로 피어서 봄이 점차 짙어 가고 있었다. 정영이 복숭아꽃 한 그루를 가리키며 황용에게 말했다.

[사자, 북쪽은 봄이 늦게 이르는데 여기는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으니 도화도에 있는 복숭아나무에는 이미 열매를 맺었겠군요.]

그녀는 말하면서 꽃가지 하나를 꺾어서 가지고 놀며 나지막이 노래했다.

[꽃에게 물어 보지만 꽃은 말이 없네. 누구를 위하여 떨어지는가? 누구를 위하여 피는가? 봄이 다 가면 반은 흐르는 물 따라 가고 반은

먼지 속에 묻혀 버리네.]

황용은 그녀의 어여쁜 얼굴과 뽀얀 피부 검은 눈썹 푸른 기가 감도는 검은 머리를 보니 그야말로 10여 년 전의 아름다운 얼굴 그대로였다. 그녀가 요 몇 년동안 적막하게 지낸 것이 그리움을 떨쳐 버리기가 힘들어서임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그녀가 몹시 안 되어 보였다.

바로 이 때 웅웅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큰 꿀벌 한 마리가 날아와 정영의 손에 쥔 복숭아꽃 주위를 계속 맴돌다가 한 꽃잎에 내려 앉아 꿀을 빨았다. 황용은 이 꿀벌의 몸이 희백색이고 체구도 보통 벌보다 2배 이상은 큰 것을 보고 한 가지 생각히 난 듯 말했다.

[이건 소용녀가 키우던 옥봉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지?]

육무쌍이 말했다.

[맞아요. 우리 이 꿀벌이 어디로 가는지 한 번 따라가 봐요.]

이 꿀벌은 잠시 꽃에서 꿀을 빨고는 꽃가지에서 날아 올라 공중을 몇 바퀴 선회한 다음 서북방으로 날아갔다. 황용 등 세 사람은 서둘러 경신의 무공을 펴서 뒤따라 갔다. 그 꿀벌은 날아가다가 꽃나무를 보면 다시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날고 멈추고 하는 동안 2마리 꿀벌이 더 많아졌다. 세 사람은 저녁까지 쫓아가서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렀는데 주위에는 울긋불긋한 갖가지 꽃이 피어 있어 산이 온통 비단 무늬를 수놓은 것 같았다. 산 언덕 아래에는 나무로 만든 7,8개 정도의 벌집이 한 줄로 놓여 있었다. 그 3마리의 커다란 벌은 날개를 치며 날아가 벌집으로 들어갔다.

다른 한쪽의 산언덕에는 초가집이 세 채 놓여 있었는데 집 앞에는 조그만 여우 2마리가 있어 이리저리 조그만 눈을 굴리며 황용일행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아,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운데에 있는 초가집의 사립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얀 수염에 얼굴은 동안(童顔)인 것이 바로 노완동 주백통이었다. 황용은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다.

[노완동. 자, 누가 왔는지 보세요!]

주백통은 황용을 보고 하하, 웃으며 앞으로 뛰어오다가 몇 걸음을

내딛더니 돌연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몸을 돌려 초가집으로 들어가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사립문을 닫았다. 황용은 너무나 이상하여 그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몰라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노완동, 노완동,! 왜 멀리서 온 객을 보고도 도리어 숨는 거예요?]

그녀는 몇 번을 두드렸다. 주백통이 문 안에서 소리쳤다.

[안 열어! 안 열어! 죽어도 안 열거야!]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만약 문을 열지 않으면 당신의 소굴에 불을 놓아 온통 잿더미로 만
들어 버리겠어요!]

그 때 왼쪽의 초가집 사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누추한 산에 귀하신 손님이 왕림하셨으니 노화상이 삼가 환영합니
다.]

황용이 고개를 돌려 보니 일등대사가 흐뭇하게 웃으며 합장하여 인
사를 했다. 황용은 앞으로 가 인사를 하고 웃으며 말했다.

[대사와 노완동이 이웃에 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요. 노완동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손님을 거절하여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일등대사가 꺾꺾거리며 크게 웃더니 말했다.

[그는 잠시 신경쓰지 마세요! 자, 세 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승이
차를 대접하지요.]

세 사람이 초가집으로 들어가자 일등은 맑은 차를 내오고 황용은 그
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일등이 말했다.

[곽부인, 한 번 맞춰 보세요. 저 오른쪽의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누
구겠어요?]

황용은 주백통의 얼굴이 갑자기 홍당무가 된 고이한 표정을 생각하
고 한 가지 머리에 떠오른 듯하더니 이내 그 이유를 알고 웃으며 말했
다.

[효한심처(曉寒深處), 춘파벽초(春波碧草), 상대욕홍의(相對浴紅衣).....종군요, 좋아요!]

<효한심처(曉寒深處)> 운운하는 것은 바로 유귀비 영고가 예전에 지은 노래 <사장기(四張機)>의 일절이었다.

일등대사는 이제 마음이 물보다 깨끗하게 좌선을 닦아 지난날의 치정이나 여한은 이미 일소에 불인 뒤여서 즉시 손뻑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곽부인의 묘한 계산은 신과 같으니 만사가 당신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군요.]

그는 문가로 가 외쳤다.

[영고, 영고,! 빨리 나와서 옛 친구들을 좀 보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고가 나무 쟁반 하나를 들고 와 손님들 앞에 놓았다. 쟁반에는 잣, 푸른 과일, 꿀떡 같은 것들이 있었다. 황용 등은 인사를 했고 다섯 사람은 매우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일등,주백통,영고는 수십 년 전의 원한이 얹히고 설켜어 실로 풀기가 어려웠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은 세 사람의 나이도 모두 늙었고 수양도 정진하여 함께 만화곡(萬花谷)에서 벌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고 꽃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대면서 살고 있었다. 지난날의 불미스러웠던 일은 모두 떨쳐 버렸다. 그러나 주백통은 갑자기 황용을 보자 저도 모르게 매우 난처한 기분이 되어 문을 닫고 숨은 것이다. 그는 비록 자기 방에 있었지만 귀를 곤두 세우고 다섯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황용이 양양의 영웅대회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소동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곽도가 하사아로 가장한 중요 대목을 얘기하다가 황용이 갑자기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문을 열고 나와 일등의 방으로 뛰어 들어 와서 물었다.

[그 곽도는 그 뒤에 어떻게 됐지? 그가 도망가도록 그냥 놔 뒀나?]

밤이 되자 황용 등 세 사람은 모두 영고의 초가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황용이 일어나 집을 나서니 주백통이 손바닥에 옥봉 한 마리를 올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황용은 웃으며 말했다.

[노완동, 무슨 일인데 이렇게 좋아 어쩔 줄을 모르세요?]

주백통은 웃으며 말했다.

[소황용, 나의 능력은 가면 갈수록 높고 강해지는데 어째서 감탄하지 않는 거지?]

황용은 평소에 그에게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장난기요 하나는 무학이었다. 이 10 여년 동안 황량한 골짜기에 은거하면서 잠심연무(潛心練武)하여 또 무슨 <분심이용, 쌍수호박>과 같은 종류의 괴이한 무공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니 자못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노완동의 무공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감탄하여 오체투지(五體投地)할 지경인데 뭐 다시 새삼스레 물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 몇 년 동안은 또 무슨 기묘한 무공을 생각해 냈나요?]

주백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최근의 가장 훌륭한 무공은 양과라는 그 어린 것이 만든 암연소혼장(暗然銷魂掌)이야. 노완동도 그만 못한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야. 무학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구!]

황용은 은근히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양과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가 보구나. 곽양 같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완동 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그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니 말이야. 그 암연소혼장은 또 무슨 문파일까?)

그리고 나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의 무공이 가면 갈수록 높고 강해지는 것은 무슨 능력 인데요?]

주백통은 손을 높이 들어 그 옥봉을 추켜세우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건 바로 벌을 키우는 나의 능력이지 뭐겠어?]

황용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이 옥봉은 소용녀가 당신에게 준 건데 뭐가 그리 유별나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소용녀가 내게 준 옥봉은 물론 진귀한 품종이지. 하지만 노완동이 직접 키워서 다시 천하에 둘도 없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기한 품종을 길러 냈어. 정말로 교탈천공(巧奪天工)이요. 조화지기(造化之奇)라도 이런 기법은 없을 거야. 소용녀가 어찌 내게 미칠 수 있겠어?]

황용은 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노완동은 늙으면 늙을수록 체면도 모르는군요. 이렇게 뚜뚜따따 나팔을 불고도 안색하나 변하지 않는 거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교탈천공이요, 조화지기로군요.]

주백통은 화는 커녕 히히, 웃으며 말했다.

[소황용, 내가 그대에게 물어보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몸에 꽃무늬도 새기고 글자도 새기고 혹은 용이나 호랑이 무늬를 새기기도 하고 혹은 <천하태평(天下太平)>이라고 쓰기도 하지. 하지만 사람을 제외하고 짐승이나 벌레의 몸에 글자가 찍어 있는거 봤어?]

[호랑이는 누런 무늬가 있고 표범은 금빛 무늬가 있고 나비나 독사들의 꽃무늬는 꽃을 새긴 것보다 열 배는 더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벌레의 몸에 글씨가 있는 걸 보았어?]

[그런 건 보지 못했어요.]

[좋아, 오늘은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 주지.]

하고 말한 뒤 왼손을 펼쳐 황용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에 있는 그 커다란 벌의 날개에 과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황용이 자세히 보니 옥봉의 오른쪽 날개에는 <정곡저(情谷底)>라는 세 글자가 찍어 있고 왼쪽 날개에는 <아재절(我在絶)>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모든 글자가 쌀알처럼 잘랐지만 필획이 뚜렷하여 극히 가느다란 침으로 새긴 것이 분명했다. 황용은 너무나 이상

하여 계속 중얼거렸다.

[정곡저, 아재절..... 정곡저, 아재절...]

(이 여섯 글자는 결코 천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새긴 것이다. 노완동의 성질로 보아서 결코 이런 조작을 공부했을 리는 없고.)

한가지 생각이 난 듯 황용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또 무슨 천하에 둘도 없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거예요? 당신은 영고에게 졸라서 그녀가 수를 놓는 침으로 이 여섯 글자를 새기게 해서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녜요?]

주백통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영고에게 한 번 물어 보라고. 그녀가 글씨를 새겼는지 안 새겼는지?]

황용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녀가 당신과 꾸밈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면 그녀도 <그래요, 태양은 당연히 서쪽에서 뜨죠. 누가 동쪽에서 뜬다고 그래요?>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주백통은 얼굴이 더욱 붉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데다 억울해서 화나는 기색까지 보였다. 그는 손에 있던 옥봉을 놓아 주고 황요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그대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지.]

주백통은 그녀를 끌고 산 언덕 옆에 있는 한 벌집 옆으로 갔다. 이 벌집은 다른 벌집들과 홀로 떨어져 놓여 있었다. 주백통은 손을 펼쳐 2마리 옥봉을 잡아서 말했다.

[보라구!]

황용이 자세히 보니 그 2마리 옥봉의 날개에도 모두 글씨가 있는데 그 여섯 글자도 모두 한 가지 모양으로 오른쪽 날개에는 <정곡저> 왼쪽 날개에는 <아재절>이라고 쓰여 있었다. 황용은 너무나 이상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비록 기이하다지만 그래도 절대로 이런 꿀벌이 천연적으로 생길 리는 없어.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노완동, 또 몇 마리 잡아 봐요.]

주백통이 다시 4 마리를 잡았다. 그 중의 2마리는 날개에 글씨가 없고 다른 2 마리의 날개에는 모두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황용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이미 승복한 듯 더 이상 영고가 쓴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더 할 말이 있어? 오늘은 이 노완동에게 졌지?]

황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벼이 되뇌어 보았다.

[정곡저, 아재절. 정곡저, 아재절...!]

그녀는 몇 번을 되뇌어 보고는 깨달았다.

[아! 그건 <나는 절정곡 밑에 있다(我在絕情谷底)>라는 말이구나. 누가 절정곡 밑에 있는 걸까? 혹시 양아는 아닐까?]

가슴이 쿵쿵 뛰어 고개를 돌려 주백통에게 물었다.

[노완동, 이 옥봉은 당신 자신이 키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날아온 것이지요?]

주백통은 얼굴이 붉어져 말했다.

[아니, 정말로 이상한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왜 몰라요? 이 꿀벌이 이곳에 날아온 지 며칠이나 됐어요?]

[이 옥봉이 날아온 지는 몇 년이 되었어. 하지만 나는 날개에 글씨가 생긴 것을 살펴보지 않았다가 몇 달 전에야 비로소 우연히 발견했지.]

황용이 되뇌이다가 말했다.

[정말로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이것까지 속여서 뭐하겠어?]

황용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초가집으로 돌아와서 일등대사, 정영, 육무쌍 등과 상의하자 모두들 절정곡 밑에 반드시 뭔가 있으리라는 결론

을 내렸다.

황용은 딸이 걱정이 되어 즉시 정영, 육무쌍 자매와 함께 가서 찾아 보려 했다. 일등대사가 말했다.

[우리도 별 할 일이 없으니 함께 가 보지요. 그 날 따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조그만 아가씨가 매우 호방하여 노승은 그녀를 매우 좋아하게 됐습니다.]

황용은 즉시 절을 하고 감사를 표시했다. 마음속에는 근심이 한층 더 쌓이는 것 같았다.

(일등대사는 분명히 양아가 위험을 만났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왜 유거청수(幽居淸修)의 즐거움을 버리고 함께 가려고 하겠어?)

주백통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텐데 남을 리가 있겠는가! 즉시 영고와 함께 일행과 동행하기로 했다. 황용은 세 사람의 고수가 도와 주게 되자 적잖아 마음이 놓였다. 자기네 여섯 사람만 있다면 지혜를 겨루건 힘을 겨루건 당세에 더 이상 적수가 없을 것이니 광양이 간인의 손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여섯 사람과 쌍조가 동행하여 서쪽으로 갔다.

양과는 3월 초 이튿날에 절정곡에 도착하였는데 16년 전에 소용녀와 약속한 날짜보다 닷새나 일찍 왔다. 이 때 절정곡에는 인적이 끊어져 당일에 공손지 부부, 못 녹의 제자들이 세웠던 넓고 화려한 거처는 이미 모두 허물어져 버렸다. 양과는 16년 전에 절정곡을 떠난 뒤, 매 번 몇 년마다 반드시 이 골짜기에 와서 며칠 동안 머무르곤 했었다. 만일을 생각하여 남해신니가 자비를 베풀어 갑자기 소용녀가 일찍이 북쪽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매번 올 때마다 헛되이 괴롭게 기다리다가 쓸쓸히 돌아갔지만 한번씩 올 때마다 약속한 날짜와는 몇 년씩 가까와져 있었다.

이 순간 다시 그 장소에 이르자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자라 있고 빈 산은 적막하여 사람이 왔었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즉시 단장에 앞으로 가 돌다리를 건너서 소용녀가 석벽에 검끝으로 새긴 글자의 흔적을 더듬어서 손가락으로 모든 글자의 한 획 한 획을 파내어 돌에 깎은 이끼를 말끔히 제거하자 그 두 줄의 큰 글씨와 작은 글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다시 읽어 보았다.

<소용녀가 부군 양도령에게 부탁하오니 소중한 몸 부디 보전하여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힘쓰세요>

양과의 가슴이 저도 모르게 펄펄 뛰기 시작했다.

이 날 그는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두 줄의 글씨를 바라보다가 저녁이 되자 두 나무 사이에 줄을 매어서 잠을 잤다. 다음날은 골짜기의 이곳저곳을 한가로이 거닐었다. 예전에 자기와 정영, 육무쌍이 뽑아 버렸던 정화 꽃나무는 이미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그가 장난삼아 <용녀화(龍女花)>라고 불렀던 붉은 꽃이 찬란한 비단처럼 붉게 피어 있었다. 그는 용녀화를 한 다발 꺾어서 깎아지른 절벽의 그 글씨 앞에 놓아 두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닳새를 기다리다 보니 3월 7일이 되었다. 그는 이미 이틀 낮 이틀 밤 동안 눈을 붙이지 못했고 이 날이 되어서는 단장애에서 단 반 걸음도 떠나지 않았다. 아침부터 한낮까지 다시 한낮부터 저녁까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꽃이 숲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쿵쥔거리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소용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황약사의 그 몇 마디 말을 들은 뒤부터 그는 이미 <대지도 남해신니>니 뭐니 하는 것이 황용이 꾸며 낸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았다. 그러나 절벽에 쓴 글씨체는 분명히 소용녀가 새긴 것으로 조금도 거짓이 아니어서 오직 그녀가 한 번 한 약속을 지켜 끝내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태양이 서서히 산너머로 기울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양과의 마음도 태양과 함께 가라앉았다. 태양의 반쪽이 산 끝

에 걸리자 그는 외마디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급히 산봉우리로 뛰어올라 갔다. 몸이 높은 곳에 이르자 태양의 둥근 모습이 다시 제대로 드러나 다소 마음이 놓였다. 제발 태양이 산 저편으로 사라지지 말고 3월 7일이 다 지나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비록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지만 태양은 마침내 저 멀리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1시간 이상이나 산꼭대기에 우뚝 서서 아득하고 끝없는 사방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몰려오면서 그는 한기를 느꼈다. 다시 한참이 지나자 밝은 반달이 천천히 중천에 떠오르더니 이 하루가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밤마저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소용녀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하나의 석상처럼 산꼭대기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밤이 다 지나가고 붉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사방에서 새들은 도리어 차가운 얼음과 같았다. 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쉬지 않고 울리는 것 같았다.

<바보! 그녀는 이미 죽었어. 16년 전에 이미 죽었어. 그녀는 독을 치료할 수 없으면 너가 결코 혼자 살지 않으려고 하리라는 것을 알고는 너가 자살할까 봐 자신을 16년 동안 기다리라고 속인 거야. 바보, 그녀는 너를 이토록 깊은 정으로 대해 주었는데 너는 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심경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나?>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고기덩어리처럼 흐느적흐느적 산을 내려갔다. 하루 낮 하루 밤을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아 입술과 혀가 바짝 바짝 타는 것 같아 조그만 시냇가로 가 물을 떠서 마셨다. 고개를 숙이니 그의 모습이 물 속에 비치는데 두 귀밑머리가 그만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서른 여섯 살로, 머리카락이 희게 변할 리가 없었다. 더구나 내공을 정진 수련하였으니 비록 일생 동안 고초를 겪어도 이제껏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았었는데 돌연 양쪽 귀밑머리는 서리처럼 변하고 얼굴에는 온통 먼지투성이어서 거의 자기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손을 뻗어 이마 위에서 세 가닥의 머

리카락을 뽑아 보니 세 가닥 중에 두 가닥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찰나지간에 마음속에 노래 몇 귀절이 떠올랐다.

<10 년 동안 산 자와 죽은 자 멀리 떨어져 있어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잊기가 어렵네.

천 리 길 외로운 무덤에서

이 처량함 말할 길 없네

설령 서로 만난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리니,

얼굴엔 먼지 가득하고,

귀밑머리는 서리처럼 하얗게 세어 버렸으니.>

(十年生死雨茫茫

不思量

自難茫

天里孤墳

無處話淒涼

縱使相逢應不識

塵滿面

빈如霜)

이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소동파(小東坡)의 사(詞)였다. 양과는 일생을 무학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책은 많이 읽지 못했지만 몇 년 전에 강남의 한 조그만 주점의 벽에서 우연히 이 사를 발견하고는 정 의가 깊고 진실됨을 느껴 몇 번 읽어 보았는데 지금 그것이 떠오른 것이다. 누가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래의 산 자와 죽은 자는 10 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나와 용이는 이미 16 년 동안이나 서로 떨어져 있었다. 그는 외로운 무덤 이라도 있어 사랑하는 처의 뼈가 묻힌 곳을 알지만 나는 처가 어느 곳

에 묻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다시 이 사의 후반부를 생각해 보니 작자가 어느 날 밤 꿈에서 망처
(亡妻)를 만난 정경이었다.

<깊은 밤 꿈속에서 문득 고향에 돌아오니

조그만 난간 창가에서

머리 빗고 몸단장하고 있었지.

서로 마주보며 아무 말도 없이

오직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뿐이네!

해마다 애간장 태우던 곳은

밝은 달 밤

키 작은 소나무 아래에서 었지.

(夜來幽夢忽還卿

小窗窓

正 ? 粧

相對無言

惟有淚千行

料得年年腸斷處

明月夜

短松岡)

양과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사흘 낮 사흘 밤을 잠 못 이루어 꿈조차
도 꾸지 못했어!)

그는 단숨에 뛰어 단장애 앞으로 가서 소용녀가 새긴 몇 줄의 글씨
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16년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부부는 정이 깊으니 약속을 지
키는 일을 잊지 마세요! > 용아, 용아! 당신은 직접 글씨를 새겨 놓고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가 한번 부르짖는 소리의 위세는 사자를 떨게 하고 호랑이를 쓰러뜨릴 정도인데 이 몇 마디 말은 폐부 깊숙한 곳에서 우리나라와 산골짜기가 모두 흔들려 울리고 동서남북 사방의 산봉우리에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 왔다.

[어째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어째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약속을 지키지....., 약속을 지키지...!]

그는 이제껏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온갖 사념이 모두 사그러 들었다.

(용이는 이미 16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16년을 더 살고 있었으니 실로 뭐라 할 말이 없구나.)

당장에 앞의 깊은 골짜기를 바라보니 입구부터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었다. 그가 매번 여기에 왔을 때도 구름과 안개 밑의 골짜기 바닥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했다. 고개를 들고 소리내어 길게 휘파람을 부니 단장애에 있는 수백 송이의 다 시든 용녀화만 어지러이 흔들릴 뿐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년에 당신이 돌연 자취를 감추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나는 이리저리 산을 온통 찾아 헤맸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소. 그 때 분명히 이 만장의 깊은 골짜기에 뛰어든 것일 게요. 16년 동안 당신은 적적하지도 않았단 말이요?]

양과의 눈에는 눈물이 어른거려 마치 눈앞에 소용녀의 하얀 옷이 나부끼는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고 소용녀가 골짜기 밑에서 은은히 외치는 것도 같았다.

<양낭군, 양낭군!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상심하지 말아요!>

양과의 두 발이 붕 뜨는가 했더니 몸이 날아 올랐다가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들어갔다.

쌍조(雙鳥)의 죽음

곽양은 금륜법왕을 따라서 함께 절정곡에 왔다. 법왕은 독을 품었을 때는 독사보다도 더 악독했지만 그가 이미 곽양을 거두어 의발을 전할 수제자로 삼으려는 마음을 품자 오는 길에서 줄곧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갖은 아양을 떨어 마치 그녀를 자기가 친히 낳은 사랑하는 딸처럼 대했다. 곽양은 그가 장수귀와 대두귀를 쳐서 죽인 것이 한스러워 시종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법왕은 일생동안 다른 사람의 경모와 존대를 받아서 티벳에 있을 때는 마치 어엿한 제왕과 같은 존대를 받았고 대몽고의 4 왕자(四王子) 쿠빌라이까지도 그에게는 예의와 존경을 다했다. 그러나 어린 곽양이 줄곧 그에게 차디차게 대하면서 그의 무공이 양과보다 못하다고 하는가 하면 그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것을 꾸짖어 이 이역에 위세를 떨친 대몽고의 제일국사를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이 절정곡에 막 도착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큰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어째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 목소리는 비분, 절망, 고통의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곽양은 이 소리를 듣자 사방의 모든 산봉우리가 함께 처량하게 울부짖는 것 같았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녀는 깜짝 놀라 외쳤다.

[큰오빠예요. 빨리 가요!]

그리고는 골짜기 안으로 서둘러 뛰어들어 갔다. 금륜법왕은 대적이 앞에 나타나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등에 진 보따리에서 금, 은, 동, 철, 연의 5륜(五輪)를 꺼내어 손에 쥐었다. 지금 그는 비록 용상반야공을 이미 10 층까지 수련했지만 이 16년 동안 양과와 소용녀도 결코 헛되이 시간을 낭비했을 리가 없을 것이어서 털끝만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

었다.

곽양은 소리를 따라 급히 달려가서 잠깐 사이에 이미 단장에 앞에 이르렀는데, 양과는 절벽 위에 서 있고 수십 송이의 크고 빨간꽃이 그의 몸 주위를 춤추듯 어지러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그 깎아지른 절벽이 너무 위험한 것을 보고 자기는 무공이 얕아 감히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외쳤다.

[큰오빠, 내가 왔어요!]

그러나 양과는 슬프고 괴로운 생각에 빠져 끝내 그녀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곽양은 멀리서 그의 행동거지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을 보고 외쳤다.

[아직도 여기 오빠의 금침이 하나 있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해요.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하고 말하면서 돌다리를 통하여 깎아지른 절벽으로 뛰어갔다. 그녀가 중간까지 뛰어가는데 양과의 몸이 한 번 솟구치더니 이미 만장의 깊은 골짜기 속으로 떨어져 내려갔다.

곽양은 소스라치게 놀라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 이 순간 그녀는 양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에 대한 깊은 정 때문에 마치 땅 속까지라도 그를 따라가려는 듯 두 발을 박차 깊은 골짜기로 뛰어들었다.

법왕은 몇 장 뒤를 따라가다가 그녀가 갑자기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서둘러 몸을 날려 구하려고 했다. 그가 한 번 경공을 펴자 그야말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쌔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 한 발 늦어서 막 절벽 근처에 이르렀을 때 곽양은 이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법왕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괘금구(倒掛金鉤)의 초수를 사용하여 몸을 굽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 일초는 극히 위험하여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마저도 함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판이었다. 막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곽양의 옷이 찢어지고 그녀의 몸은 수십장 아래의 안개를 뚫고

곧장 골짜기 밑으로 떨어졌다. 짙고 하얀 안개가 그녀의 그림자마저 가려 버렸다.

법왕은 아연한 듯 길게 탄식을 했다. 그 상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손에는 옷에서 찢긴 천조각을 들고 멍하니 깊은 골짜기만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나자 홀연 맞은편 산등성이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의 화상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법왕이 고개를 돌리니 맞은편 산에 여섯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희끗희끗한 수염에 동안(童顔)인 바로 주백통이었다. 그의 옆에는 3명의 여자가 서 있는데 황용, 정영, 육무쌍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다시 그 뒤에는 백발 백미(白眉)의 노승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그는 그들이 일등대사와 영고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법왕은 몇 차례 주백통의 무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이 늙은이의 무공이 특출하고 신출귀몰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음속으로 그에 대해서 웬지 꺼리는 마음이 있었고 황용은 동사(東邪), 북개(北개)의 장점을 겹했고 기지가 백출하니 그녀 역시 무섭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신공을 이미 이루어서 중원의 이 일류 무학 고수 2명과 한차례 겨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곽양의 비참한 최후에 마음이 아파 처량하게 말했다.

[곽양 아가씨가 깊은 골짜기 안으로 떨어졌소. 아!]

하면서 탄식을 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황용은 그녀와 모녀의 정이 있어 더욱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말이요?]

법왕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속여 뭐하겠소.,? 이것이 그녀의 옷자락이 아니요?]

하고 말하면서 곽양의 찢어진 옷자락을 들어 보였다. 황용은 그 천

조각이 과연 딸의 옷에서 찢어진 것임을 보고 마치 몸이 얼음굴에 들어간 것처럼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주백통이 노하여 말했다.

[더러운 화상 같으니, 네가 뭐 때문에 이 어린 아가씨를 죽였느냐? 악독하기 짝이 없구나.]

법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오.]

[그녀가 어찌 멀정한 정신으로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겠느냐? 네가 그녀를 밀었거나 아니면 그녀를 협박했겠지.]

법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모두 틀렸어. 나는 그녀를 거두어 내 제자로 삼아 나의 의발을 전해 주려고 했었소 그런 내가 어찌 가며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겠나?]

주백통은 침을 한입 뱉아 내며 호통쳤다.

[방귀 끼고 있군, 방귀 끼고 있어! 그녀의 외조부는 황노사요 부친은 광정이고 모친은 황용인데 누구하나 너 같은 더러운 화상보다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녀에게 너를 사부로 모시게 하고 너의 더러운 의발을 전해 준다고? 나 노완동이 그녀에게 삼각묘파식(三脚猫把式) 몇 수만 전수해 줘도 너의 그 구리와 쇠로 만든 둥그런 고물 같은 고리 장난감보다 강하지 않겠느냐?]

그와 법왕은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가 뱉은 침은 바람 소리를 은은히 일으키며 마치 하나의 철판처럼 곧장 법왕의 얼굴로 날아왔다. 법왕은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 피하면서 은근히 탄복을 금치 못했다. 주백통은 그가 자기에게 욕을 먹고도 병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의기양양하여 다시 외쳤다.

[그녀는 분명히 너를 사부로 모시지 않으려고 했어. 그렇지? 그런데 너는 굳이 그녀를 거두어 제자로 삼으려고 했던거야, 그렇지?]

법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백통이 다시 말했다.

[봐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네가 그녀를 골짜기 아래로 밀어 떨어

뜨렸군.]

법왕은 창망한 듯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절대로 그녀를 밀지 않았소. 그녀가 무엇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 노승도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소.]

황용은 정신이 점차 안정되자 이를 악물고 수중의 죽봉을 들어 갑자기 법왕을 향하여 대들었다. 그녀는 <봉(封)>자 구결을 사용하여 봉영이 나부끼는 가운데 즉시 법왕의 몸 앞 몇 척의 땅을 모두 차단했다. 황용은 이 1척도 채 되지 않는 돌다리 위에서 사랑하는 딸을 비참하게 잃은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일초 일초가 모두 살수였다.

법왕은 무공이 비록 그녀보다 뛰어났지만 감히 맞서 다투지를 못했다. 그녀의 봉법이 정묘하고 기이한 것을 보고 그녀와 몇 초를 겨루었다가 주백통이 와서 도와 준다면 그가 처한 곳의 지세가 너무 위험하여 도저히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왼발을 한 번 짚어서 뒤로 세 척 정도 물러나 길게 휘파람을 불면서 홀연 황용의 머리 위로 날아서 지나갔다. 황용의 죽봉이 위로 공격하자 법왕은 은륜을 비껴들어 막았다. 황용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되돌아 왔다. 주백통이 손과 발을 교차하며 이미 법왕과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법왕은 스스로 대중사의 신분임을 자부하고 있는 터라 상대방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즉시 오른을 허리에 꽂고 빈 손으로 반격했다. 황용은 돌다리에서 뛰어 돌아와 죽봉으로 그의 뒤를 찔렀다.

법왕은 용상반야공을 연마한 뒤로 오늘에야 비로소 상대할 만한 고수를 만나 한 번 시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주백통이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하자 그도 함께 주먹으로 반격했다. 두 사람의 주먹이 아직 서로 접촉하기도 전에 팍팍, 펍펍, 경미한 폭발음이 일어났다. 주백통은 깜짝 놀라 상대방의 권력이 괴이함을 알고 감히 강하게 맞서지를 못하고 팔꿈치를 약간 낮추어서 이미 공명권의 무공을 사용했다. 공명권의 힘은 비록 용과 같은 큰 힘은 없다하더라도 1천 근에 가까워서 혈육을 가진 몸체라면 결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법왕은 주백

통의 권력과 한번 접촉하자 텅 빈 느낌만 들 뿐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어서 좌장을 처냈다.

주백통은 상대방의 경력이 그야말로 보통이 아니어서 실로 이제껏 만나 보지 못한 적수임을 느꼈다. 그는 천성이 무예를 좋아하여 누가 어떤 장기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면 그와 함께 초수를 겨루어서 일생 동안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강호의 호수를 만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법왕이 펴 내는 이 거대한 힘은 그야말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고 일시에 어느 문도인지를 몰라 곧장 72로의 공명권을 사용하여 허(虛)로 실(實)에 응하고 공(空)으로 강(強)을 맞섰다. 이렇게 되니 비록 법왕의 거대한 힘이 전혀 위무를 떨치지 못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적을 상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왕은 연속으로 수 초를 펴 냈지만 결국 적의 허점은 찌르지 못할 것 같았다. 그가 종적을 감추고 10여 년 동안 각고 수련한 무공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아무런 공이 없게 되자 몹시 초조해졌다. 그 때 등 뒤에서 좌악, 하는 바람소리가 일어나며 황용의 죽봉이 등의 <영태혈(靈台穴)>을 쳤다. 즉시 손을 돌려 일장을 내밀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죽봉은 곧장 두동강이 나고 남은 힘이 미치는 곳에 땅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휘날리며 모래와 돌이 요동쳤다.

황용은 놀라 펄쩍 뛰었다. 이 악승은 당년에도 이미 대단했는데 오늘은 그 때보다 더욱 뛰어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의 일장의 힘은 대단히 강하고 괴이하기 짝이 없어 무슨 무공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정영과 옥무쌍은 황용이 불리한 것을 보고 하나는 옥적(玉笛)을 들고 하나는 장검을 들고 좌우로 나누어 법왕을 공격했다. 황용이 외쳤다.

[조심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쉿강쉿강, 하는 소리와 함께 옥적과 장검이 부러졌다. 법왕은 곽양이 참담한 최후를 맞은 것으로 인하여 오늘은

더 이상 인명을 해치고 싶지 않아 소리쳤다.

[비켜라!]

그는 정,육 두 사람을 더 이상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돌연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영고가 이미 그의 곁에서 공격했다. 법왕은 수 장을 밖으로 뺀어 그녀의 허리와 겨드랑이를 비껴쳤다. 영고의 무공은 본래 황룡에게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수련한 <니추공(泥鰌功)>은 요리 조리 피하는 것이 유리하여 한 줄기 거대한 힘이 쳐 오는 것을 느끼자 두세 번 요동치면서 마침내 이 일격을 피했다. 법왕은 그녀의 무공이 사실은 일류 고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연달아 두 권이 모두 그녀의 극히 괴이한 신법에 의해 빗나가자 저도 모르게 은근히 놀랐다. 그는 자신의 무공을 족히 천하를 횡행할 수 있는 신공이라고 스스로 믿는데 연달아 두 사람도 당해 내지 못하자 약간 겁이 났다. 그는 더 이상 싸움을 끌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잽싸게 왼쪽으로 피했다.

영고는 온힘을 다하여 비로소 법왕의 두 초를 피했는데 그가 물러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잘된 일이었지만 감히 나서서 가로 막지는 못했다. 주백통이 그를 뒤쫓으며 말했다.

[도망가지 마라!]

법왕이 막 장풍을 되돌려 공격하려고 하는데 돌연 획획, 가벼운 소리가 들리며 한 줄기 부드러운 기류가 그의 얼굴로 불어왔다. 바로 일등대사가 펴낸 <일양지> 무공이 정면을 가로막고 있었다. 법왕은 줄곧 이 하얀 눈썹의 노승은 안중에 두지도 않았으니 그의 손가락 하나의 공력이 이토록 심후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

이 때 일등대사의 일양지 공부는 이미 등봉조극(登峯造極), 노화순청(爐火純青)의 경지에 이르러 손가락에서 나오는 강한 기는 온순평화(溫淳平和)한 듯하지만 패연혼후(沛然渾厚)하여 대항할 수가 없었다. 법왕은 깜짝 놀란 나머지 몸을 옆으로 피하고서야 일장을 반격했다. 일등대사는 그의 장력이 매우 사납고 강한 것을 보고 역시 감히 맞서

지 못하고 사뿐히 몇 걸음 물러섰다. 하나는 남조(南詔)의 고승이요, 하나는 서역의 이사(異士)로 두 사람은 일초를 교환하자 어느 누구도 감히 눈앞의 강적을 경시할 수 없었다. 주백통은 그들의 신분을 생각하여 협력하려 하지 않고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일등과 법왕은 본래 서로의 거리가 불과 몇 척이었는데 일장을 공격하면 일지(指)를 반격하며 마침내 갈수록 멀어져서 점점 1장 이상이나 떨어져서 각기 평생의 공력으로 멀리서 서로 공격했다. 황용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일등대사의 머리에서 하얀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라 점차로 짙어지는 게 마치 찔통과 같아서 그가 내공을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황용은 그가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하여 법왕을 대적하지 못할까 봐 매우 걱정되었다. 또한 딸을 처참하게 잃은 것이 마음이 아파 나서서 원수와 한차례 격전을 벌이고 싶었지만 두 사람의 장(掌)과 지(指)가 왔다갔다 하면서 진력이 터져 치익치익, 소리까지 날 지정이라 실로 끼어들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뽕족한 계책이 나오지도 않는데 홀연 머리 위에서 수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오므려 소리를 내면서 법왕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다.

한쌍의 하얀 수리는 길게 울부짖으며 공중에서 법왕의 머리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만약 양과의 신조가 왔다면 법왕이 약간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한쌍의 하얀 수리는 체구는 비록 크지만 보통의 날짐승에 불과하니 그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지금 막 전력을 내어 일등대사와 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늦출 수가 없었지만 쌍조가 돌연 대드는 것을 보자 좌장을 두 번 쳐 올려 두 줄기 장력으로 쌍조를 나누어 공격했다. 쌍조는 이겨내지 못하고 곧장 하늘로 날아 올랐다. 이렇게 한번 다른 곳을 공격하자 일등이 곧 상풍을 점하게 되었다. 법왕은 좌장을 연속으로 격출하여 다시 서로 맞서는 국면을 이루게 되었다.

쌍조는 황용이 휘파람을 불며 쉬지 않고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도 적의 장력이 너무나 강하여 허장성세로 돌연 길게 울부짖으며 아래로 급

히 내려 꽃혔다가는 법왕의 머리에서 1장 남짓 되는 곳에 이르자 그가 장력을 날리기도 전에 일찌감치 날아올랐다. 쌍조가 여기서 내려오면 저기서 올라가고 하자 비록 적을 상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법왕의 정신을 매우 혼란하게 했다. 고수와 대적할 때는 정신을 집중하여 맑게 해야만 내력이 극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법왕의 장력의 강함은 물론 일등보다도 훨씬 뛰어났지만 수심양성의 공은 도리어 훨씬 모자랐다. 지금은 곽양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애석하여 정신이 안정되지 못한데다 쌍조가 다시 뒤흔들어 놓자 더욱 번거롭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정신이 약간 혼란하여 장력이 즉시 감퇴되자 일등은 살며시 웃으면서 앞으로 반 걸음 나아갔다. 황용은 일등이 반 걸음 내딛는 것을 보고 힘껏 소리쳤다.

[곽정, 양과, 모두들 왔군요. 어서 그를 사로잡아요!]

사실 곽정은 그녀의 남편으로 그녀는 결코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은 법왕을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과연 법왕은 <곽정, 양과> 두 사람의 이름을 듣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두 고수가 또 왔으니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바로 이 때 일등은 다시 반 걸음 나아갔다. 공중에 있던 쌍조도 이미 허점을 발견하고 암컷 수리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질풍처럼 내려와 곧장 법왕의 얼굴로 달려들면서 날카로운 발톱을 뻗어 법왕의 눈을 할퀴려 했다. 법왕은 욕을 했다.

[못된 짐승 같으니!]

하며 좌장을 위로 쳐 올렸다. 그러나 암컷 수리의 이 공격은 허초로 그의 얼굴과 1장 남짓 되는 거리에서 이미 거꾸로 날아오르고 수컷 수리가 옆에서 그를 몰래 습격하여 법왕이 알아챘을 때는 왼쪽 발톱이 이미 그의 머리에 닿으려 하고 있었다. 법왕은 놀라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급히 손을 휘두르자 수리의 배에 정통으로 맞았다. 수컷 수리는

그의 머리에 있는 금관을 나뉘채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올랐다. 그러나 법왕의 이 휘두르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그 수컷 수리는 비록 공중으로 날아오르기는 했지만 몸에 중상을 입어 끝내 지탱하지 못하고 돌연 빙그르르 돌더니 절벽 밑 만장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들어갔다.

황용, 정영, 육무쌍, 영고는 모두 그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주백통은 대로하여 호통을 쳤다.

[더러운 화상. 노완동은 강호의 법규니 뭐니 하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자, 둘이서 상대해 주마.]

몸을 날려 공명권을 휘두르면서 법왕의 등을 공격했다.

그 암컷 수리는 수컷 수리가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들어간 것을 보고 목놓아 길게 울며 구름과 안개를 뚫고 따라서 내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금륜법왕은 앞뒤에서 적이 대들자 우선 겁이 났다. 그의 무공이 비록 높지만 어떻게 양대 고수의 협공을 당해 낼 수 있단 말인가? 감히 더이상 싸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쳇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금륜과 은륜을 동시에 던져 앞으로는 일양지를 막아내고 뒤로는 공명권을 막아내며 두 내력이 협력하는 가운데 몸을 옆으로 기울여 왼쪽으로 빠져나와서 그는 어느덧 산모통이를 돌아가고 있었다. 주백통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 갔다.

법왕은 쉽게 몸을 빼내자 숨을 몰아쉬며 급히 뛰었다. 다시 주백통과 얹혀 싸운다면 수백 초 안에는 승패를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 하얀 눈썹의 노승이 기회를 노려 공격한다면 자기의 늙은 목숨도 이 절정곡에서 장사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방이 울창하고 뻥뻥한 수림임을 보고 막 숲속으로 뛰어 들려고 하는데 돌연 치익 하는 소리가 급하게 들리더니 조그만 돌맹이 하나가 숲속에서 날아왔다.

수림은 그와 아직도 1백여 보 떨어져 있는데 이 돌맹이는 어떤 신력으로 던진 것인지 형체는 비록 작지만 공기를 가르며 나는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게 먼문을 향하여 질풍같이 날아왔다. 법왕이 은륜을 들어 막아내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돌맹이는 바위에 부딪쳐 즉시 수십 개의 가루로 부서져 사방으로 날리고 얼굴에도 두 조각이 날아왔는데 비록 돌가루가 미세하여 그를 해치지는 못했지만 은근히 통증이 밀려왔다. 법왕이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조그만 돌맹이를 던진 사람의 공력은 결코 저 노화상과 노완동에 뒤지지 않는다. 어떻게 천하에 이런 고수가 있을까?)

그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숲속에서 한 청포 노인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커다란 소매를 나부끼는데 자못 출진(出塵)의 아치가 있었다. 주백통이 몹시 기뻐하며 외쳤다.

[황노사! 이 더러운 화상이 당신의 외손녀를 죽였소. 어서 함께 그를 사로 잡읍시다.]

숲속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도화도주 황약사였다. 그는 양과와 이별한 뒤에 복상하여 강호를 천천히 노닐다가 하루는 어느 조그만 마을의 주점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있는데 돌연 쌍조가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딸이 아니면 두 외손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뒤따라와서 절정곡에 이른 것이었다. 그는 딸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아 멀리서 뒤따라 오다가 일등과 주백통이 따로 금륜법왕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서장승은 실로 평생에 만나기 힘든 고수라고 생각하여 저도 모르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손을 쓴 것이다.

법왕이 쌍륜을 부딪치자 땡, 하는 소리가 나는데 마치 용이 우는 것 같았다.

[당신이 바로 동사 황약사요?]

황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대사는 나를 어떻게 아시오?]

[내가 서장에 있을 때 중원에는 오직 동사, 서독, 남제, 북개, 중신통 다섯 사람만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만나 보니 과연 명불허전(名不虛傳)이로군. 나머지 네 사람은 어디 있소?]

[중신통과, 북개, 서독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고 이분 고승이 바로 남제요. 이 분 주형은 중신통의 사제요.]

주백통이 말했다.

[만약 우리 사형께서 살아 계시다면 네가 그의 열 초를 당해 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때 세 사람은 정(丁)자의 형세로 서서 법왕을 중간에 포위하고 있었다. 법왕은 일등대사를 보고 주백통을 쳐다보고 다시 황약사를 쳐다보며 길게 탄식을 하더니 오릐을 땅에 내 던지고 말했다.

[단독으로 싸운다면 노승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소.]

주백통이 말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화산 절정에서 논점하여 무공 천하 제일의 칭호를 다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너와 단독으로 다투려 하겠느냐? 더러운 화상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으니 너 스스로 자결을 해라.]

법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중원의 오대 고인(高人) 중에 지금 그 둘을 만났으니 노승은 세 분의 손에 죽어도 억울함은 없소. 다만 애석한 것은 용상반야공이 노승에 이르러 끊어져 이로부터 이 세상에 다시는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우장을 들어 자기의 천령개를 내리쳤다.

주백통은 <용상반야공>이라는 말을 듣고 한 가지 생각이 난 듯 얼른 다가가 팔을 뻗어 그의 이 일장을 막으며 말했다.

[잠깐!]

법왕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노승은 죽으면 죽었지 욕을 받지는 않겠소. 어쩔 셈이오?]

주백통이 말했다.

[너의 이 용상반야공인가 뭔가 하는 것은 과연 대단하니 이로부터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만 애석할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애석하다. 우선 나에게 전수해 주고 다시 자진(自盡)을 해도 늦지는 않을 텐

데...!]

그의 말투에는 매우 정성스럽고 간절한 뜻이 담겨 있었다.

법왕이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푸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암컷 수리가 수컷 수리를 등에 지고 깊은 골짜기에서 날아 올라 오는 데 쌍조의 몸이 모두 축축하게 젖은 것이 골짜기 아래는 연못임이 분명했다. 수컷 수리는 깃털을 휘날리며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는데 오른쪽 발톱에는 여전히 법왕의 금관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암컷 수리는 수컷 수리를 내려놓은 뒤에 갑자기 몸을 돌려 다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다시 올라왔을 때는 등에 한 사람이 엮드려 있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곽양이었다.

황용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여 크게 소리쳤다.

[양아. 양아!]

황용은 급히 달려가 그녀를 수리의 등에서 껴안아 내렸다.

법왕도 곽양이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보고 역시 멈칫했다. 주백통은 그의 팔을 짊 잡고 오른쪽 눈을 일등에게 깜빡 하고 왼쪽 눈을 황약사에게 깜빡 하여 귀신 흉내를 내었다. 동사, 남제가 두 손을 나란히 뻗자 법왕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가슴이 동시에 손가락에 맞았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비록 그의 요해를 정통으로 맞추었다고 해도 혈도가 막히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사, 남제의 두 손가락은 당금지세에 그야말로 제 3자가 없는, 하나는 정미오묘한 <탄지신통>이요, 다른 하나는 귀신 같은 현공(玄功)인 <일양지>이니 법왕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휘청거렸다. 주백통이 손을 뻗어 그의 등에 있는 <지양혈(至陽穴)>을 한번 더 치고 웃으며 말했다.

[누워 있어!]

법왕은 두 다리가 풀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일등 등의 세 사람은 이를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각기 놀라고 있었다.

(이 서장승은 정말로 무시무시 하구나. 몸에 연속으로 세 번이나 심

한 타격을 받고도 여전히 쓰러지지 않다니....)

세 사람은 곽양의 곁으로 뛰어가 웃음을 머금고 위로를 하려는데 그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빨리....., 빨리 가서....., 그를 구해 주세요!]

그녀는 이 몇 마디를 말하고는 심신이 괴로운 듯 기절해 버렸다. 일등은 그녀의 팔목의 맥을 짚어 보고 말했다.

[별탈은 없습니다. 단지 놀랐을 뿐입니다.]

일등은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몇 번 밀었다. 얼마 후 곽양은 서서히 깨어나 말했다.

[큰오빠는요?올라왔어요?]

황용이 말했다.

[양과도 아래에 있니?]

곽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다.

[당연하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아래에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뛰어내려 갔겠어요?)

황용은 딸의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것을 보고 물었다.

[아래는 연못이냐?]

곽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눈을 감고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다는 듯 손가락으로 깊은 골짜기를 가리켰다. 황용이 말했다.

[양과가 골짜기 아래에 있다면 다시 수리를 보내 그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즉시 휘파람을 불어 수리를 불렀다. 그러나 계속하여 몇 번을 불러도 쌍조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황용은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수십 년 동안 쌍조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곧 날아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자기의 휘파람 소리를 듣지 못한 척하는

가?

그녀가 다시 길게 휘파람을 불자 그 암컷 수리는 두 날개를 펴덕여 높이 날아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몇 번 맴을 돌며 슬프게 울부짖더니 사납게 공중에서 곧장 아래로 치달렸다. 황용은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다.

(아차!)

수리를 크게 불러 보았다.

[조아(鳥兒)!]

그 암컷 수리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부서지고 날개가 부러져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그 암컷 수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암컷 수리가 이토록 깊고 두터운 정의가 있음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황용은 어렸을 때부터 쌍조와 함께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더욱 상심하고 비통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육무쌍의 컷가에는 홀연 사부 이막수의 버들가지처럼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느뇨?

천지간을 나는 두 마리 새야.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여름과 겨울을 함께 맞이했는가?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여인이 있어.

임께서 응답해 주셔야지, 아득한 만 리에 구름 가득하고,

은산에 저녁눈 내릴 때,

한 마리 외로운 새가 누구를 찾아 날아갈 지를..?]

그녀가 어려서 이막수를 따라 무예를 배울 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면 항상 사부의 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당시에는 세정(世情)을 겪

지 않아 꼭에 담긴 깊은 뜻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수컷 수리가 죽은 뒤에 암컷 수리가 따라 죽은 것을 보고 생각했다.

(만약 이 암컷 수리가 죽지 않았다면 이후에 만리층운 눈 덮인 산을 외로이 혼자 날아다닐 것이니 어찌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녀의 두 눈도 어느덧 붉게 충혈되었다.

정영이 말했다.

[사부, 사자, 양오빠가 연못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구해 내면 좋을까요?]

황용은 눈물을 훔치고 딸에게 물었다.

[양아, 골짜기 아래는 어떻게 생겼더냐?]

곽양은 점차 정신이 회복되어 말했다.

[나는 떨어지자 곧장 물 속으로 깊이 빠져서 정신이 없이 연거푸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나중에는 어떻게 수면으로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오빠가....., 양오빠가 내 머리카락을 잡고 나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황용은 약간 마음을 놓으며 말했다.

[연못 옆에 암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곳에 몸을 쉴 수 있지, 그렇지?]

[연못 옆에는 온통 커다란 나무뿐이었어요.]

황용은 <음!> 하고 소리를 내고 다시 물었다.

[너는 왜 뛰어 들었지?]

[양오빠가 나를 잡고 제일 첫마디로 물은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그 금침을 꺼내어 그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몸을 소중히 보호하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러 왔어요.> 라고. 그는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어 수컷 수리가 떨어져 내리고 이어서 암컷 수리가 수컷 수리를 떠메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 나를 업고 올라왔어요. 나는 양오빠에게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안아 수리의 등에 태웠어

요. 엄마, 조아에게 다시 내려가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황용은 그녀에게 쌍조가 이미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겹옷을 벗어 그녀의 몸을 덮어 주며 고개를 돌려 말했다.

[보아하니 과아는 아직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서 길다란 줄을 만들어 그를 끌어 올립시다.]

사람들은 일제히 옳다고 말하고 각기 흩어져 나무껍질을 벗겼다.

각자는 잠시 동안에 꽤 많은 나무 껍질을 벗겼다. 정영, 육무쌍, 영고가 질긴 껍질로 밧줄을 꼬고, 일등, 황약사, 주백통, 황용 네사람은 손으로 벗기고 칼로 가르며 나무껍질을 벗겼다. 이 네 사람은 당대 무림 최고의 고수였지만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보통 숙련공만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캄캄하게 되어서야 1백여 장의 밧줄을 꼬았으나 여전히 많이 모자랐다. 정영은 밧줄의 한쪽 끝에 바퀴를 하나 매달고 다른 한쪽 끝은 커다란 나무에 맨 뒤, 밧줄을 계속 이었다. 밧줄은 점차 길어져서 안개를 뚫고 깊은 골짜기로 드리워졌다.

이 일곱 사람은 내력이 넘쳐 흘러 밤새도록 조금도 쉬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광양도 도왔다. 황용은 그제사야 그녀가 금륜법왕에게 잡힌 과정을 대략 몇 마디 물어 보았다.

밧줄은 계속 길어졌지만 양과는 골짜기 아래에서 아무런 소식도 보내지 않았다. 황약사가 옥통소를 꺼내 불자 그 소리가 서서히 퍼져 곧장 골짜기 밑으로 전해졌다. 보통 때라면 양과가 통소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긴 휘파람으로 대답할 텐데 황약사의 옥통소가 한 곡을 이미 끝냈는데도 골짜기에는 오직 하얀 안개만이 허공을 가로지를 뿐 아무 소리도 없었다.

황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검을 꺼내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검끝으로 나무에 글씨를 새겼다.

<무사한지 어떤지 회답을 바람.>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아래로 던졌다. 한참이 지나고 다시 한참이 지나도 골짜기 밑에서는 끝내 회답이 없었다. 각자는 서로 얼굴만 쳐다

보며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정영이 말했다.

[비록 골짜기가 깊지만 밧줄은 이미 다 내려갔을 꺼예요. 내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주백통이 외쳤다.

[내가 먼저 가지!]

하며 다른 사람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줄을 잡고서 주르륵 소리와 함께 안개를 뚫고 미끄러져 들어가 찰나간에 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그가 마치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줄을 타고 올라왔는데 수염과 머리카락에는 온통 이끼가 묻은 채 계속 고개를 저으며 올라왔다.

[그림자도 없어. 그림자도! 양과는 고사하고 우과(牛過), 마과(馬過)도 없어.]

사람들은 일제히 곱양을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모두들 의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곱양은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양오빠가 분명히 아래에 있는데 없단뇨? 그는 물가의 커다란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정영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줄을 타고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가자 육무쌍도 뒤따랐다. 이어서 영고, 주백통, 황약사, 일등 등이 하나하나 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황용이 말했다.

[양아! 너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내려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라. 너의 양오빠가 만약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 반드시 그를 구출해 올라올 수 있을거다, 알았느냐?]

곱양은 마음이 조급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황용은 땅에 앉아 있는 금륜법왕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가 혈도를 눌렀으니 열두시간은 갈 것이지만 이 사람의 내공이 기이할 정도로 높아서 자신의 신기에 혈도가 풀릴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다가가 등에 있는 영태(靈台), 가슴 아래에 있는 거궤(巨闕), 두 팔에 있는 청냉연(淸冷

淵)을 다시 몇 번 누르고서야 줄을 타고 골자기를 내려갔다.

손을 약간 풀자 몸이 따라 내려가는 것이 갈수록 빨라졌다. 황용은 중간에서 밧줄을 꼭 잡아 떨어지는 기세를 약간 늦추고 다시 손을 풀기를 몇 차례를 반복하여 마침내 골짜기 밑에 이르렀다. 깊은 골짜기 아래는 과연 푸른 물이 고인 깊은 연못이었는데 황약사 등이 연못가에서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양과의 종적이 없었다. 또한 연못 왼쪽의 몇 그루 커다란 나무 위에는 여기저기 30여 개의 커다란 벌집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는데 벌집을 맴돌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은 모두 옥봉이었다. 황용은 한 가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주대형, 벌을 잡아서 한번 보세요. 날개에 글씨가 써어 있는지요.]

주백통은 그녀의 말대로 옥봉을 한 마리 잡아서 자세히 살펴보고는 말했다.

[글씨는 없어.]

황용은 골짜기 주위의 정세를 살펴보니 사방은 모두 1백 장이 훨씬 넘는 가파른 절벽이라, 통하는 길이 없고 연못가의 커다란 나무는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어 그 이름을 알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구름과 안개가 골짜기를 막아 해를 보기도 어려웠다. 한창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주백통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는 있어. 여기에는 있다고.]

황용이 가서 살펴보니 그 옥봉의 두 날개에는 과연 <나는 절정곡 아래에 있다 (我在絕情谷底)라는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열쇠는 아무래도 이 질푸른 연못 속에 있는 것 같았다.

황용은 연못가에 있는 일곱 사람 중에 자신의 수영 솜씨가 가장 좋아 대략 준비를 하고 구화옥로환(九花玉露丸) 하나를 꺼내 입에 물고 물 속의 무슨 독충이나 뱀에 대비한 다음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연못은 매우 깊어서 황용은 급히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 속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차가워서 나중에는 한기가 뺨속까지 스며들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니 사방이 남색과 청색이 어우러진 것이 두

터운 얼음이 언 것 같았다. 황용은 은근히 놀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깊이 숨을 몇 번 들이 마시고 다시 잠수해 들어갔다. 그러나 매우 깊은 곳까지 잠수해 들어가자 한 줄기 거대한 저항력이 황용을 밀어 붙였다. 황용은 전력을 다했지만 바닥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추위도 견디기 힘들고 사방에는 아무런 특이한 것도 없어서 되돌아 올라오는 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입술이 얼어서 새파랗게 질리고 머리카락 위도 새하얗게 옅은 얼음이 한 층 서린 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영과 육무쌍이 서둘러 나뭇가지를 꺾어 그녀 곁에 모닥불을 피웠다.

곽양은 어머니가 사람들과 함께 줄을 타고 하나하나 연못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큰 오빠가 올라오지 않으려고 한다 해도 외할아버지와 엄마가 데리고 올라오시겠지. 도대체 그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설마 용언니가 죽었던 말인가? 영원히 다시는 그와 만날 수 없단 말인가?)

한참 뉘를 놓고 있는데 홀연 금륜법왕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크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곽양이 몸을 돌려 가까이 가 보니 그의 얼굴 근육이 떨리고 있는 것이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곽양은 흥, 하고 코방귀를 꾸며 말했다.

[이건 당신이 죄를 지은 벌을 받는 거예요. 누가 당신보고 멋대로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법왕은 <아이고, 아이고!>하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눈빛에는 간절히 뭔가를 바라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곽양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그래요? 많이 아파요?]

[너의 엄나가 나의 등에 있는 영태혈과 가슴 아래에 있는 거결혈을 눌러서 나는 온몸이 마치 천만 마리의 개미가 물어뜯는 것처럼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녀는 왜 나의 전중혈(전中穴)과 옥침혈(玉枕穴)은 누르지 않았지?]

곽양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점혈, 불혈의 방법을 배웠는데 <전중>과 <옥침>은 인체의 요혈 중의 요혈로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는다면 곧 목숨을 잃는 줄 알고 있었다.

[엄마가 잠시 당신을 살려 주었는데 당신은 감격할 줄은 모르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범왕은 고개를 뺏히 쳐들고 말했다.

[그녀가 만약 나의 전중, 옥침 두 혈을 눌렀다면 나의 가슴과 등이 마비되어 이런 고통을 덜 수 있었던 말이다. 내가 이토록 심후한 수련을 쌓았는데 목숨을 구걸 하겠느냐?]

곽양은 믿지 않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전중과 옥침은 한번 부딪치기만해도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우면 힘껏 한 번 참아 보세요. 그들은 금방 돌아올 거예요.]

범왕이 말했다.

[곽아가씨, 나는 줄곧 너를 어떻게 대했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장수귀와 대두귀를 죽이고 또 우리 쌍조를 죽였으니 나를 더 잘 대해 줘도 어쩔 수 없어요.]

[좋아,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 보상해야 하니 네가 나를 죽여서 너의 친구들의 원수를 갚으면 되겠지. 그러나 내가 줄곧 너를 잘 대했는데 너는 도리어 내게 어떻게 보답했지?]

[어떻게 보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전중혈과 옥침혈을 한번 힘껏 눌러서 나의 이 고통을 덜게 해 준다면 내게 보답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곽양은 쉬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죽이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대장부의 말은 산과 같은 것! 네가 나의 이 두 혈도를 눌러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너의 엄마가 되돌아오면 나는 그녀에게라도 청할 텐데 왜 가벼이 죽으려고 하겠느냐?]

곽양은 그가 간절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내가 우선 가볍게 한번 시험해 보자.]

손가락을 뺨에 그의 가슴에 있는 전중혈을 가볍게 한번 누르자 법왕은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과연 많이 좋아졌어. 다시 한번 힘껏 해 봐.]

곽양이 힘을 더하자 그는 눈썹을 펴 한번 웃고는 조금도 부상을 당한 흔적이 없이 다만 안색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다시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두번 변하더니 말했다.

[더 힘껏!]

곽양은 부모가 가르쳐 준 점혈법에 의하여 그의 전중혈을 다시 한번 세게 눌렀다. 법왕이 말했다.

[좋아! 이제 가슴에 아무런 고통도 없어! 봐라, 죽지 않잖아! 안 그래?]

곽양은 매우 이상하여 말했다.

[다시 당신의 옥침혈을 누를게요!]

처음에는 역시 가볍게 시험을 해 보고 나서 힘껏 눌렀다. 법왕이 말했다.

[고마와. 고마와!]

그는 눈을 감고 몰래 운기를 하더니 돌연 필쩍 뛰어 일어나며 말했다.

[가자!]

곽양은 크게 놀라 외쳤다.

[당신....., 당신은...]

법왕은 왼손으로 그녀의 팔목을 나꿔채며 말했다.

[빨리 가자. 나 금륜법왕의 무공은 천하에 독보적인데 설마 이 <추경전맥, 역궁환혈(推經轉脈 易宮換穴)>의 조잡한 무공도 못 할 줄 알았느냐?]

하고 말한 뒤 두 발을 짚어 곽양을 데리고 앞으로 뛰어갔다. 곽양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사람을 속였어. 당신은 사람을 속였어!]

곽양은 몹시 후회스러웠다.

(나는 견식이 너무 짧아 이런 조잡한 무공도 모르는구나.)

그녀가 어떻게 이 <추경전맥 역궁환혈>의 기이한 무공이 조잡한 무공인지 알 수가 있겠는가? 사실 그것은 서장밀종의 극히 오묘하고 어려운 내공으로 그 기묘함이 비록 구양봉의 전신의 경맥을 역전시키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매우 수련하기 어려운 괴이한 신공 중의 하나였다. 곽양이 그의 전중, 옥침 두 혈을 누를 때에 그는 이미 몰래 추경전맥, 역궁환혈로 다른 두 혈도를 풀었던 것이다. 곽양이 손가락을 댈 때는 그의 목숨을 해칠까 봐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그가 혈도를 풀도록 도와 준 것이다.

금륜법왕은 곽양을 데리고 몇 장을 뛰어가다가 돌연 한 가지 독계가 생각났다. 두 그루 커다란 나무에 그 길다란 밧줄이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만 끊으면 주백통, 일등, 황약사, 황용 등이 분명히 깊은 골짜기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뛰어가서 길다란 밧줄을 움켜쥐고 힘을 주어 비틀어서 끊어 버리려고 했다.

곽양은 크게 놀라 팔꿈치로 그의 겨드랑이를 쳤다. 법왕은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그녀에 대해서는 조금도 방비를 하지 않았던 터라 이 팔꿈치는 마침 <연액혈(淵掖穴)>에 맞아 반신이 마비 되는 것을 느끼며 순식간에 온몸의 힘이 쭉 빠졌다. 곽양은 힘껏 뿌리쳐 그의 팔목에서 벗어나 두 손으로 그의 등을 힘껏 밀며 외쳤다.

[너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이 악독한 화상아!]

법왕은 크게 놀라 몰래 내력을 움직여 혈을 뚫으며 하하, 하고 웃으며 말했다.

[너같은 이런 하잘 것 없는 무공으로 나를 꿈쩍하게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곽양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 하면 안 되는데 법왕의 혈도가 아직

폴리지 않았으니 힘껏 그를 밀어서 골짜기로 떨어뜨려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몰랐다. 아니면 어서 빨리 손을 써서 그의 몸에 있는 여러 곳의 혈도를 계속 누르면 제아무리 법왕이라도 추경전맥, 역궁환혈을 쓸 겨를이 없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먼저 그의 전중과 옥침, 두 요혈을 누른 것이 도리어 그가 혈도를 푸는 것을 도와 준 꼴이 된 것을 보고 다시 눌러 봤자 소용이 없음을 알고 즉시 몸을 솟구쳐 벼랑 곁으로 가서 말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죽을 꺼야!]

하며 깊은 골짜기로 뛰어들려고 했다.

법왕은 깜짝 놀라 진기를 들이마셔 곽양에게 눌린 <연액혈>을 완전히 뚫고 밧줄을 비틀어 자를 겨를도 없이 그녀에게 뛰어갔다. 곽양은 훌쩍 뛰어 돌과 큰 나무 사이로 이리저리 뛰었다. 만약 평지에서였다면 법왕은 단 두 번만 뛰면 벌써 쫓아갔겠지만 단장에 앞은 가는 곳마다 괴이한 나무와 돌 뿐이어서 곽양이 동쪽으로 뛰었다 서쪽으로 뛰었다 하니 잠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녀와 미로를 헤매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서 <안락평사(雁落平沙)> 일초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날아 내려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곽양은 입을 벌려 크게 소리 질렀다.

[엄마아!]

하고 한마디 소리를 지를 때 법왕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바로 이때 멀리서 옥무쌍의 소리가 들려왔다.

[양이. 어디 갔지?]

법왕은 흠칫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깝다. 아까와! 끝내 시기를 놓치고 말았구나!)

그는 손가락을 뺀어 곽양의 아혈(啞穴)을 누른 뒤 그녀를 데리고 재빨리 달아났다. 사실 아직까지는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었다. 옥무쌍 한 사람만이 올라왔으니 그가 재빨리 뛰어가서 밧줄을 끊어 버린다면 옥무쌍 혼자서 또한 어떻게 그를 막겠는가? 다만 그는 주백통, 일등,

황약사 등에게 이미 쓴 맛을 보았다가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는데 홀연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황약사 등이 이미 함께 올라온 줄로 알고 감히 다시 다가서지 못했던 것이다.

황용등은 골짜기 아래에서 자세히 살폈지만 더 이상 아무런 종적을 찾지 못하고 사방에 핏자국 같은 것도 없어서 양과가 아직 불행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여 우선 돌아가서 다음의 행동을 정하기로 했다. 줄을 타고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이 육무쌍이었고 그 다음은 정영, 영고 였다.

황용이 올라왔을 때 정영 등 세 사람이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아! 양아! 어디있니?]

황용은 딸과 법왕이 함께 종적을 감춘 것을 보고 이는 그야말로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급히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 살펴보았다. 이어서 황약사, 일등, 주백통이 하나하나 올라와 일곱 사람이 절정곡을 두루 찾아 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두 사람의 종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골짜기 입구까지 찾아 나왔는데 땅에 곽양의 신발 한짝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정영이 말했다.

[사자,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분명히 그 법왕이 양아를 데리고 이 길로 남쪽으로 갔을 거예요. 양아가 신발을 남겨 놓아 우리에게 알도록 한 거예요. 양아의 총명과 기지는 실로 엄마에게 뒤지지 않는군요.]

황용은 딸이 이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법왕은 단지 그녀를 다그쳐 그를 사부로 삼도록 하고 그녀에게 의발을 전해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별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 같아 황용은 비로소 걱정하는 마음이 약간 줄어들었다.

망루에 묶인 영웅의 딸

일행은 길을 따라 남으로 내려오며 계속해서 법왕과 곽양의 종적을 수소문 했다. 길을 떠난 지 며칠 만에 남북 양로의 몽고 대군이 양양을 협공해 성 밑에서 송나라 군사와 여러 차례의 접전을 벌여, 양양의 정세가 매우 다급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황용은 속으로 매우 걱정이 되어 말했다.

[몽고놈들이 맹렬하게 양양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만 합니다. 양아의 행방은 부득이 다음번에 찾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찬성을 했다. 황약사, 일등, 주백통 등은 원래 사물을 초월해 세상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고사(高士)였으나 양양에서의 일전이 대송(大宋)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이 있음을 알고서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촌각의 지체도 없이 말을 달려서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양양성의 교외에 도착했다. 호각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어지럽게 들려와 멀리 바라보니 수많은 깃발이 펄럭이고 칼과 창은 숲을 이루고 있으며 말들이 부지런히 사방으로 움직여 양양성은 마치 커다란 흙먼지 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다. 이 때 이미 몽고의 대군은 성 밑에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황용이 말했다.

[적군의 기세가 등등하니 비록 늦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성으로 들어가야겠군요.]

그 때 일곱 사람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는 모두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으나 주백통만은 가볍게 웃고 있었다.

이경(二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황용이 앞장서서 적의 군영에 뛰어들었다. 이 일곱 사람의 경공이 비록 대단하다고 하지만 몽고 군영이 첩첩이 양양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그들이 군영을 겨우 반 정도 통과할 때 순찰을 돌던 몽고의 소교(小校)에게 결국 발각되었다. 군중

에 있던 북이 울리고 징이 울리자 즉시 3대의 백부대(百夫隊)가 그들을 포위해 들어왔다. 다른 군영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고요했다.

주백통은 2개의 긴 창을 빼앗아 선두에 섰고 황약사와 일등은 각각 방패를 하나씩 들고는 뒤로 돌아서서 추격해 오는 몽고병을 막았다. 나머지 4명의 여자들은 이러한 가운데 급히 앞으로 치달렸다. 마침 몽고병의 진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와 말이 다칠까 봐 두려워서 감히 활을 쏘지 못하여 오히려 무서운 병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광활한 평지였다면 수만 개의 화살이 빗발쳐 주백통, 황약사에게로 간다면 어찌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있었겠는가! 일곱 사람은 한편으로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진했다. 적병들도 점점 많아져서 수만 개의 긴 창들이 일곱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 주백통, 황약사 등의 장풍이 미치는 곳곳마다 몽고병의 창과 칼이 끊어지고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시체가 가득히 쌓였다. 그러나 위낙 사납고 용감한 몽고병인지라 다시 몰려들어 결코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황노사, 우리들 세 늙은이의 목숨은 이곳에서 끝날 것 같으니 당신이 무슨 계책을 마련하여 이 네 명의 어린 아가씨를 구하도록 합시다.]

영고가 코웃음을 쳤다.

[세 명이잖아요? 나 같은 늙은 할망구가 어찌 어린 아가씨란 말이오? 우리 모두 죽는다고 해도 이 세 명은 구해야 합니다.]

황용이 속으로 생각했다.

(노완동은 원래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이런 맥빠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적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마침내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형세가 매우 불리하구나!)

눈앞 사방에 적병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드니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 몇 개의 군영을 통과하자 황용은 왼쪽에 2 개의 검은색 큰 장막이 펼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일찌기 징기스칸을 따라서 서정(西征)에 참가해 군수품과 양식을 비축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 순간 무엇인가 뇌리를 스쳤다. 황용은 재빨리 달려들어 적병의 수중에 있던 불을 빼앗아 그 곳을 향해 달렸다. 몽고병들이 소리를 지르며 뒤쫓았다. 황용은 신속하게 움직여 고개를 숙이고 이미 군영을 뚫고 들어가 불을 높이 들고는 순식간에 2 개의 군수품 장막의 7,8 군데에 불을 붙이고 다시 튀어나와 주백통 등과 합류했다.

군수품이 있던 장막은 쉽게 잘 타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 불길 이 한 번 스치자 즉시 무서운 기세로 훨훨 타오르기 시작했다. 주백통은 이 광경이 매우 재미있게 보여서 긴 창을 버리고 2 개의 불을 빼앗아 들고 이곳저곳에 불을 질렀다. 그는 무의식중에 마룻간에 불을 붙여 버렸다. 그러자 즉시 전마(戰馬)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달려 나와 몽고의 대영은 일시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곽정은 성 안에서 북문 밖에 있는 적의 진지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급히 성 위로 올라가 몽고의 군영 중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 적을 교란시키고 있음을 알고는 급히 무돈유, 무수문 형제에게 군마 2 천 마리를 이끌고 성을 나가 응전하도록 명령했다.

두 형제는 성을 나서서 얼마를 달리자 치솟는 불길 가운데 황약사가 육무쌍을 부축하고 일등이 주백통을 부축해 일곱 사람이 5 마리의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형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솔해 온 인마를 즉시 포진시켜 쫓아오는 적병의 말 다리에 화살을 쏘도록 명령해 몽고병들의 추격을 저지시켰다. 그들은 마침내 황용 등을 엄호하여 천천히 성으로 되돌아왔다.

곽정은 성 위에서 장인과 사랑하는 아내, 일등대사, 주백통 등이 오는 것을 보고는 몹시 기뻐서 급히 성문을 열고 그들은 맞이했다. 육무쌍은 허리가 창에 찔렸고 주백통은 등에 3 발의 화살을 맞았고 긴 수염

과 머리는 온통 불에 타 버렸다. 보아하니 두 사람이 입은 상처가 결코 가벼운 것 같지 않았다. 정영, 황용, 영고도 모두 화살에 상처를 입었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일등과 황약사는 모두 의술이 뛰어났는데 주백통과 육무쌍 두 사람의 상처를 보고 난 후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단황야 황노사! 당신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노완동이 비록 피를 많이 흘렸어도 결코 죽지는 않을 테니...., 나보다 저 어린 육무쌍에게 정성을 쏟아 그녀를 잘 치료해 주는 것이 좋겠소.]

그는 웃으면서 황약사의 웃음 띤 얼굴을 줄곧 바라보았으나 일등에게는 매우 엄격했다. 아니, 엄숙할 뿐만 아니라 약간 그를 두려워 하는 것 같았다. 일등이 출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단황야> 라고 칭했다. 황약사와 일등은 그가 강인하게 고통을 참자 웃으며 얼마간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육무쌍은 아직도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다음날 동녘이 밝아 오자 성 밖에서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몽고의 대군이 공격해 왔다. 양양성의 안무사 여문덕과 수성장군 왕견은 병마를 이끌고 4 개의 문을 굳게 지켰다. 광정과 황용은 성 위에 올라 아래를 바라보니 몽고의 대병이 산과 들에 가득해서 그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몽고대군이 일찌기 수차에 걸쳐서 양양을 공격했는데 그 기세의 등등함이나 병력으로 보아 이번이 제일인 것 같았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광정이 오랫동안 몽고의 군중에 있어서 몽고병이 성을 공격하는 모든 방식을 알고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적군이 화살을 사용하든 화기(火器)를 사용하든 혹은 누석(壘石)과 사다리를 이용해서 공격해도 성을 지키는 송나라의 병사들은 높은 성 위에서 하나하나 쳐부수었다. 전투는 해가 서산으로 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몽고군은 이미 2 천여의 인마를 잃었는데도 앞에서 쓰러지면 뒤에서 계속 이어져 끝없이 성을 공격했다.

양양의 성 안에는 수 만의 정예병 이외에도 수십 만의 백성이 있었

는데 그들은 일단 이 성이 함락된다면 아무도 살아 남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정들은 당연히 창을 잡고 성을 지켰으며 부인과 노약자까지 흠과 돌을 날라서 모두 강적 몽고에 대항했다. 일시에 성 안팎의 기세가 천지를 진동하더니 마치 메뚜기떼가 밀려 오듯 공중에서 화살이 날아가고 날아왔다.

곽정은 손에 장검을 잡고 성 위에서 싸움을 독려했다. 황용은 그의 곁에 서서 하늘에 저녁놀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다시 성 밑에 적군이 말을 달려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은근히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곽정이 늠름하게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속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모의 정이 차올랐다. 그들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며 신뢰했는데 오늘 강적이 이처럼 밀려들자 다시 그들을 격퇴시킬 수 있을지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었다. 황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와 남편은 30년 동안 부부생활을 해 오면서 대부분의 심혈을 모두 이 양양성에 쏟았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강적에 대항하다 죽어 피를 성에다 뿌려도 나의 일생은 결코 억울하지 않으리라.)

순간 황용은 곽정의 왼쪽 귀 주변에 흰 머리가 많이 생겼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적병이 한번씩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때마다 남편은 10여 개의 흰 머리가 나는구나.)

돌연 성 아래에 있던 몽고병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만세, 만세, 만만세!]

이 소리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멀리에서 가까이 들려왔다. 10여만 명이 함께 높이 소리 지르자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했다. 큰 장식을 한 깃발이 휘날리는 게 보이고 철기의 호위 아래 누런 옷을 입고 푸른색 우산을 쓴 사람이 달려왔는데 그가 바로 대한(大汗)인 몽케(蒙哥)로 친히 싸움을 독려하러 온 것이었다.

몽고의 관병(官兵)들은 대한이 직접 오는 것을 보고 사기가 매우 진

작되었다. 홍기(紅旗)가 움직이자 성 아래의 무리가 좌우로 갈라지며 2대의 만인대(萬人隊)가 달려와 북문을 공격했다. 이들은 대만을 호위하는 친위병이고 최정예의 군대로 지금까지 출동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대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한의 면전에서 공을 세우고자 수백 개의 사다리를 성벽에 걸쳐 놓고 개미떼처럼 성벽을 기어올랐다.

곽정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큰소리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오늘 달자의 대한에게 우리 대송 사나이들의 뛰어난 무예를 보여 주도록 합시다!]

그의 이 한마디에는 기가 충만해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중에도 그들에게 똑똑하게 들렸다. 성 위의 송나라 병사들도 이미 하루 동안 전투를 치러 말할 수 없이 피곤했지만 돌연 곽정의 이 소리를 듣고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달자놈들이 우리를 괴롭힌 지 벌써 몇 년인가, 오늘은 반드시 그들에게 우리의 기세를 보여 줘야겠다!)

곧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했다.

몽고병의 시체가 성 밖에 점점 높이 쌓여도 후속 부대들이 계속해서 성난 파도처럼 시체를 밟으며 성을 공격해 들어왔다. 대한의 좌우에 있던 전령관들은 신속히 말을 몰아 군사들을 독려했다.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깔리자 성 안팎에 수천 개의 횃불이 올라 마치 대낮처럼 사방을 밝혔다.

안무사 여문덕은 이런 기세에 눌러 성을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해 크게 겁을 먹고는 사색이 되어 곽정에게 다가가 말했다.

[곽.....,곽대협! 방어할 수 없겠어요. 우....,우리 성을 나가서 남쪽으로 후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곽정이 그를 꾸짖었다.

[안무사께서 어찌 그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양양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있고 양양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황용은 사태가 급박해졌음을 알고는 여문덕이 만약 퇴각하라는 말을

하게 되면 군심이 크게 동요해 양양이 위험할 것 같아 즉시 칼을 뽑아 들었다.

[당신이 만약 다시 성을 버리고 퇴각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먼저 당신의 몸에 구멍을 세 개 뚫어 주리다!]

여문덕의 좌우에 있던 4명의 친위병사들이 앞을 가로막자 황용은 그들의 다리를 걸어 4명을 일시에 쓰러뜨렸다. 광정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 위에서 적에게 대항해 싸우는데 당신만이 싸우지 않는다면 어찌 남아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친위 병사들은 광정을 흠모해 왔는데 그가 이처럼 위풍당당하게 말하자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무기를 뽑아 들고 성 위로 달려가 적에게 대항했다. 대장군 왕건이 소리 질렀다.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키면 달자는 결코 건딜 수 없다!]

돌연 몽고의 전령관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병사들은 들어라.... 대한의 뜻을 전달한다! 가장 먼저 성벽을 오르는 자는 양양성의 성주로 봉하겠노라!]

몽고 병사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용맹스럽게 성으로 달려들었다. 전령관은 손에 붉은 깃발을 들고 대한의 뜻을 전달한 후 돌아가려 했다. 광정은 철태궁(鐵胎弓)을 꺼내 날카로운 화살을 장전한 다음 발사하자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긴 화살은 자욱한 먼지 속을 뚫고 날아갔다. 그 전령관은 가슴에 화살이 명중되자 곧 말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몽고의 병사들은 이같이 갑작스런 상황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얼마 지난 후 다시 1대의 새로운 만인대가 성 앞에 이르렀다.

야율제가 손에 긴 창을 잡고 급히 광정에게 다가왔다.

[장인, 장모님! 달자가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물러서지 않으니 제가 성을 나가서 일전을 펼치겠습니다.]

[좋다! 너는 4천명을 이끌고 성을 나서라.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야율제는 곧 몸을 돌려서 갔다. 이윽고 독전의 북소리가 울리면서

성문이 열리자 야율제는 1천 명의 개방의 제자와 3천 명의 관병을 이끌고 성을 나섰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창과 두꺼운 방패를 들고 있었다.

북문 밖에서 성을 공격하던 몽고군은 송군이 성을 나오자 돌연 공격을 중지하고 급히 퇴각했다. 야율제는 군사를 지휘해 이를 뒤쫓았다. 갑자기 몽고 군중에서 3발의 대포 소리가 나면서 좌우 양측에 있던 만인대가 달려들자 야율제가 지휘하는 4천 명은 가운데에 포위되고 말았다.

이 3천 명의 관병들은 원래 훈련을 충실히 해 무예가 뛰어나 용감하게 싸움에 임했으며 1천 명의 개방 제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비록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광정, 황용, 여문덕, 왕견 네 사람은 성 위에서 성 아래를 지켜보니 송군의 전세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열을 상대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접전을 벌여 어두운 가운데 칼에 불빛이 번쩍여 마치 1만 여 마리의 은뱀이 꿈틀대는 것 같자 탄성을 연발했다.

몽고병은 그 수가 많아 2대의 만인대는 야율제의 4천 정병을 포위하고 다른 1대의 만인대는 다시 사다리를 놓고 성을 공격했다.

광정은 야율제의 1대가 성 밖을 가로막아 몽고의 구원병이 이를 수 없음을 알고는 무씨 형제에게 명령을 내려 성에 빈틈을 열어 주어 몽고군이 마음대로 성에 기어오르도록 했다. 무씨 형제는 이 명령을 받고는 병사를 이끌고 퇴각했다. 순식간에 수백 수천의 몽고병이 성 위에까지 기어올라왔다. 성 아래에 있던 수많은 몽고 병사들은 양양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고 크게 외쳤다.

[만세! 만세!]

여문덕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당황해서는 온몸을 떨었다.

[광대협. 이...,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 리는..., 마땅...]

광정은 아무 말도 없이 몽고병 5천여 명이 성위로 다 기어오른 것을

보고는 검은색 깃발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자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 주자류와 무삼통이 각각 한무리의 정병을 이끌고 매복했던 장소에서 뛰어나와 즉시 성벽의 빈틈을 메워 다시 몽고병들이 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성 위에 기어올라 온 5천여의 몽고군은 결국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이 때 성밖에는 송군이 포위되고 성 위에는 몽고군이 포위되었고 동서남의 3문에서도 서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사망에서 끊임없이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다.

몽고의 대한은 조그만 구릉에 말을 타고 서서는 전투를 독려했는데 그의 몸 양편에는 1백여 개의 커다란 북이 뚝뚝 하는 소리를 내며 천지에 진동했기 때문에 모든 말소리가 이 소리에 파묻혔다.

그러나 천부장, 백부장들은 하나하나씩 죽거나 상처를 입어 철갑을 온통 피로 물들인 채 땅에 쓰러져 갔다.

대한 몽케는 스스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해 일찌기 바투(바도)를 따라 서정에 참가하여 유럽의 연합군을 짓밟고 도나우 강변의 비인성까지 공격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듣자하니, 남쪽의 오랑캐들은 나약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몽고의 정병보다 결코 나약하지 않구나!)

이 때는 이미 야밤 상경을 지나 밝은 달과 반짝이는 별만이 땅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옅은 구름이 끼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아주 평온했다. 그러나 땅에는 10여 만의 사람이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치열한 싸움은 동녘이 밝아 올 때부터 심야까지 계속되어 쌍방의 사상자는 엄청났으며 승패도 일시에 가릴 수 없었다. 송군은 지리적 잇점을 몽고군은 수적인 잇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시 한참 동안 전투가 진행되자 돌연 앞에 있던 송군의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조그만 구릉을 향해 달려들었다. 대한을 호위하

던 친위병들은 재빨리 화살을 쏘아 길을 막았다. 몽케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송군의 장수 하나가 손에 2 개의 창을 들고 커다란 말을 타고서 전장을 누비며 사방을 치는데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위세등등하게도 하나하나 모두 물리치는 것을 보았다. 몽케가 왼손을 휘둘러 북소리가 멈추자 곧 좌우에 있는 호위병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용맹한데 혹시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왼쪽에 있던 백발의 장군이 대답했다.

[폐하께 아뢰옵건대 그 사람이 바로 광정입니다. 일전에 징기스칸께서 그를 금도부마로 봉하셨고 서역 원정 때에도 적잖은 공을 세웠습니다.]

[아, 바로 그였구나! 장군의 신용(神勇)이 결코 거짓이 아니구나!]

몽케의 좌우에서 친위병을 지휘하던 장수들은 대한이 적군을 크게 칭찬하자 모두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4 명의 장군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손에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광정은 이 네 사람이 몸도 크고 말도 크며 두 사람은 만부장의 흰색 머리 장식을 또 다른 사람은 천부장의 붉은색 머리 장식을 하고 뇌성 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박차를 가해 달려나가 긴 창을 함께 휘둘렀다. 그 기세에 한 명의 천부장 손에 있던 대력도가 두 동강이 나고 다란 창 하나는 가슴을 찔렀다. 두 명 만부장의 2 개의 창이 일제히 광정에게 이르렀지만 광정의 긴 창에 눌리고 말았다. 한 명 천부장의 뺨 같은 창이 광정의 아랫배를 찌르려 했다. 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긴 무기로 순식간에 돌리지 못해 광정은 긴 창을 손에서 놓고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이 천부장의 공격을 피하여 두 손목을 뒤집어 만부장 2 명의 창머리를 잡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공중에서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이 2 명의 만부장이 비록 몽고군에서는 유명한 용사라고 하지만 어찌 광정의 신력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즉시 손과 팔이 마비되며 2 개의 철창을 손에서 놓쳤다. 광정은 빼앗은 창머리를 돌리지도 않고 그대로 던지자 펑, 하는

소리를 내며 2 개의 철창자루가 그들 두 사람의 가슴에 명중했다. 2 명의 만부장은 모두 가슴을 보호하는 철갑을 입고 있어 창자루가 몸에 박히지는 않았지만 광정의 내력에 심한 충격을 받아 즉시 피를 토하며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나머지 한 명 천부장은 용감해서 함께 나간 세 사람이 모두 생명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창을 들고 공격했다. 광정은 왼손의 철창으로 그의 창을 막으며 오른손의 철창으로는 무섭게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그의 머리가 박살이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많은 친위병들은 광정이 순식간에 4 명의 용장을 처리하자 간담이 서늘해져 비록 대한의 앞이지만 감히 나서서 그와 상대하지 못하고는 계속해서 활만 쏘 뿐이었다. 광정은 말을 달려 조그만 구릉으로 가고 싶었지만 수백 자루의 긴 창이 층층이 뿔뿔하게 대한의 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 번 달려들었으나 끝내 대한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 그 때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긴 울음소리를 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말은 가슴에 두 발의 화살을 맞았던 것이다. 몽고의 친위병들은 소리를 질러 환호하면서 일제히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광정은 창을 내밀어 1 명의 백부장을 찔러 죽이고 그가 타고 있던 말에 뛰어오르며 창을 휘둘러 순식간에 10 여명의 몽고 관병을 죽이고 말았다.

몽케는 그가 백만 대군 사이를 마구잡이로 헤집고 다니며 날뛰어도 몽고의 병사들이 막지 못하자 눈살을 찌푸리며 전령에게 말했다.

[누가 광정을 죽이든 간에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즉시 황금 1 만 냥을 주고 관직을 3 등급 올려주겠다!]

이같이 후한 상을 주겠다고하자 많은 병사들이 벌떼처럼 앞으로 몰려들었다.

광정은 상황이 위급하고 다시 대한 앞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는 옆에 있던 몇 명의 몽고병들을 헤치우고 난 후 화살을 끼워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마치 번개처럼 날아가 몽케에게 이르렀다. 몽케를 호위하

던 친위병들은 몹시 놀랐고 2명의 백부장이 재빨리 몸을 날려 대한의 앞을 가로막았다. 긴 화살이 폭, 하고 백부장의 몸을 꿰뚫었지만 결코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아 다시 두번째 백부장의 앞가슴에 꽂혀 두 사람은 한꺼번에 화살에 꿰인 셈이 되었다. 몽케는 이같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안색이 변했다. 친위병들은 대한을 둘러싸고 구름을 내려갔다.

바로 이 때 몽고군의 군중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한 무리의 송군이 몽고군에게 달려들며 낸 소리였다. 가장 선두에서 2개의 철창을 휘두르며 맹렬히 공격하는 사람은 바로 사수어은이었다. 황용은 남편이 위험에 빠지자 안심이 안 되어 사수어은에게 3천 명을 이끌고 나아가 응전할 것을 명했던 것이다. 몽고병들은 대한이 후퇴하는 것을 보자 진세가 크게 흐트러지고 말았다.

황용은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고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몽고의 대한이 죽었다고 모두 소리를 질러요!]

많은 군사들이 일제히 외쳤다.

[몽고의 대한이 죽었다. ! 몽고의 대한이 죽었다!]

양양의 군사들은 몇 년 동안 몽고병과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총명한 사람들은 모두 몇 마디 몽고말을 배워 이 때에도 어떤 사람은 몽고말로 크게 외쳤다.

몽고의 관병들은 이 함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마침 대한의 큰 깃발이 뒤로 물러나고 그 부근에서 잠시 소란이 일고 있음을 보고는 이 혼란 중에 이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대한이 정말로 죽었다면 몽고 군중에 큰 혼란이 일어나 사기가 저하되어 후퇴하리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황용은 추격명령을 내려 북문을 크게 열었다. 3만의 정병이 성에서 쏟아져 나왔다. 야율제가 지휘하는 4천 명은 이미 절반 이상 부상을 입었고 그 나머지는 기세를 이용해 적을 추격했다. 몽고병들은 오랜 싸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패했어도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아 송의 정병이 등장한 후 천천히 북으로 물러났지만 송병은 결코 그들에게 접

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양성에 공격해 들어왔던 5천여명의 몽고 정예부대는 한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였다.

4 개의 문에서 몽고병들이 모두 물러나자 하늘이 이미 밝아 있었다. 이 한차례의 대전은 거의 24 시간 동안 치러져 사방의 들은 온통 피로 물들고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부러진 창과 칼, 죽은 말과 찢어진 깃발이 계속해 10 여 리에 널려 있었다.

이 전투에서 몽고병은 4 만여 명을 잃었으며 양양성을 지키는 송군도 2 만 2,3 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 몽고가 병을 일으켜 남침을 시작한 이후 이같은 참패는 처음이었다.

양양의 군사들이 비록 적을 물리쳤으나 양양성 곳곳에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부인들의 곡성이 들려왔다.

곽정, 황용은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4 개의 대문을 순시하며 병사들을 위로했다. 다시 주백통과 육무쌍의 상처를 보자 두 사람 모두 상태가 매우 좋아져 있었다. 주백통은 더 이상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서 일찍부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곽정, 황용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부(府)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곽정이 안무사 부중에서 여문덕, 왕견과 작전을 논의하고 있을때 돌연 장수 하나가 달려와 1 대의 몽고 만인대가 지금 막 북문을 향해 오고 있다고 알려줬다. 여문덕은 매우 당황했다.

[어....., 어쩌서 방금 퇴각했는데 다시 온다는 말인가? 마....,말도 안 된다!]

곽정은 책상을 치고 일어나 즉시 성 위에 올라가 정세를 살폈다. 적의 만인대는 성에서 수 리 떨어진 곳에 진을 펼치고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았다. 잠시 후 1 천여 명의 공장(工匠)들이 돌을 지고 나무를 세우며 10 여 장 정도의 높은 망루를 만들었다.

이 때 황약사, 황용, 일등, 주자류 등도 벌써부터 성 위에서 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몽고병이 돌연 높은 망루를 만들자 그 까닭을 몰라 애태우고 있었다. 주자류가 입을 열었다.

[달자가 이 높은 망루를 마련해 만약 양양성 중의 군세를 염탐하고자 한다면 이같이 먼 거리에 세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군사들이 불화살을 쏘다면 즉시 전부 불에 타 무너지는데 세워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황용은 눈썹을 찡그리며 생각했지만 그들의 음흉한 계획을 알 수가 없었다. 망루가 만들어지자 다시 수백의 몽고군이 노새와 말을 이끌고 대량의 나무와 풀을 운반해 망루 주위를 둘러싸 마치 망루를 태우려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더욱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주자류가 말했다.

[설마 적군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계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일까? 무슨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원하려는 것일까?]

곽정이 입을 열었다.

[내가 비록 오랫동안 몽고의 군중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이같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소.]

이같은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다시 수천여 명의 병사들이 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망루 주위에 깊고 넓게 도랑을 파고 거기에서 나온 흙을 도랑 밖으로 쌓아서 흙담을 만들었다. 황약사가 분노했다.

[양양성은 삼국시대(三國時代) 제갈량(諸葛亮)이 머물던 곳인데 달자가 이같이 무례하게 대현인을 함부로 희롱하니 어찌 대송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호각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1대의 만인대가 망루 좌측에 자리잡고 이어 또 하나의 만인대가 우측에 자리잡았다. 진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1대의 만인대가 망루 앞에 포진해 맨 처음의 만인대와 합쳐서 모두 4대의 만인대가 망루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대진은 계속해서 수 리에 펼쳐져 방패수, 창수, 궁수 등이 한 층 한층 망루를 철통같이 에워쌌다.

돌연 호각소리가 들리며 북소리가 멈추고 수만 명은 아무 소리도 내

지 않았다. 멀리서 2마리의 말이 망루 아래로 달려왔다. 말을 타고 온 사람은 말을 내려 손을 잡고는 높은 망루 위로 올라갔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똑똑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인 듯 싶었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순간에 황용이 돌연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급히 그녀를 깨워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황용의 얼굴이 창백해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양아입니다. 양아예요!]

사람들은 매우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자류가 말했다.

[곽부인, 분명하게 보셨습니까?]

[그녀의 모습을 분명히 본 것은 아니지만 정리(情理)로 추측해 보건데 그 아이가 맞아요. 달자놈들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마침내 간악한 흉계를 꾸몄어요. 정말..., 정말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야비한 것입니다.]

황약사와 주자류는 그녀의 이 말을 듣고는 즉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온 얼굴에 분노의 기색이 역력했다. 곽정은 아직 그 까닭을 몰라 몰랐다.

[양아가 어째서 저 높은 망루 위에 있단 말ियो? 달자가 무슨 사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단 말인가?]

황용은 몸을 세우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양아가 불행하게 달자놈들에게 붙잡혔어요. 그 놈들은 망루를 세우고 망루 아래에는 나무와 풀을 쌓아 양아를 망루 위에 올려 세우고는 당신에게 항복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투항하지 않으면 망루에 불을 붙여 우리 부부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시달리게 해 성을 지키는 일에 몰두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곽정은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나서 물었다.

[양아가 어찌해서 달자의 손에 잡히게 되었지?]

[정세가 계속해서 급박하여 당신의 마음이 혼란해 질까 두려워서 이 일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곽양이 어찌해서 절정곡에서 금륜법왕에게 사로잡혔는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곽정은 양과가 곡저(谷底)에서 종적이 사라진 후 계속해 그의 소식을 수소문했는데 황용의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용아. 당신이 잘못했어요. 과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를 버리고 올 수가 있는가?]

곽정은 지금까지 사랑스런 아내를 존경해 결코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그녀에게 조금의 실례도 범하지 않았지만 이 몇 마디 꾸짖는 말은 매우 엄중해 황용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일등이 입을 열었다.

[곽부인께서 깊은 한담(寒潭)에 들어가셔서 얼어 죽을 뻔하면서까지 양과가 곡저에 없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작은 아가씨가 그 금륜법왕의 손에 떨어지자 우리들은 모두 추격하자고 주장했으나 곽부인이 거절하셨으니 곽부인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일등이 이렇게 말하자 곽정은 감히 다른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원망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양아는 원래 늘 말썽을 부렸다. 만일 과아가 무사하다면 우리들 마음이 편할 텐데. 양아는 몽고병이 깨끗이 태워 죽이게 그냥 두시오.]

황용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성을 내려갔다. 사람들이 막 어떻게 곽양을 구할까 논의하고 있을 때 돌연 성문이 열리며 한마리 말이 북쪽으로 달렸는데 말 위에는 바로 황용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곽정, 황약사, 일등, 주자류 등도 분분히 말에 올라 그녀를 따랐다.

일행은 분주히 망루를 향해 달려 적의 강한 화살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 말을 세웠다. 망루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묘령의 소녀는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는데 바로 곽양이었다.

곽정은 비록 딸애가 늘 말썽을 피워서 골치를 썩게 했지만 부너지간의 정이 있는데 어찌 다급하지 않겠는가?

[양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마와 아빠가 너를 구해 주려고 왔다!]

그는 내력이 충만해 말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망루에까지 들렸다. 곽양은 오랜 동안 태양빛에 쪼여서 맥이 빠져 정신이 가물가물했는데 돌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빠, 엄마!]

금륜법왕은 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곽대협, 만약 딸이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소. 단지 당신에게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 주면 되오.]

곽정은 원래 침착하고 신중해 점점 상황이 다급해져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법왕의 이 말을 듣고도 그는 조금도 화내지 않았다.

[법왕에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당신이 만약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망루에 올라와 결박을 당한다면 당신과 딸을 맞바꾸어 즉시 딸을 풀어 주도록 하겠소.]

그는 원래 곽정이 대의를 중요하게 여겨 결코 딸아이를 위해 양양의 수많은 백성을 버릴 위인이 아님을 알고는 이러한 말로 그를 자극해서 마침내 그가 분격해 올라가에 걸리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곽정이 어찌 그의 꾀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달자가 만약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내 딸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겠는가? 달자가 이미 나를 크게 두려워하니 어찌 가볍게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법왕은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은 모두 곽대협의 무공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탐하는 하잘 것 없는 무리였군요]

그의 이같은 자극적인 말을 만약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능히 그 효과를 볼 수 있었겠지만 곽정은 양양성의 안위(安危)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는 가볍게 웃어 넘겨 버리고 결코 그 말에 상대하지 않았다.

이 말에 오히려 무삼통과 사수어은이 격분해 두 사람은 철추(鐵鎚)를 휘두르고 쌍장(雙漿)을 들고 앞으로 치달렸다. 몽고의 수천 궁수들은 두 사람을 겨냥하며 만약 가까이 다가오면 화살을 발사해 고슴도치를 만들어 주려고 버르고 있었다.

일등대사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는 즉시 말에서 내려 달려나가 그들 두 사람을 잡고서 옷소매를 휘저어 길을 막았다.

[돌아가라!]

무삼통과 사수어은은 원래 피가 들끓은 혈기 왕성한 젊은이로 이처럼 한 번 달려나가면 결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음을 모르고 사부가 길을 가로막자 하는 수 없이 말고삐를 돌려 되돌아왔다. 몽고 병사들이 늙은 스님이 재빨리 말을 따라잡는 것을 보고는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법왕이 말했다.

[곽대협! 당신의 딸이 너무 영리해서 내가 그녀를 몹시 아끼고 사랑해 제자로 삼아 후대를 이어가고 싶소. 대한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만약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망루에서 태워 죽여도 좋다고 하셨소. 당신이 딸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소송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드니 잘 생각해 보시오.]

곽정은 흥, 하며 40 명의 군사들이 손에 불을 들고는 법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불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4 대의 만인대장이 망루를 엄밀하게 지키고 있으니 비록 혈육의 정이라도 어찌 달려들 수가 있겠는가! 망루에 가까이 접근한다고 해도 그들이 불을 붙여 버리면 어찌 딸아이를 구해 올 수 있겠는가?

그는 오랫동안 몽고의 군중에 있었기 때문에 몽고의 용병이 원래 잔인해 땅을 침공하고 성을 공략할 때마다 하루 사이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해 10 여만 명을 죽이니 만약 곽양을 태워서 죽인다고 해도 마치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인 것같이 생각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멀리 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애석함을 참지 못해 크게 소리 질렀다.

[양아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대송의 여자로 대의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나와 엄마가 너를 비록 구하지 못해도 후에 반드시 이 간악한 중을 죽여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내 말을 알아 들겠느냐?]

곽양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빠, 엄마,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 너는 과연 내 딸이다.]

라고 말하고는 허리춤에서 철태궁을 꺼내 긴 화살을 장전해 3 발을 연달아 날리자 망루 아래에서 불을 들고 서 있던 3 명의 몽고병이 땅에 쓰러졌다. 그 3 개의 화살은 모두 그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곽정의 사술(射術)은 몽고의 신전장군(神箭將軍) 철별(哲別)에게서 배우고 다시 수십 년 내력의 수련을 쌓아 적의 화살은 그가 지금 서 있는 장소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그는 능히 적을 쏘아 죽일 수가 있었다. 몽고의 병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높이 방패를 쳐들어 자신의 몸을 보호했다. 곽정이 입을 열었다.

[가자!]

말고삐를 돌려 황용 등과 함께 성으로 되돌아갔다.

일행은 다시 성 위에 올라갔다. 황용은 명칭하게 저 멀리 망루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일등이 말했다.

[달자가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엄격하니 양아를 구하려면 우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루 주위를 감싸고 있는 4 대의 만인대를 혼란시켜야 합니다.]

황약사가 말했다.

[바로 그렇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다.

[용아, 우리 이십팔숙대진(二十八宿大陣)을 이용해 달자놈들과 한

번 겨루어 보자.]

황용은 고개를 떨구었다.

[비록 싸움에 이긴다고 해도 달자놈들이 망루를 태워 버리면 어찌합니까?]

곽정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적을 죽이고 양아의 생사는 하늘에 맡깁시다. 장인어른, 이십팔숙대진을 어떻게 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약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진법의 변화는 매우 복잡하네. 이전에 내가 전진교의 천강북두진을 보고 난 후 깊이 생각에 빠져 고심한 끝에 고인(高人)의 진법을 참고해 이십팔숙대진을 만들어 내 전진교의 도사들과 우열을 가리고 싶었지.]

일등이 말했다.

[황노사의 오행기문지술(五行奇門之術)은 천하 제일로 아마 이 이십팔숙대진도 반드시 오묘할 것이오.]

[나는 원래 이 진법을 무림 가운데 몇 사람과의 대결에서만 사용하려 했지 결코 천군만마(千軍萬馬)의 대전에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변화가 무쌍해서 쓰임새에 맞으려면 한 사람과 쌍조(雙鳥)가 부족한게 아쉽군.]

[그 점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쌍조가 만약 저 사악한 중에게 해를 입어 죽지만 앓았으면 우리는 진법을 발동하고 쌍조는 무대로 날아가 양아를 구해 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텐데.... 이 이십팔숙대진은 오행에 의거해 변화하므로 다섯 사람의 고수가 각각을 지휘해야 한다. 우리는 동남북중(東南北中)의 4개 방향에는 사람이 모두 있으나 노완동이 몸에 중상을 입어 서쪽에 한 사람이 부족하지. 만약 이곳에 지금 양과가 있다면 그의 무공이 과거 구양봉에 뒤지지 않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지금 어디서 그를 찾을 수 있겠는가? 단지 서방의 주장(主將)이 아쉬울 뿐이구나.]

곽정의 눈빛이 망루를 스치며 저 멀리 북쪽 하늘 구름이 이어지는
곳을 쳐다보며 마음은 이미 절정곡으로 달려갔다.

[과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로 걱정이 되는구나.]

그 날 양과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다시는 소용녀를
만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몸을 날려 곡저(谷底)로 뛰어내려 죽으려
했는데 뜻밖에도 한참을 떨어진 후 퐁당 하는 소리와 함께 수담(水潭)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그는 원래 1 백여 장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
그 충격이 대단해 떨어진 후 물 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모르
지만 돌연 눈앞이 번쩍 하며 1 개의 둥굴 같은 것이 보였다. 물이 깊으
면 부력도 강해 즉시 자신도 모르게 부력으로 인해 떠오르는 바로 그
때 곽양이 다시 수담으로 뛰어내렸다.

당시 괴상한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 양과는 잠시 생각할 틈도
없이 곽양이 수면에 떠오르기를 기다려 손을 뻗어 그녀를 물가로 끌어
올리고 난 뒤물었다.

[양아! 어째서 이곳으로 떨어졌지?]

[오빠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는 나도 따라서 뛰어내렸어요.]

양과는 고개를 저었다.

[미련하다 미련해! 설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

곽양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오빠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나도 두렵지 않아요.]

양과는 가슴이 찡했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내게 이처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니...)

이같은 생각이 들자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가볍게 떨었다.

곽양은 하나 남은 금침을 품속에서 꺼냈다.

[오빠! 그 때 나에게 3 개의 금침을 주며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며
주라고 했지요? 오늘 제발 애원하건데..., 양부인을 만나든 만나지 못

하든 절대로 편협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양과는 손안에 있는 금침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양양에서 이곳까지 온 이유가 바로 나를 구하려는 이 일 때문이었느냐?]

곽양은 속으로 매우 기뻐다.

[네, 대장부는 자기가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양과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한 사람이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되돌아 온 경과를 생각하고는 비록 죽겠다는 결심이 돌과 같이 굳세어도 결코 다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곽양을 한 번 살펴보고 그녀의 온몸이 물에 젖어 떨고 있으면서도 얼굴에 희색을 띄고 있음을 보고는 마른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우려 했으나 두 사람의 주변에 있는 나무는 모두 물에 잠겨 쓸 수가 없었다.

[양아, 우선 내공을 두 번 일으켜 한기가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나중에 병이 나지 않도록 해라!]

곽양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물었다.

[오빠가 이미 나에게 대답한 대로, 자살은 하면 안 돼요!]

[내 이미 대답했다!]

곽양은 몹시 기뻐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내공을 일으키도록 해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기를 움직였다. 양과는 어려서부터 한옥상에서 내공을 단련해 이러한 한기는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손을 내밀어 곽양의 등에 있는 신당혈(神堂穴)을 가볍게 쓰다듬자 따스한 기가 천천히 그녀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곽양은 온몸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곽양의 내식이 온몸을 몇 번 돌자 양과는 그녀가 어떻게 절정곡에 왔는지를 물었다. 곽양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양과는 화가 났다.

[금륜법왕. 이 악독한 놈! 우리가 빠져나가기만 하면 내 그 놈을 반

쫌 죽도록 혼내 주고야 말겠다!]

그 때 돌연 공중에서 한 마리 큰 새가 떨어져 수담 가운데로 떠올랐는데 그 상처가 몹시 심했다. 곽양이 놀라 말했다.

[이것은 우리 집의 대조(大鳥)예요.]

곧 암컷이 날아 내려와 수컷을 업고 올라갔고 다시 내려오자 양과는 곽양을 수리의 날개 위에 태웠다. 그는 이 수리가 다시 내려와 자기도 구해줄 줄 알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을 줄 어찌 알았으랴. 그는 암컷이 수컷을 따라서 순사(殉死)했음을 알지 못했다.

양과는 수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수담 주변의 경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돌연 큰 나무 밑에 수십 개의 벌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벌통들은 보통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 옆으로 날아다니는 벌은 바로 옛날 소용녀가 고묘에서 기르던 특이한 옥봉(玉蜂)이었다. 양과는 이것을 보고 <아!> 하는 경탄의 소리를 지르고 땅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다가 벌통 옆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벌통 옆에 진흙을 붙인 것은 사람이 한 일이었다. 비록 희미했지만 양과는 그것이 소용녀의 손자국임을 알았다.

그는 정신을 집중해 생각했다.

(그 때 용아가 이 곡저로 뛰어내렸다면 어디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

그는 한담을 빙빙 돌며 주위를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방이 온통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마치 자신은 우물 속에 있어 좌정관천(坐井觀天)이란 말에 꼭 어울리는 상태였다.

양과는 몇 개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사방의 바위벽을 쳤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다시 자세히 보니 몇 그루의 큰 나무 꺾질이 누군가에 의해 벗겨지고 풀밭 옆에 있는 돌들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게 결코 자연의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순식간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가슴이 뛰면서 확실히 소용녀가 이곳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양과는 원래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마침

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다.

(하늘이시여, 저를 굽어 살피셔서 제발 용아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올리고 다시 얼마간을 찾아 보았으나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양과는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용아가 죽었다면 반드시 이곳에 뼈라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담의 밑바닥에 있겠구나.)

양과는 아까 물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번쩍이는 빛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일어서서 수담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큰소리로 말했다.

[하여간 물 속으로 들어가 용아의 사체라도 찾아보자.]

그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 계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수담의 깊은 곳은 내려가면 갈 수록 추워졌고 잠시 후 사방은 남색이 번쩍이는 현빙(玄氷)이 가득했다. 양과는 비록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깊은 곳의 부력이 너무나 강해 몇 번이나 노력했으나 결국 밑바닥까지 이를 수가 없었다. 이 때 호흡도 점점 빨라져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되돌아와서 큰 돌을 안고 다시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내려가는데 돌연 눈앞이 번쩍이자 급히 그 쪽을 향해 헤엄쳐 갔다. 한 줄기의 급류가 그의 몸을 휘감고 지나가자 그 번쩍이는 곳이 하나의 동굴임을 알았다. 그는 등에 지고 온 큰 돌을 버리고 다가갔다. 그 동굴의 안쪽은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하는 얼음굴이었다. 그는 이 굴을 따라서 얼마 동안 헤엄쳐 가자 푸, 하며 또 다른 수면 위로 솟아오르게 되었다. 그 곳은 따스한 태양빛에 눈이 부시고 꽃향기가 은은히 풍겨오는게 마치 별천지 같았다.

그는 즉시 땅에 오르지 않고 사방을 둘러 보았다. 여러 가지 꽃과 푸른 초원이 펼쳐 있는 게 마치 커다란 정원과도 같았다. 그러나 꽃에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무래도 사람이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는 기쁘기도 하고 놀라와서 물을 나와 땅을 밟자 10여 장밖에 몇 채의 초가집이 있는 게 보였다.

그는 단숨에 달려갔으나 가까이 이르러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디디며 생각했다.

(만약 이 초가에서도 용아의 소식을 알 수가 없으면 어찌해야 좋담!)

초가에 가까와 지면 가까와질 수록 걸음이 점점 느려지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최후의 희망조차 물거품 되어 사라질까 두려웠다. 마침내 초가에 다가서자 귀를 기울여 무슨 소리를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옥봉이 뒹뒹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만이 들렸다.

양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손을 내밀어 가볍게 문을 밀자 삐그덕 하며 문이 열렸다.

양과는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을 살펴보고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떨렸다. 집안은 누추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매우 깨끗했다. 단지 큰 탁자와 작은 탁자가 1 개씩 있고 별다른 물건을 없었다. 그 놓여진 방위가 그에게 매우 친숙한 게 고묘 석실의 배치와 똑같았다. 그는 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돌아 과연 소실(小室)이 나타났고 소실을 지나가자 비교적 커다란 방이 있었다. 방안에는 침대와 탁자 그리고 의자가 있었는데 고묘에 있던 양과의 침실과 완전히 똑같았다. 단지 고묘에 있던 가구들은 모두 돌로 만든 데 비해 이곳에 있는 것은 거친 나무로 만든 것이 달랐다.

오른쪽에 있는 침대는 그가 어릴적 내공을 단련하던 한옥상....방의 가운데 매달려 있는 긴 줄은 그가 경공을 연습할 때 사용한 것...., 창 옆에 있는 조그만 탁자는 그가 글을 읽고 공부하던 곳과 같았다. 방의 왼쪽에는 조잡한 나무옷장이 있었는데 옷장의 문을 잡아당겨 열자 옷장 안에는 나무꺾질을 이어서 만든 어린 아이의 옷이 몇 벌 걸려 있었는데 바로 과거에 고묘에 있을때 소용녀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

던 그 옷 모양이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와 탁자를 어루만지며 지금까지 참고 있던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비오듯 눈물을 쏟고 말았다.

돌연 부드러운 손길이 양과의 머리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그윽하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어찌 그렇게 우세요?]

이 말하는 음성.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모양이 과거 소용녀가 자기를 위로해 주는 모양과 똑같았다. 양과는 재빨리 몸을 돌려 자신의 앞에 조용하게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눈같이 하얀 피부와 꽃같은 모습이 바로 16년 동안 밤낮으로 생각하며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소용녀가 아닌가!

두 사람은 멍청하게 얼마간을 서 있었다. <아!> 하는 가벼운 소리를 지르고 그들은 서로 껴안았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양과가 말했다.

[여보, 그 아름다운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료.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소용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늙은게 아니고 당신은 장성한 것이지요.]

해후(邂逅)의 기쁨

소용녀는 양과보다 몇 살 나이가 많았으나 어려서부터 고묘에 살면서 사부를 따라 내공을 수련하고 일체의 사념과 욕망을 끊었고 양과는 온갖 우환을 겪으며 기쁨과 슬픔을 맛보며 자라서 그들이 결혼할 때쯤에는 이미 겉으로는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그 고묘파의 양생 수련에는 <십이소(十二少)>와 <십이다(十二多)>라는 정반대의 요결이 있었다.

그것은 소사(少思), 소념(少念), 소욕(少慾), 소사(少事), 소어(少語), 소소(少笑), 소수(少愁), 소락(少樂), 소희(少喜), 소로(少怒), 소허(少好), 소악(少惡)으로서 이 12 개의 적음을 행하면 양생의 비결이 된다. 다사(多思)면 정신이 피곤하고 다념(多念)이면 정신이 산만하고 다욕(多欲)이면 지혜가 없어지고 다사(多事)면 몸이 노곤하고 다어(多語)면 기가 부족하고 다소(多笑)면 간을 다치고 다수(多愁)면 마음이 흔들리고 다락(多樂)이면 의욕이 넘치고 다희(多喜)면 잘못을 범해 혼란에 빠지고 다로(多怒)면 백맥(百脈)이 순조롭지 못하며 다호(多好)면 미혹됨이 많고 다악(多惡)이면 편안하지 못하다. 이 12 가지 다(多)를 제거하지 못하면 삶은 그 본분을 잃게 된다.

소용녀는 어려서부터 수양을 쌓아 무희무락(無喜無樂), 무사무려(無事無慮)로 공력이 순결해 사조인 임조영조차 그녀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후에 양과가 고묘에 와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애정이 짝트고 이 소어, 소사, 소희, 소무의 규범을 점점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결혼한 이후 16 년 동안 이별해 양과는 온갖 풍상을 겪으며 강호를 누벼 근심이 있어 늙었고...., 소용녀는 비록 심곡(深谷)에 은거하고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20 여 년 동안의 수련이 대단해 몇 년 지나고 난 후에는 다시 <십이소>의 요결을 닦아 점점 소사(少思), 소념(少念), 소욕(少慾), 소사(少事)를 실천했는데 홀로 곡저에 은거하면서도 적막감을 느끼지 않아 두 사람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니 양과의 나이가 소용녀보다 더 들어 보였다.

소용녀는 16 년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말을 하려 하자 입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비록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양과는 피가 들끓어 소용녀의 손을 잡고는 급히 집 밖으로 나갔다.

[용이, 이 얼마나 기쁘오!]

하더니 돌연 큰 나무에 뛰어올라 계속 7,8 번의 공중제비를 돌았다. 양과는 어릴 때 종남산에서 소용녀와 함께 살며 개구장이짓을 많이 했

는데 10 여 년동안 이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중년이 되어 돌연 그 생각이 나자 예전처럼 장난을 친 것이다. 그의 무공이 정묘해 몸이 공중에서 돌 때마다 자연 그의 상승 무공이 드러났다. 소용녀는 큰소리로 웃으며 무슨 <소어, 소소, 소희, 소락>의 금기들은 모두 저 멀리 구름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소용녀는 몸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원래 종남산에 있을 때 양과가 공중제비를 넘고 히히히,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가면 소용녀는 늘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이마에 있는 구슬같은 땀을 닦아 주곤 했었다. 이때 그에게 다가갔으나 얼굴도 달아오르지 않았고 숨도 헐떡이지 않는 게 무슨 땀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몇 번 닦아 주었다.

양과는 수건을 받아 들더니 나무의 껍질을 이용해 짠 것으로 매우 조잡한 것임을 알고는 그녀의 이 16 년 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쩡해지며 할 말을 잃고는 가볍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용이, 16 년 동안 여기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소?]

소용녀는 긴 한숨을 쉬었다.

[만약 내가 어려서부터 고묘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이 16 년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돌 위에 앉아서 그 동안 각기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양과는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물었다. 소용녀는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자 말이 점점 유창해지며 천천히 지난 16 년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그 날 양과가 반쪽의 절정단을 꼭저에 버리자 소용녀는 자기의 중독을 풀기 힘들게 되었으니 그가 혼자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 날 저녁 그녀는 골똘히 생각하여 우선 자기가 죽어서 그의 애정을 끊어야만 비로소 그의 몸에 있는 정화의 독이 없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만약 자기가 자살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면 그가 자기를 따

라 죽을까 두려워 다시 한참을 생각한 후 마침내 칼끝으로 단장애에 그와 같은 내용의 몇 글자를 새겨 고의로 16년 후에 만날 약속을 하고는 몸을 날려 심곡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당시 소용녀는 만약 양과가 하늘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하면 이 길고 긴 16년이 흐르는 동안에 자기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결코 자기를 따라서 죽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가 이 내용을 말하자 양과가 탄식을 하며 말했다.

[어쩌서 하필이면 16년으로 약속을 했지요? 만약 당신이 8년으로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8년이나 빨리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나에 대한 당신의 깊은 애정이 짧은 8년 동안에 결코 식어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아! 16년 후의 약속을 믿고 당신은 계곡으로 뛰어들지 않았나요!]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한 사람만을 깊이깊이 사랑하는 게 좋지 않소! 만약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단장애 앞에서 한바탕 울고 난 후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 했을 것이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 뜻이 닿아요.]

두 사람은 죽음에서 삶을 찾고 온갖 극적인 변고를 겪고 난 후 마침내 다시 만나 돌 위에 앉아 서로를 의지하게 되니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양과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이 수담으로 뛰어든 이후 어찌 되었소?]

[나는 정신이 가물가물한 채 수담에 빠져서는 부력으로 떠오르다가 물결에 휩쓸려 그 얼음굴로 들어왔어요. 그 곳을 통과하여 결국 여기에 도착해 생활을 했지요. 여기는 동물과 새는 없으나 물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도처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늘 있어요. 단지 옷감이 없어서 겨우 나무껍질을 벗겨 내어 옷을 만들 뿐이죠.]

[그 때 당신은 빙백은침을 맞아 독이 경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계곡 바닥에서 치료가 되었지요?]

그는 소용녀를 응시하자 그녀의 얼굴이 눈처럼 흰 게 혈색이 전혀 없었으나 그 때 중독이 된 후 양미간에 있던 은은한 검은 기운은 사라지고 없음을 알았다. 소용녀가 말했다.]

[내가 이 곳에서 지낸 지 며칠 만에 독성이 발작해 온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지는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고묘에서 동방화축을 밝히던 그 날 밤 당신이 나에게 한옥상에 앉아 경맥을 역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대로 행했더니 비록 완전히 독을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심한 고통은 해소할 수가 있었지요. 담의 밑바닥에는 1만 년의 현빙이 있어 이 또한 빠가 시리도록 차가와 얼음굴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 곳에 잠시 누워 모든 고초를 잊었어요. 이후 수담에 다녀올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항상 당신에 관한 소식을 간절히 바랐지요. 하루는 돌연 골짜기 위의 안개 사이로 몇 마리의 옥봉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노완동이 절정곡에 가지고 와서 장난으로 남겨 놓은 것이었지요. 나는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난 것처럼 즉시 벌집을 지어서는 그들이 살도록 해 주었어요. 후에 옥봉은 날로 날로 많아졌지요. 벌꿀을 먹고, 또 수담에서 나는 백어(白魚)를 먹자 고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천만 뜻밖에도 이 옥봉의 꿀과 한담의 백어가 섞여서 독을 제거하는 좋은 약이 되었지 뭐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복용하자 몸에 있는 독이 발작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더군요. 처음에는 하루 한 두 번씩 발작하더니 후에는 며칠에 한번 나아가 몇 개월에 한 번, 최근에는 5,6년에 한 번도 발작을 하지 않으니 아마 치료가 다 된 것 같아요.]

양과는 매우 기뻐했다.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받아요. 그 때 당신이 만약 옥봉을 노완동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가 옥봉을 절정곡으로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의 병도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것이요.]

[나는 몸이 좋아진 후 당신을 무척 생각했지만 계곡이 너무 깊어 1

백여 장이 넘고 사방이 온통 미끌미끌한 바위로 되어 있으니 어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무에 있는 작은 가시를 이용해서 옥봉의 날개에다 <나는 절정곡의 밑바닥에 있다>라고 새겨서 옥봉이 날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대했지요. 나는 여러 해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수천 마리의 옥봉에 글씨를 새겼으나 아무런 좋은 소식이 없어 무척 실망을 했고 평생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양과는 넓적 다리를 치며 크게 후회했다.

[아아, 내가 신경을 쓰지 못했소. 매번 절정곡에 올 적마다 항상 옥봉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한 마리를 잡아서 자세히 관찰할 생각은 하지 못했대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의 고통스런 생활을 몇 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원래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생각해 낸 졸렬한 방법이었어요. 사실 누가 이 조그만 옥봉의 몸에 글씨가 새겨져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글씨는 겨우 파리 머리만한 크기로 비록 1백 마리의 옥봉이 당신의 눈앞을 날아갔다고 해도 그놈의 날개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지 어느 때가 되어 한 마리 옥봉이 거미줄에 걸려 다행스럽게도 당신이 그것을 보고 우리들의 옛 정이 생각나 손을 뻗어 옥봉을 구해 주다가 그 날개에 있는 글씨를 알아보기를 희망했지요.]

그녀는 옥봉의 날개에 새겨진 가느다란 글씨가 주백통에게 발견되어 황용이 그 숨은 뜻을 알아맞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소용녀는 집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한 마리 구워서 몇 가지 과일과 옥봉의 꿀과 함께 가지고 왔다. 한담의 물은 매우 차서 생산되는 백어는 무척 작았으나 그 맛은 일품이었다. 양과는 고기를 먹자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차츰 편안해지자 지난 16년 간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강호를 헤집고 다니며 군호들을 겁주어 심곡 속에서 홀로 생활을 한 소용녀에

비해 수천 배 복잡하고 흥미가 있었으나 소용녀는 원래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지라 양과가 겪은 놀랍고도 괴상한 일도 단지 듣고는 컷가로 흘리며 가볍게 웃을 뿐 아무런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양과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고기는 어떻게 잡으며 과일은 어떻게 따는지 집과 옷은 어떻게 만드는지 조그만 일 하나하나 까지도 전부 흥미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알고자 했다. 그는 이 좁은 계곡 바닥을 마치 커다란 별천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오랜 대화는 밤을 지새워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아침이 되자 피곤해져서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용이, 우리 평생 동안 이 곡저에서 늙을까?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저 화려한 세상으로 나갈까?]

소용녀의 마음대로라면 차라리 이 고요하고 평안한 곳에 살고 싶었으나 양과가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그의 애정이 비록 깊어도 이러한 적막한 생활은 견디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우리 방법을 강구해서 위로 올라가요. 만약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그러나 위로 올라가려면 매우 어려울 텐데....]

두 사람은 얼음굴을 통하여 다시 수담으로 돌아와 보니 한 줄기 긴 동아줄이 곡구(谷口)에서 부터 걸려 있고 수담의 주변에 사방으로 어지럽게 발자국이 흩어져 있고 한구석에는 모닥불이 꺼지지도 않은 채 있는 것을 보았다.

[아,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수담 속으로 들어 왔었구나.]

수담을 한바퀴 돌자 큰나무에 칼끝으로 새긴 두 행의 글씨가 보였다.

<일등, 백통, 영고, 용, 영, 무쌍이 이곳에서 양과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애석하게 돌아감.>

양과는 마음속으로 매우 감격했다.

[그들이 결코 나를 잊지 않았구나.]

[누구라도 당신을 잊지 못해요.]

[그들이 비록 수담 속에 들어오긴 했지만 1백여 장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힘이 없어서 깊이 잠수하지 못해 결코 얼음굴의 소재를 찾지 못했던 거요. 만약 나도 동아줄을 타고 내려왔다면 결코 당신을 찾지 못했을 것이요.]

[내가 이미 세상만사는 하늘께서 은연중에 결정해 놓으셨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양과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명을 받는다.]

그는 손을 내밀어 동아줄을 잡고는 줄이 튼튼한지 위쪽이 잘 매어져 있는지 확인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 법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나 일등대사, 황도주, 노완동 등이 이미 여기를 지나갔다면 법왕이 벌써 멀리멀리 도망갔으리라 생각되었다.

[당신이 만약 올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업고 올라가지.]

소용녀는 가볍게 웃었다.

[16년 동안 무공이 비록 조금도 늘지는 않았지만 원래 배운 무예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양과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왼손으로 동아줄을 잡고 가볍게 경공을 전개하자 몸이 순식간에 10여장을 올랐고 소용녀도 그 뒤를 따라 올랐다. 두 사람은 잠시만에 기어올라 심곡을 벗어났다.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단장애 앞에 서서 소용녀가 그 때 바위에 세겨 놓은 글씨를 바라보니 격세지감을 느껴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말없이 웃었다. 두 사람은 가슴속의 기쁨으로 지난 16년 간의 모든 고난이 일시에 눈 녹듯 사라졌다.

양과는 산비탈에서 한 송이 용녀화(龍女花)를 따서 소용녀의 비녀 옆에 꽂아 주었다. 그러자 꽃과 사람이 어울려 붉은 꽃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더해 주는지, 사람의 얼굴이 꽃의 자태를 더해 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양양대전(襄陽大戰)

황약사는 양양성 위에서 이십팔숙대진을 펼쳐 금륜법왕과 한바탕 일전을 벌이자고 말했다. 곽정은 안무사 여문덕에게 알려 모든 장군들이 황약사의 말을 듣도록 교장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때 영웅대회에 참여했던 각처의 호걸들은 이미 대부분이 흩어졌지만 아직 성에는 영재(英才)들이 남아 있어 모두들 교장으로 모여 들었다. 황약사가 말했다.

[달자가 4대의 만인대를 이용해 망루를 포위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많은 병사와 말이 있다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도 단지 4만 명만을 이용한다. 손자병법에 용병(用兵)에 능한 자는 하나로 하나를 막는다 하였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는 높은 곳에 우뚝 서서 계속 말했다.

[우리의 이 이십팔숙대진은 오행(五行)의 방위에 의해서 나눈다.]

그는 모여 있는 장군과 병사들에게 다시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진법의 변화는 매우 복잡하여 일시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의 싸움에서는 오행의 변화를 잘 알고 있는 다섯분의 고수께서 지휘할 것이니 군사를 통솔하는 각 장군들은 이 다섯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움직여야 하오.]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중양은 황릉오기(黃陵五忌)로 토(土)에 속하며 곽정이 8천을 통솔해 중양을 공격해서 곽양을 구출하며 적과 싸우지는 않는다. 각각의 군사들은 등에 흙을 지고 공격하여 망루 아래에 이르러 즉시 흙으로 불을 끄고 망루가 무너지기 전에 사람을 구한다!]

곽정은 명령을 받고 한편으로 섰다.

[남쪽은 단릉삼기(丹陵三忌)로 화(火)에 속한다. 일등대사가 8 천명을 지휘한다. 이 중에 1 천 명은 주장(主將)을 호위하며 그 나머지 7 천명은 각각 7 대로 나누어 주자류, 무삼통, 사수어은, 무돈유, 무수문 형제, 무돈유 부인 야율연, 무수문의 부인 완안평 등 일곱 사람의 명령을 받는다. 송작칠숙(宋雀七宿)에 응하는 것은 정목안(井木安), 귀금양(鬼金羊), 유토장(柳土獐), 성일마(星日馬), 장월녹(長月鹿), 익수사(翼水蛇), 진화인(軫火蚓) 등의 7 성이다.]

일등도 이 명령을 받들었다. 황약사가 다시 말했다.

[북쪽은 현릉칠기(玄陵七忌)로 수(水)에 속한다. 황룡이 8 천을 지휘한다. 이 중에서 1 천 명은 주장을 호위하고 나머지 7 천 명은 7 대로 나누어 야율제, 양장로, 곽부 및 개방의 모든 장로와 제자들이 통솔한다. 현무칠숙(玄武七宿)에 응하는 것은 두목해(斗木獬), 우금양(牛金羊), 여토복(女土蝠), 허일서(虛日鼠), 위월연(危月燕), 실화저(室火猪), 벽수유(壁水魚) 등의 7 성이다.]

황룡도 이 명을 받들었다. 이 부대의 병사들은 개방의 제자들이 주력이 되어 인제가 매우 많았다.

황약사는 3 대의 부대를 정해 준 후 다시 말했다.

[동쪽은 청릉구기(靑陵九忌)로 목(木)에 속한다. 이 부대는 나 동사(東邪) 황약사가 통솔한다. 내 밑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죽어 버리고 겨우 정영만이 남았다.]

그래서 그는 영웅 대회에 참가한 호걸 여섯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동쪽의 부대도 8 대로 나눈다. 1 대는 주장인 나를 호위하고 나머지 7 대는 청룡칠숙(靑龍七宿)에 응하는 것으로 각목교(角木蛟), 항금룡(亢金龍), 저토학(저土학), 방월호(房月狐), 심일토(心日토), 미화호(尾火虎), 기수표(箕水豹) 등의 7 성이다.]

그는 최후로 서쪽의 군대를 말했다.

[이 부대는 전진교의 교주 이지상(李志常)이....]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무공으로 말하자면 이 부대의 주장이 나머지 4 대의 부대에 비해 매우 약함을 느꼈다. 돌연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봐! 황노사 당신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요?]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서 그가 바로 노완동 주백통임을 알았다.

[주형, 당신은 등에 난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으니 어찌 이같이 힘들 일을 하겠소? 원래 당신이 서쪽의 주장을 말하는데 제일 좋은데....]

주백통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변변하지 않은 작은 상처이니 마음을 놓으시오. 내가 서쪽의 주장을 맡겠소. 지상, 네가 감히 나하고 주장의 자리를 다투겠느냐?]

이지상이 공손히 대답했다.

[제가 어찌 감히...]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좋다. 나도 이미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하고는 이지상의 손으로부터 지휘봉을 건네 받았다. 황약사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주형, 조심하십시오! 당신도 8 천을 지휘하는데 그 중 1 천은 영고가 통솔해 주장을 호위하고 나머지 7 대는 이지상 등 전진교의 삼대(三代) 제자들이 나누어 지휘한다. 백호칠숙(白虎七宿)에 상응하는 것은 규목랑(奎木狼), 누금구(樓金狗), 위토치(胃土雉), 양일계(昂日鷄), 필월조(畢月鳥), 자화후(子火虎), 삼수원(參水猿) 등 7 성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서 각 부대의 군사들에게 군기고(軍器庫)에 가서 각자 사용하기에 알맞은 무기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 깃발을 휘둘러 4 만 명의 군사들을 동남서북중(東南西北中)의 다섯 방향으로 배열시키고 나서 낭랑하게 외쳤다.

[옛날에 운대(雲臺)의 28 장이 하늘에 응하고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의 중흥을 보좌했다. 우리 이 이십팔숙대진이 비록 한나라 광무제의

위세에는 뒤지지만 사악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야 하니 정정당당하게 전진해라. 모든 군사들은 각자 주장(主將)의 명령에 호응해 오느라 몽고 달자들과 훌륭한 일전을 치르자.]

모든 장졸들이 일제히 큰소리로 대답했다. 즉시 3발의 포성이 울리고 4개의 대문이 열리며 5부대의 군사와 말이 대열을 지어 빠져나갔다.

동쪽의 군사들은 각자 등에 매우 긴 나무말뚝을 메고 무대의 동쪽을 공격했다. 1천은 손에 방패를 들고 앞에 나가 화살을 막고 나머지 7천은 이쪽에서 쏘고, 저쪽에서 쏘고, 하며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워 보였지만 실은 8천 개 나무말뚝의 위치를 황약사가 그린 계획도에 의해 수립해 갔다. 이것은 오행팔괘(五行八卦)에 의한 것으로 순식간에 망루의 동쪽을 봉쇄했다.

서쪽의 부대는 전진교의 제자가 주력을 이루었다. 전진교 도사들은 원래 천강북두진법에 능하여 눈같이 번쩍이는 장검을 들고 7명이 한무리를 49명이 한떼를 이루어 좌충우돌하며 달려들자 몽고병들은 눈이 피곤해 활을 쏘는 데 상당한 방해가 되었다.

돌연 북쪽에 황용이 지휘하는 개방의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한마리 커다란 수룡(水龍)을 잡아 당겨 독즙을 몽고군의 몸에다 발사하고 있었다. 이 독즙이 몸에 묻자 즉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나고 잠시 후 물집이 생겨서 살이 썩어 들어가 몽고군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후퇴했다.

남쪽의 일등이 거느리는 8천은 불로 공격해 유향과 초석(硝石)의 독한 연기가 철통(鐵筒)에서 분출되어 온 하늘을 가렸다. 몽고군은 점점 불리해 지자 즉시 중앙으로 몰려들었다. 광정은 8천을 이끌고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다가 몽고군이 혼란에 빠지자 즉시 앞으로 달려 망루로 향했다.

돌연 망루 옆에서 호각소리가 나자 땅에서 수만의 몽고군이 고함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원래 몽고의 대장도 군사를 교묘하게 배치해 망루

주변에 4대의 만인대를 배치한 이외에도 땅에 굴을 파고 다시 수많은 북병을 두었다. 광정 등은 어찌 멀리서 적군이 파놓은 굴에 새로운 부대가 매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으랴! 이것으로 몽고군은 열세에서 우세를 점했다.

독전(督戰)의 북이 울리고 송군과 몽고군이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다. 무대의 옆을 지키고 있던 몽고의 궁수들은 밖을 향해 활을 쏘아 광정이 거느린 중앙군은 앞으로 전진했다가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에 다시 돌아왔다. 양군은 얼마간 싸웠으나 일시에 승패를 가릴 수는 없었다. 황약사가 푸른 깃발을 흔들자 돌연 동쪽의 군대가 남쪽을 공격하고 서쪽의 군대가 북쪽을 공격해 진법이 변화했다.

이십팔숙대진은 오행의 변환 이치를 품고 있었다. 남쪽 일등대사의 홍기군이 중앙으로 끼어들고 광정의 황기군이 서쪽으로 움직이고 주백통의 전진 백기군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황용이 지휘하는 개방 제자의 흑기군은 동쪽으로 밀려 갔다. 황약사의 청기군은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오행의 큰 변화는 소위 화(火)가 토(土)를 낳고 토가 금(金)을 금이 수(水)를 수가 목(木)을 목이 화(火)를 낳는 변화였다. 송병은 겨우 4만 명이었지만 그 진법이 오묘하고 지휘관이 모두 무림의 고수이고 군사들 모두가 광정 부부에게 감명을 받은 터라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딸을 구하려 했다. 이런 까닭에 몽고 병사가 비록 많았지만 결국 막아낼 수가 없었다.

격전이 오래 진행되어 황약사가 크게 휘파람을 불자 청기군이 중앙으로 물러나고 황기군이 북쪽을 공격하고 흑기군이 남쪽으로 돌고 홍기군이 질풍처럼 서쪽을 향하고 백기군이 동쪽을 향해 맹렬히 공격해 들어갔다. 이 진법은 다시 변해 오행이 역전되어 소위 목(木)이 토(土)를 제압하고 토가 수(水)를 수가 화(火)를 화가 금(金)을 금이 목(木)을 제압하는 형상을 이루었다.

몽고병들이 비록 무기가 좋고 용맹하지만 지혜가 빈약하니 어찌 당대 제일의 지략가인 황약사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는가? 이 진법이 계

속해서 여러 번 변화하자 망루를 지키던 몽고의 군졸들은 눈이 아프고 머리가 혼란해졌다. 송군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해 움직이자 어떻게 적을 막아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금륜법왕은 망루 위에 서서 망루 아래의 치열한 싸움을 보면서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다. 일전에 황룡의 조그마한 토진에 포위되어서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황약사의 가슴속에 있는 지혜는 그녀를 10 배는 능가할 것이 아닌가? 이 이십팔숙대진은 5명의 당대 제일의 고수에 의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굴복하지 않으면 몽고병의 피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았다. 황기군이 한발 한발 망루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비록 곽양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불을 붙여서 그녀를 태워죽일 생각은 없었다. 고개를 돌려 곽양을 쳐다보자 그녀는 두 손이 묶인 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법왕이 외쳤다.

[곽양아, 빨리 아버지에게 투항하라고 소리쳐라. 내가 하나부터 열을 셀 때까지 너의 아버지가 투항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겠다.]

[당신이 숫자 세기를 좋아하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아니라 일천까지 아니 일만까지라도 세어 보세요.]

법왕은 화가 치밀었다.

[내가 너를 불태우지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당신이 참 가련해요.]

[나의 무엇이 가련하느냐?]

[당신은 우리 아빠 엄마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외할아버지인 황도주도 이기지 못하고 일등대사도 이기지 못하고 노완동 주백통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오빠인 양과도 이기지 못해 겨우 나이 어린 나를 여기에 붙잡아 놓았지요. 우리 양양성에는 비록 장막을 지키는 병졸이라 하더라도 당신처럼 비열하고 나약한 사람은 없어요. 법왕, 내가 당신에게 충고 한마디 할까요?]

법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네가 나에게 무슨 충고를 하겠다는 말이나?]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의미로 살아요? 차라리 망루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곽양은 이 때 이미 생사를 초월해 감히 이같은 몇 마디를 지껄였다. 이 말에 법왕은 분통이 터져 큰 소리로 외쳤다.

[곽정 듣거라. ...! 내가 하나부터 열을 셀 동안에 네가 행복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망루에 불을 붙이도록 명령하겠다.]

곽정이 외쳤다.

[네가 보기에 이 곽정이 쉽게 투항할 사람같이 보이느냐?]

황약사는 몽고말로 외쳤다.

[금륜법왕. 너는 적을 똑똑히 알지 못하니 지혜가 없고.... 어린 아녀자를 능멸하니 인(仁)이 부족하고...., 감히 우리들과 칼을 들고 싸우지 못하니 용기가 없다. 이렇게 지혜도 용기도 없는 사람을 어찌 영웅호걸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절정곡에서 나에게 사로잡혔을 때 조그만 곽양에게 18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주기를 애원해 그녀가 너를 풀어 주었다. 너는 지금 은혜를 잊고 삶을 탐하는 보잘 것 없는 무리인데 어찌 뻔뻔스럽게 몽고 제일의 국사라 할 수가 있겠느냐?]

곽양에게 살려 주기를 애원한 일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황약사가 깊은 계책을 써서 군사를 출동하기 전에 이미 황용에게 법왕을 욕하는 말을 몽고말로 번역해서 잘 기억하도록 한 다음 단전의 기를 사용해 낭랑하게 소리쳐 수천 수만의 병사들이 한참 싸움을 벌이는 이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다. 법왕이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해도 그만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다. 몽고인들은 원래 용사를 가장 존경하고 비열한 인간을 가장 천시해 모든 병사들은 이 말을 듣고는 무의식중에 모두 망루를 쳐다보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양군이 싸움을 벌일 때 기세가 왕성한 쪽이 승리하는데 몽고군은 이미 총지휘관이 이처럼 비열하다는 말을 듣고는 일시에 맥이 빠졌다.

송나라 군사는 이 틈을 이용해 기세를 올렸다. 법왕은 정세가 심상

치 않자 소리쳤다.

[곽정, 내말을 들어라. 하나부터 열을 세어 <열> 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너의 귀여운 딸은 재가 되는 줄 알아라. 하나..., 둘..., 셋..., 넷...]

그는 수를 세어 나가며 곽정이 참지 못하고 투항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자 내심 당황했다.

곽정, 황약사, 일등, 황용, 주백통 등 5부대의 군사들은 법왕이 망루에서 숫자를 세는 것을 들으며 망루 아래에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불을 높이 들고 그의 명령을 기다려 즉시 불을 붙이려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다급하고 화가 치밀어 전력으로 달려나가 곽양을 구하려 했다. 그러나 몽고병의 활쏘는 솜씨가 대단해 망루 앞에서 쏘는 그들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었다.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사수어은, 양장로, 무수문등이 모두 몸에 상처를 입었으며 4 명의 전진교 3 대 제자와 10 여 명의 개방의 고수들이 화살에 맞아 사망했고 송군의 사상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황용은 일찌기 곽부에게 연위갑을 외할아버지께 입혀 드리라고 명하여 만약 전투가 치열해졌을 때 손녀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몸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려 했다. 황약사는 이것이 딸의 효심이라 생각하고 거절하지 못했지만 몰래 벗어서 주백통을 속이고 그에게 입혀 주었다. 이 때문에 주백통은 상처가 다 치료되지 않았지만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을 헤맸어도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는 화살이 자기 몸 앞에 이르러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 계속 앞으로 나가며 장풍으로 몽고의 사수들을 물리쳤다. 금륜법왕의 목 소리가 들렸다.

[여덟....., 아홉....., 열....., 좋다! 불을 붙여라.!!]

순식간에 무대 옆에 쌓아 놓은 장작과 풀에 불이 붙어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 곽정이 거느린 8천 황기군은 등에 비록 흙을 메고 있었지만 망루 앞 2 백 보 이내에까지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어 안

타깝게 발만 굴렀다.

황용은 검은 연기 속으로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이 흔들거렸다. 야율제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장모님, 돌아가셔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저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양아를 반드시 구해 오겠습니다.]

바로 이 때 돌연 먼 곳에서 뇌성과 같은 소리가 들리며 수 만의 몽고 정병들이 양측에서 양양을 질풍같이 공격했다. <만세. 만세, 만만세!>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몽고의 대한 몽케가 큰 깃발을 높이 쳐들자 그들은 재빨리 성 아래에 이르러 맹렬히 성을 공격했다.

곽정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창을 들고는 이미 망루에서 1백여 보 떨어진 곳에 이르러 몽고병의 빗발치는 화살을 막으며 곧 망루에 올라가려고 생각했으나 돌연 뒤에서 무슨 변이 있는 것 같아 크게 당황했다.

(아! 달자의 간악한 흉계에 빠졌구나! 안무사가 나약해 적을 두려워하니 비록 성 안에 군사들이 많아도 뛰어난 지휘관은 없으니 큰 일을 망칠까 두렵구나.)

곽정과 황약사는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성의 수비를 더욱 강화해 적군이 빈틈을 이용해 습격해 오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망루 앞에서 몽고군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몽고의 대한은 망루 앞의 상황에 관계 없이 위협을 무릎쓰고 친히 성을 공격할 줄 어찌 알았으랴! 곽정은 생각했다.

(딸을 구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성을 지키는 것은 큰 일이다!)

[장인어른, 우리 양아는 신경쓰지 마시고 급히 적군의 후방을 공격하십시오.]

황약사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불길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법왕이 계단을 하나씩 내려와 망루 위에는 이제 곽양 혼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어찌 사태의 위급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곽양이 어찌 양양성의 안위와 비교될 수 있겠는가? 단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만두자!>

고 소리치고 청기를 휘둘러 군대를 남쪽으로 돌리라고 명령했다.

곽양은 망루 위에 묶여서 부모와 외할아버지가 끝내 자기를 구하지 못한 채 뜨거운 불길에 급하게 발밑을 감싸자 이젠 영락없이 자신은 불에 타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지만 막상 일이 닥쳐오자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져 고개를 들고는 저 멀리 그림과 같은 평야를 쳐다보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런데 왜 나는 일찍 죽어야만 하나? 큰오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곡저에서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양과와 만났던 며칠 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비록 그 이후 다시 만날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한 번만 더 만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때 매우 위험했지만 마음은 이상스럽게 편안해 망루 아래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송군과 몽고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바로 온 정신이 심곡(深谷)으로 쏠려 과거의 추억을 더듬고 있을 때 돌연 맑은 휘파람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순식간에 천군만마가 내는 소리를 압도했다.

곽양은 가슴이 떨리며 이 휘파람소리가 바로 양과가 그 날 수 많은 맹수를 압도하던 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다. 즉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자 서북쪽의 몽고군이 나뿔굴며 계속해 양쪽으로 갈라지며 두 사람이 칼과 창을 숲을 뚫고는 마치 큰 배가 물결을 가르고 오듯 달려왔다. 이 두 사람의 앞에는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두 날개를 펼쳐 일진 광풍을 일으키며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떨어뜨렸다. 그 큰 새는 날카롭고 매서운 게 바로 양과의 신조였다.

곽양은 매우 기뻐하며 그들 두 사람을 응시했다. 왼쪽 사람은 청관(靑冠)에 황포를 입은 양과였고 오른쪽은 흰옷을 펼럭이는 미모의 여자였다. 두 사람은 모두 장검을 잡고 은빛을 번쩍이며 신조의 뒤를 따라 망루로 달려왔다. 곽양이 소리쳤다.

[큰오빠! 그분이 바로 소용녀입니까?]

양과의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소용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양

과는 곽양의 말을 듣지 못했다. 신조는 앞장서서 길을 열며 두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날아오는 억센 화살을 모두 빗나가게 했으며 비록 몸에 맞아도 힘이 없게 했다. 그렇지만 신조가 아무리 민첩하고 철같이 튼튼한 날개를 가졌어도 살을 가진 짐승으로 어찌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몽고병들은 신조가 맹렬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말을 달려 창으로 찌르려 하자 양과와 소용녀는 장검으로 그들을 찔러 하나씩 말에서 넘어뜨렸다.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새는 서로를 보호하며 잠시 만에 망루 앞에 이르렀다. 양과가 외쳤다.

[양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해 줄 테니....]

그는 망루의 아랫 부분이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음을 알고는 단번에 계단에 뛰어올라 수 장을 오르자 돌연 머리에 장풍이 불어 내려왔는데 바로 금륜법왕이 장풍으로 습격한 것이었다. 양과는 장검을 들고 있어 이것으로 맞서 썰, 하며 두 줄기 강한 힘이 만나며 두 사람이 동시에 흔들거리자 나무 계단도 흔들려 거의 끊어질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 놀라며 상대방을 칭찬했다.

(16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그의 공력이 이렇게 무섭다니!)

양과는 정세가 너무 긴급해 그와 계단에서 장력으로 맞설 수 없음을 알고 장검을 위로 휘둘러서 다리고 손이고 마구 공격했다. 법왕은 비록 양과보다 윗 계단에 있었지만 짧은 금륜으로 그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양과를 상대하기가 불편해 할 수 없이 몸을 구부려 급히 망루 위로 다시 올라갔다. 양과는 그의 등을 향해 몇 번이나 찔렀으나 법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소리만 듣고도 금륜으로 하나하나를 막아 마치 등뒤에 눈이 있는 것 같았다. 양과는 박수 갈채를 보냈다.

[간적! 대단하구나!]

이 때 두 사람은 이미 계단에서 대결을 했는데 양과는 법왕의 장력이 대단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호적수로 생각하고 속으로 찬사를 보냈다. 자신도 파도가 치는 가운데 공력을 단련해 힘이 이미 성난 파도와 같아 16년 전에 자기는 법왕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오늘은 단

번에 그를 상대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 때 그의 쌍륜이 다가오자 피하지 않고 장검을 흔들며 그의 힘을 한 번 시험해 보려 했다. 순식간에 장검과 쌍륜이 만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2 개의 거대한 힘이 만나자 양과의 장검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법왕의 쌍륜도 금륜법왕의 손을 빠져나가 망루 아래로 떨어져 3 명의 몽고 궁수가 쌍륜에 맞아 죽었다. 양과는 적잖아 놀랐다.

(16 년 동안 나는 현철중검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큰 낭패를 만났구나!)

두 사람은 각자 뒤로 물러나 둘 다 손이 은은히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법왕은 손을 깊숙이 품에 넣어 동륜과 천륜을 꺼내어 던졌다. 양과는 더 이상 별다른 무기가 없자 오른쪽 소매를 휘둘러 바람을 일으키고 왼손으로는 장풍을 일으켜 상대했다. 광양이 외쳤다.

[늙은 중아! 내가 당신은 우리 오빠를 당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스스로 무예가 매우 강하다고 하면서 어찌 손에 무기를 잡고 빈손인 그와 싸우는가? 뻔뻔스러운 사람 같으니...!]

법왕은 코웃음을 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 있는 쌍륜의 동작이 더욱 매서워져 갔다.

황약사, 광정, 황용 등은 각각 병사를 이끌고 양양을 구하기 위해 돌아가다가 돌연 양과와 소용녀가 신조와 함께 나타나 무대에 오르자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황약사는 깃발을 흔들며 동서남북중의 5 부대 가운데서 4 천 명씩 2 만 명을 선발해 성을 공격한 적의 후방을 급히 공격하고 나머지 2 만 명은 망루 아래에서 양과를 응원했다. 송군은 비록 수자는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양과가 무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는 1 대 10 으로 전력을 다해 싸웠다. 단지 몽고병의 궁수들이 마치 철옹성 같이 버티고 서서 화살을 쏘아 양군은 한치의 땅이라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했다. 송군이 몇 장을 공격해 가면 순식간에 다시 밀려 내려오곤 했다.

양양성 아래에서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안무사 여문덕은

갑히 성 앞에 나서서 독전하지 못하고 온몸에 철갑을 두른 채 애첩 2명을 데리고 보루에 깊숙이 숨어 떨면서 말했다.

[이 위기를 구해 주세요. 관세음보살, 도와.....,도와 주셔서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2명의 애첩은 그의 입가에서 튀기는 침을 닦아 주었다.

첩자로 파견된 병사들이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했다.

[동문에 다시 적군 만인대가 증가되었고...,북문의 몽고군 사다리가 이미 성벽에....]

여문덕은 두 눈을 번쩍이며 물었다.

[곽대첩은 돌아오셨느냐? 달자는 아직 물러가지 않았느냐?]

이 때 양과는 오직 한 팔로 법왕의 쌍륜과 이미 2백여 동작을 상대했다. 두 사람의 무공은 각각 그 파가 달랐지만 맹렬하게 싸움을 벌여 장관을 이루었다. 돌연 무대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세 사람의 눈앞에 이르렀다. 양과는 비록 무기가 없었지만 결코 열세에 물리지 않았다. 법왕은 격투 중에 망루가 흔들거림을 느끼고는 망루의 밑부분이 이미 불타서 쓰러지면 그 때는 반드시 양과와 곽양이 동시에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과의 장법이 점점 기이해져 다시 1백여 동작을 겨룬 후 그에게 제압당할까 두려워서 급히 철륜을 양과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던지고 그가 잠시 이를 피하느라 머리를 숙이자 오른손의 동륜을 갑자기 곽양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그녀는 나무에 묶여서 온몸을 꿈쩍할 수 없으니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양과는 겁을 먹고 급히 달려가 오른쪽 소매를 휘둘러 동륜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가 곽양을 구하려 달려들어 잠시 방심을 하자 법왕의 날차로운 철륜이 양과의 왼쪽 다리를 향해 날아왔다. 양과는 공중에서 급히 오른쪽 다리로 적의 손목을 차려했다. 법왕의 철륜이 움직이자 이번만은 양과도 피하지 못하고 오른쪽 넓적다리에 철륜이 명중해 깊은 상처를 입고는 피가 솟구쳤다. 곽양이 <아!>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법왕은 이미 연륜을 꺼내어 두 손에 쌍륜을 들고 다시 곽양을 공격하려 했다. 그는 비록 양과가 상처를 입었어도 순식간에 그를 제압할 수 없음을 알고는 즉시 곽양을 습격해 양과로 하여금 다시 급히 그녀를 구하려고 서두르게 해 허점이 나타날 때 공격하려 했다. 곽양이 외쳤다.

[큰오빠! 나는 괜찮아요, 단지 이 서장승을 죽여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다시 <억.> 하는 소리를 내며 양과는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소용녀와 신조는 망루 아래를 지키며 주백통과 힘을 합쳐서 몽고의 궁수들을 몰아내 그들이 곽양을 향해 화살을 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온 신경은 계속해서 양과의 몸에 집중되어 칼을 휘둘러 적을 죽일 때에도 계속 망루를 쳐다보았다. 돌연 양과의 온몸이 피로 물든 것을 보고는 가슴이 뛰어 정신이 아득했다. 이 때 나무 계단은 다 타버려 무대에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망연히 칼을 휘둘러 적을 베면서 자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양과는 큰 위험을 만날 때마다 암연소혼장(暗然銷魂掌)을 사용해 여러 번 강적을 물리쳤다. 이 장법은 몸과 마음이 합쳐져야 하는데 그는 소용녀를 만난 이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어디에서 암연소혼장의 심정이 나오겠는가? 비록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옛날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한 동작 한 동작을 펼쳤으나 그 위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양과는 망루 위에서 빈 손으로 격투하며 어깨와 다리에 부상을 입는 광경을 곽정 등도 바라보았으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할지를 몰랐다. 황용은 피를 써서 야율제의 수중에서 장검을 나꿔채 곽정에게 던져 주면서 외쳤다.

[과아에게 활로 쏘아주세요!]

곽정은 장검을 건네 받은 다음 2 개의 철태궁(鐵胎弓)을 집어들더니 쌍궁을 나란히 해 검자루를 활의 시위에 얹었다. 왼손으로 쌍궁을 받

쳐들고 오른손으로 2 개의 시위를 팽팽하게 잡아당긴 후 즉시 손을 놓으니 휘익, 하는 급한 소리를 내면서 장검은 백광을 번득거리며 하늘을 뚫고 날아갔다.

그 장검은 호르륵 하는 소리를 내면서 곧바로 양과의 몸 뒤로 날아갔다. 양과가 오른쪽 소매를 말아서 검신(劍身)을 감았는데 때마침 법왕의 연륜과 맞부딪쳤다. 양과는 왼손으로 장검을 움켜잡고 쌍륜 사이로 찢러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왼쪽 어깨는 부상을 입은 후라 힘이 이미 감소된 상태였다. 법왕의 쌍륜이 한번 조여지니 팍, 하는 소리를 내면서 또다시 장검이 부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망루 밑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모두 대경실색했다.

양과는 오늘 자신의 천운이 이미 다하여 곽양을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도 망루 위에서 잃게 된다고 생각되자 처량하게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용이 나를 신경쓰지 말고 당신이나 몸조심 해요!]

바로 이 때 법왕의 철륜이 그의 이마를 향해서 날아들었다. 양과는 마음이 움츠러 들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소매를 휘둘러 일장을 내리쳤는데 퍽, 하는 소리를 내며 이 일장의 공격이 때마침 법왕의 어깨에 명중했다.

돌연 망루 밑에서 주백통이 큰소리로 외쳤다.

[홀룡한 타니대수(拖泥帶水)의 동작이로다!]

양과는 잠시 얼빠진 모습을 하다가 비로소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게 됨을 알고는 혼백이 흩어져서 한 동작을 내뻗는다는 것이 그만 공교롭게도 암연소혼장 중의 타니대수를 펼친 것이었다. 이 장법은 마음이 팔꿈치를 움직이고 팔꿈치가 다시 손바닥을 움직이는 식으로 모든 것을 마음이 주재(主宰)하는 것인데 그 날 만화곡(萬花谷)에서 주백통은 이러한 심정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무술에는 정통했지만 끝끝내 그 묘한 경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양과가 소용녀와 재회하게 되자 이 장법은 그 신비한 효과를 잃게 되었는데 지금 이 순

간 생사의 고비에 이르러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 소용녀와 영원히 이별한다는 생각을 하자 애통한 마음이 극에 이르게 되어 이 암연소혼장의 큰 위력이 부지불식간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법왕은 원래 감정을 잘 억제하였는데 돌연 어깨에 양과의 일장이 적중되자 놀람과 분노가 함께 솟구쳐서 즉시 몸을 세워 공격해 들어갔다. 양과는 뒷걸음질쳐서 피하면서 잇달아 혼불수사(魂不守舍), 도행역시(倒行逆施), 약유소실(若有所失)의 세 동작을 펼치며 또다시 행시주육(行屍走肉)의 한 동작을 펼쳐서 그를 걷어찼다. 이 발길질은 황홀하고 은은하며 차는 듯 마는 듯해 법왕은 피할 생각을 못했다.

퍽, 소리가 나면서 법왕의 가슴에 적중하고 말았다. 법왕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입에서 피를 쏟아 내고는 망루 밑으로 떨어졌다.

송군과 몽고군은 이구동성으로 고함을 질렀다. 송군쪽의 고함은 환호성이었고 몽고군 쪽의 고함은 놀람의 비명소리였다.

이 때 망루가 연달아 흔들리며 빼그덕빼그덕 급한 소리를 내자 양과는 사태가 급박함을 깨닫고는 미처 곽양의 결박을 풀지 못하고 일장을 휘둘러 그녀를 묶고 있는 나무 기둥을 꺾었다. 그는 나무기둥과 그녀를 통째로 품에 안고 신조의 등을 향해서 몸을 날렸다. 그 때 신조는 두 날개를 펼치며 수장을 펼쩍 뛰어올랐다. 몸이 무거워 날 수는 없었으나 이 한 번의 도약으로 몇 사람의 키 높이만큼이나 뛰어오르자 양과와 곽양은 사뭇히 신조의 등 위에 내려앉아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다. 바로 이 때에 불꽃이 치솟는 가운데 연달아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망루가 기울어졌다.

법왕은 양과의 발길질에 걷어채여 망루 밑으로 떨어져 비록 몸에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신음을 억지로 참으며 몸을 굴러서 일으키려 했다. 돌연 등뒤에서 누군가가 크게 웃으면서 그의 허리를 가로막고 껴안더니 땅 위에 대고 눌렀다. 법왕은 천만개나 되는 바늘이 동시에 그의 몸으로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원래 그를 땅에 대고 눌러 댄 사람은 바로 노완동 주백통이었다. 그가

몸 위에 끼입은 것은 도화도의 지보(至寶)인 연위갑으로서 이것을 칼과 창으로도 뚫지 못할 뿐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많이 달려 있었다. 법왕은 이미 부상을 입은 데다 또다시 노완동의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니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망루가 무너져 내려앉자 주백통은 몸을 일으켜 피했으나 법왕은 불기둥 속에 깔리고 말았다.

황용은 사랑하는 딸이 마침내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보고는 기쁨에 넘쳐 울음을 터뜨리며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양과에 대해 감격했다. 급히 딸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몸에 있는 결박을 풀어 주었다. 광정, 황약사, 일등대사, 야율제 등도 모두 감격했다.

망루 밑에 있던 몽고군은 주장(主將)이 운명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혼란에 빠졌는데 게다가 5 부대의 송군에 의해 이리저리 공격을 받게 되자 곧 대오가 무너져 버렸다.

광정은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크게 외쳤다.

[돌아가서 양양을 구하고 몽고 대한을 죽이자.]

송군은 고함소리로 이에 응답하며 고개를 돌려 막 성을 공격하는 몽고군을 향해 맹렬히 쳐들어갔다.

소용녀는 옷깃을 찢어서 떨리는 손으로 양과의 상처를 싸매 주면서 끝내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했다. 양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망루 밑에서 걱정하고 놀라서 위에서 싸운 나보다 더 고생을 했지.]

송군은 천지가 진동할 만큼 함성을 질러 대며 5 색 깃발을 휘날리면서 맹렬하게 몽고군을 향해 진격했다. 양과가 눈을 들어 멀리 쳐다보니 적군은 질서가 엄정하고 그 수 또한 송군의 몇 배에 이르는 것 같았다. 송군이 밀물처럼 거듭 공격했으나 조금도 적군을 동요시킬 수 없었다. 양과가 외쳤다.

[거간(巨奸)을 죽였으나 적군을 아직 패배시키지 못했으니 우리는 더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피곤하지 않소?]

양과는 앞의 몇 마디는 비분강개한 억양이었으나 마지막 한마디는

매우 부드럽게 바꾸었다. 소용녀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곧 그대로 따르겠어요!]

홀연 곁에서 한 소녀의 음성이 들렸다.

[양부인,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바로 곽양의 목소리였다. 소용녀가 고개를 돌려 웃으면서 말했다.

[소매, 우리의 재회를 위해 축도를 해 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큰오빠께서 연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니 결국은 나를 양양으로 데리고 와서 당신을 보게 해 주는군요.]

곽양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오로지 당신만이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소용녀는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지극히 친숙한 마음이 일었다. 소용녀는 본래 누구든지 냉랭하게 대해 왔는데 양과가 곽양을 과찬하며 그녀가 그들 부부의 재회를 축도했으며 또한 그녀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심곡에 뛰어들었으나 양과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살하려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각별하게 그녀에게 신경을 썼다.

양과는 사방에서 주인을 잃고 어지럽게 날뛰는 몇 마리의 말을 끌어오면서 말했다.

[내가 길을 뚫은 테니 다같이 진격합시다!]

하며 말등에 올라타고 선두에서 질주했다. 소용녀와 곽양도 각각 한 필의 말 위에 올라타고 그 뒤를 따랐다. 세 사람이 남쪽을 향해 질주하다가 바라보니 성을 공격하는 수백 개의 사다리가 양양성 벽에 걸쳐져 있고 몽고병들이 개미떼처럼 성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세 사람이 조그만 언덕 위로 말을 몰아 사방을 둘러보니 홀연 서편에서 1천 여명의 몽고병이 야율제가 통솔하는 3 백여 명의 병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이 몽고병들은 모두 4 척의 만도(彎刀)를 사용해 야율제의 부하들을 하나씩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곽부가 한 무리의 병마를 이끌고 진격해 들어가 구출하려 했으나 몽고의 2 대 천인대에 가로막혀 부부는 서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접근할 수가

없었다. 곽부는 남편 곁의 병사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군만마가 싸우는 진(陣) 안에 홀로 포위당하게 되면 무공이 아무리 높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 때 양과가 외쳤다.

[곽아가씨, 나에게 큰 절을 세 번 하면 곧 당신의 남편을 구해 드리겠소.]

평소 교만한 곽부의 성질로 봐서는 절은 고사하고 죽으면 죽었지 결코 양과에게 굴복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남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되자 더 이상 망설이지 못하고 말을 몰아 언덕으로 올라와서 말 아래로 몸을 날려 두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다.

양과는 깜짝 놀라 급히 그녀의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신의 경박한 언동을 깊이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소. 농담으로 한 말이니 참말로 여기지 마시오. 야율형과 나는 오랜 친구와도 같으니 어찌 구해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소?]

하며 나는 듯이 몸을 날려 언덕 아래로 내려가 싸움터 곳곳에서 모두 8마리의 건장한 말을 잡아 끌고 와 앞에 4마리, 위에 4마리씩하여 2열로 늘어 세운 다음 말등에 올라 한 손으로 8개의 고삐를 잡아 끌면서 큰소리로 호통치며 적진 한가운데로 진격해 들어갔다.

송나라 때의 전진(戰陣) 중에는 원래 연환갑마법(連環甲馬法)이란 게 있는데 옛날 쌍편(雙鞭) 호연작(呼延灼)이 양산박(梁山泊)을 공격할 때에도 일찌기 이 연환마법을 써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양과가 이 8필의 말을 2열로 엮은 것은 완전히 작은 연환마진인 것이다. 다만 이 8필의 말은 잡다한 종류들이었고 훈련마저 시키지 않아서 혹은 동으로 혹은 서로 뛰어 제대로 대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양과의 신력으로 고삐를 잡아당기자 8필의 말은 고분고분 말을 들으면서 32개의 쇠발굽을 박차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앞을 향해 질주했다. 몽고군은 지금까지 아무데서도 이러한 신기한 기마술을 본 적이 없었다. 몽고군은 경탄하는 사이에 8필의 말은 이미 진중으로 진입했다.

양과는 옷소매를 말아서 큰 깃발 하나를 가로채 안장 위에 세웠다.

몽고 병사들이 큰소리로 호통치며 앞으로 나서서 가로막자 양과는 기를 휘둘러 비스듬히 쓸어 가면서 3명의 장군을 말 아래로 쓰러뜨렸다. 야율제와 이미 5장 거리에 이르렀음을 보고는 외쳤다.

[야율형,! 빨리 위로 뛰어오르시오!]

곧이어 깃발을 휘두르니 야율제가 위로 솟구쳐 뛰어올랐다. 양과가 팔꿈치를 감아올리자 깃발은 마침 야율제의 몸을 둘러감았다. 두 사람과 8필의 말은 여러 겹의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야율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양형제. 구해 줘서 고맙소. 그러나 나의 부하들이 아직 포위망 속에 갇혀 있으니 어찌 나 혼자 살 수가 있겠소이까! 나는 그들과 함께 여기에서 죽겠소이다!]

양과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당신도 가서 1개의 큰 기를 빼앗아 오시오.]

한 뒤 곧이어 부싯돌을 꺼내 깃발에 불을 붙였다. 야율제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요!]

그는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서 1개의 큰 깃발을 빼앗아 들고 양과의 불 붙은 기에 대고 불을 붙였다. 두 사람은 큰소리를 질러대면서 불붙은 깃발을 휘두르며 또 다시 공격해 들어갔다.

이 2개의 불 타는 깃발은 춤추듯 흔들거리면서 그 기세로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핏방울 같은 불꽃이 공중에서 이리저리 춤을 추자 몽고병은 당기만 하면 머리와 이마를 지지게 되어 있었다. 정세가 이렇게 되자 몽고병들은 비록 용감하기는 하나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율제의 부대는 이 때 단지 7,8명이 남았는데 이 기회를 틈타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야율제는 남은 병력을 모아 흙언덕 위에 집결시키고는 약간 숨을 돌렸다.

곽부는 양과의 앞으로 다가가서 공손하게 예를 올렸다.

[양오빠! 제 일생 동안 당신께 미안한 짓만 했는데도 당신은 인의

(人義)를 베풀어 덕으로써 원수를 갚고 생명을 구해....]

여기까지 말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사실 과거에 양과는 수차에 걸쳐서 그녀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나 껍부는 끝내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도무지 떨칠 수가 없었다. 그가 자신의 무공이 괜찮다는 것을 믿고는 숨씨를 뿔내었을 뿐 자신에게 어떤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 이렇게 그녀의 남편을 구해 주자 껍부는 비로소 진정으로 감격하여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다. 양과가 급히 답례를 했다.

[부매(芙妹),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비록 항상 다투고 고집을 부렸지만 사실은 남매와 같은 정을 나누고 있소. 다만 이후로 당신이 더 이상 나를 보기 싫어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면 난 꽤히 만족하겠소.]

껍부가 잠시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어릴 적의 일들이 순식간에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설마 그를 싫어했던 말인가? 정말로 그를 원망했던가? 무씨 형제는 줄곧 목숨을 걸고라도 나의 환심을 사려 했는데도 그는 오히려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었지. 그가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고분고분했다면 내가 그를 위해 죽어도 아까울 게 없었을 것이다. 나는 어찌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를 원망했을까? 내가 속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데도 그는 조금도 나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20 여년 동안 그녀는 줄곧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매번 양과에게 생각이 미치면 으레 그를 적수로 여기면서도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 양과만 그녀의 심사를 모른 게 아니라 그녀 자신조차도 자신의 심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쌓여 있던 원망과 미움이 가시자 그녀는 비

로소 그에 대한 자신의 이같은 깊은 관심을 돌연 깨닫게 되었다.

(그가 적진으로 진격해 들어가 남편을 구하려 했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더 걱정했던가? 정말로 말할 수가 없구나.)

바로 이 천군만마가 서로를 쳐 죽이는 적진 가운데서 곽부는 돌연 자신의 심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양아의 생일날 세 가지 선물을 보내 왔을 때 나는 왜 그것을 미워했을까? 그가 곽도의 음모독계(陰謀毒計)를 폭로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개방의 방주가 되게 하였는데도 나는 왜 속으로 화를 냈을까? 곽부야, 곽부야! 넌 자신의 친동생을 시기하고 있구나! 그는 양아를 대하는 부드러운 태도의 반만큼도 나에겐 친절하지 않았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양과와 곽양을 흘려 보았다. 그러나 즉시 놀라면서 깨달았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남편이 있는 부인이며 남편은 또 나를 극진히 사랑으로 대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부지불식간에 깊이 장탄식을 했다. 비록 그녀는 일생동안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실로 말 못 할 유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곧 구할 수 있었으나 진정으로 가장 원했던 것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일생 동안 왜 자신의 성질이 이렇게 난폭하며 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때 자기는 오히려 화가 치솟았는지를 자신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곽부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자신의 기이한 심사를 생각했다. 양과, 소용녀, 야율제, 곽양 등은 눈을 모아 양양성 앞의 치열한 전투를 바라보았다. 몽고군은 이미 개미떼처럼 성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곽정, 황약사 등이 통솔하는 병마가 비록 뒤에서 공격하며 견제했지만 수가 너무 적어 성을 공격하는 몽고군의 대오를 동요시킬 수는 없었다. 몽고 대환의 큰 깃발이 점점 성벽으로 다가오자 성 안의 수비병들은 사기가 떨어져 성을 기어오르는 적군에게 반격을 가할 기세조

차 없었다.

곽양이 급히 물었다.

[큰오빠, 어쩌면 좋겠어요?]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늘이 실로 나를 돌보아 용아와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오늘 죽는다고 해도 유감이 없다. 사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전장에서 죽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정신을 분발해 크게 외쳤다.

[야율형. 우리 다시 쳐들어가 적을 쳐 죽입시다!]

야율제가 말했다.

[좋은 말씀이오.]

소용녀와 곽양도 나란히 외쳤다.

[여러분 다 같이 갑시다!]

[좋아요. 내가 앞장을 서고 여러분들은 긴 창을 많이 집어들고 내 뒤를 따르시오.]

야율제는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해 싸움터에서 긴 창을 주워 사람마다 모두 서너 자루씩 안겨 주었다.

양과가 긴 창을 집어들고 말을 몰아 앞으로 진격하자 신조는 큰 걸음으로 나아가 말과 짝이 되어 날개를 펴서 날아오는 화살을 튕겨 냈다. 소용녀, 야율제, 곽부, 곽양 등 네 사람은 바짝 그 뒤를 따랐다. 양과는 몽고 대한의 큰 깃발을 향하여 맹렬히 쳐들어갔다. 야율제는 깜짝 놀랐다. 그는 몽고 대한이 친히 앞에 나와 적을 상대하니 분명 호위가 엄중할 것이며 좌우에 수많은 정예병과 맹장이 있을 것인데 자신들의 1백여 명 병력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헛되이 목숨을 잃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 한 목숨은 양과가 구해준 것이니 그가 물로 가면 물로 가고 불 속으로 가라면 불 속으로 가며 그가 어딜 가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일행은 매우 빨리 달려서 순식간에 몇 리 떨어진 양양성 아래에 도

작했다. 몽케의 수행 병사들은 양과의 기세가 맹렬함을 보고는 2 대의 백인대를 내보내 가로막았다. 양과가 왼쪽 팔꿈치를 휘두르자 한 자루의 긴 창이 날아가서 백부장의 철갑을 꿰뚫고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잇달아 야율제의 수중에서 한 자루의 긴 창을 받아 들어 두번째의 백부장을 죽였다. 몽고 병사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틈에 양과는 이미 진을 넘어 들어갔다. 수행 병사들은 크게 놀라 칼과 두 갈래 창을 세워 들고 분분히 앞으로 나서서 가로막았다. 양과는 가로막는 몽고군을 창 하나에 한 사람씩 찔러 죽였다. 그의 왼쪽 팔꿈치 신공은 본시 산과 바다의 일렁이는 물길 속에서 연마한 것으로 창을 던지는 그 위력은 암석이라 할지라도 능히 뚫을 수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사람의 몸뚱이 정도야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의 창은 모두 투구를 쓰고 갑옷을 두른 장군을 향해 던져졌다. 순식간에 17 자루의 긴 창을 던져 17 명의 몽고 맹장을 죽였다.

이 기습은 너무나 빨라 미처 방어할 수가 없었다. 몽고의 대군은 성 아래에 10 여만 명이 집결해 있었는데 양과는 급히 앞으로 말을 몰아 쉽게 수비를 꿰뚫고는 단숨에 대한의 말 앞에 이르렀다.

몽케의 호위병들은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와 가로막았다. 쌍지창을 집어들고 갑옷을 두른 병사가 거칠게 나와서 대한의 몸 앞을 막았다. 양과는 팔꿈치를 되돌려 야율제의 수중에서 다시 긴 창을 집어들려 했으나 빈 손을 잡고 말았다. 알고 보니 갑옷을 두른 몽고 병사에 의해 꿰뚫긴 것이었다. 몽고 대한을 보니 얼굴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머리를 잡아당겨 막 도주하려 했다. 양과는 긴 휘파람소리를 내며 두 다리로 안장을 밟고 발끝에 힘을 주어 몸을 날려 곧바로 쳐들어갔다. 10 여 명의 호위 장교들이 창을 세워 급히 찔렀으나 양과는 공중에서 진기를 끌어모아 공중제비를 넘으면서 10 여 자루의 긴 창위로 뛰어넘었다.

몽고의 대한은 형세가 좋지 않음을 보고 고삐를 잡아당겨 급히 말을 몰았다. 그가 걸터앉은 이 말은 바로 몽고에서도 만에 하나 있을까 말

까 하는 명마로 용머리가 새의 목같이 생겼으며 골격이 튼튼하고 우뢰 같은 울음을 울고 바람처럼 질주했다. 바로 비운추(飛雲騶)라고 불리는 말로 광정이 전에 타던 한혈보마(汗血寶馬)와 우열을 겨룰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순간 비운추는 안장 위에 대한을 태우고는 네 발굽으로 나는 듯이 땅을 박차며 넓은 벌판으로 질주했다. 양과는 경공을 전개해 그 뒤를 추적했다. 수백 기의 몽고군이 또한 양과의 뒤를 급히 쫓았다.

양군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성의 위아래에서 잠시 싸움할 마음을 잃고 이 장면을 주시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고함을 질렀다.

양과는 대한이 단기(單騎)로서 도주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비운추도 우습게 여길 말이 아니었다. 뒷발굽을 땅 위에 가볍게 박차자 즉시 수 장 밖으로 질주했다. 양과가 기(氣)를 끌어올려 급히 그를 추격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멀어져만 갈 뿐이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땅 위에서 한 자루의 긴 창을 집어 들고 힘을 다해 몽케의 등을 향해 던졌다.

양군의 병사들은 숨쉴 생각조차 잊고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긴 창이 유성처럼 날아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비운추가 맹렬하게 앞을 향해 내달리자 긴 창은 대한의 등 뒤에서 약 1척 되는 거리에서 힘이 다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송군의 병사들이 외쳤다.

[아아!]

몽고군은 다같이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이 때 광정, 황약사, 황용, 주백통, 일등대사 등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급해 할 뿐 어떻게 양과를 도와 줄 방법이 없었다. 몽고 병사들도 다만 함성을 질러 응원하며 대한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긴 했으나 비운추의 다리 힘을 쫓아갈 수가 없었다.

몽케는 말 등에서 고개를 돌려 양과가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을 보고는 안심하면서 말을 몰아 서쪽의 만인대를 향해 질주했다. 그 만인대에서는 함성을 지르며 몽케를 마중나왔다. 쌍방이 합치기만 하면 양과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대한에게 부상을 입힐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양과는 일이 막 성공되려는 판에 낭패를 당하자 돌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긴 창은 너무 무거워서 먼 거리에 못 미치니 돌맹이를 쓰면 어떨까?)

그는 곧 2개의 돌맹이를 집어들고 힘을 모아 내던졌다.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2개의 돌맹이는 비운추의 엉덩이에 명중했다. 말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길게 울부짖으며 앞다리를 들면서 몸을 치켜 세웠다.

몽케는 유사 이래로 가장 큰 몽고제국의 대한이라는 고귀한 신분이었으며 어릴 적부터 활과 말에는 매우 숙달되어 있었다. 그는 일찌기 조부인 징기스칸과 아버지 타뢰(拖雷)를 따라서 유럽과 서역으로 여러 차례 출정하여 공을 세웠으며 평생을 말등과 창칼 속에서 성장했던 것이다. 그는 이 급작스러운 사태에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으면서 조궁(雕弓)을 집어 들어 긴 화살을 장진한 다음 두 다리를 말의 배에 단단히 붙이며 몸을 되돌려 양과를 향해 발사했다.

양과는 고개를 숙여 피하면서 나는 듯이 앞으로 나아가며 왼손으로 이미 주먹만한 돌을 집어들고 획 하는 소리를 내면서 집어던졌다. 이 돌은 바로 몽케의 등에 명중했다. 몽케는 양과의 맹렬하고 강한 경력이 실린 이 돌에 얻어맞자 뼈가 절단되며 말 아래로 떨어져 즉시 사망했다.

몽고 병사들은 대한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사방팔방에서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광정은 큰소리로 명령을 내려 이 기회를 틈타 적을 몰살시키라고 했다. 성 안의 송군은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 적을 죽였다. 광정, 황약사, 황용등은 이십팔속대진을 펼쳐 이리저

리 적을 공격했다. 몽고군은 대오가 흩어져 서로 밟아 죽는 수만도 엄청났다. 길 위에 기(旗)와 창을 내던지고 대열을 무너뜨리면서 분분히 북으로 황급하게 도주했다.

곽정 등이 막 추격하는 순간 홀연 서쪽에서 한 무리의 적군이 대오를 갖추고 몰려오는 게 보였다. 그 한가운데는 4왕자 쿠빌라이의 깃발이 보였다. 그러나 쿠빌라이라 한들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하게 패해 달아나는 몽고병을 일시에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쿠빌라이가 비록 군을 엄하게 다스렸으나 밀물처럼 몰려오는 패잔병들과 만나자 그 부하들도 즉시 흩어져 버렸다. 쿠빌라이는 형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약간명의 호위병들만 거느리고 북쪽으로 후퇴했다. 곽정 등은 계속해서 30여 리를 추격했으나 몽고병들은 계속 후퇴했다. 여문덕이 전령관을 보내어 곽정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성을 지켜 달라고 하자 송군은 비로서 성으로 개설했다.

몽고와 송군이 교전한 이래 지금까지 몽고군이 이같이 큰 패배를 당한 적이 없는데다 일국의 국왕이 성 아래에서 죽자 몽고 병사들은 사기가 크게 위축되었다. 몽고의 대한 자리는 세습(世襲)이 아니라 황족 왕공(皇族王公)과 중신대장(重臣大將) 회의에서 응립했었다. 몽케가 사망하자 그의 7왕자인 아리불가(阿里不哥)가 북방의 몽고 본거지에서 대한으로 응립되었다. 쿠빌라이는 이 소식을 접하자 군대를 이끌고 북으로 돌아가 아리불가와 자리다툼을 하여 둘은 서로 정병(精兵)을 이끌고 싸우게 되었다. 마침내 쿠빌라이가 승리했으나 몽고군은 이미 크게 기세가 꺾여 남공(南攻)할 힘이 없어져서 양양성은 태평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13년 후 송나라 도종(度宗) 함순(咸淳) 9년에 이르러서야 몽고군은 비로소 다시 양양에 진공하게 된다.

곽정이 군대를 이끌고 양양성 근처에 이르자 안무사 여문덕은 이미 병사들을 이끌고 성 밖에 열을 지어서 그들을 환영했다. 백성들도 성 밖에 몰려들어 술상을 늘어 놓고 그들을 위로했다.

곽정은 양과의 손을 붙잡고 백성들이 바친 한잔의 미주(美酒)를 그

에게 건네 주었다.

[과아야. 네가 오늘 이같이 큰 공을 세워 천하에 명성을 날렸구나.
성 안의 군민 모두가 너의 은덕에 감사해 하고 있단다.]

양과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해 20 여 년 간 감추어 두고 시종 꺼내지
않았던 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곽백부, 제가 어릴 때 만약 아저씨께서 키워 주시고 훈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저에게 오늘과 같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두 사람은 은덕 따위의 말 대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3 배
(三杯)를 대작했다. 2 명의 당대 협객은 폐부(肺腑)를 드러내 보였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할 것인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입성하자 군인들은 우뢰와 같은 환호성을 질
렀다. 양과는 홀연히 생각했다.

(20 여 년 전 곽백부는 이렇게 내 손을 움켜잡고 나를 종남산 중앙궁
에 보내 사부로부터 무예를 배우게 하였지. 나에 대한 백부의 지성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구나. 그러나 나는 오만하게 말썽을
피웠으며 사부와 교문(敎門)을 배반하여 수많은 화를 불러 일으켰다!
만약 내가 끝내 나쁜 길로 빠져 들어 갔다면 어찌 오늘 백부와 손을
맞잡고 입성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등에 식은땀이 배었다.

양양성은 가가호호마다 갖가지 색깔의 비단천을 내걸어 기쁨으로 들
떠 있었다. 비록 가족 중의 누군가가 이번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집도
있었으나 승리로 인해 그 슬픔도 줄어들었다.

이 날 밤 안무사의 관아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주연이 베풀어져 여문
덕은 양과를 수석(首席)으로 청했으나 양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
람들은 한참 동안 서로 양보하다가 마침내 일등대사를 상석으로 앉히
고 그 다음에 주백통, 황약사. 곽정, 황용 순으로 앉은 다음 비로소
양과, 소용녀, 야율제가 앉았다. 여문덕은 마음속으로 기분이 별로 좋
지 않았다.

(황도주는 곽대협(郭大協)의 장인이니 그렇다고 하지만 별로 대수롭게 보이지도 않는 일등과 주노인을 어찌 상석에 앉힐 수가 있단 말인가?)

군웅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흥겨워 떠들썩했으나 여문덕은 한 마디도 끼어들 수가 없었다.

술잔이 몇 번 돌자 성 안의 관원, 대장, 사신(士紳)들이 분분히 곽정과 양과에게 다가와 축하주를 올리며 계속 그 공로와 뛰어난 무예를 칭찬했다.

곽정은 사문(師門)의 깊은 은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 때 만약 전진교 구도장의 의협심과 일곱 분 은사와 또한 홍노은사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 곽정이 어찌 이같은 미미한 공로나마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즐거워하며 술을 드는데 가노은사(柯老恩師)를 제외한 나머지 스승께서는 모두 이미 세상을 떠셨으니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일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곽정이 또 말했다.

[이곳에서의 큰 일은 이미 끝났으니 저는 내일 화산(華山)으로 출발해 은사님의 묘에 제사를 올릴까 합니다.]

양과가 말했다.

[백부님! 저도 마침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일등, 황약사, 주백통 등은 세상을 떠난 옛 친구를 다같이 회상하며 찬성을 표했다.

이 날 밤 군웅들은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흠뻑 취했다.

* 註: <<원사(元史)>> 본기(本紀) 제 3 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헌종(憲宗) 몽케는 예종(睿宗) 타뢰(拖雷)의 맏아들이다..... 9월 2일 병자(丙子)에 황제는 제병(諸兵)을 통솔해...정축(丁丑)에는

제독을 독려해 성 아래에서 싸웠는데...진서문(鎭西門)을 공격하고 동신문(東新門), 기승문(奇勝門)을 공격했으며, ...호위문(護圍門)을 공격하고 ...외성(外城)을 기어올라 무척 많은 송군을 죽였으나... 누차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었으며... 계해(癸亥)에 붕어(崩御)했다. 황제는 강직하고 굳셈으며, 침착하고 조용하며 말이 적었다..... 신하들을 매우 엄히 다스렸다.]

<<속통감(續通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몽고주(蒙古主)는 제군을 독려해 수차 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죽었다. 사천택(史天澤)과 여러 신하들이 상(喪)을 받들고 북으로 돌아가자 비로소 포위가 풀렸다.]

<<속통감고이(續通鑑考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원 헌종은 너무 오래 병력을 주둔시키다가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 <<중경지(重慶志)>>에 기록 되기를 그가 나는 돌에 얻어맞았다고 했으나....오늘날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헌종은 사천(四川), 중경(重慶)을 공격하다 승리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날아가는 돌에 얻어맞았는지의 여부는 사서(史書)마다 기록이 틀리다. 다만 몽고군과 송군이 가장 오랫동안 격력하게 싸웠고 그 전황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 바로 양양으로 몽고군이 전후로 수십 년간이나 진공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었다. 소설의 흥미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 책에서는 헌종이 양양성 공격에 실패하고 돌에 맞아 죽어 성의 포위가 풀어졌다고 꾸몄다.

새로운 천하오절(天下五絶)

다음날 아침 일찍, 광정 일행은 양양성 군민들이 대거 환송할까봐 일찌감치 북문을 몰래 빠져나와 화산을 향해 떠났다. 주백통, 육무쌍, 무씨 형제, 사수어은 등은 상세가 아직 치유되지 않아 모두들 말을 타고 천천히 갔다. 아무 일이 없어도 하루에 몇십 리를 가고서는 쉬어야 했다.

이윽고 화산에 당도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길에서 서행하며 상처를 돌보았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거의 다 치료되어 있었다. 일행들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양과가 홍칠공과 구양봉이 묻힌 곳을 가리켜 주었다. 황용은 이미 산 밑에서 고기와 음식들을 준비해 왔다. 그들은 홍칠공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올렸다. 군웅들이 일일이 절을 했다.

구양봉의 분묘는 홍칠공의 묘 옆에 있었다. 광정은 구양봉에 대해 철천지 원한이 있는지라 비록 수십 년이 지났건만 그가 은사인 주충, 한보구 등 5 협을 죽였다는 것이 생각나자 여전히 치가 떨렸다. 그러나 양과는 옛정을 생각해 소용녀와 둘이서 묘 앞에서 절을 했다. 주백통이 다가오더니 절을 한 번 하고는 말했다.

[노독물야! 노독물! 당신은 생전에 악업만을 일삼았는데 죽어서 홍칠공과 나란히 묻히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겨야 한다. 오늘 모두들 홍칠공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당신에게는 두 젊은이만 이 절을 하는구나. 당신이 지하에서 안다면 살아 생전에 너무 악독하게 행동했다고 후회하고 있겠지?]

이 제문을 듣고는 모두들 우스꽝스럽다고 느꼈다.

모두들 젓가락을 집어 들고 묘 앞에서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돌연 산 뒤에서 병기가 서로 부딪치며 고함치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누군가가 격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주백통이 먼저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나머지 사람들도 뒤따라갔다. 산허리를 두 굽이 돌아 평지에 3,40 명의 사람들이 손에 병기를 들고 모여 있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에 바빠 주백통, 광정 등 사람들이 온 것

을 보고도 산에 놀러 온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상대도 안 했다. 그 중 당당하게 생긴 사내가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잠시 싸움을 멈추시오. 이렇게 한꺼번에 어지럽게 싸우면 끝이 없을테니 이 <무공 천하 제일>이란 칭호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각 파의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모였는데 병기와 권각에만 의지해서 어떻게 자웅을 겨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승복하는 뛰어난 사람을 <무공 천하 제일>로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긴 수염의 도인이 검을 휘두르며 말했다.

[그거 좋지. 무림에서는 <화산논검>이란 것이 전해져 오는데 오늘 우리도 한 번 논해 보세. 당세 영웅들 중에서 누가 대체 우두머리일까?]

나머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더니 몇 명이 뛰어나와 크게 소리쳤다.

[누구든 나와 보라!]

주백통, 황약사, 일등 등이 이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지만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제 1차 화산논검은 광정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 그 때는 동사, 서독, 남제, 북개, 중신통 다섯 사람이 <<구음진경>> 1부를 놓고 화산 절정에서 비무를 벌여 실력이 높은 자가 그것을 취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 중신통 왕중양이 <무공 천하 제일>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다. 25년 후 왕중양이 죽고 황약사 등이 제 2차 화산논검을 벌여 동사, 서독, 남제, 북개 네 사람 외에 주백통, 구천인, 광정 등 세 사람이 참가했었다. 모두들 각기 자신의 장점이 있어 천하제일이란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단지 무공으로만 논한다면 거의 반 미쳐 버린 구양봉이 가장 강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자 뜻밖에도 또 무림의 고수들이 모여 제 3차 화산논검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일은 황약사 등을 놀라게 만들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눈 앞

의 이 수십 명이 전혀 안면이 없다는 것이었다. 설마하니 정말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치고 간다>는 말인가? 설마하니 자신들이 모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인가?

보아하니 그들은 6명이 세 패로 나뉘어 각기 병기를 들고 겨루기 시작했다. 수 초가 지나자 황약사, 주백통 등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일등대사처럼 근엄자상한 인물조차도 실소를 금치 못했다. 또 얼마 지나가자 황약사, 주백통, 양과, 황용 등은 참지 못하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원래 이들 6명의 무공은 평범하기 짝이 없어 무씨 형제나 곽가의 자매와 겨루기에도 훨씬 모자라는 것이었다. 어디서 <화산논검>이란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호의 시정배에 불과 한 자들이 품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이 6명은 주백통 등이 킬킬대며 웃는 소리를 듣자 순간 싸움을 멈추고 모두들 다가와 근엄하게 호통쳤다.

[죽고 싶어 환장을 한 놈들이구나. 어른들께서 여기서 무공천하제일의 칭호를 얻기 위해 비무논검을 하는데 네놈들이 감히 히히덕거리며 웃어? 어서 썩 물러 난다면 너희들 목숨만은 살려 주마!]

양과가 하하하, 하고 길게 웃음을 날렸다. 주위의 계곡이 찌렁찌렁 울리며 순식간에 바람이 일어 구름이 흩날리는 듯했다. 그들은 금방 얼굴색이 확 변하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며 병기 등을 모두 땅에 떨어뜨렸다. 양과가 고함쳤다.

[모두 엎드려 용서를 빌어라!]

그들 수십 명은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돌연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산을 내려갔다. 엎어지고 고꾸라지며 심지어 병기조차 챙기지 않았다.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 버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영고, 곽부 등은 허리를 부여잡고 웃느라고 말을 못했다. 황약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상을 기만하고 이름을 흠치는 무리들은 어디든 있기 마련이지.

그러나 이 화산 마루턱에서 이런 무리들을 만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 걸...]

주백통이 갑자기 말했다.

[옛날 천하 오절(五絶) 중 서독, 북개 그리고 중신통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오늘 당세의 고수로는 누구를 오절로 꼽을 수 있을까?]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일등대사와 저의 아버지의 무공은 더더욱 깊어 졌으며 그 때도 오절이었으니 여전히 의심할 바 없지요. 광정은 북개의 전진을 이어받았으니 낄 수가 있겠지요. 과아는 비록 젊긴 하지만 무공이 탁월해 젊은 영재 중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고 또 그는 구양봉의 양아들이지요. 동과 남은 옛 사람이며 서와 북은 마땅히 양과와 광정이 계승해야지요.]

주백통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냐, 아냐!]

황용이 말했다.

[뭐가 아네요?]

주백통이 말했다.

[구양봉은 서독인데 양과 이 애의 기법과 마음에는 결코 독기가 없어. 그를 소독물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좀 억울한 데가 있지.]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광정도 거지가 아니며 게다가 일등대사도 지금은 황야가 아니니 우리 명칭을 고쳐야겠어요. 아버지의 <동사>는 고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일등대사는 황제가 아니고 화상이니 <남승(南僧)>이라고 고치고 과아는 <광(狂)>자를 붙이는 게 어때요?]

황약사가 먼저 좋다고 말했다.

[동사서광(東邪西狂), 우리 둘이 딱 어울리는데....]

양과가 말했다.

[소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어찌 감히 선배님들과 어깨를 같이 하겠습니까?]

황약사가 말했다.

[하하, 양형제! 그건 그렇지 않네. 자네에게 <광>자가 붙으면 한바탕 소란을 피워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자네의 오늘날의 명성이나 무공의 강대함이 노완동을 능가하지 못한단 말인가?]

황약사는 황용이 일부러 주백통을 거론하지 않아 그를 안달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이름을 들먹였던 것이다. 양과도 그들 부녀의 마음을 짐작하고 소용녀와 마주보며 웃었다.

[이 <광>자는 과연 그럴 듯해!]

주백통이 말했다.

[남제, 서독은 모두 명칭을 바꾸었는데 북개는 뭐라고 부르지?]

주자류가 말했다.

[오늘날 천하의 호걸들이 곽형을 부를때 모두들 <곽대협>이라고 부르지요. 그는 수십 년간 양양성을 수호했으며 백성을 보호해 주었지요. 난 그를 <북협(北俠)>이라고 부르고 싶군요. 모두들 심복할 거예요.]

일등대사, 주백통 등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좋다고 했다. 황약사가 말했다.

[동사, 서광, 남승, 북협, 네 사람은 정해졌고 중앙에는 누구를 앉히지?]

하고 말하면서 주백통을 한 번 쳐다보더니 계속 말했다.

[양부인, 당신은 고묘파의 유일한 후계자이지. 임조영 여협의 무공은 탁월하며 옥녀소심검법은 신의 경지에 들어섰었어요. 당시 임조영 여협이 화산논검에 참가했다면 오절의 이름이 분명 바뀌었을거야. 또한 중앙진인이 <무공 천하 제일>이란 칭호를 반드시 얻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 ...양과의 무예는 부인에게서 전수받은 것으로 제자의 이름이 오절에 들었는데 사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양부인이 중앙의 자리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소용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는 천부당만부당 합니다.]

황약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황용은? 그녀의 무공은 극히 강하지는 않지만 지모가 백출하여 오절의 하나에 끼여도 마땅하지.]

주백통이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무슨 황노사, 광대협은 실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황용 이 친구는 영특하기 짝이 없어 이 노완동은 그녀에게 꿈쩍달짝 못하지. 그녀를 오절의 하나에 끼게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모두들 듣고는 깜짝 놀랐다. 무공의 강함으로 말하자면 황약사, 일등 등은 모두 주백통에게서 한 수 처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를 놀려 주려고 했던 것인데 뜻밖에도 주백통이 천진난만하게 아무런 욕심없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는 비록 무예를 좋아했지만 이름을 떨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자기가 오절 안에 합당한지 어떤지 조차 생각해 보지 않았다. 황약사가 웃으며 말했다.

[노완동,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나 황노사는 명성에 대해 담담하며, 일등대사는 명예를 허상으로 여긴다오. 그런데 당신은 더더욱 마음을 텅 비워 놓아 명예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 우리들보다 한 수 위시군요. 동사, 서광, 남승, 북협, 중완동. 오절 가운데 당신이 중앙을 차지하시오!]

모두들 오절의 바뀐 이름을 듣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다. 오절의 자리가 정해지자 모두들 즐거워하며 흩어져 주위의 경관을 감상했다.

양과가 옥녀봉을 가리키며 소용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옥녀검법을 배웠으니 저 옥녀봉에 놀러가야겠지요.]

소용녀가 <그래요!> 하고 대답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봉우리 정상에 올라가 보니 조그마한 사당이 있었고 옆에 석마(石馬) 한 필이 조각돼 있었다. 그 사당은 옥녀사당

으로 사당 중앙의 큰 바위에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물이 고여 푸르디 푸르렀다. 양과가 전에 화산에 왔을 때는 비록 옥녀봉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홍철공으로부터 화산의 명승지에 대해 들었으므로 소용녀에게 말해 줄 수가 있었다.

[저건 옥녀의 세면대로 사용되었는데 푸른 물이 일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더군요.]

소용녀가 말했다.

[안에 들어가서 옥녀에게 절을 해요.]

안에 들어가 보니 옥녀의 신상이 보였다. 어여쁜 용모, 가냘픈 몸매 등이 고묘의 조사 임조영의 초상화와 비슷해 보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소용녀가 말했다.

[설마 이 여신이 바로 우리 조사 할머니일까?]

[조사 할머니는 천하에 의로운 일만 행하시어 사람에게 도움을 주셨지요. 누군가 그 분의 은덕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다 사당을 지어 기리는 지도 모르는 일어요.]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사당 옆에 석마를 놓았을까? 보아하니 그건 조사 할머니가 타고 다니던 말을 기념해 놓은 것 같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옥녀상 앞에 절을 올리고 서로 마음이 통해 같이 기도를 올렸다.

[우리 두 사람이 영원토록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시길!]

그 때 청풍(淸風)은 나뭇잎을 흔들고 둥근 달은 나뭇가지 위에 걸려 있었다.

<< 영웅문 제 2부 英雄의 별 (신조협려) 끝 >>